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총괄보고서

- ▶ 책임연구원 : 안선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김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박현준(University of Pennsylvania)
- ▶ 연구보조원 : 김태령(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보조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1-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1-31-02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31-03	취약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안선영 부연구위원 (총괄책임자)	김희진 부연구위원 박현준교수(펜실베이니아 대학교)
협력 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미혜 연구위원	정해숙 선임연구위원 마경희 연구위원 김여진 연구원(한국사회과학자료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은기수교수	권영인 박사(연세대학교) 박건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수남 박사(고려대학교)

발 간 사 ■ ■ ■

전 세계적으로 성인기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과거에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던 방식으로 성인기 이행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또한 성인기 이행을 수행하는 시기와 방식 전반에 확연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그 원인의 분석과 향후 전망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청년실업문제의 심화나 출산율 저하와 같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걸림돌로 여겨지는 현상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성인기 이행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인기 이행 방식은 어느 한 시점에서 한꺼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축적된 경험과 준비상황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성인기 이행 양상은 사회적 상황과 제도적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범위는 광범위 할 수밖에 없다. 아동정책, 청소년정책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고용정책, 주거정책, 가족정책 등이 성인기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성인기 이행에 대한 다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협동연구 방식으로 수행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1차년도 내용은 성인기 이행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인 요인 분석과 우리나라 청년들이 성인기 이행을 하는 전반적 양상을 파악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청년세대와 부모세대가 성인기 이행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세대 간 가치관을 비교하였다.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고찰을 모두 취함으로써 우리나라 청년들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모습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영역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방안이 현장에서 적용되어 청년들이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가 수행된 2010년과 2011년에 협동연구의 파트너로 참여한 한국노동연구원, 호주멜버른대학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들에게 감사 드린다.

2011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연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에 걸쳐 수행된 협동연구로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양상을 고찰하고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2010년에 수행된 1차년도 연구에서는 취업, 부모로부터의 분가, 결혼과 출산을 통한 가족형성 여부를 성인기 이행 기준으로 가정하고, 센서스데이터와 패널데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국내외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과정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았다.

2011년에 수행한 2차년도 연구에서는 Arnett이 제안한 발현성인기(emerging adulthood)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자신들의 현재시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성인됨의 기준”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전통적으로 성인기 과업이라 여겨져 왔던 학교교육 종료, 취업, 결혼, 첫아이 출산, 부모로부터의 독립 등에 대한 연령규범을 조사하였다. 부모세대를 대상으로는 “성인됨의 기준”과 성인기 과업 관련 연령규범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세대 간 차이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발현성인기로 정의된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세대 2,000명과 청년세대의 부모 연령에 해당하는 부모세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청년세대는 현재 자신의 시기를, 자신에 대해 집중(self-focused)하고 삶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기로 바라보는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청년들이 현 시기를 인식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경제수준이 높은 청년들은 현재의 시기를 자유를 누리는 시기라거나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비해, 경제수준이 낮은 청년들은 불안정한 시기 또는 걱정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인됨의 기준에 대해서는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이나 음주가 허용되는 것(허용행동)과 과음을 하지 않는 것(규범 준수), 부모로부터의 분가(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것) 등은 성인의 기준으로서 중요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세대 간 두드러진 격차를 보인 항목은 ‘최소한 한명의 자녀를 두는 것’으로, 자녀 출산을 성인의 기준으로 여기는 정도가 부모세대에 비해 청년세대에서 확연히 낮게 나타났다.

동일한 조사도구를 활용한 외국의 연구와 비교한 결과 우리사회에서는 성인의 기준으로서

가족형성 및 가족부양, 자녀양육 능력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정도가 훨씬 높았고, 규범준수와 감정조절,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기 과업에 대한 연령규범에 대해서는 각 성인기 과업과 성별에 관해 연령규범이 강하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세대는 부모세대보다 각 성인기과업에 적합한 연령대를 더 높게 보고 있고, 여자청년들이 남자청년들보다 성인기 과업을 수행하기에 바람직한 시기를 더 늦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기 과업 관련 연령규범에 대한 세대 간, 성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성인기 이행과 발현성인기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본격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Arnett의 설문도구가 한국 사회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수정하기 위해 발현성인기 특성과 성인의 기준에 관한 설문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인의 기준에 대한 설문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청년세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6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부모세대에 대해서는 8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두 집단 간에 공통으로 도출된 요인은 첫째,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 능력, 둘째, 규범준수, 셋째, 허용행동, 넷째, 연령이행이다.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 능력’에 포함된 문항은 두 집단 간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규범준수’, ‘허용되는 행동’, ‘연령이행’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은 청년조사와 부모세대조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협동연구로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1년의 2차년도 연구에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에서는 성인기 이행의 성별 간 차이를 고찰하고, 성별화된 성인기 이행과정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젠더 불균등한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한국사회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이 양성평등적이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를 경험해 온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의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총 3개 과제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을 지원 하는 데 필요한 교육, 고용, 주거, 가족, 복지 영역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성인기 이행, 성인의 기준, 발현성인기, 성인기 연령규범,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성인기 이행 지원 정책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2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연구로서, 2010년에 수행된 1차년도 연구에서는 취업, 부모로부터 분가, 결혼과 출산을 통한 가족형성 여부를 성인기 이행 기준으로 가정하고, 센서스테이터와 패널데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국내외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보았다.
- 2011년에 수행한 2차년도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청년들이 “성인됨”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기존 관점에 따르면 현재 청년들은 성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를 연기하면서 의존적인 존재로 생애전략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성인됨의 유형, 성인됨의 재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한국사회의 청년들이 성인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본 연구의 세부과제의 하나인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에서는 성인기 이행에 있어 성별 간 차이를 고찰하고, 성별화된 성인기 이행과정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젠더 불균등한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한국사회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이 양성평등적이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 본 연구의 두 번째 세부과제인 ‘취약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구조적 소외를 경험해 온 취약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 경험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이들의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한국사회의 성인기 이행에 대한 다면적 이해를 통해 한국사회 청년세대가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하기 위해 어떠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제언을 하는데 있다.

2. 연구방법

- 성인기 이행에 대한 인식연구에서는 발현성인기(emerging adulthood)로 정의된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세대 2,000명과 이들의 부모 연령에 해당하는 부모세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에서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청년세대 33명과 부모세대 성인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의 젠더차이를 고찰하였다.
-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에서는 비판론적 관점의 틀에 기초하여 저소득층 청년세대 25명과 부모세대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취약위기계층 청년세대 및 부모세대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주관적 삶의 의미와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살펴보았다.

3. 주요결과¹⁾

1) 현재 시기에 대한 인식

- 청년들은 현재 자신이 처한 시기를 많은 가능성이 있는 시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기,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시기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적 배경에 따라 청년들이 현재 시기를 인식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청년들은 현재 자신이 처한 시기를 자유를 누리는 시기라거나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라고 여기는 등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년들은 불안정한 시기 또는 걱정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1) 세부과제인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와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의 연구결과는 각 보고서의 요약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2) 성인의 기준

-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고, 부양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성인의 기준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흡연이나 음주가 허용되는 것(허용행동), 과음을 하지 않는 것(규범준수), 부모로부터의 분가(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것)는 성인의 기준으로 중요도가 매우 낮았다. 세대 간 인식 비교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최소한 한명의 자녀를 두는 것’으로, 부모세대에 비해 청년세대는 자녀 출산을 성인의 기준으로 중요시 하는 정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동일한 조사도구를 활용한 외국의 조사결과와 비교한 결과, 한국사회에서는 성인의 기준으로 가족형성 및 가족부양, 자녀양육 능력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의 행동(과음이나 피임 등)과 정서(감정조절),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물리적 독립에 대해서는 중요시 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3) 성인으로 인식하는 상황과 성인기 과업 수행시기

- 조사대상 청년들은 직장에 있을 때 자신을 성인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자녀와 있을 때와 지역사회일원으로 참여할 때 순으로 자신을 성인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성인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전통적으로 주요 성인기 과업으로 간주되어 온 학교교육 종료, 취업, 결혼, 첫아이 출산,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하기에 바람직한 시기를 조사한 결과, 각 성인기 과업에 대한 연령규범이 우리사회에서 뚜렷하게 존재하며, 이러한 연령규범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남자의 학교교육 종료시기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성인 모두 만 25세~29세를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더 이른 연령인 만19세~24세에 대한 응답이 많아,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학교교육 종료시기를 다르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첫 취업 시기에 대해서는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 만25세~29세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첫 취업 시기에 대한 연령 규범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결혼과 첫 아이를 가져야 할 시기에 대해서는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 남자의 결혼과 첫

아이를 갖는 시기를 대체로 만30~34세로 보고 있는 반면, 여자의 결혼과 첫아이를 갖는 시기는 만25세~29세로 보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 남자와 여자가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독립하는 바람직한 시기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 남자는 만30~34세, 여자는 만25~29세로 보는 응답이 많았다.
- 조사대상 여자청년보다 남자청년들이 여성들의 결혼과 첫 출산에 대해 더 이른 연령대를 바람직하게 보는 반면, 여자청년들은 여자들의 결혼과 출산,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분가·독립에 대해 남자청년이나 부모세대보다 더 늦은 연령대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 청년들은 부모세대보다 각 성인기과업을 위한 시기를 대체로 늦게 보고 있었고, 여자청년들은 남자청년들보다도 더 늦은 시기를 선택한 경우가 있어 성인기 과업 시기에 대한 세대 간, 성별 차이가 확연했다. 특히 경제수준이 낮은 청년들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청년들에게서 성인기 과업을 좀 더 늦은 시기에 수행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성인기 이행과 관련된 과업들

- 청년들보다 부모세대 성인들이 그리고 남자청년보다 여자청년들이, 또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우리사회에서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 졸업' 수준의 교육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녀 교육의 기대수준과 관련하여, 낮은 경제수준과 낮은 부모학력 및 직업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수준에 대한 기대도 낮게 나타났다.
-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는 실질적인 취업과 진로 준비, 낮은 학업성적, 경제적인 어려움 순으로 나타났다.
- 청년들 중 약 38%는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있었는데, 그중 과반수가 100만원 미만이었으며, 75~80%의 청년들이 부모님께 생활비와 교육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
-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 자녀의 성인기 이행에 있어 대학교육비용, 결혼지원 및 주택구입과 같은 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바람직하게 보는 경향이 강했는데, 특히 성인의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부모의 경제적 도움에 대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이유로서 경제수준이 낮은 청년은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은 청년은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청년들이 구직 시 겪는 어려움으로는 경험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학력과 기술, 자격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여자청년의 경우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구직 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기 시절 교육과 진로, 생활에서의 부모의 개입정도를 보면, 특히 학교성적에 대한 개입 정도가 높았고, 이러한 교육적 개입에 있어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이 전문/경영/관리직일 경우 부모의 교육적 개입수준은 더 높았다.
- 고등학교 재학시절의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에 따라 자아존중감 수준이 차이가 있었으며, 또 남자보다는 여자청년이 그리고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자아통제감이 낮게 나타났다.

5) 발현성인기와 성인기 기준 설문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 발현성인기 설문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6개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첫째, 자신에 대한 집중, 둘째, 불안정성, 셋째, 자유와 가능성, 넷째, 독립, 다섯째, 타인에 대한 책임, 여섯째, 불명확한(어 중간한) 정체감이다.
- 성인의 기준에 대한 설문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청년세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6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부모세대에 대해서는 8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두 집단 간에 공통으로 도출된 요인은 첫째,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 능력, 둘째, 규범준수, 셋째, 허용행동, 넷째, 연령이행이다.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 능력’에 포함된 문항은 두 집단 간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규범준수’, ‘허용되는 행동’, ‘연령이행’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은 청년조사와 부모세대조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4. 정책제언

- 건강한 성인기 이행지원을 위한 사회문화 구축
- 청소년기 사회 참여 활성화
- 청소년 진로교육의 강화 및 범위 확대
- 취약위기계층 가정 지원 정책
- 취약위기계층 교육지원 정책

-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정책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현실화 및 선정 기준 개선
- 성별화된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의 제도화
- 성 평등한 가족관련 태도 형성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 성인기 이행 중 부모에 대한 경제적 예측 탈피 지원
- 대학등록금 완화 정책
-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기회 확대 및 비과세소득화
-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및 현실화
- 청년주거 정책
- 청년고용 정책
- 취업에 대한 대학교육의 책무성 강화 정책

목 차

제 1 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8
1) 성인기 이행에 대한 인식 조사	8
2) 성인기 이행 양상에 관한 성별 차이(세부과제)	10
3)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 연구(세부과제)	11
3. 연구방법	12
1) 설문조사	12
2) 심층면접조사	15
3) 전문가 자문	16
4. 용어 정의: 청년기	16
5.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7
 제 2 장 이론적 배경	 19
1. 발현성인기	21
1) 발현성인기 발생의 배경	21
2) 발현성인기의 특징	23
2. 성인의 조건	25
3. 성인기 이행에 관한 규범	31
4. 소결	36
 제 3 장 연구방법	 39
1. 성인기 이행에 대한 인식 연구	41
1) 설문문항과 문항작성 근거 및 조사영역 선정	41
2) 예비조사	41
3) 본조사	46

2.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52
1) 연구방향	52
2) 연구 대상자 선정	52
3.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53
1) 연구방향	53
2) 연구 대상자 선정	53
제 4 장 연구결과	55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57
2. 발현성인기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61
3. 성인의 기준에 대한 인식 및 세대 간 비교	66
1) 성인의 기준 중요도 조사결과	66
2) 성인의 기준으로 중요도가 낮은 항목	70
3) 성인의 기준에 대한 세대별 차이	71
4) 성인의 기준에 대한 외국조사결과 비교	74
4. 성인으로 인식하는 상황과 성인기 과업 수행시기	78
1) 자신을 성인으로 인식하는 정도	78
2) 성인기 과업 수행시기에 대한 인식	83
5. 성인기 이행과 관련된 과업들	100
1) 성인기 이행과 교육의 중요성	100
2) 성인기 이행과 경제적 자립	116
3) 성인기 이행과 부모의 개입, 개인의 특성	128
4) 청년들의 결혼, 자녀출산, 분가의향	143
6. 발현성인기와 성인의 기준 요인분석	148
1) 발현성인기 특성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149
2) 성인의 기준에 대한 요인분석	151

3) 요인분석 결과에 따른 배경변인별 분석	156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3
1. 요약 및 결론	165
1) 성인기 이행에 대한 인식 조사	165
2)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세부과제)	165
3)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세부과제)	170
2. 정책제언	178
1) 건강한 성인기 이행 지원을 위한 사회문화 구축	178
2) 청소년기 사회 참여 활성화 및 진로지도 강화	181
3) 취약위기청년 지원 정책	183
4) 성별화된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187
5) 성인기 이행 중 부모에 대한 경제적 예측 탈피 지원	189
6) 청년주거 정책	191
7) 청년고용 정책	192
8) 취업에 대한 대학교육의 책무성 강화	194
3. 성인기 이행 관련 향후 연구 과제	194
참고문헌	197
부록	205
1. 청년세대용 설문지	207
2. 부모세대용 설문지	222

표 목 차

〈표 Ⅰ-1〉 청년세대 설문조사 영역 및 변인, 세부내용	13
〈표 Ⅰ-2〉 부모세대 설문조사 영역 및 세부내용	14
〈표 Ⅱ-1〉 결혼에 관한 문항: 잘못된 결혼이라도 결혼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33
〈표 Ⅱ-2〉 가족가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	34
〈표 Ⅱ-3〉 가족가치: 결혼할 의사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34
〈표 Ⅲ-1〉 청년 및 부모세대 대상 설문조사 문항 및 출처	42
〈표 Ⅲ-2〉 조사지역 및 표본 수	45
〈표 Ⅲ-3〉 청년조사 설계 및 방법	47
〈표 Ⅲ-4〉 부모세대조사 설계 및 방법	47
〈표 Ⅲ-5〉 실사지점 추출 및 응답자 선정	48
〈표 Ⅳ-1〉 청년조사대상자의 응답자 특성	58
〈표 Ⅳ-2〉 부모세대 조사대상자의 응답자 특성	60
〈표 Ⅳ-3〉 현재 시기에 대한 인식(발현성인기 특징에 대한 성별·연령별 차이)	62
〈표 Ⅳ-4〉 현재 시기에 대한 인식(발현성인기 특징의 경제수준별 차이)	65
〈표 Ⅳ-5〉 성인의 기준 중요도에 대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응답 비교	68
〈표 Ⅳ-6〉 성인의 기준 중요도 순위(높은 순위 목록): 청년-부모세대 비교	71
〈표 Ⅳ-7〉 낮은 중요도를 보인 성인의 기준 항목들: 청년-부모세대 비교	73
〈표 Ⅳ-8〉 세대간 중요도 차이가 크게 나타난 성인의 기준	74
〈표 Ⅳ-9〉 성인의 기준 중요도에 대한 중국 및 루마니아 연구결과	75
〈표 Ⅳ-10〉 장소에 따라 성인이라고 느끼는 정도	79
〈표 Ⅳ-11〉 활동·상황에 따라 성인이라고 느끼는 정도	80
〈표 Ⅳ-12〉 함께 있는 대상에 따라 성인이라고 느끼는 정도	82
〈표 Ⅳ-13〉 평소에 성인이라고 느끼는 정도	83
〈표 Ⅳ-14〉 성별 성인기 과업 수행시기 연령: 청년-부모세대 비교	85
〈표 Ⅳ-15〉 청년세대 조사: 학교 교육을 끝내야 할 시기	88

〈표 IV-16〉 청년세대 조사: 첫 취업을 해야 할 시기	89
〈표 IV-17〉 청년세대 조사: 결혼해야 할 시기	90
〈표 IV-18〉 청년세대 조사: 첫 아이를 가져야 할 시기	91
〈표 IV-19〉 청년세대 조사: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독립 할 시기	93
〈표 IV-20〉 부모세대 조사: 학교 교육을 끝내야 할 시기	95
〈표 IV-21〉 부모세대 조사: 첫 취업을 해야 할 시기	96
〈표 IV-22〉 부모세대 조사: 결혼해야 할 시기	97
〈표 IV-23〉 부모세대 조사: 첫 아이를 가져야 할 시기	98
〈표 IV-24〉 부모세대 조사: 부모로부터 분가·독립해야 할 시기	99
〈표 IV-25〉 우리사회에서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교육수준 중요도:	
청년-부모세대 비교	101
〈표 IV-26〉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수준: 청년-부모세대 비교 ..	103
〈표 IV-27〉 부모가 기대하는 청년자녀의 교육수준	105
〈표 IV-28〉 청년 본인이 기대하는 교육수준	107
〈표 IV-29〉 청년 조사대상의 교육수준	108
〈표 IV-30〉 고등학교 시절 학업성적	110
〈표 IV-31〉 학업중단 및 상급학교 미 진학, 대학중퇴 이유	112
〈표 IV-32〉 학업중단(휴학포함) 경험 여부	113
〈표 IV-33〉 학업중단과 휴학 구분	114
〈표 IV-34〉 대학재학 중 휴학횟수 및 기간	114
〈표 IV-35〉 대학재학 중 휴학의 주된 이유	115
〈표 IV-36〉 휴학사유(첫 번째)에 대한 배경변인별 비교	116
〈표 IV-37〉 경제적 자립 여부	117
〈표 IV-38〉 생활비 및 교육비용 재원	117
〈표 IV-39〉 경제적 지원서비스 수혜 여부	118

〈표 IV-40〉 경제적 자립에 대한 청년-부모세대 인식 비교	119
〈표 IV-41〉 청년세대: 경제적 자립에 대한 인식	120
〈표 IV-42〉 부모세대: 경제적 자립에 대한 인식	121
〈표 IV-43〉 청년들의 현재 상황	123
〈표 IV-44〉 청년들의 현재 취업 형태	123
〈표 IV-45〉 학교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124
〈표 IV-46〉 학교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한 주된 이유	124
〈표 IV-47〉 아르바이트 경험이 미래의 직업에 도움 될지 여부	125
〈표 IV-48〉 경험했던 취업준비내용(중복응답)	126
〈표 IV-49〉 구직과 취업경험	126
〈표 IV-50〉 구직 시 겪는 어려움	128
〈표 IV-51〉 부모의 교육적 관여정도 (성별, 학업성적, 교육수준,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	130
〈표 IV-52〉 부모의 교육적 관여 정도 (부모의 학력 및 직업에 따른 차이)	132
〈표 IV-53〉 진로·진학에 있어서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 (성별, 학업성적, 교육·경제수준별 차이)	134
〈표 IV-54〉 진로·진학에 있어서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 (부모의 학력 및 직업별 차이)	135
〈표 IV-55〉 자녀의 생활에 대한 부모의 점검·개입 (성별, 학업성적, 교육 및 경제수준별 차이)	137
〈표 IV-56〉 자녀의 생활에 대한 부모의 점검·개입 (부모의 학력 및 직업별 차이)	138
〈표 IV-57〉 청년조사대상의 자아존중감	140
〈표 IV-58〉 청년조사대상의 자아통제감	143
〈표 IV-59〉 청년들의 이성교제 경험	144

〈표 IV-60〉 청년들의 결혼 의향	145
〈표 IV-61〉 청년들의 희망 결혼연령	145
〈표 IV-62〉 부모와의 거주 여부 및 분가의향	146
〈표 IV-63〉 부모로 부터 희망분가연령	147
〈표 IV-64〉 현재 거주 형태	147
〈표 IV-65〉 KMO & Bartlett 구형성 검정: 성인의 기준-청년세대	149
〈표 IV-66〉 설명된 총분산: 발현성인기 특성	149
〈표 IV-67〉 발현성인기 특성 요인분석	151
〈표 IV-68〉 KMO & Bartlett 구형성 검정: 성인의 기준-청년세대	152
〈표 IV-69〉 설명된 총분산: 성인의 기준-청년세대	152
〈표 IV-70〉 성인의 기준 요인분석: 청년세대 인식	153
〈표 IV-71〉 KMO & Bartlett 구형성 검정: 성인의 기준-부모세대	154
〈표 IV-72〉 설명된 총분산: 성인의 기준-부모세대	154
〈표 IV-73〉 성인의 기준 요인분석: 부모세대 인식	155
〈표 IV-74〉 발현성인기의 6개 요인에 대한 배경변인별 분석결과	158
〈표 IV-75〉 청년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인의 기준	160
〈표 IV-76〉 부모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인의 기준	162

그림 목 차

【그림 IV-1】 현재 시기에 대한 인식	61
【그림 IV-2】 성인의 기준에 대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의 중요도 차이	67
【그림 IV-3】 성인이라고 느끼는 정도	79
【그림 IV-4】 청년세대와 부모세대가 인식하는 성인기 과업 수행 시기	84
【그림 IV-5】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교육수준의 중요성 인식 (청년-부모세대 비교)	101
【그림 IV-6】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수준(청년-부모세대 비교) ..	102
【그림 IV-7】 부모가 기대하는 청년자녀의 교육수준(청년-부모세대 비교)	104
【그림 IV-8】 청년 본인이 기대하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교육수준에 대한 배경변인별 비교	106
【그림 IV-9】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	111
【그림 IV-10】 대학 중퇴 이유	112
【그림 IV-11】 학업중단(휴학포함) 경험 여부	113
【그림 IV-12】 경제적 자립에 대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인식차이	118
【그림 IV-13】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경제수준별 비교)	119
【그림 IV-14】 경제적 자립에 대한 부모세대의 인식-경제수준별 비교	121
【그림 IV-15】 청년들의 현재상황과 현재 취업형태	122
【그림 IV-16】 아르바이트 경험이 미래의 직업에 도움 될지 여부	125
【그림 IV-17】 구직 시 어려움을 겪는 이유	127
【그림 IV-18】 부모의 교육적 관여 정도	129
【그림 IV-19】 경제수준별 부모의 교육적 관여 정도	131
【그림 IV-20】 진로 · 진학준비에서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 (성별, 경제수준별 비교)	133
【그림 IV-21】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점검 · 개입(성별, 경제수준별 비교) ...	136

【그림 IV-22】 세부변인별 자아존중감 정도	139
【그림 IV-23】 세부변인별 자아통제감 정도	142
【그림 IV-24】 청년들의 이성교제 경험과 결혼 의향	144
【그림 IV-25】 청년들의 분가 의향	146
【그림 IV-26】 발현성인기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요인별 평균값 기준)	157
【그림 IV-27】 청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인의 기준’ 요인(평균값 비교) ..	159
【그림 IV-28】 성인이 인식하는 성인의 기준 중요 요인(평균값 비교)	161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용어 정의: 청년기
5.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한국사회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양상을 고찰하고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성인기 이행에 대한 최근의 사회적, 학문적 관심은 첫째로, 과거에는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던 방식(예: 학교 교육 후 취업, 결혼 분가 등의 순차적 성인기 이행)으로 성인기 이행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와, 둘째로 성인기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와 방식 전반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안선영 외, 2010). 성인기 이행 양상의 변화 중에서도 성인기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가 지체되는 현상은 사회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이다. 고학력화에 따른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의 지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청년 노동력의 유희화, 개인주의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부모에의 경제적 종속, 결혼과 출산의 지연 또는 기피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정규교육단계를 거친 다음 안정적인 일자리를 획득하고, 결혼, 출산 및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이르던 비교적 단선적이고 표준화 되어있던 성인기 이행 경로가 다양화되고 비선형적 양상을 보이는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비표준화된 생애과정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배경은 무엇보다도 후기산업사회 혹은 후기근대사회의 모습이 정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단순노동 중심의 산업구조가 아니라 지식과 정보의 집약적인 지식산업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산업구조 아래에서는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며,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범의 힘이 약화되고 개인이 선택하고 주장하는 가치관을 중시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된다. 이런 사회에서는 학교 교육을 중단 없이 마치고,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안정된 직장을 갖고 결혼을 준비하다가 결혼으로 이행하는 이른바 그동안의 표준화된 생애과정이 더 이상 표준적인 생애과정으로 받아들여지기가 힘들게 된다. 학교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학교교육을 중단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학교교육으로 돌아오는 것도

더 이상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다. 또한 학교교육을 마치고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않고 단기간 혹은 장기간 동안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아 탐색하는 과정도 비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다. 애써 구한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삼지 않을 수 있고, 직장이나 직업을 바꾸는 중간에 잠깐씩 휴식기간을 가지는 생애과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애과정을 비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회가 후기산업사회 혹은 후기근대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한 내에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한 사회에서 성인기 이행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사회가 청년들이 성인으로서 사회에 진입하는 데 있어 획일적인 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진로의 다양성이 청년 개인에게는 혼란과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다수가 선택하지 않는 성인기 이행 방식을 선택한 결과가 성공적이지 않을 경우, 그 실패는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Settersten, 2005). 현실적으로 그동안 정상적, 규범적으로 여겨지는 단선적 성인기 이행 및 생애과정에 대한 기대가 아직 팽배한 사회분위기에서 이러한 변화들은 많은 부분 세대 간 물이해를 가져오고, 적절한 지원과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청년층들로 하여금 좌절감을 가져올 수도 있다.

실제로 성인기 이행방식의 선택은 이후 개인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환경으로서의 사회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한”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유지와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에서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다. 일례로 사회의 안정적 유지와 경제적 필요를 위해서는 적정선의 출산과 노동력 공급이 필수적인데, 지나치게 개인화되고 예측이 어려운 성인기 이행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사전 계획이 필요한 정책 측면에서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회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바람직한 성인기 이행모델을 제시하고 그에 부합할 경우 다양한 방식의 보상을 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취업이나 자격증 시험 지원 시 연령제한은 노동시장 진입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연령대가 있다는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를 보여주는 한 예다. 또한 청년 고용 정책,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 출산 장려 정책 등은 취업, 결혼과 출산 등의 과업 수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사회 청년들의 성인기 역할 수행 시기와 그 방식의 변화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같이 비자발적 원인에 기인한다면 정부는 이들의 성인기 이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성인기 이행 방식의 변화가 규범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삶의 방식의

출현으로 인한 것이라면, 성인기 이행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과 충돌하는 제도나 정책을 파악하여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한국사회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양상의 실태와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연구로서, 2010년에 수행된 1차년도 연구에서는 취업, 부모로부터 분가, 결혼과 출산을 통한 가족형성 여부를 성인기 이행 기준으로 가정하고, 센서스데이터와 패널데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국내외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성인기 이행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요인도 함께 고찰한 바 있다. 연구자는 1차년도 연구결과를 통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방식의 성인기 이행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1차년도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코호트의 청년일수록 대학진학률의 현격한 증가와 첫 일자리 취업 시기와 혼인 및 출산의 지연 추세가 뚜렷했다. 불안정한 청년 고용상황과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여건은 혼인과 출산을 지연하거나 단념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0년대 전반부터 부모로부터 분가하는 비율이 감소해 왔는데 이는 결혼시기가 늦어지면서 결혼으로 인한 분가가 줄어들어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가 사회의 필요와 부합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성인기 이행양상의 다양화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이 두 측면의 요구를 절충할 수 있는, 한국사회의 상황에 적합한 성인기 이행모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맥락 요인들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한국사회의 성장 세대들이 성인기 이행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변화에 의한 규범의 변화는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생활방식의 변화는 새롭게 등장한 규범을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옳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 본 연구의 1차년도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한국사회 청년세대가 성인으로 진입하는 방식은 짧은 기간 동안 큰 폭으로 변했다. 변화된 성인기 이행 양상이 관련 규범과 사회구성원의 의식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강화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성인기 이행에 관한 규범과 의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로 과거에는 성인이라면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결혼과 출산을 필수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 사항으로 보는 시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규범과 가치관이 확산되면 이는 다시 성인기 이행 양상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위의 예처럼 결혼과 출산이 가변적인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만 좌우된다면 사회유지를 위한 정책을 기획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2011년에 수행된 2차년도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성장세대가 “성인됨”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기존 관점에 따르면 현재 청년들은 성인됨을 연기하며 의존적인 존재로 생애전략을 구성한다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새로운 성인됨의 유형, 성인됨의 재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이 진정 성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비로소 청년들의 성인이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적합한 정책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책에서 가정하는 성인이 이행은 전통적인 성인이 과업 수행 여부, 다시 말해 취업, 결혼, 출산 등의 역할 이행을 했는지에 국한되어 정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책 대상인 청년들이 그러한 정의를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정책대상의 필요와 정책이 목표하는 바 사이에 격차가 클 경우, 그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손상이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고 주거를 마련한 후에 출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사회에서 청년고용촉진이나 주거지원에 대한 고려 없이 양육수당만을 높이려는 정책은 출산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성장세대가 성인됨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이 이행을 앞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의 청년들과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의 부모세대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이 이행에 관련된 인식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한국사회에서 ‘성인됨’이 의미하는 바를 도출하였고, 또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를 대상으로 한 세대 간 비교조사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성인이 이행에 관한 인식이 세대 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부모세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한국사회의 현 청년세대들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준거로 사용되며, 또한 부모세대 성인조사 결과는 기존의 성인이 이행 지원 정책에서 성인이 이행을 어떻게 가정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서도 의미를 가진다.

성인이 이행에 관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의 인식 조사와 더불어 2개의 세부연구가 별도로 진행되었다. 사회구조적, 맥락적 변화에 따른 한 사회의 성인이 이행과정의 전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한 사회 내에서의 개인 간 성인이 이행방식의 차이도 학문적, 정책적 관심 영역이다. 첫 번째 세부과제는 성인이 이행 양상에 있어서 남녀 간 차이를 고찰하였다. 1차년도 연구에서 살펴본 성인이 이행 양상의 유형 분석 결과, 성인이 이행 양상의 다양화는 그 방식과 속도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6가지 상태(학교 재학, 군복무, 취업, 혼인, 취업+혼인, NEET) 간에 변동의 유형을 포착하고자 하였으나,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여 주된 유형(dominant pattern)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는 성인기 이행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조사대상 코호트 모두 재학-취업-혼인의 생애사건순서를 거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학에서 곧장 혼인상태로 전환하는 경우도 아직 남아있다. 성인기 이행에 있어 한국사회가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하는 바에 차이가 있으며, 성인기 이행 경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성별 간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차년도 연구에서 남녀 간 성인기 이행양상의 다양화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데 대한 추가적인 고찰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세부과제에서는 취약위계층의 성인기 이행양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성인기로의 이행에서 생애과정은 계급 혹은 계층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달리 말하면 성인기로의 이행에는 계급 혹은 계층에 따른 차별성이 나타난다. 성인기로의 이행은 간단히 말하면 여러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과정이다. 개인이 교육을 밟는 과정에서도 부모나 가족의 자원을 활용해야 하며,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직장을 구할 때도 공식적인 고용과정 뿐만 아니라 가족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모두 한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과 질 및 종류와 관계가 있다. 가족자원이 충분한 청년층은 성인기로의 이행에서 다양한 가족자원을 활용해서 교육, 직장, 결혼, 출산 등의 생애과정을 밟을 수 있지만, 가족자원이 충분하지 않는 청년층은 자원부족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거나 사회에서 기대하는 생애과정을 밟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의 두 번째 세부과제는 특히 성인기로의 이행 시 가족자원의 활용이 어려운, 소위 “취약위계층”에 초점을 맞추었다. 대학 진학율이 매우 높은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취약위계층에 속한 젊은이들은 대학교육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들은 부모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인 위치가 열악하기 때문에 성인기로 이행할 때에도 가족자원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 현대 사회변동의 두 흐름의 하나인 신자유주의적 경제는 필연적으로 양극화를 낳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취약위계층의 경제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 층에 속한 청년층은 노동시장에서도 더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며,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 예를 들어 교육, 취업 등의 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처럼 사회·경제적 상황이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는 취약위계층에 속한 청년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년 혹은 대학에 진학했어도 졸업 후 취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의 생애과정과 그렇지 않은 청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에 기여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생애과정의 다양성은 성인기로의 이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의 장애요소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취약위계층의 부모세대는 성인기로의 이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자신의 자녀가 성인기로 이행하고자 할 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부모로서 자녀의 성인기로의 이행에 관한 기대와 태도 등을 살펴봄으로써, 취약위계층이 성인기로 이행할 때 이행의 당사자와 부모의 인식과 태도 및 행위를 함께 밝히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청년세대와 부모세대의 성인기 이행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조사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1) 성인기 이행에 대한 인식 조사

(1) 발현성인기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Arnett(2000)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를 '발현성인기'(emerging adulthood)로 정의하고 이 시기의 특성을 정체성 탐색(identity exploration), 실험/가능성(experimentation/possibilities), 불안정성(negativity/instability),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self-focused), 불명확한(어중간한) 정체감(feeling "in-between")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발현성인기'가 모든 사회에서 동일한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기간이 길고 성인기 과업 수행 시기가 지연되는 현상을 보이는 산업화된 사회에 국한되어 나타난다고 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에도 서구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인기 과업 수행 시기 지연 추세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Arnett(2001)이 제시하고 있는 '발현성인기'의 특징이 산업화된 한국의 청년들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처한 시기에 대해 우리나라 청년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Arnett이 개발한 발현성인기 설문 틀을 사용하여 조사하고, 발현성인기 특징이 나타나는 양상이 배경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청년세대가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자신을 성인으로 여기는 정도를 조사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살펴보았다.

(2) 성인의 조건에 대한 인식 및 세대 간 비교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청년세대가 “성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모세대의 인식도 함께 조사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성인의 조건에 관한 인식이 세대 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해당하는 설문지 문항 구성은 Arnett(2001)이 개발한 설문 틀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Arnett(2001)의 ‘성인의 조건’에 관한 설문문항은 성인기 이행에 대한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관련 연구 결과들로부터 도출되었는데, 설문조사 내용은 독립(independence), 상호의존(interdependence), 역할이행(role-transition), 규범준수(norm compliance), 가족형성능력(family capacity)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5개 영역은 성인됨을 의미하는 다양한 기준들을 포함하고 있다.²⁾ 이와 더불어 타 문화권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였다.

(3) 성인으로 인식하는 상황과 성인기 과업 수행시기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청년들이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자신을 성인으로 느끼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주요 성인기 과업인 학교교육종료, 취업, 결혼, 첫아이 출산,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바람직한 시기가 언제라고 인식하는지를 조사하여 우리 사회에서 성인기과업에 대한 연령규범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였다.

(4) 성인기 이행과 관련된 과업

한국사회에서 교육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에서 성인으로 인정받는데 교육이 갖는 중요성과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육수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최소한의 교육수준에 대한 세대 간 차이와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미진학 여부와 그 이유, 대학 중퇴 또는 휴학 여부, 횟수, 기간 및 휴학이유와 이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도 함께 살펴보았다.

2) 설문 문항의 내용 중 한국사회에서 적합성이 낮아 보이는 부분이 일부 있으나 전문가 자문과 연구진 회의에서의 논의를 통해 Arnett이 개발한 설문문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연구 결과와 활용에 있어 더 많은 장점을 갖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가장 주요한 이유는 Arnett의 설문 내용이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제기되었던 성인의 기준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비록 한국사회에서 생소한 기준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한국 청년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 청년세대가 현재 자신이 처한 시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국의 청년들의 인식 양상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설문문항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립도 성인기 이행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여부와 실제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대학교육과 결혼 및 주택구입에 있어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청년들의 취업 및 아르바이트 경험, 취업준비 경험, 구직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조사하고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성인기 이행 양상은 청소년 시절에 교육, 진로, 생활에 대해 부모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관여하는지에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청년들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육과 진로에 대해 부모들이 관여한 정도를 조사하고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5) 요인분석

발현성인기와 성인의 기준에 관한 설문 도구의 타당성 검증 절차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원 개발자들이 구축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³⁾ 이에 더하여 발현성인기 특성에 관한 설문문항과 성인의 기준에 관한 설문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목적은 Arnett의 설문도구가 우리 사회에서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향후 한국에서 두 영역에 대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수정하는데 있다.⁴⁾ 또한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도출된 발현성인기와 성인의 조건의 요인별로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2) 성인기 이행 양상에 관한 성별 차이(세부과제)

본 연구는 협동연구이며, 두 개의 세부과제가 외부 연구기관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 중 하나인 ‘성인기 이행 양상에 관한 성별 차이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책임연구자 장미혜 박사)이 수행하였다. 본 세부과제는 성인기 이행에 있어 성별 간 차이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성인기 이행과 인식에서의 성별차이에 대한 접근은 오늘날 청년들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맥락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시적 분석과 함께 어떠한 과정을 거쳐 여성과 남성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성인기로의 이행이 지체되는 이유를 남성과 여성의 차이란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한국사회의 여성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자녀양육 책임에 대한 성별화된 인식을 개선하고 경력단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3) 원 설문문항을 그대로 사용한 이유는 제 4장 연구결과 부분에 자세히 설명하였다.

4) Alak 외(2008)는 발현성인기의 특징이 나타나는 양상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한 문화에서 신뢰롭고 타당하다고 확인된 측정도구가 할지라도 다른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발현성인기에 관한 설문조사가 실시되기 전 요인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하였다. 성별화된 이행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살피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젠더 불균등한 문제를 드러내어 보다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3) 취약위גיע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 연구(세부과제)

본 세부과제는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수준의 가족배경의 청년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을 취약위גיע층으로 보고, 이들이 취약한 가정배경과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과 같은 비자발적인 요인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성인기 이행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은기수 교수)이 수행하였다. 이 과제의 세부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취약위גיע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 과정 분석

이 연구는 취약위גיע층의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양상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대학진학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한국사회에서도 취약위גיע층에 속한 젊은이들은 대학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다. 부모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인 위치가 열악하기 때문에 성인기로 이행할 때 가족의 지원을 받기도 어렵다. 한국 사회에서 취약위גיע층의 경제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계층의 청년들은 노동시장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상황이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는 취약위גיע층에 속한 청년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년 혹은 대학에 진학했어도 한국사회에서 별로 평가받지 못하는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의 생애과정과 그렇지 않은 청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생애과정의 다양성은 성인기로의 이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성인기 이행에 있어 어떤 장애요소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2) 취약계층 부모세대의 청년 성인기 이행 인식 사례연구

한국사회에서 청년이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가족의 도움, 특히 부모의 물질적, 정서적 도움은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한다. 교육, 취업, 결혼, 출산, 자녀양육 등 모든 면에서 한국사회는 가족, 특히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취약위גיע층의 부모는 이런 면에서 자녀들에게 매우 제한된 지원만을 해 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모역할과 부모-자녀관계에서 자녀의 기대를 충족해 주지 못하는 경우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성인기 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연구는 취약위기계층의 부모세대는 성인기로의 이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자신의 자녀가 성인기로 이행하고자 할 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부모로서 자녀의 성인기로의 이행에 관한 기대와 태도 등을 살펴봄으로써, 취약위기계층이 성인기로 이행할 때 이행의 당사자와 부모의 인식과 태도 및 행위를 함께 밝히고자 한다.

(3)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지원 정책 및 서비스 제언

서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사회 청년들의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취약위기계층 청년층이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있어 비자발적 요소와 장애들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 가족, 사회적인 차원에서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모색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취약위기계층의 청년이 가진 특수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들이 성인기로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 가족,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과 정책이 필요한지 밝히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1) 설문조사

(1) 조사 목적

본 설문조사의 주요 목적은 한국사회의 청년세대가 성인기 이행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성인의 기준에 대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의 인식을 비교하여 한국사회에서 성인의 조건에 관한 인식이 세대 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 청년세대가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시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자신을 어느 정도 성인으로 여기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2) 조사 내용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Arnett(2001)이 개발한 성인의 기준과 청년들이 자신이 처한 현재 시기에 대해 인식하는 바, 청년들이 자신을 성인으로 인식하는 정도 등이다. 조사 대상별 자세한 설문 조사내용은 <표 I-1>, <표 I-2>에 제시되어 있다.

표 I-1 청년세대 설문조사 영역 및 변인, 세부내용

구분	세부 내용
1. 현재 시기에 대한 인식	- 정체성 탐색(identity exploration) - 실험/가능성(experimentation/possibilities) - 불안정성(negativity/instability) -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self-focused) - 불명확한 정체감(feeling "in-between")
2. 성인기 이행의 기준	○ 독립 (independence) · 부모와의 동등한 관계/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 심리적 독립 ·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 부모나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 결정 ○ 상호의존 (interdependence) · 신뢰 있는 애정관계 형성/ 결혼상대자 결정 · 감정 통제/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타인배려하기 ○ 역할이행 (role-transition) · 학교교육 종결(성인기 이행시 바람직한 교육 수준) · 결혼 및 첫아이 출산 · 정규직 취업/ 장기적 진로 및 직업결정/ 주택 구입 ○ 규범준수 (norm compliance) · 과음하지 않기/ 마약/ 도박하지 않기/ 음주운전 하지 않기 · 절도, 기물파손 등 범죄 저지르지 않기/ 건전한 성관계 ○ 가족형성능력 (family capacity) · 가족은 안전하게 지키며,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 자녀를 보살필 수 있는 능력 ○ 생물학적 이행 · 일정 연령대에 도달하는 것 · 신체적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3. 자신을 성인으로 인식하는 정도	- 다양한 상황(특정 장소와 행동, 또 동반자에 따른)별로 자신을 성인이라고 여기는 정도
4. 사회심리적 요인	- 자아존중감 (삶에 대한 만족도 포함), 자아통제감
5. 교육 포부	- 성인기 이행에서의 교육의 중요성 - 본인 및 부모의 교육 포부
6. 부모와의 관계	- 자녀 교육 및 진로에 대한 부모의 관심 - 자녀 생활에 대한 부모의 모니터링
7. 경제적 자립	- 지난달 수입/ 지난 한해 수입/ 생활비 및 학비 조달 방법 - 청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인식

8. 교육, 취업 이성교제 경험	- 교육 중단 경험과 그 사유/ 대학 휴학 횟수/ 기간/ 사유 - 아르바이트 경험과 그 이유/ 취업준비/ 구직상의 어려움 - 이성교제 경험여부/ 첫 이성교제 연령
9. 배경변인	- 성별, 연령, 거주지역, 현재 상태(재학/취업 등), 혼인 상태 - 첫 결혼 연령 및 희망 결혼 연령 - 자녀 유무/출산의향, 첫 자녀 출산 및 희망출산연령 - 직업/취업형태, 취업의향 - 분가상태 및 분가의향, 주택소유형태/주택마련 자원 - 부모 교육수준 및 직업, 가구의 경제적 수준 - 고등학교 재학 시 학업성적

표 I-2 부모세대 설문조사 영역 및 세부내용

구분	세부 내용
1. 성인기 이행의 기준	○ 독립 (independence) · 부모와의 동등한 관계/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 심리적 독립 ·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 부모나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 결정 ○ 상호의존 (interdependence) · 신뢰 있는 애정관계 형성/ 결혼상대자 결정 · 감정 통제/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타인배려하기 ○ 역할이행 (role-transition) · 학교교육 종결(성인기 이행시 바람직한 교육 수준) · 결혼 및 첫아이 출산 · 정규직 취업/ 장기적 진로 및 직업결정/ 주택 구입 ○ 규범준수 (norm compliance) · 과음하지 않기/ 마약/ 도박하지 않기/ 음주운전 하지 않기 · 절도, 기물파손 등 범죄 저지르지 않기/ 건전한 성관계 ○ 가족형성능력 (family capacity) · 가족은 안전하게 지키며,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 자녀를 보살필 수 있는 능력 ○ 생물학적 이행 · 일정 연령대에 도달하는 것 · 신체적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2. 교육수준	- 성인기 이행에서의 교육의 중요성 - 자녀의 교육 수준에 대한 포부
3. 성인기 과업 수행시기	- 부모세대의 성인기 이행 과업(교육, 취업, 결혼, 출산, 분가) 시기 - 현재 청년들의 바람직한 성인기 과업 이행시기

4. 경제적 자립	- 자녀의 교육, 결혼, 주택구입에 있어서의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의견
5. 배경변인	- 성별, 연령, 거주 지역 - 현재 상태(재학/취업 등), 혼인 상태, - 첫 결혼 연령, 직업/취업형태, 취업의향 - 교육수준, 가구의 경제적 수준

2) 심층면접조사⁵⁾

(1) 성인기 이행에 관한 성별차이 연구(세부과제)

본 세부과제는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성인기 이행에 대한 젠더의 분화와 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우리사회의 20대 청년에게 나타나는 생애경로의 특징을 문화기술지적인 접근으로 조명하고자 했다. 연구대상자는 크게 20대 청년세대와 20대 자녀를 둔 부모세대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진다. 성인기의 진입, 부모 및 사회의 영향, 성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의 질적 자료를 통해 20대 청년세대의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이한 유형들을 추출하였고 특히 젠더별 상이한 경로로 나타나는 성인기 이행전략의 차이에 주목한다. 한편, 부모세대의 자녀에 대한 성인기 인식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성인기 이행으로부터 잠재될 수 있는 자녀와 부모간의 세대갈등에 주목하였고, 젠더적 관점으로는 이러한 세대갈등이 특히 성역할을 둘러싼 세대 간 인식의 마찰로 나타날 가능성들을 기술하였다.

(2)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 연구(세부과제)

본 세부과제는 질적연구방법의 비판론적 관점의 틀에 기초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구조적인 소외를 경험해 온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 경험을, 기존에 형성되어 온 중산층 위주의 기준이 아닌 취약위기계층의 시점에서 이해하고 그들이 생애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사 면접을 기본적인 방법으로 활용하여 취약위기계층 청년세대 및 부모세대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주관적 삶의 의미와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살펴보고, 한 발 더 나아가 유년기부터 현재까지 체험해 온 자신의 생애이야기를 통해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을 심층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생애면접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생애를 어떻게 주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의미세계를 구축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5) 심층면접에 관한 내용은 각 세부과제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음.

3) 전문가 자문

연구내용 및 과정 전반에 걸쳐 학계 전문가와 관련 정부정책 담당자 및 현장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연구의 질을 높이고 정책제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전문가 자문은 3회에 걸쳐 전체 연구사업 및 설문지 개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결과, 성인기 이행 지원 정책에 대해 이루어졌다.

4. 용어 정의: 청년기

본 연구에서는 연구 제목에 제시된 ‘청년기’를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단계로 정의하며, 해당하는 연령대를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로 정의한다. 인간발달단계를 연령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시대와 사회에 따라 인간발달의 양상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회 내에서도 개인 간 차이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산업화 사회에서 청소년기(adolescence)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앞당겨지고 있는데 반해 취업, 결혼, 출산 등의 성인기 과업을 성취하는 연령대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Arnett, 2004). 청소년기의 연령대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⁶⁾ 청소년 정책(youth policy)의 대상을 20대 후반이나 30대 중반까지로 포함하는 국가도 적지 않은데, 이는 성인기 이행시기가 늦어지는 추세를 감안할 때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넓은 범위의 연령대를 ‘청소년기’로 지칭하면 그 시기의 공통된 특징이나 필요, 그에 기반한 정책적 지원 내용을 도출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중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10대 중반의 청소년들과 사회에 진출하였거나 대학교육에 재학 중 또는 졸업한 20대 초중반 젊은이들의 특성은 다른 점이 많고,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시기를 설명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기간을 ‘청년기’로 정의하고, 청년들이 건강한 성인이 되기 위해 어떤 요구를 갖고 있으며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기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가장 적극적으로 부응한 학자

6) 우리나라 민법에서 부모의 승낙 없이 결혼하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시기, 즉 성인으로 인정받는 연령은 만 20세이다. 2013년 7월부터 이 연령은 만 19세로 하향 조정된다.

중 한 사람이 J. J. Arnett이다. 인간발달학자인 Erik Erickson은 산업화사회에서 청소년기가 연장되고 있으며 초기 성인기에 삶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자신의 역할과 자리를 찾아가는 시기가 존재함을 언급하였다(1968, Arnett, 2000에서 재인용). Keniston(1971, Arnett, 2000에서 재인용)도 청소년기(adolescence)와 초기성인기(young adulthood) 사이를 청년기(youth)라고 정의하고, 이 시기에 역할 실험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Arnett(2001)은 ‘youth’라는 개념이 낱양스 상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emerging adulthood’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youth’를 한국어로 번역한 ‘청년기’의 의미는 영어의 ‘youth’와 달리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시기를 나타내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에 이르는 이 시기를 ‘청년기’로 정의하고자 한다.

5.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 성인기 이행 연구에 관한 개념적 틀 정립
- 2) 성인기 이행에 있어 우리나라 청년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방식 및 그들의 성장 환경으로서의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 3) 성인기 이행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 이해
- 4) 성인기 이행의 성별 간 차이 이해
- 5)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과정 이해 및 지원 요구 파악
- 6)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성인기 이행 지원 정책 방안 모색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발현성인기
2. 성인의 조건
3. 성인기 이행에 관한 규범
4. 소결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발현성인기

1) 발현성인기의 발생의 배경

본 연구의 중요한 틀을 제공하는 개념은 2000년에 처음으로 Arnett이 제기한 ‘emerging adulthood’이다. 이는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시기를 가리키며 ‘발현성인기’로 번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용어가 일상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 학계에서는 별로 다루어지지 않아 생소하고 그 뜻하는 바를 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개념을 ‘청년기’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발현성인기’를 본 연구에서 ‘청년기’ 개념으로 대체하게 된 데 대한 설명은 1장의 용어 정의 부분에서 자세히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편의에 따라 ‘청년기’로 정의한 ‘발현성인기’라는 개념이 등장한 역사적 배경을 Tanner와 Arnett(2009)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발전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보다 수준 높은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높아지게 되어 학교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직업을 얻고 경제적인 자립 능력을 갖게 되는 시기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 결혼과 출산도 점차 늦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 여성에게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여성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20대에 결혼과 출산을 하기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얻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는데 투자를 하려는 경향이 높아졌다. 셋째, 서구에서 시작된 성(性)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혼전 성경험과 동거에 대해 용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됨으로써 다양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결혼을 하지 않고도 성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결혼이나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Arnett, 2011).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로 인해 전통적으로 성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당연히 되었던 취업, 결혼, 출산과 같은 성인기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가 늦춰지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 Arnett(2000)

은 청소년기가 끝난 후에도 성인기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간이 최근 몇 십년간 확연하게 연장된 점에 주목하고 이 시기를 발현성인기(emerging adulthood)라고 정의하였다. 성인기 과업 수행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현상은 한국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초혼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그에 따라 출산경험도 늦어지는 상황과 대학재학 기간이 점점 연장되고, 노동시장 진입이 늦춰지는 현실에 비춰볼 때 한국사회에서도 발현성인기의 의미에 해당하는 시기가 이미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Arnett(2011)은 발현성인기가 발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가져온 네 가지 신념(beliefs)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신념은 경제적 자립 능력을 비롯하여 독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후에 결혼이나 출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이 때 청년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독립은 대부분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청년들은 독립을 이루는 것을 발현성인기의 핵심 과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은 계속적으로 독립적인 상태로 있는 것을 원한다기 보다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장기적인 헌신(commitment)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전에 달성해야 할 이 시기에만 해당하는 한시적인 과업으로 본다(Arnett, 2000, 2004).⁷⁾

둘째, 낭만적인 사랑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문화의 특성에 따라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다. 집단주의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문화(예: 인도, 중국)에서는 결혼을 두 사람 간의 일이라고 보기 보다는 가족 간의 일로 여겨지는 경향이 높고 부모의 의사가 배우자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에 비해 서구의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운명적인 영혼의 동반자(soul mate)와 결혼해야 한다는 이상(ideal)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혼이 가족 간의 결합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도구로 여겨짐에 따라 결혼에 대한 규범적 강제성이 감소하면서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줄어들게 된다(유홍준·현성민, 2010). 또한 결혼에 대한 높은 이상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결혼에 이르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게 되어 발현성인기로 지칭할 수 있는 시기가 발생한다.

셋째, 일은 생계를 위해 하기 싫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신념은 후기 산업사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힘겨운 노동이 요구되는 농업과 제조업이 점차 사라지고 다양한 직업이 생기면서 직업은 힘든 것이라기보다 재미있어야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일에 대한 이와 같은

7) 한국의 1899년~1929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결혼연령의 역사적 변화를 연구한 한경혜(1993)의 연구에 따르면 산업화, 근대화가 본격화되기 이전의 세대에서는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자립을 결혼의 선행조건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당연히 되고 있는 '결혼이나 출산 전에 경제적 독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대로 인해 청년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꿈꿔왔던 이상에 맞지 않을 경우 쉽게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게 되어 장기적으로 갖게 될 직업을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는 의무나 책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재미있는 일을 하고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Douglass와 그의 동료(2005, Arnett, 2009에서 재인용)들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20대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각은 유럽에서 가장 확연히 나타났으며 미국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관찰되었다(Arnett, 2009).

Jensen(2011)과 Arnett(2011)은 이 네 가지 신념이 개인주의적 문화가 우세한 유럽과 영어권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두드러지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높은 경제발전 수준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집단주의적 문화 때문에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일본과 한국 외에도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사회에서 이러한 신념들이 전통적인 가치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것이며 어떤 가치가 더 우세한 위치를 차지할 지에 대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Arnett, 2011). 본 연구를 통해 발현성인기와 성인기 이행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에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발현성인기의 특징

Arnett(2004)은 발현성인기 연령을 대략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로 규정하고 청소년기와 성인기와 구분된 발달단계로 간주하였다. 그는 이 시기의 주요 특징을 다음의 5가지로 정의하였다(pp. 8-17). 발현성인기의 첫 번째 특징은 삶에 대해 다양한 방식을 탐색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라는 점이다. 특히 애정관계나 직업 등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선호하는 방식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탐색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시기에는 정착하는 것(settling down)이나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청년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삶의 방식을 탐색하는 이 시기의 첫 번째 특징으로 인해 불안정성(instability)이 높은 시기이다. 새로운 시도와 경험을 통해 삶의 방향을 탐색하고 진로 계획을 계속 수정해나가는 시기이므로 고민과 방향이 수반된다.

셋째, 이 시기는 인생의 다른 어느 시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self-focused)시기이다.

이는 아동기의 자기중심성과는 구별된다. 부모나 학교가 제시하는 규칙에 부응해야 하는 청소년이나 배우자 또는 고용주가 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성인기와 달리, 청년기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나 책임에서 상당히 자유롭고, 자신의 삶에 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하며,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집중하게 되는 시기라는 의미이다.

넷째, 이 시기는 규제를 받아야 하는 청소년도 아니고 자신의 삶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성인도 아닌 어중간함(feeling in-between)을 느끼는, 불명확한 정체감을 갖는 시기이다. 자신이 성인이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의사결정의 독립성이나 경제적 자립 부분에서 아직 성인이 되지 못했다고 느낀다. 장소나 상황에 따라 자신을 성인으로 여기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⁸⁾

다섯째, 이 시기는 삶의 방향이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고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시기이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 간에 자신들이 그리고 있는 꿈을 이룰 수 있고 행복해 질 수 있다고 여기는 낙관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Arnett, 2011). Arnett(2004)은 역기능을 보이는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에게 이 시기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비록 청년기가 되어도 가정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인생의 다른 어느 시기보다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특징이 발현성인기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기에 가장 정점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Arnett, 2011). 발현성인기가 나타나는 양상은 국가 간에 다르게 나타나지만 한 사회 내에서도 사회경제적 여건과 문화의 차이로 인해 사회계층간, 지역 간 격차가 클 수 있다(Arnett, 2011). 서구 선진국의 경우 발현성인기가 상당히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 개발도상국가(developing countries)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보다 높은 계층에서, 농어촌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서 발현성인기가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Sarawathi & Larson, 2002, Arnett, 2004에서 재인용). 또한 발현성인기의 특징은 개인주의적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전통적으로 집단주의적 문화를 가진 사회에서는 그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Hofstede(1980)의 문화 분류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집단주의적 문화가 강한 국가이다. 한국의 성인기 이행 양상도 서구선진국과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성인기 이행과 관련된 규범의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집단주의적 가치들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고 이로

8) ‘자신이 성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청년들의 비율은 루마니아인 39%, 유럽계 캐나다인 28%, 캐나다 원주민 50%, 중국인 59%, 아르헨티나인 46%, 라틴계 미국인 48%, 아시아계 미국인 38%, 유럽계 미국인 36%, 체코인 29%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을 다니고 있을 경우 자신을 성인이라고 여기는 비율이 낮았다(Nelson, 2009).

인해 성인기 서구 국가에서 나타나는 지배적인 가치관과는 차이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우리 사회 내에서도 사회계층간, 성별 간, 지역 간에 청년기 또는 발현성인기를 인식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발현성인기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된지 10년이 넘었고 다양한 국가에서 유사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지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Arnett, 2011).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청년들이 자신이 처한 시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Arnett이 제기한 발현성인기의 특징이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자료는 다른 나라 청년들의 발현성인기 특성과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성인의 조건

성인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학문 영역 별로 조금씩 다른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시대와 장소에 따라 성인됨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인류학에서는 결혼을 성인기 이행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간주해 왔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관련한 다양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성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간주하였기 때문에 결혼을 성인의 기준으로 여겼다고 할 수 있다(Schlegel & Barry, 1991, Arnett, 2001에서 재인용). 사회학 연구에서는 결혼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종결, 취업, 출산 등 성인기 이행에서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성인의 기준으로 보고, 각 과업의 수행시기와 수행여부, 과업간의 관련성에 대한 고찰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Goldscheider & Goldscheider, 1999). 이에 비해 심리학에서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자신에 대한 책임 등과 같은 개인 특성을 성인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성인기 과업 수행 시기가 지연되는 현상이 현저해짐에 따라 성인기 과업의 수행 여부를 성인의 기준으로 보는데 대해 반론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성인의 기준은 다양해지고 모호해졌다(Kins & Beyers, 2010).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출산과 같은 과업의 수행 여부는 여전히 성인됨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성인기 과업으로 여겨져 온 역할 이행(role transition)을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을 성인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ns & Beyers, 2010; Shanahan, Porfeli, Mortimer & Erickson, 2005).

Arnett(2001, 2004)은 서구사회에서 성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고,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이론에서 관련 지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Arnett이 제시한 성인됨을 나타내는 지표는 독립(independence), 상호의존(interdependence), 역할이행(role-transition), 규범준수(norm compliance), 가족형성능력(family capacity)이다. 각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미와 유럽지역에서 수행된 성인의 기준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조건으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독립이다. 독립의 의미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부모와 동등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Arnett, 2001). 미국과 같은 서구 국가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경제적 자립이나 분가 등이 당연히 되고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부모가 대학교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대학등록금이 유례없이 높아짐에 따라 부분적으로라도 학비를 부담하기 위해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제적인 여력이 있을 경우 부모가 학비를 부담하는 것이 여전히 당연히 되고 있다. 결혼을 할 때도 혼수 준비나 신혼집 마련에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이다.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에 대한 한국 청소년들의 의식을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는 연구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부모님이 결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26.6%의 응답자가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중국(56.1%) 과 일본(49.9%) 보다 낮은 비율로서, 한국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모의존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혼 비용의 일부만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5.4%였으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비율은 8.1%로 나타났다(임희진 외, 2009; 최인재 외, 2011). 한국청소년의 73.4%가 결혼비용을 부모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동일한 조사에서 질문한 대학 교육비용의 경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4.6%, ‘일부만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8.8%이었으며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5.6%에 그쳤다. 한국 청소년의 93.4%가 대학교육 비용을 부모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십대 초중반까지 대학교육이 이루어지고 어려운 취업 환경 때문에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독립이 우리나라의 청년들에게 성인의 기준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경제적 독립이 한국사회에서보다 이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서구 선진국의 경우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⁹⁾

또한 북미나 유럽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는지의 여부가 성인이 되는 중요한 기준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까지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여가 당연히 되고 있으며, 사회에서는 성인으로 인정받더라도 가정 내에서는 자신의 의사보다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바람직한 가치로 여겨오던 오던 한국사회에서 부모나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성인의 기준으로 여기는 정도는 서구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두 번째 성인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다른 사람과의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이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과의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성인의 중요한 요건으로 간주되어 왔다. 타인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의 세부 내용에는 진지하게 이성교제를 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감소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많아지는 것,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셋째, 사회학 연구에서는 학교교육의 종결, 결혼, 취업, 자녀 출산 등의 역할 이행(role-transition)을 성인기 이행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성인기 이행의 기준으로 당연히 되었던 객관적인 지표들을 성인의 기준으로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변화하고 있다.

넷째, 사회의 규범을 준수(norm compliance) 하는 행동은 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충동적이거나 일탈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사회적 규범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성숙한 사람의 중요한 특성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규범 준수를 성인의 기준으로 얼마나 의미있게 여기는지는 사회마다 달라질 수 있다. Arnett과 Taber(1994, Shanahan 외, 2005에서 재인용)는 이러한 차이를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¹⁰⁾ 협소한 사회화(narrow socialization)는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의 사회의 특징으로서, 학교교육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나 주위의 성인이 자라나는 세대들의 사회화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띤다. 일상생활에서 세대

9) 비약이 있는 주장으로 비판받을 수 있으나, 대학교육에 드는 비용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을 당연히 하는 한국사회의 인식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청년들의 진로가 양극화되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조명될 필요가 있다. 부유한 가정의 자녀가 학비나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고 학업이나 진로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는 불가피하게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하고, 이로 인해 학업이나 진로준비를 상대적으로 등한히 할 수 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대학 졸업 후 진로에서도 불리해 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10) 협소한 사회화(narrow socialization)는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의 사회의 특징으로서, 어린 아이들의 사회화가 가정 내에서 보호자의 엄격한 감독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인과의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어릴 때부터 형성되고 특히 어린 시기의 삶의 방식이 획일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에 비해 광범위한 사회화(broad socialization)가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학교교육을 통해 개인주의와 독립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다. 청소년 시기에 다양한 삶의 방식이 허용되는 정도도 협소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에 비해 높다(Arnett & Taber, 1994, Shanahan 외, 2005에서 재인용).

간 상호작용이 많고 어린 시기에서부터 세대 간 상호의존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어릴 때 무모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적다. 기대에 벗어난 행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통제와 규범준수는 어릴 적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범을 준수하는 행동이 성인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크게 의미를 갖지 않는다.

반면 광범위한 사회화(broad socialization)가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어린 시기에 사회규범에 순응하라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어릴 때 일탈 행동의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어린 시기에 행하던 일탈 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성인이 되었음을 판단하는 중요한 준거로 받아들여진다.

한국사회에는 이 두 가지 사회화 방식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룬 방식이 독특하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한국사회의 성인기 이행 방식도 이러한 독특한 산업화, 근대화 경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¹¹⁾ 한국사회가 산업화를 이룬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산업화 이전의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부모세대와 학교교육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사회화 과정이 이전에 비해 다양화된 청년세대의 경험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인의 기준으로서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에는 청년세대와 부모세대의 인식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구 사회와 달리 성인 연령이 되어서까지도 부모의 뜻을 따르고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여가 당연시 되는 우리 문화에서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성인의 기준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다섯째는 가족형성능력(family capacity)이다. 인류학 연구에서는 알 수 있듯이 과거 대부분의 사회에서 결혼은 성인의 지위를 획득하는데 결정적 조건으로 간주되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형성하고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했는데, 남성의 경우 가족을 부양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졌고, 여성의 경우 가사를 돌보고 자녀를 키우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Arnett과 Taber(1994, Shanahan 외, 2005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협소한 사회화(narrow socialization)가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광범위한 사회화(broad socialization)가 이루어지는 사회

11) 지금 한국사회는 후기산업사회 혹은 후기근대사회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전형적인 후기 산업사회 혹은 후기근대사회가 아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20세기 후반에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근대화를 수행한 국가에서는 유럽과 같이 오랜 시간에 걸쳐 근대화를 이루지 않았다. 유럽에 비하면 매우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근대화를 이루었다. 소위 “압축적 근대성(compressed modernity)” 이라고 표현되는 근대성이 한국사회에서 구현되었는데, 이 결과 한국사회에는 전통과 근대 그리고 후기근대 혹은 현대가 공존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전에 소위 “비동시성의 동시성” 이라고 표현되었던 현상은 바로 압축적 근대성의 결과이다(장경섭, 2009). 다른 사회현상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청년의 성인기 이행은 압축적 근대성의 결과 한 편에서는 규범적이고 표준적인 생애과정이 강조되는가 하면, 다른 한 편에는 후기근대사회의 모습인 개인주의적이고 비표준적인 생애과정이 강조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정형화되거나 주류적인 생애과정이 무엇이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다.

에 비해 가족을 부양하고 보호하는 능력이 성인임을 나타내는 지표로 더 중요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성인의 기준을 얼마나 의미있게 받아들이는지는 개인이나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아직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Nelson, Badger & Wu, 2004), 이스라엘(Mayseless & Scharf, 2003, Nelson, 2009에서 재인용), 아르헨티나(Facio, 2003, Nelson, 2009에서 재인용), 캐나다(Cheah & Nelson, 2004), 체코공화국(Macek, Bejček & Vaničková, 2007, Nelson, 2009에서 재인용), 루마니아(Nelson, 2009)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인의 기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미국의 청년들을 예로 들면, 성인이 되는 조건으로 장기적인 직업 결정, 결혼, 출산과 같은 인구학적 이행의 중요성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이에 비해 자기 스스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같은 항목을 성인됨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꼽았다(Arnett, 2000). 같은 국가 내에서도 성별이나 지역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캐나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인의 기준에 대해 조사한 Cheah 외(2010)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시지역(urban) 청년들에 비해 농촌지역(rural) 청년들이 역할이행과 생물학적 이행을 보다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아시아 문화의 특징은 성인의 기준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Nelson, Badger & Wu, 2004), 그들 역시 미국 청년들이 중요시하는 자신에 대한 책임, 독립적인 의사결정, 경제적 독립 등을 중요한 성인의 기준으로 여겼지만, 특이한 점은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다음인 2번째로 중요한 성인의 기준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 청년들과 차이를 보이는 점은 중국 청년들이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supporting parents financially)’을 성인의 기준으로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는 점이다(미국 16% vs 중국 88.9%)¹²⁾.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확보하는 것이 성인이 되는 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동시에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부모에 대한 의무감도 여전히 강하게 갖고 있다는 점이 서구 청년들과 확연히 다른 면이다.¹³⁾ 이는 문화적 신념과 가치가 성인의 기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12) 한 연구에서 두 국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 비율의 직접적인 비교나 해석에 주의를 필요하지만 그 수치의 차이가 크다는 점은 미국과 중국의 청년들이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성인의 기준으로 여기는데 상당히 다른 입장을 갖는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13) 미국의 부모들은 자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의 이민자 가정 자녀들은 ‘독립’ 보다는 ‘부모 봉양’ 과 ‘상호의존’ 을 성인의 기준으로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wartz, 2008).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에서도 성인이 되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로 여겨져 왔다.¹⁴⁾ 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들은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이스라엘 청년(Mayseless & Scharf, 2003)과 루마니아 대학생(Nelson, 2009)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스라엘 청년들은 미국 청년들에 비해 규범준수(norm-abiding behavior)와 역할이행(role-transitions)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루마니아 청년들은 미국 청년들에 비해 규범준수를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lson(2009)은 이 결과에 대해 이스라엘의 경우 전통적으로 공동체(communal)와 사회 체제 유지에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많은 가치를 두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리고 루마니아의 경우 1990년대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 자본주의 체제로 옮겨가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경험했고, 부모로부터 버려진 고아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EU 가입에 큰 걸림돌로 부각되었던 경험으로 인해 규범을 준수(예: 임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임하기)하는 행동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성인이라면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기준에 대해 사회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 청년들이 성인의 기준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록 이 연구에서 다른 나라의 청년들과 직접적인 비교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한국 청년들이 성인의 기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의 특징을 밝히고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의 하나이다.

14) 부모가 경제능력이 전혀 없다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인정되는 자녀가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현 복지 제도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는 사회적 규범을 잘 보여준다.

15) 한국종합사회조사(2006)에서 20대 이하(만 18세부터)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대 간 지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들은 자녀가 부모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미혼남이 본인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78.6%, 미혼녀가 본인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74.7%가 찬성했다. 기혼남이 본인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90.9%, 기혼녀가 친정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82.4%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성별, 결혼 여부에 따라 기대수준이 차이를 보이는 점도 흥미로운 결과이다.

3. 성인기 이행에 관한 규범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이 현재 시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성인의 기준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청년세대와 부모세대가 전통적으로 성인기 과업이라 여겨졌던 학교교육 종결, 취업 결혼, 출산, 분가를 하기에 바람직한 연령대가 언제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성인기 역할 수행과 관련한 사회적 규범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회마다 취업, 결혼, 출산을 해야 할 시기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이 동의한 기대연령이 존재한다. 이러한 연령규범의 제도화는 각 사회의 자원의 분배나 여러 제도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인간발달의 생물학적 리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이러한 규범을 내재화하여 규범에서 벗어났다고 지각할 때 불편을 느끼게 된다(한경혜, 1993). 이러한 연령 규범의 일례로 ‘결혼적령기’란 기간 우리 사회에서 대체로 몇 살 정도에는 결혼을 해야만 하지 않나하고 여기는 연령대를 의미한다(유홍준 외, 2010). 한경혜(1993)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불과 50~60년 사이에 결혼에 대한 연령규범이 극적으로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¹⁶⁾ 최근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적령기에 대해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남성들은 평균 32세를 넘긴 미혼 여성을 노처녀라고 생각하는 반면 여성들은 34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총각의 구분 기준도 남성 응답자들은 35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었으나 여성들은 36세로 생각한다고 답해 성별 간 약간의 차이가 보였다(조선일보 2011년 10월 14일자 기사).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결혼적령기를 좀 더 늦게까지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은기수(1995)의 연구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결혼에 관해 영향을 받는 규범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자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 결혼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순서규범에 큰 영향을 받는데 비해, 여자는 결혼직전 경제활동 상태에 관계 없이 규범적 연령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향에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유홍준, 외, 2010)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결혼적령기 연령규범은 상당히 약화되는 조짐이 나타남을 밝혀 은기수(1995)의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우 학력, 취업, 직업과 같은 경제적 자원은 결혼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여성의 경제적 자원이 결혼 가능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대졸 이상 수준의 여성이 크게 늘어난 것과 여성들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해석된

16) 1910-1919 결혼코호트에 남성 응답자는 12-17세를, 1930-1939 결혼 코호트에 속하는 남성 응답자는 16-19세가 결혼적령기라고 응답하였다. 1940-1953 결혼코호트 남성 응답자의 3분의 1은 18세를 결혼적령기라고 응답하였다(한경혜, 1993).

다.¹⁷⁾

실제 행동의 변화와 규범의 변화는 속도에 있어서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경혜(1993)는 1899-1929년 출생 한국남성을 대상으로 실제 결혼연령과 규범적 연령을 대비한 결과 결혼행동이 조혼에서 늦은 결혼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지만 규범은 실제 행동보다 천천히 변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외국에서도 성인기과업과 관련된 연령규범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Smith(2004)는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분가, 학교 교육을 마치는 것, 정규직 취업, 가족부양, 출산, 결혼 등 전통적으로 성인기 과업을 여겨지는 7가지에 대해 어떤 연령 규범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성인기 과업 수행 시기에 대한 인식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주거지역(도시/농어촌)에 따라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바람직한 성인기 과업 수행 시기에 대해 젊은층의 경우 경제적 독립, 분가, 정규직 취업은 빨리하고 싶어 했으나 가족형성, 결혼, 자녀출산은 미루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수준과 소득이 높을수록 성인기 과업 수행 시기를 늦추는 것을 선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실제 성인기 과업 수행시기가 지연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성인기 과업에 관한 연령규범과 성인기 과업의 수행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청년세대와 부모세대의 인식비교를 통해 세대 간 연령규범의 변화와 강도 차이를 살펴본다.

연령 규범 외에도 성인기 이행과 관련된 가치관에 대해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다.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3년에 수행된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잘못한 결혼이라도 결혼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의사를 보인 비율은 20대 이하 12.2%, 30대 16.3%, 40대 21.6%, 50대 35.1%, 60대 이상 47.3%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결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 연령 효과로 볼 수도 있으나 결혼을 당연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던 사회적 규범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17) 경제적 자원이 미혼 남녀의 결혼 연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유홍준, 외, 2010)의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경제위기 이후 결혼을 하는데 있어 경제적 자원의 영향력이 커졌지만, 단순히 취업여부 혹은 대졸학력인지 여부 보다는 자원의 질적 측면인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했는지가 중요해진 것으로 보인다.

18) 성별 간에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결혼을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성향은 남성에게서 더 높이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상황과도 유사한 결과이다(야마다 마사히로, 2010).

표 II-1 결혼에 관한 문항: 잘못된 결혼이라도 결혼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단위: %)

구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찬성도 반대도 아님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선택할 수 없음
전체		6.9	16.0	15.4	33.2	26.3	1.4
성별	남자	7.4	18.7	18.0	31.8	22.5	1.7
	여자	6.5	15.1	13.5	34.4	29.3	1.2
연령	20대 이하	4.3	7.9	14.6	37.4	34.1	1.7
	30대	4.6	11.7	15.8	38.1	29.2	0.6
	40대	4.9	16.7	17.3	34.6	24.8	1.6
	50대	10.8	24.3	11.5	32.4	19.6	1.4
	60대 이상	15.1	32.2	16.6	18.0	15.6	2.4

출처: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0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에 대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41.6%로 나타났다.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41.3%, ‘반드시 해야 한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7.1%로 나타나(임희진 외, 2009)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결혼을 무조건적으로 해야 할 의무 사항이 아니라 개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종합사회조사(2006) 결과도 결혼과 출산에 대해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 에 대해 20대 이하(만 18세부터)의 경우 12.4%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30대의 경우 12.1%를 보여, 9.5%가 찬성 의사를 보인 40대와 6.6%가 찬성 의사를 보인 60대와 비교할 때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 간에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8.1%)보다 여성(12.4%)이 이에 대해 더 허용적인 입장을 보였다.

표 II-2 가족가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

(단위: %)

구분		전적으로 찬성	상당히 찬성	약간 찬성	중립	약간 반대	상당히 반대	전적으로 반대
전체		2.1	2.6	5.9	11.8	21.2	23.8	32.5
성별	남자	1.8	2.1	4.2	9.7	18.6	25.9	37.5
	여자	2.2	3.0	7.2	13.5	23.2	22.1	28.5
연령	20대 이하	1.8	2.7	7.9	20.1	30.5	19.5	17.4
	30대	1.3	2.3	8.5	15.7	24.7	19.8	27.8
	40대	1.4	3.1	5.0	11.2	22.9	27.0	29.1
	50대	3.1	4.1	4.6	5.6	10.2	29.1	43.4
	60대 이상	3.7	1.1	1.8	1.5	10.3	26.0	54.9

출처: 한국종합사회조사 2006

위와 동일한 조사에서 ‘결혼할 의사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에 대해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의사를 보인 비율은 20대 이하 35.3%, 30대 24.7%, 40대 18.3%, 50대 13.2%, 60대 이상 11.4%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동거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종합사회조사, 2006).

표 II-3 가족가치: 결혼할 의사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단위: %)

구분		전적으로 찬성	상당히 찬성	약간 찬성	중립	약간 반대	상당히 반대	전적으로 반대	모르겠다 / 무응답
전체		2.1	4.2	15.3	13.1	17.9	21.5	25.4	0.5
성별	남자	2.2	3.6	16.5	14.4	17.2	19.2	26.5	0.3
	여자	1.9	4.7	14.3	12.1	18.4	23.3	24.6	0.7
연령	20대 이하	1.8	6.4	27.1	18	22.6	14.9	9.1	
	30대	3.1	4.1	17.5	16.5	19	20.1	19.8	
	40대	1.4	5	11.9	11.7	20.3	24.6	24.3	0.7
	50대	1.5	2	9.7	6.1	15.8	23	41.3	0.5
	60대 이상	2.2	2.2	7	9.9	8.4	25.6	43.2	1.5

출처: 한국종합사회조사 2006

학력에 따라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별 임금격차가 큰 상황에서 고학력 남자들이 결혼시장에서 선호되며, 미혼 남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남자일수록 결혼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결혼가능성에서 뿐만 아니라 결혼 가치관 면에서도 높은 교육수준은 남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김정석, 2006).

Billari와 Liefbroer(2007)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분가하는 양상과 관련된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취업, 대학 입학, 결혼과 같이 분가의 계기가 되는 사건의 발생이다. 두 번째 요인은 주택시장상황, 경기, 부모님이 처한 여건과 같이 부모로부터 분가하는 것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들이다. 세 번째는 분가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과 같이 사고방식이나 문화적 특성과 관련된 요인들이다. 이들은 세 번째 요인과 관련하여 결혼이나 출산과 달리 분가와 관련된 사회적 규범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드물다고 지적하면서 분가와 같은 결정이 단순히 자녀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옳다고 여기지는 규범에 의해 분가 여부와 시점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Dutch Panel 자료를 이용하여 네덜란드 청년들의 분가 양상이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분가에 대한 태도와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자녀가 분가에 대한 부모의 생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실제 분가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illari & Liefbroer, 2007). 부모들이 성인기 과업에 대해 어떤 연령규범을 가지는지가 자녀들의 실제 성인기 과업 수행 시기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분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자녀들이 분가를 늦추는 경향이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annders(1998)는 Dutch Housing Demand Survey의 자료 분석을 통해 만 18세에서 26세의 네덜란드 청년들이 분가에 대한 부모의 연령규범을 인식하는 바와 청년들의 분가 의향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가에 대한 부모의 압력이 높을수록 머지않은 시기(1년 이내)에 분가를 계획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ettersten(1998)은 시카고 도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요 생애 사건에 관해 어떤 연령규범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만 18세에서 25세 사이에 부모로부터 분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분가에 관한 연령규범은 성별 간 다소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에 비해 남성의 분가에 대해 좀 더 기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Settersten, 1998, Billari & Liefbroer, 2007에서 재인용).

성인기에 접어든 자녀가 분가하는 시기나 이유도 사회나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결혼 전에는 부모와 사는 경우가 많지만 결혼 후에는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결혼분가가 줄어들면서 1990년대 전반 이후 분가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병희 외, 2010). 미국의 경우 20세기 중반까지도 결혼 전에 분가하는 현상은 드물었고 결혼과 분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결혼과 분가의 시점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성인 연령에 이른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자녀가 분가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거로 인한 비용 발생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과테말라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가족의 수입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성인 자녀와 동거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녀가 대학교육이나 결혼 등의 이유로 분가를 원할 경우 소득이 높은 가정은 교육비와 주택구입에 금전적 지원을 함으로써 분가를 도울 수 있지만, 분가가 동거보다 비용이 높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가정의 경우 자녀를 분가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Goldscheider & Da Vanzo, 1989).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나 가정의 경제적인 여건이 분가에 대한 기대나 규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경혜(1990)의 연구는 결혼연령의 변화를 자녀의 결혼에 대한 부모의 통제력 약화로 설명하는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가족의 생존전략을 위해 부모의 통제 방향이 바뀐 결과로 진단하였다. 다시 말해 산업화 이후에 결혼연령이 높아진 것을 고용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청년들이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 결혼시기를 스스로의 필요에 맞게 조절할 수 있게 된 결과라고 보기 보다는 조혼 비용의 증가에 따라 조혼압력의 감소나 결혼의 연기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부모의 통제방향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아졌다하더라도 자녀의 결혼 시기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여전히 의미있게 작용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소결

본 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인 발현성인기(emerging adulthood)의 개념과 이 개념이 발생한 배경 및 특징, 성인의 기준, 성인기 이행에 대한 규범을 다룬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발현성인기에 대한 연구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성인의 기준이나 성인기 이행에 관해서도 노동시장 진입, 결혼, 출산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을 뿐 성인기 이행의 다면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는 부재하다. 성인됨의 의미나

기준에 대해서는 학문 영역별로 조금씩 다른 접근들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까지만 해도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성인기 과업의 수행 여부가 성인의 기준으로 여겨졌지만 서구선진국을 중심으로 결혼, 출산과 같은 전통적인 성인기 과업 수행시기가 지연되면서 이러한 경향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인기 이행에 관한 규범도 사회마다 달라지는데, 성인기 이행관련 연령규범과 가치관이 사회에 따라 어떻게 차이를 보이며, 그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다룬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의 발현성인기의 특징, 성인의 기준, 성인기 이행 관련 규범을 파악함으로써 발현성인기와 성인기 이행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3 장

연구방법

1. 성인기 이행에 대한 인식 연구
2.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3.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
에 관한 연구

제 3 장 연구방법

1. 성인기 이행에 대한 인식 연구

1) 설문문항과 문항작성 근거 및 조사영역 선정

본 설문조사에 포함된 내용은 크게 13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설문조사 영역과 세부 문항의 구성 및 출처는 <표 III-1>과 같다.

2) 예비조사

청년세대와 부모세대용 설문문항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총 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예비조사를 통하여 설문 응답에 요구되는 시간의 적절성, 응답자가 설문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되는 표현, 설문 문항연결 구조를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 응답 저항이 나타나는 항목 등을 파악하였다.

표 III-1 청년 및 부모세대 대상 설문조사 문항 및 출처

구분	문항	조사대상		출처
		청년	부모	
1. 현재 시기에 대한 인식: 발현성인기 특성	- 정체성 탐색(identity exploration) - 실험/가능성 (experimentation/possibilities) - 불안정성 (negativity/instability) -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 (self-focused) - 불명확한 정체감 (feeling "in-between")	○		• Reifman, Arnett & Colwell(2007)가 개발한 발현성인기(emerging adulthood)의 특성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
	- 독립 (independence)			
	- 상호의존 (interdependence)			
	- 역할이행 (role-transition)			
2. 성인기 이행의 기준	- 규범준수 (norm compliance)			
	- 부모와의 동등한 관계 -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 심리적 독립 -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 부모나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 결정			
	- 학교교육 종결(성인기 이행시 바람직한 교육 수준) - 결혼 및 첫아이 출산 - 정규직 취업/ 장기적 진로 및 직업결정 - 주택 구입	○	○	• Arnett(2000)의 「Emerging Adulthood Survey」 문항 중 성인의 조건과 관련한 문항을 번안, 수정하여 사용

	가속형성능력 (family capacity)	가족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 ·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능력 ·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 자녀를 보살필 수 있는 능력			
3. 자신을 성인으로 여기는 정도	- 다양한 상황(특정 장소와 행동, 또 동반자에 따른) 별로 자신을 성인이라고 여기는 정도 (예.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때 자신을 성인으로 느끼십니까?)		○		• The Youth Development Study (이하 YDS, 이하 YDS, Shanahan 외 2005에서 재인용) self-perceived adulthood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 • Rosenberg의 자아존중감(Self-Esteem)척도 • 통제감 척도는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Youth(이하 NLSY, Center for Human Resource Research, 2006) 설문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
4. 사회심리적 요인	- 자아존중감 (삶에 대한 만족도 포함) - 통제감		○		• 연구진 신규작성
5. 성인기 이행에서의 교육의 중요성	- 성인기 이행에서의 교육의 중요성 - 본인 및 부모의 교육 포부		○		• NLSY의 '부모의 자녀교육 및 진로 관여', '자녀의 행동 및 태도 모니터링' 관련 설문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
6. 부모와의 관계	-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 - 진로에 대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 - 자녀 생활에 대한 부모의 모니터링		○		• YDS 경제적 자립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
7. 경제적 자립	- 지난달 수입/ 지난 한해동안 수입 - 생활비 및 학비 조달 방법		○		• Korea General Survey Study (이하 KGSS) 세대 간 지원 태도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
8.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태도	- 청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바람직성		○		• 학업종단 사유 : NLSY 문항 일부 수정하여 사용
9. 교육경험	- 최종 학력/ 학업종단 사유 - 대학 미진학 사유 - 휴학 횟수/기간/사유		○		

10.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 경험	- 고등학교 재학 시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 - 아르바이트가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되는 정도 - 취업준비 활동 - 구직상의 어려움	○		• 구직상의 어려움: 한국노동패널 구직활동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 • 그 외 문항은 청소년패널조사의 진로준비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활용
11. 이성교제 경험	- 이성교제 경험 여부 - 첫 이성교제 연령	○		• 연구진 신규작성
12. 성인기 과업 수행 시기	- 부모세대의 성인기 이행 과업(교육, 취업, 결혼, 출산, 분가)시기 - 현재 청년들의 바람직한 성인기 과업 이행시기		○	• 연구진 신규작성
13. 배경변인	성별, 연령, 거주지역, 현재 상태	○	○	•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부모조사 문항
	혼인 상태	○	○	• 한국노동패널 혼인상태 문항
	자녀 유무/출산의향, 직업/취업형태	○	○	
	취업의향, 분가상태, 분가의향	○		• 연구자 신규작성
	주택소유형태/주택마련 자원			
	부모 교육수준, 부모 직업, 고등학교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	○	•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2010, 김혜영 외)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
	부모 교육수준, 부모 직업, 고등학교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	○	•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문항 수정하여 활용

(1) 조사 개요

- ① 조사대상 : 전국 19~29세¹⁹⁾ 청년, 45~50세²⁰⁾ 성인
- ② 조사방법 : 일대일 대인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 ③ 실사기간 : 2011년 6월 10일~15일

(2) 조사 지역 및 표본 수

서울 지역에서는 한 개 동지역에서, 그리고 읍·면지역은 전라남도의 한 개 읍·면 지역에서 조사하였다. 조사지역 및 표본 수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조사지역 및 표본 수

	성별	합계	19~24세	25~29세	45~50세
전체	남	30	10	10	10
	여	30	10	10	10
	계	60	20	20	20
서울 동지역	남	15	5	5	5
	여	15	5	5	5
	계	30	10	10	10
전남 읍·면지역	남	15	5	5	5
	여	15	5	5	5
	계	30	10	10	10

19)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를 만 19세에서 24세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만 25세에서 29세의 청년들을 예비조사에 포함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관련 연구에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를 'emerging adulthood'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대학진학률이 미국보다 더 높고 대부분의 남성의 경우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으며 결혼과 출산 연령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발현성인기(emerging adulthood)'의 특징이 나타나는 상한 연령이 좀 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예비조사를 통하여 두 연령대를 비교함으로써 두 연령 집단 간의 이질성 정도를 확인하여 향후 연구 대상 선정에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자 29세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집단간 이질성이 클 경우 만 25세~29세 집단의 특성이 원래 목표(target) 연령집단이었던 만19~24세 집단의 특성을 희석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 25세~29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사대상 수가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예비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 만 19~24세, 만 25세~29세 집단 간에 발현성인기의 특성과 성인의 기준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만 19세~24세 청년만을 조사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20) 예비조사에서는 성인 연구대상을 만 45세~50세로 하였으나 청년자녀를 둔 연령층을 조사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령대를 좀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본 조사에서는 만 49세~54세로 조정하였다.

(3) 예비조사 결과를 통한 수정사항

예비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설문문항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었으나 설문문항의 수가 많아 응답에 필요한 시간이 길고 응답피로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발현성인기 특성과 성인의 기준에 관련된 문항은 원 개발 내용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 두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은 축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발현성인기 특성과 성인의 기준 이외 영역의 설문문항 중 유사한 내용을 측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문항과 중요도가 낮은 문항을 삭제하여 설문 문항의 수를 최소화하였다. 이 밖에도 예비조사 참가자들이 어색하다고 지적한 표현을 수정하였다. 성인의 기준 중 ‘여자의 경우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For a woman, become biologically capable of bearing children)과 ‘남자의 경우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For a man, become biologically capable of fathering children) 문항에 대해 ‘생물학적’이라는 표현이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어 ‘생물학적으로’를 ‘신체적으로’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였다. 역시 성인의 기준 중 ‘오랜 애정관계 지속’(committed to a long-term love relationship)이라는 표현이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 다수 나옴에 따라 ‘애인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더불어 설문문항 연결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을 파악하여 수정함으로써 설문도구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성인 연구대상을 만 45세에서 50세로 정하였으나 청년자녀를 둔 연령층을 조사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령대를 좀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본 조사에서는 만 49세에서 54세로 연령층을 조정하였다.

3) 본조사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설문지를 수정한 후 본 연구에서 ‘청년기’로 정의한 만 19세부터 만 24세까지의 청년 2,000명, 청년들의 부모 연령에 해당하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청년조사와 부모세대조사의 조사설계와 표본추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설계 및 조사방법

① 청년조사

청년조사는 전국의 만 19세~24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대인면접을 통해 실시하였다. 청년조사의 설계 및 방법의 주요 내용은 <표 III-3>와 같다.

표 III-3 청년조사 설계 및 방법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의 만19세~24세 남녀
표본 크기	2,000명
표본 오차	± 2.2%포인트 (95% 신뢰수준)
표집 방법	16개 시·도 2010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비례할당
조사 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 방법	일대일 대인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② 성인 조사

부모세대조사는 전국의 만 49세~5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대인면접을 통해 실시하였다. 부모세대 조사의 설계 및 방법의 주요 내용은 <표 III-4>와 같다.

표 III-4 부모세대조사 설계 및 방법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의 만49세~54세 남녀
표본 크기	1,000명
표본 오차	± 3.1%포인트 (95% 신뢰수준)
표집 방법	16개 시·도 2010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비례할당
조사 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 방법	일대일 대인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2) 표본 추출 절차

① 시도별 표본수 배정

1단계	• 16개 광역시도별 모집단수에 따라 비례배분
-----	---------------------------

② 지역층화

1단계	• 16개 광역시도 단위 층화
2단계	• 인구수가 많은 서울(2개)과 경기(3개) 층화
3단계	• 9개 도지역 동부와 읍·면부로 층화 • 일부 읍·면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광역시는 단일 층으로 구분

27개 층

서울 강남권, 서울 강북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 남부, 경기남 북부, 경기 읍·면부,
 강원 동부, 강원 읍·면부,
 충북 동부, 충북 읍·면부, 충남 동부, 충남 읍·면부,
 전북 동부, 전북 읍·면부, 전남 동부, 전남 읍·면부,
 경북 동부, 경북 읍·면부, 경남 동부, 경남 읍·면부,
 제주 동부, 제주 읍·면부

③ 실사지점 추출 및 응답자 선정

표 III-5 실사지점 추출 및 응답자 선정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읍/면/동 수	청년표본	성인표본
서울	강남구	일원본동	1	15	7
	강동구	성내1동	1	15	7
	강서구	방화1동, 염창동	2	32	16
	관악구	신원동	1	16	8
	구로구	개봉2동	1	16	7
	금천구	시흥1동	1	16	7
	동작구	대방동	1	16	7
	서초구	서초1동, 양재2동	2	31	16
	송파구	방이2동, 잠실4동	2	32	16

	양천구	신월1동	1	16	7
	영등포구	대림3동	1	16	7
	강북구	삼양동	1	15	7
	광진구	자양4동, 화양동	2	32	14
	노원구	상계3·4동, 하계1동	2	30	14
	도봉구	방학3동	1	15	7
	동대문구	이문2동	1	16	7
	마포구	연남동	1	15	7
	서대문구	남가좌2동	1	15	7
	성북구	장위1동	1	16	7
	용산구	한강로동	1	16	7
	은평구	신사2동	1	15	7
	종로구	송인2동	1	16	7
	중랑구	면목본동	1	16	7
	소계		28	438	203
부산	금정구	부곡4동	1	15	8
	남구	대연3동	1	15	16
	부산진구	범전동, 범천1동	2	30	8
	북구	금곡동	1	15	8
	사상구	괘법동	1	14	9
	사하구	당리동	1	15	8
	서구	서대신1동	1	15	8
	연제구	연산4동	1	15	8
	해운대구	반송1동	1	15	8
	소계		10	149	81
대구	남구	대명6동	1	17	8
	달서구	송현2동, 죽전동	2	30	16
	북구	관음동	1	15	7
	서구	내당1동	1	15	8
	수성구	성동, 중동	2	17	7
	중구	남산4동	1	13	7
	소계		8	107	53
인천	계양구	계산4동	1	14	8
	남구	송의1·3동, 용현2동	2	28	15
	남동구	구월1동, 만수6동	2	28	13
	부평구	산곡3동, 삼산2동	2	29	14
	서구	검단4동	1	14	8
	소계		8	113	58
광주	광산구	첨단2동	1	13	6
	동구	학동	1	13	5
	북구	두암3동, 신안동	2	28	10
	서구	금호1동	1	14	7
	소계		5	68	28

대전	대덕구	송촌동	1	15	6
	서구	도마2동, 월평2동	2	30	12
	유성구	전민동	1	16	6
	중구	은행선화동	1	16	6
소계			5	77	30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	1	13	8
	북구	송정동, 화봉동	2	13	9
	중구	태화동	1	13	7
소계			4	39	24
경기	고양시	행신2동, 일산3동	2	32	18
	광명시	광명7동	1	16	7
	군포시	산본1동	1	16	8
	부천시	괴안동, 중동	2	32	14
	성남시	정자1동, 성남동	2	31	15
	수원시	권선2동, 영통1동, 조원1동	3	48	24
	시흥시	은행동	1	16	8
	안산시	호수동, 성포동	2	31	15
	안양시	부림동, 안양3동	2	32	14
	용인시	동백동, 상현1동	2	32	16
	평택시	신평동	1	16	7
	하남시	신창2동	1	16	7
	화성시	동탄2동	1	15	8
	가평군	청평면	1	14	7
	광주시	실촌읍	1	14	7
	남양주시	진접읍, 평내동	2	30	16
	안성시	일죽면	1	14	8
	양주시	회천4동	1	16	9
	의정부시	호원2동	1	15	8
	파주시	교하읍	1	14	8
소계			29	450	224
강원	강릉시	교1동	1	14	8
	속초시	교동	1	13	8
	원주시	흥업면	1	8	6
	정선군	사북읍	1	6	7
	철원군	동송읍	1	5	
	춘천시	강남동	1	16	4
소계			6	62	33
충북	진천군	진천읍	1	9	6
	청원군	내수읍	1	9	6
	청주시	내덕동, 복대2동	2	30	13
	충주시	연수동	1	16	6
소계			5	64	31
충남	금산군	추부면	1	13	6

	아산시	신창면, 온양4동	2	25	11
	예산군	광시면, 예산읍	2	12	6
	천안시	안서동, 백석동, 성환읍	3	37	14
소계			8	87	37
전북	군산시	나운1동	1	13	6
	남원시	노암동	1	14	6
	완주군	봉동읍	1	13	10
	전주시	송천1동, 효자1동, 효자3동	3	30	13
소계			6	70	35
전남	목포시	신흥동	1	14	8
	순천시	남제동, 해룡면	2	26	17
	해남군	해남읍, 현산면	2	10	9
소계			5	50	34
경북	경산시	남부동, 백천동	2	15	7
	구미시	진미동, 진평동	2	16	7
	상주시	모서면, 함창읍	2	13	8
	성주군	용암면	1	13	9
	안동시	평화동	1	15	8
	포항시	장성동, 흥해읍	2	29	15
소계			10	101	54
경남	거제시	수양동, 수월동, 양정동, 장평동	4	16	9
	김해시	내외동	1	16	9
	진주시	금산면, 상대1동	2	30	20
	창원시	내서읍, 회원1동, 회원2동, 반송동	4	45	27
소계			11	107	65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1	3	3
	제주시	노형동	1	15	7
소계			2	18	10
총합계			150	2000	1000

(3) 분석방법

결과분석을 위하여, 청년조사 및 부모세대 데이터는 각각 T-test, ANOVA,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성인기 이행과 관련된 각종 인식과 성인기과업 수행시기 등에 대한 성별, 경제수준, 교육수준 등 각 배경변인별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ANOVA 분석 시에는 Scheffé 검증에 의한 다중비교방법을 통하여 집단 간 차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조사 모두에서 발현성인기 특징과 성인의 기준의 설문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요인추출을 위하여 주성분법을 적용하였고, 요인구조 회전에 직각회전방식인 배리맥스

(Varimax)방식을 사용하였다. 추출된 요인에 대해서는 성별과 지역, 경제수준에 따른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2.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²¹⁾

1) 연구방향

본 연구의 목표는 성인기 이행에 대한 젠더의 분화와 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20대 청년에게 나타나는 생애경로의 특징을 문화기술지적인 접근으로 조명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자는 크게 20대 청년세대와 20대 자녀의 부모세대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지며, 연구방법은 심층면접의 방식을 취하였다. 성인기의 진입, 부모 및 사회의 영향, 성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의 질적 자료를 통해 20대 청년세대의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이한 유형들을 추출하였고, 특히 젠더별 상이한 경로로 나타나는 성인기 이행전략의 차이에 주목한다. 한편, 부모세대의 자녀에 대한 성인기 인식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성인기 이행으로부터 잠재될 수 있는 자녀와 부모간의 세대갈등에 주목하였고, 젠더적 관점으로는 이러한 세대갈등이 특히 성역할을 둘러싼 세대 간 인식의 마찰로 나타날 가능성들을 기술하였다.

2) 연구 대상자 선정

20대 청년세대를 연구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서는 지역, 성별, 연령, 취업 유무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26명을 인터뷰 하였으며 이후 성별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0대 4명을 연구책임자의 주관 하에 추가로 진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30명의 20대 면접자료를 수집하였다. 한편, 부모세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서는 성인기 이행단계의 20대 자녀를 둔 4명의 40-50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약 2시간 가량에 걸쳐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후 조사대상자의 보완을 위해 부모세대 4명에 대한 추가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8명의 부모세대 면접자료가 수집되었다. 종합하면 30명의 청년세대와 8명의 부모세대를 모두 합하여 총 38명의 개별면접이 이루어졌다.

21) 본 연구의 연구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세부과제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음.

피면접자에게는 면접 전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후 심층면접 내용의 녹취에 대한 승낙을 받아 녹음을 시행하였다. 연구자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전에 작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취약위גיע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²²⁾

1)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비판론적 관점(critical approach)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적 주제와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여성학적 접근(feminist inquiry)이나 참여행동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등으로 대표되는 비판론적 관점은 힘의 불평등, 불균형, 소외, 그리고 권력의 분배 등에 주목하는 연구방법으로서(Daly, 2007). 단순히 이를 설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소외 계층에 대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행동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비판론적 연구에서는 성적, 경제적, 민족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일상적 경험과 어려움을 알고자 하며, 이를 주류의 시각이 아닌 소외계층의 경험과 시각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이해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 사이에 위계적이지 않은 협력을 기초로 얻어진다.

따라서 질적연구방법의 비판론적 관점의 틀에 기초하여, 본 조사에서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구조적인 소외를 경험해 온 취약위גיע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 경험을 기준에 형성되어 온 중산층 위주의 기준이 아닌 취약위גיע층의 시점에서 이해하고 그들이 생애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대상자 선정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다. 첫째, 청년층의 연령대는 기본적으로 만19세에서 만29세까지 미혼자로 한정시켰다. 현재까지 청년기에 대한 생물학적 연령기준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라는 점 때문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 20대에 한정시키고자

22) 본 연구의 연구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세부과제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음.

했다. 결과적으로 연구 참여자 중 20대 초반 (만 19세 - 23세)이 19명으로 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20대 중반 (만 24세 - 26세)이 3명, 그리고 20대 후반 (만 27세 - 29세)이 3명을 차지했다. 부모 면접 대상자로는 만 19세에서 29세 사이의 자녀를 둔 취약위계층 부모들을 참여시켰으며 부모들의 연령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본 연구에는 40대 부모 4명과 50대 부모 4명이 참여하였다.

둘째, 취약위계층의 범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면접을 시행한 결과 부모의 계층적 위치와 상관없이 청년 자신이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나 표면적으로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열악한 대상자 역시 포함시켰다. 셋째, 다양한 상황의 취약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청년들을 심층 면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22명 (부모 8명 포함), 경기도(성남) 2명, 강원도(춘천과 가평) 7명, 그리고 충청도 2명이었다. 넷째, 성별 분포는 청년층의 경우 남성 12명, 여성 13명으로 남녀가 반씩 표집 되었다. 하지만, 부모의 경우 8명 모두 어머니로 아버지의 참여는 없었다.

연구대상자들의 표집은 주로 목적표집법 (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눈덩이 표집법 (snowballing procedure)이 함께 사용되었다. 우선, 지역사회복지관 담당자, 지역 YMCA 및 연구자들의 개인적 인맥을 통해 연구목적과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표집 되었다. 다음으로, 면접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다시 연구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추천 받아 표집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 대상 중 4명의 부모와 두 명의 자녀가 눈덩이 표집법을 이용하여 선정되었다.

제 4 장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2. 발현성인기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3. 성인의 기준에 대한 인식 및 세대 간 비교
4. 성인으로 인식하는 상황과 성인기 과업 수행시기
5. 성인기 이행과 관련된 과업들
6. 발현성인기와 성인의 기준 요인분석
7. 요약 및 함의

제 4 장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청년조사대상은 총 2,000명으로 성별, 지역규모별, 연령별로 치우치지 않도록 할당표집 하였는데 청년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IV-1>와 같다. 남자청년이 1,065명, 여자청년이 935명으로 남자청년이 53.3%를 차지해 여자청년보다 조금 많은 수가 조사되었다. 대도시에서는 992명, 중·소도시 749명, 읍·면도시에서 259명이 조사되었고, 연령별로는 19세~20세가 711명, 21세~22세가 653명, 23세~24세가 636명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청년들의 현재 상황을 보면 취업상태가 401명으로 약 20%를 차지하였고, 학생은 1,229명으로 61.5%, 취업준비/무직/주부의 경우 370명으로 18.3%였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에 의하면 대학진학률이 현재 80%를 넘고 있지만, 이 연령대 청년들의 다양한 성인기 이행을 살펴보기 위해 취업중이거나 취업준비 혹은 무직이거나 주부의 비율을 조사하였다. 취업중인 청년들 중 정규직은 234명으로 58.4%, 임시직이거나 계약직인 경우는 152명(37.9%)이었고, 일용직이거나 사업주, 자영업이나 프리랜서의 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조사대상 중 결혼한 청년은 12명이었고(0.6%), 남자청년 1,065명 중 군복무를 마친 청년은 423명으로 39.7%였다. 조사대상청년의 학력수준을 보면, 중졸은 7명(0.4%), 고졸 및 그 이하는 360명(18%), 2~3년제 대학졸업 및 그 이하는 444명(22.2%)이었고, 과반수가 넘는 약 60%에 달하는 청년들이 4년제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상태이며, 대학원재학이나 졸업인 경우는 4명(0.2%)이었다. 고등학교 재학 중 성적에 대한 질문결과, 낮은 편이었다는 응답은 약 12.3%, 중간이라는 응답은 54%,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은 33.7%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사회에서의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질문한 결과, 경제적으로 중간이하의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약 21%였고, 중간이라는 응답은 33.3%, 중간이상 높다는 응답은 45.9%로 나타났다. 빈곤층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나 사회복지관 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서비스 수혜여부를 질문하였는데, 이러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95명 4.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IV-1 청년조사대상자의 응답자 특성

구분		빈도	%
전체		2000	100
지역규모	대도시	992	49.6
	중·소도시	749	37.5
	읍·면	259	13.0
성별	남자	1065	53.3
	여자	935	46.8
연령별	만19~20세	711	35.6
	만21~22세	653	32.7
	만23~24세	636	31.8
군복무여부	복무	423	39.7
	미복무	642	60.3
현재상황	취업	401	20.1
	학생	1229	61.5
	취업준비/무직/주부	370	18.5
취업형태	정규직	234	58.4
	임시/계약직	152	37.9
	일용직	8	2.0
	사업주	2	0.5
	자영업/프리랜서	5	1.2
결혼여부	예	12	0.6
	아니오	1988	99.4
학력	중졸	7	0.4
	고졸이하	360	18.0
	2~3년제대 졸업이하	444	22.2
	4년제대 졸업이하	1185	59.3
	대학원 졸업이하	4	0.2
고등학교 성적	낮은 편	245	12.3
	중간이다	1080	54.0
	높은 편	673	33.7
	해당 없음	2	0.1
경제적 지원 수혜여부	있다	95	4.8
	없다	1821	91.1
	잘 모름	84	4.2
경제적 상황	낮다	417	20.8
	중간이다	666	33.3
	높다	917	45.9

부모세대 성인은 총 1,000명을 조사하였는데, 역시 특정 성별이나 연령, 지역규모에 치우치지 않도록 할당표집하였다. 본 연구의 성인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IV-2>와 같다. 성별로는 거의 동일한 비율로 조사되었고,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에서는 477명(47.7%), 중·소도시에서는 359명(36%), 읍·면에서는 164명(16.4%)의 부모세대 성인이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만 49세부터 54세까지가 골고루 조사되어, 만49~50세는 37.5%, 만51세~52세는 33.1%, 만53세~54세는 29.5%를 차지하였다. 혼인상태를 보면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성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별거나 이혼·사별을 경험한 경우는 매우 적은 숫자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약 75%가 직업이 있었고, 그중 사무/기술/판매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약 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은 무직이 25%, 전문/경영/관리직이 6.4%, 농·축·수산/노무직은 5%로 낮은 비율이었다. 취업형태별로는 정규직이 33.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무직 25%, 자영업/프리랜서 24.7%, 임시/계약직이 7.5%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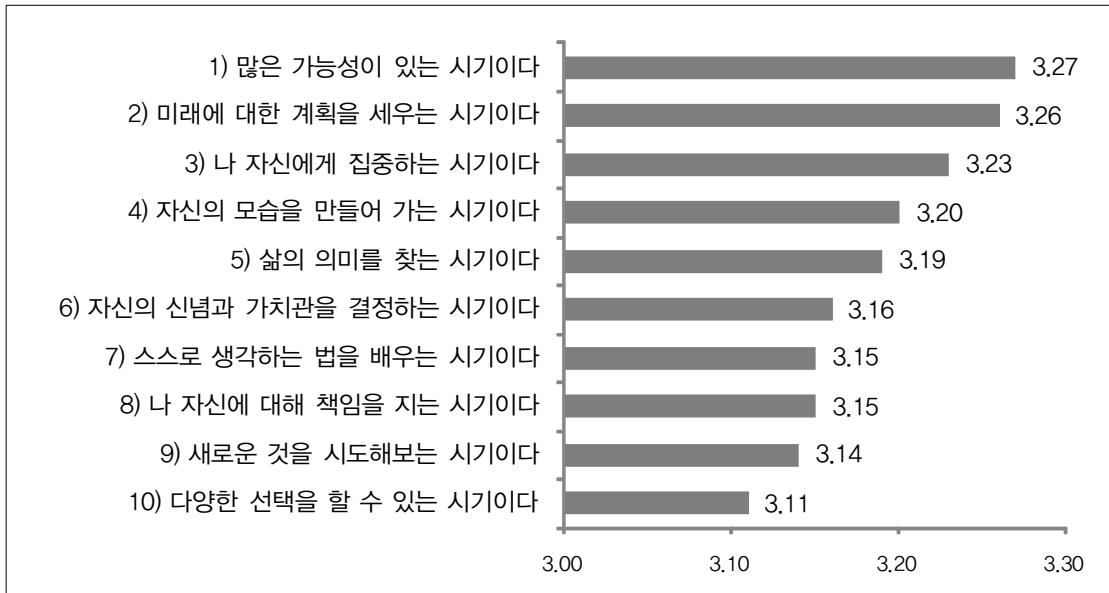
조사응답자의 학력수준을 보면 중학교졸업과 그 이하의 학력인 경우가 약 10%였고, 고등학교 졸업이 약 62%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대학졸업은 26.5%로 나타났다. 청년조사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에서의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질문한 결과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약 21%, 중간이라는 응답은 약 39%, 높다는 응답은 41%로 나타났다. 실제 빈곤층에서 제공되는 주민자치센터와 지역사회 복지관 등을 통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대상중 14명만이 수혜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V-2 부모세대 조사대상자의 응답자 특성

구분		빈도	%
전체		1000	100
지역규모	대도시	477	47.7
	중·소도시	359	35.9
	읍·면	164	16.4
성별	남자	498	49.8
	여자	502	50.2
연령별	만49~50세	375	37.5
	만51~52세	331	33.1
	만53~54세	294	29.4
혼인상태	기혼유배우	966	96.6
	별거	3	0.3
	이혼	16	1.6
	사별	11	1.1
직업여부	미혼	4	0.4
	있다	749	74.9
	없다	251	25.1
직업별	전문/경영/관리	64	6.4
	사무/기술/판매	606	60.6
	농축수산/노무직	50	5.0
	자영업	27	2.7
	무직	251	25.1
	기타	2	0.2
취업형태	정규직	333	33.3
	임시/계약직	75	7.5
	일용직	17	1.7
	사업주	55	5.5
	자영업/프리랜서	247	24.7
	무급가족종사자	22	2.2
	무직	251	25.1
학력	중졸	99	9.9
	고졸	621	62.1
	대졸	265	26.5
	대학원졸	15	1.5
경제적 지원 수혜여부	있다	14	1.4
	없다	983	98.3
	잘모름	3	0.3
경제적 상황	낮다	206	20.6
	중간이다	385	38.5
	높다	409	40.9

2. 발현성인기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Arnett이 제기한 발현성인기(Emerging Adulthood)를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시기라고 할 때,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만 19세에서 24세까지의 청년들이 바로 이 시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청년들에게 자신의 현재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기 개발된(Reifman, Arnett, & Colwell, 2007) 설문지를 사용하여 총 31개 문항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중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10가지 항목을 살펴보면 【그림 IV-1】과 같고, 전체 31항목에 대한 평균값과 성별, 연령별로 본 차이는 〈표 IV-3〉과 같다.²³⁾



【그림 IV-1】 현재 시기에 대한 인식

먼저 【그림 IV-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항목들을 보면, ‘많은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다’(M=3.27),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다’(M=3.26),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기이다’(M=3.23),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시기이다’(M=3.20), ‘삶의 의미를 찾는 시기이

23) 이절에서는 각 항목별로 전체 평균값과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고, 6절(p.148)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요인분석결과와 그에 따른 변인별 차이에 대해 별도로 논의하고자 한다.

다'(M=3.19),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결정하는 시기'(M=3.16),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이다'(M=3.15), '나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기이다'(M=3.15),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시기이다'(M=3.14),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이다'(M=3.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우리사회 청년들은 대체로 현재 시기를 '자신에 대해 집중'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기로 여기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많은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다' 항목은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p<.05$)를 보였는데, 연령이 더 낮은 집단(만19세~21세)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현재 시기를 '많은 가능성이 있는 시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현재 시기에 대한 인식(발현성인기 특징에 대한 성별·연령별 차이)

현재 시기에 대한 인식	Mean(SD)						
	전체	성별		t	연령		t
		남	여		만19~21세	만22~24세	
1) 많은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다	3.27(.571)	3.28(.584)	3.27(.556)	.486	3.3(.571)	3.24(.569)	2.236*
2) 탐색을 하는 시기이다	3.10(.661)	3.11(.685)	3.10(.632)	.366	3.14(.655)	3.06(.665)	2.823**
3) 혼란스러운 시기이다	2.76(.753)	2.74(.758)	2.78(.747)	-.969	2.76(.75)	2.76(.757)	-0.010
4) 실험의 시기이다	2.89(.677)	2.89(.666)	2.88(.689)	.517	2.95(.652)	2.82(.697)	4.403***
5) 자유를 누리는 시기이다	2.94(.727)	2.95(.737)	2.93(.716)	.639	2.99(.714)	2.88(.738)	3.430**
6) 제약을 많이 느끼는 시기이다	2.62(.717)	2.61(.742)	2.64(.689)	-.884	2.61(.712)	2.64(.724)	-0.661
7) 나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기이다	3.15(.615)	3.15(.619)	3.16(.611)	-.317	3.12(.613)	3.19(.616)	-2.589*
8)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이다	2.93(.681)	2.91(.709)	2.96(.647)	-1.602	2.89(.685)	2.98(.672)	-3.100**
9) 불안정한 시기이다	2.70(.699)	2.70(.720)	2.71(.675)	-.465	2.69(.692)	2.72(.707)	-1.075
10) 낙관적인 시기이다	2.61(.665)	2.59(.692)	2.63(.633)	-1.301	2.64(.66)	2.57(.669)	2.302*
11) 압력을 많이 받는 시기이다	2.66(.703)	2.65(.724)	2.68(.677)	-.809	2.62(.704)	2.71(.698)	-2.852**
12)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시기이다	3.06(.637)	3.07(.642)	3.06(.632)	.551	3.09(.628)	3.04(.647)	1.660*
13) 정착하는 시기이다	2.56(.755)	2.57(.757)	2.56(.754)	.297	2.48(.752)	2.65(.749)	-5.207***
14) 타인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기이다	2.71(.776)	2.75(.773)	2.66(.777)	2.740**	2.70(.771)	2.72(.782)	-0.583
15) 독립하는 시기이다	2.76(.724)	2.74(.737)	2.78(.709)	-1.279	2.67(.748)	2.86(.683)	-5.991***
16)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이다	3.11(.631)	3.11(.631)	3.10(.631)	.533	3.13(.625)	3.08(.636)	1.904
17) 예측이 어려운 시기이다	2.90(.687)	2.91(.687)	2.89(.686)	.703	2.93(.693)	2.87(.679)	1.802
18) 다른 사람에게 헌신해야 하는 시기이다	2.40(.760)	2.45(.764)	2.34(.751)	3.224**	2.37(.752)	2.43(.767)	-1.809
19) 자립해야 하는 시기이다	2.84(.650)	2.81(.653)	2.88(.645)	-2.372*	2.74(.651)	2.96(.629)	-7.576***

20)	걱정이 많은 시기이다	3.02(.623)	3.00(.637)	3.04(.606)	-1.312	2.99(.625)	3.05(.619)	-2.088*
21)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시기이다	3.14(.614)	3.14(.629)	3.13(.597)	.517	3.15(.603)	3.13(.627)	0.637
22)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기이다	3.23(.601)	3.22(.605)	3.24(.597)	-.921	3.21(.624)	3.25(.574)	-1.536
23)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시기이다	2.75(.730)	2.73(.731)	2.77(.729)	-1.085	2.66(.753)	2.85(.692)	-5.756***
24)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시기이다	3.20(.606)	3.20(.613)	3.21(.599)	-.409	3.19(.595)	3.21(.619)	-0.526
25)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다	3.26(.641)	3.25(.667)	3.28(.609)	-1.307	3.26(.651)	3.27(.63)	-0.525
26)	삶의 의미를 찾는 시기이다	3.19(.628)	3.17(.642)	3.21(.611)	-1.728	3.19(.639)	3.19(.617)	-0.140
27)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결정하는 시기이다	3.16(.628)	3.13(.638)	3.20(.615)	-2.386*	3.14(.647)	3.18(.607)	-1.389
28)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이다	3.15(.615)	3.13(.636)	3.18(.588)	-1.733	3.14(.607)	3.16(.623)	-0.652
29)	어떨 때는 성인인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성인이 아닌 것 같은 시기이다	2.96(.693)	2.92(.702)	3.01(.679)	-2.906**	3.00(.674)	2.91(.711)	2.631**
30)	점차 성인이 되어 가는 시기이다	3.08(.583)	3.07(.598)	3.10(.565)	-1.379	3.10(.573)	3.06(.593)	1.389
31)	성인이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은 시기이다	2.72(.686)	2.70(.702)	2.75(.666)	-1.601	2.80(.647)	2.63(.716)	5.382***

* $p<.05$, ** $p<.01$, *** $p<.001$

전체적인 항목들에 대한 성별차이를 보면 ‘타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기이다’의 응답은 남자청년이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M=2.75$, $p<.01$), ‘자립해야 하는 시기이다’항목에서는 여자청년이 더 높은 수준의 응답을 보였다($M=2.88$, $p<.05$). 또한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결정하는 시기이다’ 항목에도 여자청년이 더 높은 수치를 보였고, ‘어떨 때는 성인인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성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여자청년이($M=3.01$, $p<.01$), 그리고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M=3.00$, $p<.01$).

연령별로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많았는데, 연령이 낮은 집단이 더 높은 평균값을 보인 항목은 ‘탐색을 하는 시기이다’($M=3.14$, $p<.01$), ‘실험의 시기이다’($M=2.95$, $p<.001$), ‘자유를 누리는 시기이다’($M=2.99$, $p<.01$)였다. 이는 만19세~21세인 연령이 낮은 청년집단이 그 이후 연령대의 청년들보다 현재의 시기를 미래를 탐색하며 실험할 수 있는, 보다 자유로운 시기로 느끼는 경향이 더 높음을 의미 한다. 이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노동시장에 막 진입했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연령대의 청년으로 아직 성인기 이행을 준비하는데 있어 보다 여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만 22세~24세의 청년들이 높은 평균값을 보인 항목들은, ‘나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기이다’(M=3.19, $p<.05$),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이다’(M=2.98, $p<.01$), ‘독립하는 시기이다’(M=2.86, $p<.001$), ‘자립해야 하는 시기이다’(M=2.96, $p<.001$), ‘걱정이 많은 시기이다’(M=3.05, $p<.05$),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시기이다’(M=2.85, $p<.001$)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성인기 이행을 준비해야 하는 20대 중반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독립, 자립 등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한 걱정과 스트레스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낮은 수준의 평균값을 보인 항목들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헌신해야 하는 시기이다’ (M=2.40) 항목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특히 여자청년의 응답이 남자청년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p<.01$)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정착하는 시기이다’(M=2.56), ‘낙관적인 시기이다’(M=2.61) 항목 순으로 낮은 평균값을 보였는데, 두 항목 모두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정착하는 시기라는 응답은 만19세~21세의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p<.001$), 낙관적인 시기라는 응답은 만 22세~24인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p<.01$) 더 높은 수준의 응답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제약을 많이 느끼는 시기이다’(M=2.62)와 ‘압력을 많이 받는 시기이다’ (M=2.66)의 순으로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는데, 특히 압력을 많이 받는 시기라는 응답은 연령이 높은 집단(만22세~24세)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별로 발현성인기 각 항목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4>와 같으며, 특히 몇 가지의 발현성인기 특성은 경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유를 누리는 시기이다’($p<.001$), ‘불안정한 시기이다’($p<.01$), ‘정착하는 시기이다’($p<.05$) ‘걱정이 많은 시기이다’($p<.001$),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이다’($p<.05$) 등 5가지 항목이 경제수준별 차이를 보였다. 먼저 ‘자유를 누리는 시기이다’ 항목에 대해서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 반면 ‘불안정한 시기이다’ 항목에 대해서는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응답을 보였다. ‘정착하는 시기이다’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이다’ 항목에 대해서는 경제수준이 중간인 집단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걱정이 많은 시기이다’ 항목은 경제적으로 낮은 수준일수록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경제수준이 높을 경우 현재의 발현성인기에 대해 ‘자유를 누리는 시기’ 혹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 등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경제수준이 낮은 청년들의 경우 ‘불안정한 시기’ 또는 ‘걱정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현재 시기에 대한 인식(발현성인기 특징의 경제수준별 차이)

현재 시기에 대한 인식	경제수준Mean(SD)				
	하	중	상	F	Scheffé
1) 많은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다	3.24(.577)	3.27(.588)	3.29(.555)	0.963	상>중>하
2) 탐색을 하는 시기이다	3.06(.616)	3.09(.657)	3.13(.682)	2.304	상>중>하
3) 혼란스러운 시기이다	2.83(.765)	2.74(.746)	2.74(.751)	2.239	하>상>중
4) 실험의 시기이다	2.93(.658)	2.88(.669)	2.87(.691)	0.972	하>중>상
5) 자유를 누리는 시기이다	2.78(.777)	2.98(.701)	2.98(.714)	12.688***	중>상>하
6) 제약을 많이 느끼는 시기이다	2.61(.745)	2.62(.722)	2.63(.702)	0.131	상>중>하
7) 나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기이다	3.19(.601)	3.17(.604)	3.12(.629)	2.341	하>중>상
8)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이다	2.96(.713)	2.96(.668)	2.91(.675)	1.472	중>하>상
9) 불안정한 시기이다	2.79(.676)	2.74(.716)	2.64(.692)	7.404**	하>중>상
10) 낙관적인 시기이다	2.56(.681)	2.62(.645)	2.63(.671)	1.618	상>중>하
11) 압력을 많이 받는 시기이다	2.73(.705)	2.63(.714)	2.66(.692)	2.437	하>상>중
12)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시기이다	3.00(.602)	3.08(.622)	3.08(.662)	2.486	중>상>하
13) 정착하는 시기이다	2.46(.699)	2.61(.738)	2.57(.788)	5.405**	중>상>하
14) 타인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기이다	2.64(.784)	2.74(.771)	2.72(.776)	2.052	중>상>하
15) 독립하는 시기이다	2.77(.725)	2.76(.718)	2.74(.729)	0.263	하>중>상
16)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이다	3.08(.609)	3.13(.622)	3.10(.648)	0.711	중>상>하
17) 예측이 어려운 시기이다	2.89(.709)	2.89(.682)	2.92(.680)	0.337	상>중>하
18) 다른 사람에게 헌신해야 하는 시기이다	2.33(.708)	2.44(.758)	2.40(.782)	2.462	중>상>하
19) 자립해야 하는 시기이다	2.87(.636)	2.85(.648)	2.83(.658)	0.810	하>중>상
20) 걱정이 많은 시기이다	3.13(.575)	3.04(.634)	2.95(.628)	12.471***	하>중>상
21)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시기이다	3.12(.587)	3.13(.620)	3.15(.623)	0.467	상>중>하
22)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기이다	3.18(.586)	3.23(.615)	3.25(.597)	1.995	상>중>하
23)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시기이다	2.80(.688)	2.71(.729)	2.75(.749)	1.700	하>상>중
24)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시기이다	3.24(.626)	3.16(.580)	3.21(.615)	2.336	하>상>중
25)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다	3.27(.632)	3.27(.630)	3.26(.653)	0.039	하>중>상
26) 삶의 의미를 찾는 시기이다	3.15(.635)	3.21(.606)	3.19(.641)	1.330	중>상>하
27)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결정하는 시기이다	3.17(.619)	3.20(.607)	3.13(.647)	1.977	중>하>상
28)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이다	3.16(.600)	3.20(.581)	3.11(.642)	4.157*	중>하>상
29) 어떤 때는 성인인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성인 이 아닌 것 같은 시기이다	2.94(.703)	2.97(.688)	2.95(.692)	0.311	중>상>하
30) 점차 성인이 되어 가는 시기이다	3.07(.577)	3.12(.573)	3.06(.591)	2.605	중>하>상
31) 성인이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은 시기이다	2.71(.670)	2.70(.693)	2.75(.687)	1.300	상>하>중

*p<.05, **p<.01, ***p<.001

3. 성인의 기준에 대한 인식 및 세대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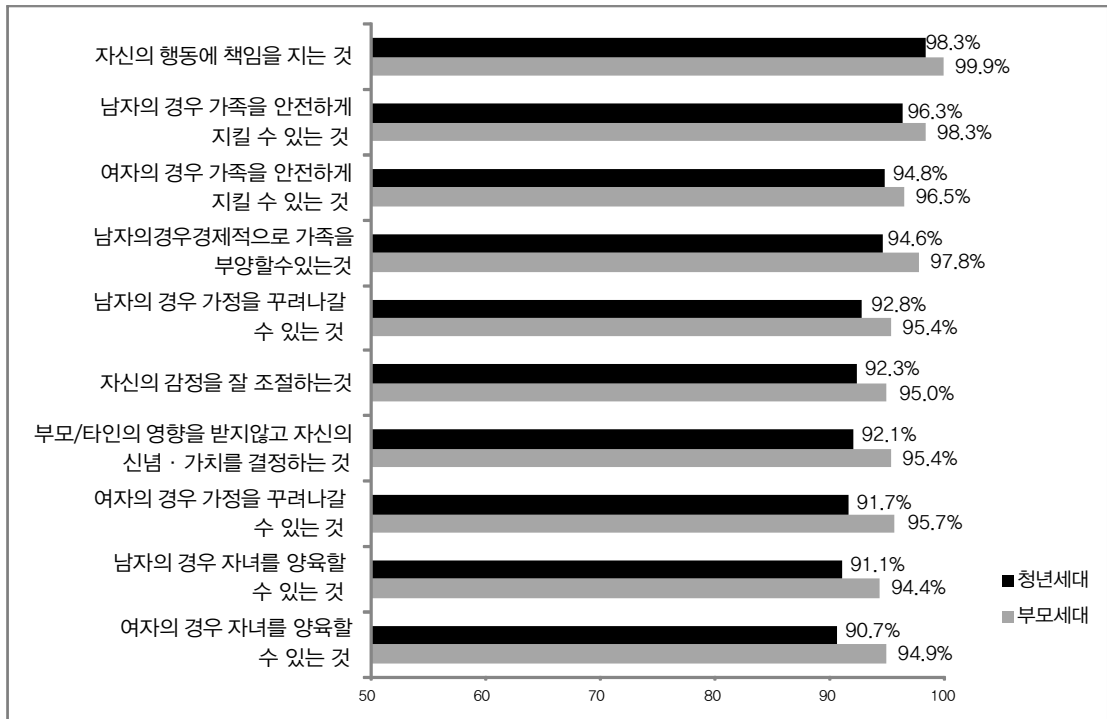
청년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각하는 성인의 기준을 조사하기 위해 Arnett(2000)의 ‘성인의 기준’(A criterion must be achieved for the transition to adulthood) 조사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성인이 생각하는 성인의 기준에 대해서 조사하고, 타 문화권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41개의 성인의 기준 항목 중 중요도가 두드러지게 높거나 낮은 항목, 그리고 청년세대와 성인세대, 또 타 문화권과의 차이가 큰 항목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이들 성인의 기준에 대한 41개 문항의 요인분석과 이에 따른 배경변인별 분석은 6절(p.148)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1) 성인의 기준 중요도 조사결과

현재 한국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인의 기준을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성인에게 질문하기 위해 Arnett의 41개의 성인의 기준과 관련된 항목들을 제시하면서,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다음의 조건(성인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응답에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순위대로 결과를 정리하였는데, 그 중 현재 우리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인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중요도가 높은 10개 항목(청년세대조사 결과 기준)을 보면, 【그림 IV-2】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청년세대보다 부모세대의 중요도 비율이 높게 나타나, 부모세대 성인들은 성인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들에 대해 더 강한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중요도 상위 10개 항목의 경우 약간의 순위 차이만 나타나 청년세대와 부모세대가 중요시하는 성인의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IV-2】와 <표 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Arnett의 성인의 기준항목 중 청년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98.3%)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부모세대 성인들도 동일하게 이 항목을 성인의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9.9%).



※ '다소중요하다'와 '매우중요하다'를 더한 값

【그림 IV-2】 성인의 기준에 대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의 중요도 차이

그 다음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인 항목들은 주로 자신의 가족을 꾸리고 부양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나라 청년세대와 부모세대는 성인의 기준으로써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 중 가장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남자의 경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청년세대의 96.3%가 중요하게 생각했고, 성별차이는 크게 없었으나 부모세대의 경우는 약간 더 높은 98.3%의 중요도를 보였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나타나 청년세대는 94.8%(남자청년은 93.1%, 여자청년은 96.6%)가, 그리고 부모세대는 남녀 큰 차이 없이 96.5%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성인의 기준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항목은 '남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년세대는 94.6%, 부모세대는 97.8%로, 각각 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 청년들은 87.2%, 부모세대는 88.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응답하여 성별에 따른 경제적인 가족부양에 대한 기대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그 다음 순으로 중요하게 나타난 성인의 기준은 '남자의

경우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 청년은 92.8%로 나타났고, 그 중 남자청년은 91.5%인데 비해 여자청년은 94.1%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여자청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부모세대는 전체적으로는 95.4%의 응답률을 보였으나 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외에 가족과 관련된 성인의 기준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 여자의 경우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 청년은 91.7%, 부모세대는 95.7%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도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 중요한 성인의 기준으로 보고 있었다.

표 IV-5 성인의 기준 중요도에 대한 청년과 부모세대 응답 비교 (단위: %)

순위	성인의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청년세대(N=2000)			부모세대(N=1000)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1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98.3	98.1	98.5	99.9	99.8	100
2	남자의 경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	96.3	95.7	97.0	98.3	98.2	98.4
3	여자의 경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	94.8	93.1	96.7	96.5	96.0	97.0
4	남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	94.6	94.0	95.2	97.8	98.2	97.4
5	남자의 경우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	92.8	91.5	94.1	95.4	95.4	95.4
6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	92.3	91.2	93.6	95.0	93.6	96.4
7	부모나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	92.1	90.7	93.7	95.4	95.0	95.8
8	여자의 경우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	91.7	90.3	93.3	95.7	95.2	96.2
9	남자의 경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	91.1	90.7	91.4	94.4	95.4	93.4
10	여자의 경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	90.7	89.4	92.2	94.9	94.0	95.8
11	자기중심적인 면이 줄어들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커지는 것	90.6	90.1	91.1	94.7	95.2	94.2
12	장기적으로 하게 될 일을 시작하는 것	89.3	89.0	89.6	93.9	94.4	93.4
13	부모나 타인으로 부터의 경제적 독립	88.8	87.5	90.3	92.7	92.4	93.0
14	남자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마치는 것	88.4	88.6	88.0	92.9	92.8	93.0
15	여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	87.2	85.4	89.2	88.5	86.1	90.8
16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	86.8	86.4	87.2	87.1	86.9	87.3
17	남자의 경우 신체적으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	84.1	83.7	84.5	89.4	88.8	90.0
18	공공기물을 파손하거나 줌독질을 하지 않는 것	84.1	82.9	85.5	90.6	90.4	90.8
19	학교 교육을 마치는 것	83.2	82.1	84.5	89.3	89.2	89.4
20	여자의 경우 신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	82.8	82.2	83.4	88.7	87.6	89.8
21	안전하게 운전하고 과속하지 않는 것	82.1	80.5	84.0	89.0	87.1	90.8
22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얽매이지 않는 것	82.1	81.3	82.9	89.0	90.2	87.8

23	전일제로 일자리를 갖는 것	81.8	81.8	81.7	88.3	88.2	88.4
24	임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임을 하는 것	81.0	79.2	83.1	86.7	84.9	88.4
25	불법적인 약물(마약)하지 않는 것	79.1	78.2	80.1	85.3	84.7	85.9
26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	77.0	76.7	77.2	88.0	87.6	88.4
27	성인으로서 부모와 동등한 관계를 갖는 것	71.6	68.1	75.6	81.6	80.3	82.9
28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69.0	67.7	70.4	80.3	78.9	81.7
29	결혼 하는 것	68.6	68.8	68.2	85.6	83.9	87.3
30	만 21세가 되는 것	66.5	65.9	67.2	77.3	75.3	79.3
31	주택 구입	62.7	62.9	62.5	74.3	74.3	74.3
32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	61.8	63.5	59.9	69.3	70.7	67.9
33	최소한 한 명의 자녀를 두는 것	60.4	61.3	59.3	77.1	75.9	78.3
34	음주가 허용되는 것	58.1	57.2	59.0	64.6	63.1	66.1
35	과음을 하지 않는 것	58.0	55.8	60.4	73.0	72.3	73.7
36	만 18세가 되는 것	56.5	55.6	57.4	66.5	67.3	65.7
37	흡연이 허용되는 것	54.8	53.9	55.7	60.8	58.0	63.5
38	부모(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	54.0	53.7	54.3	59.6	57.2	62.0
39	애인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	50.5	50.9	50.1	66.5	63.5	69.5
40	키가 다 자란 것	48.8	49.0	48.4	57.7	56.0	59.4
41	성경험이 있는 것	43.9	44.3	43.4	53.3	51.2	55.4

※ ‘다소 중요하다’ 와 ‘매우중요하다’ 를 합친 응답률 제시

가족과 관련된 항목이 아니면서 성인의 기준으로 그 중요도가 90% 넘게 나타난 항목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경우 92.3%, 부모세대의 경우 95%가 응답하였고,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 성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 조사대상자의 경우 감정조절을 성인의 기준으로 보는 비율이 남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인의 기준으로서 ‘부모나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응답도 청년 92.1%, 부모세대 95.4%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자청년의 응답(93.7%)이 남자청년(90.7%)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인의 기준 중요도와 관련하여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조사 결과에 대한 성별 차이를 보면, 청년 및 부모조사 모두에서 여성응답자가 남성응답자에 비해 중요도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10개 항목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남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과 ‘남자의 경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 항목에서 성인남자가 성인여성보다 약간 더 높게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청년의 ‘성인의 기준’으로 중요도가 낮은 항목

성인의 기준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항목은 청년조사결과 기준으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과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을 제외하면, 주로 가족형성과 자녀양육 등에 관한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사회에서 성인의 기준으로 어떤 내용들에 대해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요도 순위가 가장 낮은 내용부터 10가지의 항목들을 살펴본 결과(청년조사 결과 기준), <표 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경험을 포함한 신체적 성장, 연애 관련이나 흡연이나 음주의 허용, 혹은 운전면허증 취득 등이 성인의 기준으로 중요하지 않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의 기준으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인 것은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43.9%의 청년들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항목은 부모세대에서도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 항목에 대해 청년세대 조사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부모세대 조사에서는 남자의 약 51.2%가 이를 성인의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한데 비해, 여자의 경우 55.4%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성별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세대 조사에서 두 번째로 낮은 중요도를 보인 항목은 ‘키가 다 자란 것’으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에서 모두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각각 48.8%, 57.7%). 그 다음으로 중요도가 낮은 성인의 기준은 ‘애인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이었다(50.5%). 이에 대해 청년세대에서는 성별 간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부모세대에서는 약간의 성별차이를 보여, 남자(63.5%)보다 여자(69.5%)가 이를 성인의 기준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조사 모두에서 ‘부모(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이 성인의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는데, 이는 한국사회에서 부모로부터의 분가 혹은 독립을 성인의 기준으로 여기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함을 보여준다.

이 외에 규범준수와 관련되어 있거나, 성인이 되어야 허용되는 행동인 ‘흡연 및 음주 허용’, ‘과음하지 않는 것’, ‘만18세 연령기준’, ‘운전면허 취득 후 자동차 운전’ 등의 항목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는데, 성별 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항목들은 부모세대 조사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는데, 성별 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조사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최소한 한 명의 자녀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년세대는 이에 대한 중요도를 매우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33번째).

성인의 기준으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이라 하더라도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조사에서

모두 남성보다 여성에게 중요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남자청년의 경우 ‘최소한 한명의 자녀를 두는 것’과 ‘운전면허 취득 후 자동차운전을 할 수 있는 것’ 항목에서만 여자청년보다 더 중요도가 높았다. ‘운전면허 취득 후 자동차운전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세대 성인남자의 응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중요도가 나타났다.

3) 성인의 기준에 대한 세대별 차이

어떤 성인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지는 각 사회와 문화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동일한 사회와 문화권에서도 세대별(부모세대와 청년세대), 그리고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조사대상 청년세대와 부모세대가 어떤 항목을 성인의 기준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를 더욱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 상위 10개의 항목에 대한 세대별 중요도 순위를 보면 <표 IV-6>와 같다.

표 IV-6 성인의 기준 중요도 순위 (높은 순위 목록): 청년-부모세대 비교 (단위: %)

청년세대			부모세대		
순위	성인의 기준	전체	순위	성인의 기준	전체
1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98.3	1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99.9
2	남자의 경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	96.3	2	남자의 경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	98.3
3	여자의 경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	94.8	3	남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	97.8
4	남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	94.6	4	여자의 경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	96.5
5	남자의 경우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	92.3	5	여자의 경우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	95.7
6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	92.3	6	부모나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	95.4
7	부모나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	92.1	7	남자의 경우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	95.4
8	여자의 경우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	91.7	8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	95.0
9	남자의 경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	91.1	9	여자의 경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	94.9
10	여자의 경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	90.7	10	남자의 경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	94.4

※ ‘다소중요하다’와 ‘매우중요하다’를 합친 응답률 제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포함하여 성인의 기준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들의 내용도 동일하고 또 1순위와 2순위 기준들도 일치하지만, 몇 가지 기준의 중요도에 있어서는 청년세대와 부모세대의 인식차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표 I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년조사에는 ‘여자의 경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3순위로 나타났으나, 부모세대 성인의 경우는 3순위의 중요도를 보인 것은 ‘남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청년조사결과에서는 ‘남자의 경우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이 다섯 번째 중요도 비율을 보였으나, 성인의 경우 일곱 번째로 나타났다. 가족과 관련된 기준이 아닌 개인적인 성인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청년조사에서는 6번째로 중요한 성인의 기준으로 나타났으나, 성인조사에서는 8번째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간 약간의 중요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성인의 기준으로 중요도가 낮은 항목들에 대해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의 인식의 차이는 <표 I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년조사에서 ‘애인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이 흡연이나 음주와 관련된 항목보다 중요도가 낮게 나타난 반면, 성인조사에서는 흡연·음주보다 ‘애인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성인의 기준으로서 ‘부모(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에게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부모세대의 응답을 보면, 다른 성인의 기준에 비해 ‘부모(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 부모세대들이 청년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결혼하여 분가하기 전까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허용적인 이유로 볼 수 있다.

부모세대 성인들과 청년들의 조사에서 ‘음주가 허용되는 것’과 ‘과음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중요도가 모두 낮게 나타나 성인의 기준으로서의 음주 및 과음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다른 성인의 기준에 비해, 음주허용은 부모세대에게 있어서 성인의 기준으로서의 중요도가 더 낮게 나타났고, ‘과음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세대보다 청년들에게서 중요도 순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다른 성인의 기준에 비해 청년조사대상은 ‘최소한 한명의 자녀를 두는 것’에 대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함에 따라 낮은 중요도 순위를 보였고, 부모세대의 경우 ‘주택의 구입’을 다른 성인의 기준보다 덜 중요하게 인식하여 더 낮은 순위에 위치해 있었다.

청년세대			부모세대		
순위	성인의 기준	전체	순위	성인의 기준	전체
41	성경험이 있는 것	43.9	41	성경험이 있는 것	53.3
40	키가 다 자란 것	48.8	40	부모(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	59.6
39	애인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	50.5	39	키가 다 자란 것	57.7
38	부모(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	54.0	38	흡연이 허용되는 것	60.8
37	흡연이 허용되는 것	54.8	37	음주가 허용되는 것	64.6
36	만18세가 되는 것	56.5	36	애인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	66.5
35	과음을 하지 않는 것	58.0	35	만18세가 되는 것	66.5
34	음주가 허용되는 것	58.1	34	운전면허증 취득 후 자동차 운전	69.3
33	최소한 한명의 자녀를 두는 것	60.4	33	과음을 하지 않는 것	73.0
32	운전면허증 취득 후 자동차 운전	61.8	32	주택구입	74.3

※ '다소중요하다'와 '매우중요하다'를 합친 응답률 제시

이 외에 성인의 기준에 대해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조사결과 중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앞의 <표 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관련 선행연구에서 성인기 과업으로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경제적 독립에 대해서는(부모나 타인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청년들의 88.8%, 성인들의 92.7%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독립의 경우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간 큰 차이 없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 대해서 청년과 성인들 모두 성별로 차이를 보여 여성의 경우 경제적 독립을 성인의 기준으로 중요하게 보는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세대와 부모세대간의 성인의 기준 중요도에 있어 부모세대들의 중요도가 적게는 0.3%(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에서부터 17%까지(결혼하는 것, 최소한 한명의 자녀를 두는 것) 그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10% 이상의 큰 인식차이를 보인 성인의 기준 항목들이 다수 있었다. 예를 들면 <표 I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간 가장 큰 차이는 성인의 기준으로 '결혼하는 것'과 '최소한 한명의 자녀를 두는 것'에 대한 중요도의 차이이다. 이 항목들에 대해 청년들은 각각 68.6%, 60.6%만이 성인의 기준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었으나, 성인들은 각각 85.6%와 77.1%로 응답해, 성인세대에 비해 청년들은 성인의 기준으로 결혼과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중요도가 훨씬 낮게 나타났다. 또한 성인의 기준으로 '애인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과 '과음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간 15%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표 IV-8 세대 간 중요도 차이가 크게 나타난 성인의 기준 항목

(단위: %)

청년세대	성인의 기준	부모세대
68.6	결혼하는 것	85.6
60.4	최소한 한명의 자녀를 두는 것	77.1
50.5	애인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	66.5
58.0	과음을 하지 않는 것	73.0
62.7	주택구입	74.3
77.0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	88.0
69.0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80.3
56.5	만 18세가 되는 것	66.5
66.5	만 21세가 되는 것	77.3
71.6	성인으로서 부모와 동등한 관계를 갖는 것	81.6

※ ‘다소중요하다’와 ‘매우중요하다’를 합친 응답률 제시

성인의 기준의 각 항목별로 성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임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임을 하는 것’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에서 남성응답자보다 여성응답자들에게서 그 중요도가 4~5%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인으로서 부모와 동등한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여자청년이 남자청년보다 7.5% 더 높은 중요도를 보여 남녀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4) ‘성인의 기준’에 대한 외국조사결과 비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과 루마니아에서 동일한 Arnett의 ‘성인의 기준’ 조사도구를 이용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한국의 조사는 4점 척도(전혀 중요하지 않다~매우 중요하다)를 이용하여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의 중요도를 조사한 반면, 중국의 경우는 성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 가부(可否)를 조사하였고(Nelson, Badger & Wu, 2004), 루마니아의 경우는(Nelson, 2009), 각 항목의 중요도에 대해 평균값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단순한 수적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각 사회의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성인의 기준을 검토하고, 특히 한국의 청년들의 조사결과와 비교해서 어떤 항목들에 대해 성인의 기준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하겠다.

〈표 IV-9〉는 중국과 루마니아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순위별로 제시한 것으로,

한국, 중국 및 루마니아 청년들이 성인의 기준으로 중요하다거나 필요하다고 여기는 특성들을 자세히 볼 수 있다.

표 IV-9 성인의 기준 중요도에 대한 중국 및 루마니아 연구결과

성인의 기준	중국				루마니아			
	필요도 (응답률)				중요도 (평균값)			
	순위	전체	남	여	순위	전체	남	여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1) ²⁴⁾	1	97.1	96.8	97.3	1	3.78	3.75	3.79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 (6)	2	95.2	92.6	97.3	14	3.62	3.50	3.70
부모나 타인으로 부터의 경제적 독립	3	93.2	89.4	96.5	6	3.56	3.55	3.57
자기중심적인 면이 줄어들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커지는 것	4	92.8	87.2	97.3	17	3.50	3.32	3.62
남자의 경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 (2)	5	91.3	86.2	95.6	22	3.46	3.21	3.62
부모나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 (7)	6	89.4	90.4	88.5	3	3.43	3.30	3.52
성인으로서 부모와 동등한 관계를 갖는 것	7	89.4	86.2	92.0	4	3.41	3.23	3.53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	8	88.9	88.3	89.4	25	3.37	3.12	3.54
남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 (4)	9	86.5	89.4	84.1	9	3.34	3.24	3.41
임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임을 하는 것	10	81.2	78.7	83.2	8	3.34	3.34	3.34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얽매이지 않는 것	11	80.2	84.0	77.0	30	3.33	3.26	3.38
공공기물을 파손하거나 좀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	12	79.7	79.8	79.6	5	3.29	3.26	3.32
여자의 경우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 (8)	13	77.8	75.5	79.6	15	3.27	3.13	3.36
남자의 경우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 (5)	14	77.8	73.4	81.4	12	3.23	3.16	3.27
불법적인 약물(마약)하지 않는 것	15	76.8	74.5	78.8	2	3.21	2.95	3.40
여자의 경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 (10)	16	72.5	76.6	69.0	7	3.21	2.93	3.40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	17	69.6	67.0	71.7	13	3.19	3.02	3.31
애인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	18	68.1	68.1	68.1	26	3.18	2.97	3.33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19	67.6	59.6	74.3	20	3.13	3.12	3.14
안전하게 운전하고 과속하지 않는 것	20	63.8	60.6	66.4	24	3.07	2.79	3.26
장기적으로 하게 될 일을 시작하는 것	21	62.3	57.4	66.4	16	3.02	2.71	3.23
여자의 경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 (3)	22	61.8	47.9	73.5	34	3.00	2.98	3.02
남자의 경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 (9)	23	61.4	58.5	63.7	19	2.92	2.85	2.97
남자의 경우 신체적으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	24	55.1	59.6	51.3	28	2.87	2.73	2.97
과음을 하지 않는 것	25	54.1	47.9	59.3	18	2.85	2.71	2.94
여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	26	52.7	38.3	64.6	21	2.82	2.72	2.89
여자의 경우 신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	27	50.2	52.1	48.7	31	2.62	2.56	2.66
학교 교육을 마치는 것	28	48.8	53.2	45.1	10	2.55	2.53	2.57

부모(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	29	48.8	46.8	50.4	11	2.53	2.53	2.52
만 21세가 되는 것	30	45.9	47.9	44.2	35	2.44	2.39	2.47
주택 구입	31	43.5	41.5	45.1	23	2.43	2.20	2.59
만 18세가 되는 것	32	42.0	43.6	40.7	36	2.41	2.31	2.48
결혼 하는 것	33	38.2	43.6	33.6	33	2.40	2.35	2.44
남자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마치는 것	34	30.9	33.0	29.2	38	2.39	2.05	2.92
음주가 허용되는 것	35	30.0	30.9	29.2	39	2.37	2.28	2.44
최소한 한 명의 자녀를 두는 것	36	28.5	31.9	25.7	32	2.34	2.29	2.38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	37	28.5	30.9	26.5	37	2.20	2.04	2.31
전일제로 일자리를 갖는 것	38	25.6	30.9	21.2	27	2.16	1.94	2.31
흡연이 허용되는 것	39	25.6	24.5	26.5	41	1.84	1.87	1.83
키가 다 자란 것	40	22.2	26.6	18.6	40	1.81	1.72	1.88
성경험이 있는 것	41	20.3	23.4	17.7	29	1.79	1.78	1.80

3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의 기준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을 모든 국가에서 성인으로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은 흥미 있는 결과이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한국조사에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에게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는데, 타 국가의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가장 중요하거나 필요한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Nelson 외, 2004)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높은 필요성을 보였고, 루마니아(Nelson, 2009)의 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타 문화권에서도 성인의 기준으로 이 항목을 중요하게 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청년들이 성인의 기준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항목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었었는데, 중국과 루마니아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에서는 ‘남자의 경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5번째로 필요한 조건으로 나타난데 비해, 여성의 경우에는 그 순위가 22번째로 나타났다. 루마니아는 한국과 더 동떨어진 결과를 보였는데, 남자가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22번째, 여자의 경우 동일 내용에 대해서는 34번째로 중요하게 나타나, 양국 모두 한국의 청년조사 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 청년들에게서 4번째로 중요하다고 나타난 성인의 기준은 ‘남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항목에 대해서는 중국과 루마니아 모두 우리사회에서보다 더 낮은 9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우리사회에서는 남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bread earner로서)을 성인의 기준으로 보다 더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여자가

24) 괄호안의 숫자는 한국청년조사에서의 중요도 순위를 말함.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 청년들의 중요도는 15번째로 나타난 것에 비해, 중국의 경우는 그 필요성이 26번째로 나타났고, 루마니아는 21번째로 중요하게 나타나 우리사회에서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을 성인의 기준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의 청년조사에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가족과 관련된 항목들에(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 등) 대해 중국과 루마니아 청년들은 한국청년들보다 그 필요성이나 중요도를 대체로 더 낮게 보고 있었다.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항목들 중 한국의 청년들에게서 성인의 기준으로 6번째로 중요하게 나타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은 중국조사에서는 2번째로 필요한 성인의 조건으로, 그리고 루마니아 조사에서는 14번째로 나타났고, '부모나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은 6번째, 루마니아는 3번째로 나타나, 이러한 가족관련 기준이 아닌 개인과 관련된 성인의 기준 항목에 대한 중요도가 한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청년조사에서는 중요하게 나타난 기준이 아니지만, 중국과 루마니아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난 항목인 '부모나 타인으로 부터의 경제적 독립'은 한국에서는 13번째로 중요하게 나타난 데 비해 중국에서는 3번째로 필요한 조건으로, 그리고 루마니아에서는 6번째로 중요한 기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으로서 부모와 동등한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한국의 청년들이 27번째의 중요도를 보인데 비해, 중국에서는 7번째, 루마니아에서는 4번째로 나타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청년조사에서 '임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임을 하는 것'이 24번째의 중요도 순위를 보인 데 비해, 중국의 경우는 10번째로 필요한 성인의 기준으로 응답했고, 루마니아의 경우는 8번째로 나타났다.

한국의 청년조사에서 중요하지 않게 나타난 항목들에 대한 중국과 루마니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조사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청년조사 결과 38번째). 그러나 중국에서는 성인의 기준 필요성으로 29번째, 그리고 루마니아에서는 11번째의 중요도를 보여,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것'에 대해 한국사회보다 성인의 기준으로 훨씬 더 필요하거나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청년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에 대해 타 문화권에 비해 더 허용적인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청년들은 '과음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중요도가 35번째 정도로 전체 41개 항목 중 상당히 낮은 편에 속했는데, 중국에서는 성인의 기준 필요성에서 25번째, 그리고 루마니아에서는 18번째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과음에 대한 인식이 적어도 중국과 루마니아보다 상당히

관대하며, 특히 성인의 기준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성인의 기준에 대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의 인식조사 결과를 타 국가 조사 결과와 비교한 결과, 한국사회에서는 성인의 기준으로 가족형성 및 가족부양, 자녀양육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비해 개인의 행동과 정서(감정조절, 과음 등), 그리고 부모에 대한 경제적, 물리적 독립 등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에서보다 성인의 기준으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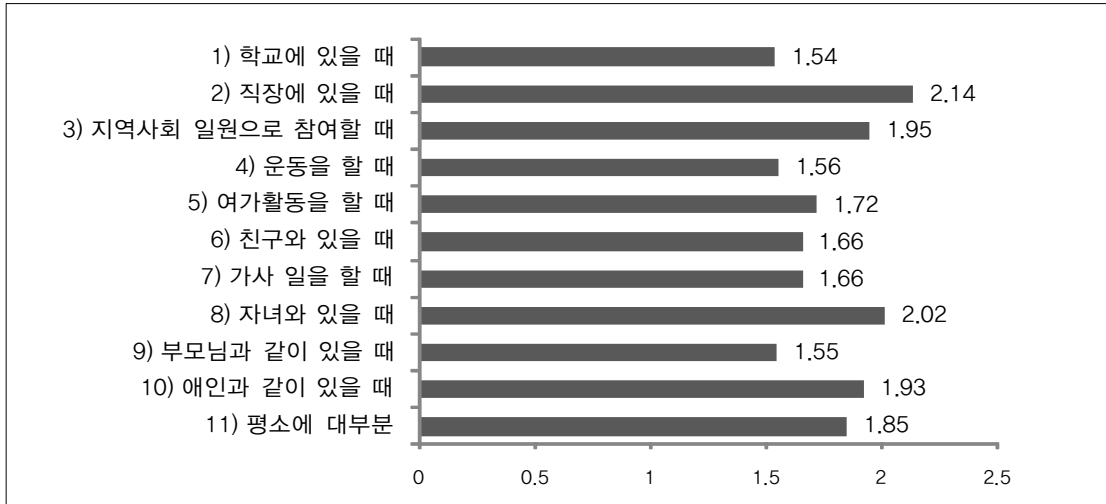
동일한 조사도구를 이용하긴 했지만, 각 국의 조사에서 사용한 측정 방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해당 사회에서 어떤 기준들이 성인됨을 의미하는지를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보는 데에는 이러한 비교가 충분히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4. 성인으로 인식하는 상황과 성인기 과업 수행시기

1) 자신을 성인으로 인식하는 정도

청년 조사 대상들이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 따라 자신을 성인이라고 느끼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그림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장에 있을 때($M=2.14$)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자녀와 있을 때($M=2.02$), 지역사회일원으로 참여할 때($M=1.95$)순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장소와 상황에 따라 성인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성별, 연령범위, 그리고 경제활동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장소와 상황 또는 특정 활동, 그리고 함께 있는 대상별로 나누어 표를 제시하였다(〈표 IV-10〉). 장소나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연령대가 높은 경우,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을 성인이라고 느끼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 성인이라고 느끼는 정도

① 장소에 따라 성인이라고 느끼는 정도

학교와 직장(office)에 있을 때 성인으로 느끼는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 조사대상 청년들의 응답을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 IV-10>와 같다.

표 IV-10 장소에 따라 성인이라고 느끼는 정도

장소	구분		Mean(SD)	t
학교에 있을 때	전체		1.54(.580)	0.822
	성별	남	1.55(.593)	
		여	1.53(.565)	
	연령	만19~21세	1.53(.571)	-0.991
		만22~24세	1.55(.593)	
	경제활동 유무	유	1.51(.564)	-1.168
		무	1.55(.588)	
직장(office)에 있을 때	전체		2.14(.634)	-1.523
	성별	남	2.11(.657)	
		여	2.18(.606)	
	연령	만19~21세	2.03(.641)	-3.688***
		만22~24세	2.21(.621)	
	경제활동 유무	유	2.22(.601)	5.082***
		무	1.97(.670)	

*p<.05, **p<.01, ***p<.001

구체적으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그리고 연령대가 더 높을 때(만22세~24세) 더 높은 평균값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반면 직장에 있을 때 성인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학교에 있을 때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만22세~24세이고($p<.001$),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때 성인으로 느끼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② 활동상황에 따라 성인이라고 느끼는 정도

지역사회 일원으로 사회봉사나 선거참여 등의 활동을 하거나, 운동이나 여가활동을 할 때, 그리고 가사 일을 할 때 성인으로 느끼는 정도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표 IV-11>와 같다.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때 성인으로 느끼는 정도는 연령과 경제활동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만22~24세인 경우,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인이라고 느끼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p<.05$). 운동을 할 때 성인이라고 느끼는 정도는 성별,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가 여자보다($p<.01$), 그리고 연령대가 더 높을 경우(만 22~24세) 성인으로 느끼는 정도가 높았고 경제활동 유무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1 활동·상황에 따라 성인이라고 느끼는 정도

상황·활동	구분		Mean(SD)	t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때 (예: 사회봉사활동, 선거참여, 종교 활동 등)	전체		1.95(.624)	
	성별	남	1.95(.632)	0.085
		여	1.95(.615)	
	연령	만19~21세	1.89(.616)	-4.603***
		만22~24세	2.02(.625)	
	경제활동 유무	유	1.99(.627)	2.130*
		무	1.93(.621)	
운동을 할 때	전체		1.56(.704)	
	성별	남	1.60(.641)	2.986**
		여	1.51(.618)	
	연령	만19~21세	1.51(.613)	-3.265**
		만22~24세	1.60(.648)	
	경제활동 유무	유	1.58(.634)	1.121
		무	1.54(.630)	
여가활동을 할 때	전체		1.72(.642)	

(예: 박물관, 콘서트, 스포츠 관람 등)	성별	남	1.71(.642)	-0.539
		여	1.73(.642)	
	연령	만19~21세	1.68(.645)	-2.840**
		만22~24세	1.76(.636)	
	경제활동 유무	유	1.79(.653)	3.688***
		무	1.68(.632)	
가사 일을 할 때	전체		1.66(.630)	
	성별	남	1.64(.649)	-1.747
		여	1.69(.609)	
	연령	만19~21세	1.63(.626)	-2.311*
		만22~24세	1.70(.632)	
	경제활동 유무	유	1.65(.650)	-0.657
		무	1.67(.616)	

*p<.05, **p<.01, ***p<.001

여가활동의 경우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연령과 경제활동에 따른 차이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연령대가 더 높고(p<.01),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p<.001), 여가활동 시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느끼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일을 할 때 성인으로 느낀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연령별로만 유의미한 차이를(p<.05) 보였는데, 역시 만22~24세의 청년들이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성별이나 경제활동 유무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③ 함께 있는 대상에 따라 성인이라고 느끼는 정도

〈표 I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께 있는 대상에 따라 스스로를 성인으로 느끼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자녀와 있을 때’, 그리고 ‘애인과 같이 있을 때’에 대한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친구와 있을 때’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순으로 나타나,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을 성인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세부변인별로 보면 ‘친구와 있을 때’ 성인이라고 느끼는 정도는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p<.01) 보였는데, 역시 만22~24세의 청년들의 응답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여주었다. ‘자녀와 함께 있을 때’ 성인으로 느끼는 정도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여자보다 남자청년이, 그리고 연령이 높고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평균값이 높았다. ‘부모님과 같이 있을 때’ 성인으로 느끼는 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이 만22세~24세에 해당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부모와 같이 있을 때 자신을 성인이라고 느끼는 정도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애인과 같이 있을 때’ 성인이라고 느끼는 정도는 성별과 연령, 경제활동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청년보다는 남자청년이($p<.01$), 그리고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만22~24세)($p<.001$),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서 더 높았다($p<.05$).

표 IV-12 함께 있는 대상에 따라 성인이라고 느끼는 정도

함께 있는 대상	구분		Mean(SD)	t
친구와 있을 때	전체		1.66(.638)	
	성별	남	1.66(.641)	0.041
		여	1.66(.635)	
	연령	만19~21세	1.62(.642)	-2.902**
		만22~24세	1.70(.631)	
	경제활동 유무	유	1.69(.643)	1.963
		무	1.63(.634)	
자녀와 있을 때	전체		2.02(.732)	
	성별	남	2.06(.776)	0.980
		여	1.95(.644)	
	연령	만19~21세	1.97(.686)	-1.018
		만22~24세	2.09(.787)	
	경제활동 유무	유	2.12(.788)	1.654
		무	1.93(.667)	
부모님과 같이 있을 때	전체		1.55(.626)	
	성별	남	1.54(.620)	-0.596
		여	1.56(.633)	
	연령	만19~21세	1.49(.605)	-4.638***
		만22~24세	1.62(.642)	
	경제활동 유무	유	1.60(.628)	2.522*
		무	1.52(.623)	
애인과 같이 있을 때	전체		1.93(.609)	
	성별	남	1.97(.604)	3.247**
		여	1.88(.609)	
	연령	만19~21세	1.86(.603)	-4.098***
		만22~24세	1.99(.609)	
	경제활동 유무	유	1.96(.630)	2.022*
		무	1.90(.592)	

* $p<.05$, ** $p<.01$, *** $p<.001$

④ 평상시 성인이라고 느끼는 정도

평상시 자신을 성인이라고 느끼는 정도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표 IV-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항목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령별, 경제활동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가 높고(만22세~24세),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평상시에 성인이라고 느끼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V-13 평소에 성인이라고 느끼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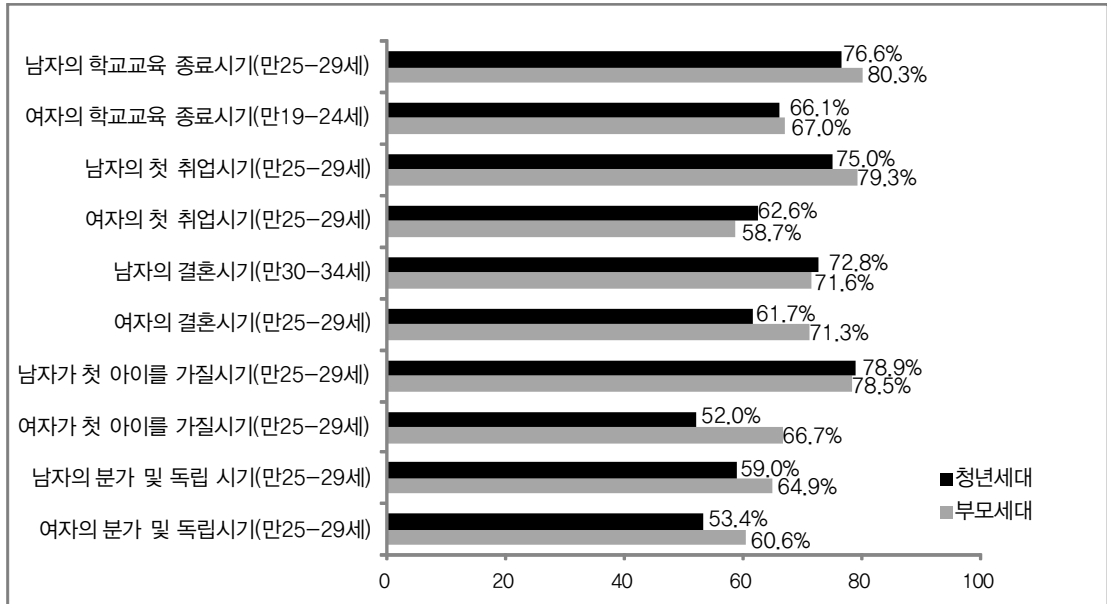
	구분		Mean(SD)	t
평소에 대부분	전체		1.85(.547)	1.434
	성별	남	1.86(.543)	
		여	1.83(.552)	
	연령	만19~21세	1.76(.540)	-7.308***
		만22~24세	1.94(.540)	
	경제활동 유무	유	1.91(.543)	4.239***
		무	1.81(.546)	

*p<.05, **p<.01, ***p<.001

2) 성인기 과업 수행시기에 대한 인식

(1) 성인기 과업 수행시기에 대한 청년과 성인의 전반적인 인식 차이

중요한 성인기 과업으로 여겨지는 학교교육 종료, 취업, 결혼, 첫아이 출산,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바람직한 시기를 조사하여, 청년세대와 부모세대의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그림 IV-4】와 같다. 남자의 학교교육 종료시기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 만 25세~29세를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청년과 성인 모두 만19세~24세에 대한 응답이 많아, 성별에 따른 학교교육 종료 시기를 다르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취업 시기에 대해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 만25세~29세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남자의 경우 그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 각 항목별로, 청년과 성인의 응답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연령대 기준임.

【그림 IV-4】 청년세대와 부모세대가 인식하는 성인기 과업 수행 시기

결혼과 첫 아이를 가져야 할 시기에 대해서는 역시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 남자의 결혼과 첫 아이를 갖는 시기를 만30~34세로 보고 있는 반면, 여자의 결혼과 첫아이를 갖는 시기에 대해서는 만25세~29세로 보고 있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독립할 바람직한 시기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 남자의 분가 및 독립 시기는 만30~34세로, 그리고 여자의 분가 및 독립시기를 만25~29세로 보는 응답이 많았는데, 한국사회에서 분가가 결혼을 기점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남녀의 기대 결혼연령의 차이가 분가 기대연령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14〉는 성인기 과업 수행시기에 있어서의 청년세대와 부모세대의 응답을 비교한 것으로, 각 성인기 이행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남자와 여자에게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시기에 차이는 있지만,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간 응답률의 차이만 있을 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V-14 성별 성인기 과업 수행시기 연령(청년세대와 부모세대 성인 간 비교) (단위: %)

바람직한 시기		구분	만19세~ 24세	만25세~ 29세	만30세~ 34세	만35세~ 40세	만40세~ 50세	전체(N)
1)	남자가 학교 교육을 끝내야 할 시기	청년	17.5	76.6	5.2	0.6	0.2	100(2000)
		성인	14.2	80.3	5.4	0.1	0.0	100(1000)
2)	여자가 학교 교육을 끝내야 할 시기	청년	66.1	32.0	1.4	0.3	0.3	100(2000)
		성인	67.0	32.2	0.7	0.1	0.0	100(1000)
3)	남자가 첫 취업을 해야 할 시기	청년	4.0	75.0	20.5	0.6	0.0	100(2000)
		성인	2.2	79.3	18.3	0.2	0.0	100(1000)
4)	여자가 첫 취업을 해야 할 시기	청년	31.4	62.6	5.8	0.3	0.1	100(2000)
		성인	36.6	58.7	4.5	0.2	0.0	100(1000)
5)	남자가 결혼해야 할 시기	청년	0.6	22.3	72.8	4.3	0.1	100(2000)
		성인	0.0	27.2	71.6	1.2	0.0	100(1000)
6)	여자가 결혼해야 할 시기	청년	3.0	61.7	34.0	1.3	0.1	100(2000)
		성인	5.0	71.3	23.5	0.2	0.0	100(1000)
7)	남자가 첫 아이를 가져야 할 시기	청년	0.4	13.6	78.9	7.1	0.2	100(2000)
		성인	0.0	19.2	78.5	2.3	0.0	100(1000)
8)	여자가 첫 아이를 가져야 할 시기	청년	1.3	52.0	43.8	2.9	0.1	100(2000)
		성인	2.6	66.7	30.3	0.4	0.0	100(1000)
9)	남자가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독립할 시기	청년	2.4	30.9	59.0	7.6	0.2	100(2000)
		성인	0.8	30.2	64.9	4.1	0.0	100(1000)
10)	여자가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독립할 시기	청년	3.6	53.4	38.3	4.8	0.1	100(2000)
		성인	3.6	60.6	33.6	2.2	0.0	100(1000)

‘남자가 학교 교육을 끝내야 할 시기’에 대해서 청년세대의 경우 만 25세~29세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76.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만 19세~24세로 17.5%가 응답하였다. 이 응답은 부모세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만 25세~29세가 남자가 학교교육을 끝내야 할 시기라는 응답이 80.3%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가 학교교육을 끝내야 할 시기’에 대해서는 청년 및 부모조사대상이 각각 66.1%, 67%로, 만 25세~29세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여, 전체적으로 여자의 경우 만24세까지, 그리고 남자는 29세까지를 학교교육을 마쳐야 하는 시기로 보고 있었다. ‘남자가 첫 취업을 해야 할 시기’로는 조사대상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각각 75%, 79.3%의 비율로 만 25세~29세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만 30세~34세라는 응답은 청년 20.5%, 부모세대 18%로 나타났다. ‘여자가 첫 취업을 해야 할 시기’에 대해서는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 각각 62.6%, 58.7%가 만 25세~29세라고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연령은 남자의 경우와는 달리 만19세~24세가 높게 나타났고, 청년세대는 31.4%, 부모세대는 36.6%로 나타나 여자의 첫 취업 시기와 관련하여 세대 간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대체적으로 조사대상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 남자의 첫 취업연령 시기를 여자보다는 늦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과 관련된 연령구범을 살펴보면, ‘남자가 결혼해야 하는 시기’로는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 만 30세~34세가 바람직하다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고, 그 비율은 각각 약 73%, 72%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 다음으로 만 25세~29세를 바람직한 결혼시기로 보는 비율은 청년세대는 22%, 부모세대는 27%로 나타났다. ‘여자가 결혼해야 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 만 25세~29세를 가장 많이 응답해,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더 이른 시기에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대 간에도 차이를 보였는데, 청년세대 중 여자의 바람직한 결혼연령을 만 25세~29세로 응답한 비율이 62%인데 비해, 부모세대 성인은 이보다 10% 정도 더 높은 71%였으며, 이보다 높은 연령구분인 만 30세~34세의 경우, 청년세대의 응답률은 34%, 부모세대의 응답률은 23.5%로 나타났다. 결혼시기에 대해서는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이른 나이에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부모세대에서 이러한 연령구범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첫아이를 출산하는 시기에 대한 성별차이를 보면, 남자의 경우 결혼시기와 마찬가지로 만 30세~34세가 바람직하는 응답이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에서 80%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여자의 출산 연령에 대해 청년세대는 만 25세~29세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2%, 만 30세~34세는 약 44%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부모세대 성인의 경우 만 25세~29세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만 30세~34세보다 2배 이상인 67%로 나타나 청년세대에 비해 부모세대가 여성의 바람직한 첫아이 출산 연령을 더 이르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결혼연령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만혼 및 출산 연령의 지연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

부모로부터의 분가 및 독립시기에 대해서는 남자의 경우는 만 30세~34세가 바람직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청년세대 조사에서는 59%, 부모세대 조사에서는 65%의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은 만 25세~29세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 30%를 약간 웃도는 유사한 수준의 비율로 나타났다. 여자의 바람직한 분가 및 독립 시기는 남자의 경우보다 더 이르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 만 25세~29세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0~60%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연령구분이 결혼연령시기에서도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모로부터의 분가 및 독립 시기는 다른 조사 항목과는 다르게 만 35세~40세 연령구분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청년세대 조사에서 남자의 분가 및 독립시기로 만 35세~40세를 바람직한 시기로 보는 비율은 7.6%로 나타났고, 여자의 분가 및 독립시기로 만 35세~40세를 바람직한 시기로 보는 비율은 4.8%로 나타나 성별간 연령구범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35세 이상을 바람직한 분가 및 독립시기로 보는 비율은 부모세대에 비해 청년세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꽤 의미 있는 숫자의 청년들이 부모로부터의 분가 및 독립을 해야 하는 시기를 35세 이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모든 성인기 이행과업에 있어 청년들의 조사에서는 35세 이상을 응답한 사례가 매우 적고, 부모세대 조사에서는 30세 이후에 대한 응답이 매우 적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성인기 이행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로 청년들의 경우 35세까지 그리고 부모세대의 경우는 대체로 30세까지 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성인기 과업 수행시기에 대한 청년의 인식

남자와 여자의 다양한 성인기 과업 수행시기에 대해 성별, 가정경제수준, 교육수준의 배경변인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²⁵⁾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① 청년조사: 학교교육을 끝내야 할 시기

성인기 과업 중 학교종료시기에 대한 배경변인별 청년들의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 IV-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목에 따라 성별, 경제수준, 교육수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남자가 학교교육을 끝내야 할 시기에 대해서는 만25세~29세로 보는 응답이 전체 76.6%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2~3년제 대학재학이상의 집단에서 만 25세~29세를 남자가 교육을 마쳐야 하는 시기로 보는 응답률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의 청년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p<.001$). 이는 해당 청년들이 아직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응답으로 보인다.

‘여자가 학교교육을 끝내야 할 시기’에 대해서는 남자의 경우와는 다른 ‘만19세~24세’를 바람직한 시기로 보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여자의 학교교육 종료 시기를 상대적으로 이른 만19세~24세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경제수준이 중간이거나 높을 경우에는 만25세~29세로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여자의 학교교육 종료 시기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만19세~24세의 응답을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청년들의 응답률이 71.4%로 가장 높았다. 4년제 대학재학/휴학 중인 청년의 응답률은 만19세~24세 구분에서는 가장 낮았지만 반면 여자의 교육종료시기로 만25~29세로 본 응답률은 가장 높게(36.3%)로 나타났다.

25) 성인기 과업 수행시기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일부 셀(cell)의 경우 응답이 전혀 없거나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이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에 대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IV-15

청년조사: 학교 교육을 끝내야 할 시기

(단위: %)

바람직한 시기	구분	만19세~ 24세	만25세~ 29세	만30세~ 34세	만35세 이상 ²⁶⁾	전체(N)	χ^2
남자가 학교 교육을 끝내야 할 시기	전 체	17.5	76.6	5.2	0.8	100(2000)	13.640**
	성별	남	20.4	74.0	4.9	100(1065)	
		여	14.1	79.6	5.6	100(935)	
	경제수준	하	19.7	76.0	3.8	100(417)	4.641
		중	16.1	77.2	5.9	100(666)	
		상	17.4	76.4	5.3	100(917)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이하	26.2	69.8	2.7	100(367)	39.030***
		2~3년제 대학 졸업이하	18.5	77.3	4.1	100(444)	
		4년제 대학 재학/휴학	14.0	78.7	6.6	100(1052)	
		4년제 대졸 및 대학원	17.5	76.6	5.1	100(137)	
여자가 학교 교육을 끝내야 할 시기	전 체	66.1	32.0	1.4	0.6	100(2000)	2.901
	성별	남	66.3	32.2	0.9	100(1065)	
		여	65.9	31.8	1.8	100(935)	
	경제수준	하	73.9	24.5	1.2	100(417)	16.298*
		중	65.0	33.2	1.5	100(666)	
		상	63.4	34.6	1.3	100(917)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이하	71.4	25.6	1.6	100(367)	29.752***
		2~3년제 대학 졸업이하	70.5	28.6	0.9	100(444)	
		4년제 대학재학/휴학	62.0	36.3	1.2	100(1052)	
		4년제 대졸 및 대학원	69.3	27.0	2.9	100(137)	

*p<.05, **p<.01, ***p<.001

② 청년세대 조사: 첫 취업을 해야 할 시기

남자의 첫 취업시기와 여자의 첫 취업 시기에 대한 청년들의 응답은 ‘만25-29세’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여자의 취업 시기에 대해서는 ‘만19세~24세’로 보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16>는 남여가 취업을 해야 하는 바람직한 시기에 대한 인식을 배경변인별로 조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남자가 첫 취업을 해야 하는 시기로서 만25세~29세의 연령구분이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남자청년(75.7%)이 여자청년(74.1%)보다는($p<.05$),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p<.001$)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남자의 첫 취업 시기에 대한 교육수준별 차이를 보면, 2~3년제 대학졸업이하의 청년들의 경우

26) 청년들의 조사에서 모든 성인이 과업 수행시기에서 35세 이상의 응답이 매우 적어, 세부변인별 교차분석이 불가능함에 따라 청년들의 경우는 35세 이상의 연령구분을 모두 합하여 분석하였다.

만25~29세를 첫 취업시기로 보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의 경우 만30세~34세를 남자의 첫 취업 시기로 보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나, 만 35세 이상에 대한 응답은 전혀 없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보기는 어렵다. 남자의 첫 취업시기로서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연령구분인 만30세~34세에 대해서는 특히 여자청년이, 그리고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자의 첫 취업 시기로서 이 연령대가 적합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첫 취업 시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만25세~29세라고 보는 의견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지만, 경제수준($p<.001$)과 교육수준($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더 어린 연령구분인 만19세~24세를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IV-16

청년조사: 첫 취업을 해야 할 시기

(단위: %)

바람직한 시기	구분	만19세~ 24세	만25세~ 29세	만30세~ 34세	만35세 이상	전체(N)	χ^2
남자가 첫 취업을 해야 할 시기	전 체	4.0	75.0	20.5	0.6	100(2000)	12.972*
	성별	남	5.2	75.7	18.7	100(1065)	
		여	2.6	74.1	22.6	100(935)	
	경제 수준	하	6.7	78.9	13.7	100(417)	28.372***
		중	4.1	75.2	20.1	100(666)	
		상	2.6	73.0	23.9	100(917)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이하	10.9	75.7	12.3	100(367)	84.358***
		2~3년제 대학 졸업이하	4.1	77.9	17.6	100(444)	
		4년제 대학 재학/휴학	1.7	73.7	24.0	100(1052)	
		4년제 대졸 및 대학원	2.2	73.0	24.8	100(137)	
여자가 첫 취업을 해야 할 시기	전 체	31.4	62.6	5.8	0.4	100(2000)	0.893
	성별	남	32.1	61.9	5.7	100(1065)	
		여	30.5	63.3	5.8	100(935)	
	경제 수준	하	42.0	54.4	3.1	100(417)	47.249***
		중	32.6	62.9	4.4	100(666)	
		상	25.6	66.0	8.0	100(917)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이하	44.7	49.0	6.0	100(367)	48.749***
		2~3년제 대학 졸업이하	32.7	62.8	4.3	100(444)	
		4년제 대학 재학/휴학	26.0	67.4	6.3	100(1052)	
		4년제 대졸 및 대학원	32.8	60.6	5.8	100(137)	

* $p<.05$, ** $p<.01$, *** $p<.001$

③ 청년조사: 결혼을 해야 할 시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람직한 결혼 시기에 대해서도 성별 간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해 여자의 결혼 연령을 남자에 비해 더 이르게 보는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인식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표 IV-17>와 같다.

세부배경변인별로 보면, 남자의 결혼시기를 만30세~34세로 보는 응답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자청년(70.3%)보다 여자청년에서(75.5%) 더 많이 나타났다. 여자가 결혼해야 할 바람직한 시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만25세~29세 응답이(61.7%)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만30세~34세(34%)로 나타났다. 만30세~34세가 여자가 결혼해야 할 바람직한 시기라는 응답이 남자청년의 경우 28%를 차지한 데 비해 여자청년은 41%로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IV-17 청년조사: 결혼해야 할 시기 (단위: %)

바람직한 시기	구분	만19세~ 24세	만25세~ 29세	만30세~ 34세	만35세 이상	전체(N)	χ^2
남자가 결혼해야 할 시기	전 체	0.6	22.3	72.8	4.4	100(2000)	9.676*
	성별						
	남	0.8	24.8	70.3	4.1	100(1065)	
	여	0.4	19.4	75.5	4.7	100(935)	2.986
	경제 수준						
	하	0.2	21.3	73.6	4.8	100(417)	
	중	0.5	21.9	73.3	4.4	100(666)	27.986**
	상	0.9	22.9	72.0	4.3	100(917)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이하	1.6	28.1	66.2	4.1	100(367)	
여자가 결혼해야 할 시기	2~3년제 대학 졸업이하	0.7	25.9	69.1	4.3	100(444)	38.510***
	4년제 대학 재학/휴학	0.3	19.1	76.0	4.7	100(1052)	
	4년제 대졸 및 대학원	0.0	19.0	77.4	3.6	100(137)	
	전 체	3.0	61.7	34.0	1.4	100(2000)	6.108
	성별						
	남	3.6	67.2	28.0	1.2	100(1065)	
	여	2.4	55.3	40.9	1.5	100(935)	47.376***
	경제 수준						
	하	3.8	62.6	31.9	1.7	100(417)	
	중	2.4	63.8	32.9	0.9	100(666)	
	상	3.1	59.7	35.8	1.5	100(917)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이하	6.5	61.9	29.4	2.2	100(367)	
	2~3년제 대학 졸업이하	4.3	64.2	30.2	1.4	100(444)	
	4년제 대학 재학/휴학	1.3	62.2	35.4	1.1	100(1052)	
	4년제 대졸 및 대학원	2.2	48.9	48.2	0.7	100(137)	

*p<.05, **p<.01, ***p<.001

이러한 결과는 여자청년들이 남자청년들에 비해 여성들의 결혼연령을 더 늦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4년제 대학졸업과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여자의 결혼연령을 늦게 보는 경향이 두드러져서 만25세~29세와 만 30세~34세를 여성이 결혼할 바람직한 시기로 보는 응답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48.9% vs 48.2%).

④ 청년조사: 첫 아이를 가져야 할 시기

첫 아이를 가져야 할 시기에 대한 인식을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표 IV-18>와 같다. 남자가 첫아이를 가져야 할 시기에 대한 인식은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연령구분인 만 30세~34세에 대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2~3년제 대학재학 이상) 더 높은 응답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남자가 첫아이를 출산하는 시기는 30세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표 IV-18 청년조사: 첫 아이를 가져야 할 시기 (단위: %)

바람직한 시기	구분	만19세~ 24세	만25세~ 29세	만30세~ 34세	만35세 이상	전체(N)	χ^2
남자가 첫 아이를 가져야 할 시기	전 체	0.4	13.6	78.9	7.2	100(2000)	5.146
	성별	남	0.4	15.2	77.5	100(1065)	
		여	0.3	11.8	80.4	100 (935)	
	경제 수준	하	0.2	14.6	79.6	100(417)	3.193
		중	0.5	13.8	77.9	100(666)	
		상	0.3	13.0	79.2	100(917)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이하	0.8	20.2	73.0	100(367)	28.541**
		2~3년제 대학 졸업이하	0.7	14.4	79.3	100(444)	
		4년제 대학 재학/휴학	0.1	11.2	80.6	100(1052)	
		4년제 대졸 및 대학원	0.0	11.7	79.6	100(137)	
여자가 첫 아이를 가져야 할 시기	전 체	1.3	52.0	43.8	3.0	100(2000)	23.712***
	성별	남	1.1	57.0	39.4	100(1065)	
		여	1.4	46.2	48.8	100(935)	
	경제 수준	하	1.4	57.1	39.3	100(417)	15.531*
		중	0.9	55.0	41.1	100(666)	
		상	1.4	47.4	47.8	100(917)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이하	2.2	57.5	37.6	100(367)	31.001***
		2~3년제 대학 졸업이하	2.0	55.4	40.1	100(444)	
		4년제 대학 재학/휴학	0.6	50.5	45.9	100(1052)	
		4년제 대졸 및 대학원	1.5	37.2	56.2	100(137)	

*p<.05, **p<.01, ***p<.001

여자가 첫 아이를 가져야 할 시기에 대해서는 성별($p < .001$), 경제수준별($p < .05$), 교육수준($p < .001$)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자청년들은 여자가 첫아이를 가져야 할 시기로 만25세~29세를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여자청년들은 만30세~34세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여자청년들은 남자청년들보다 더 높은 연령에 첫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여성의 바람직한 첫아이 출산시기를 더 이른 연령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교육수준과 관련해서 바람직한 첫아이 출산시기에 대해 만25세~29세와 만30세~34세에 대한 응답이 4년제 대학재학/휴학 중인 청년들의 경우에도 큰 차이 없는 응답률을 보였으나(각각 50.5%, 45.9%), 4년제 대졸 및 대학원의 교육수준의 청년들의 경우 만25세~29세는 37.2%가, 만30세~34세는 56.2%가 응답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첫아이 출산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연령을 바람직한 시기로 보고 있었다.

⑤ 청년조사: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독립할 시기

남자가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독립할 시기에 대해서는 <표 IV-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경제수준($p < .01$)과 교육수준별($p < .01$)로 차이를 보였다. 경제수준이 가장 낮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는 만30세~34세를 바람직하게 보는 응답이 가장 높기는 했으나, 만 24-29세로 보는 응답이 다른 경제수준에 비해 높게 나타나, 부모로부터의 독립시기를 상대적으로 더 이르게 보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4년제 대학재학/휴학인 청년들이 분가 및 독립시기를 만30세~34세로 보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4년제 대졸 및 대학원인 청년들의 경우 더 높은 연령대인 만35세~40세를 분가 및 독립시기로 보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들 고학력 청년들의 경우 모든 세부변인별로 이 연령대를 남자가 부모님으로부터의 바람직한 독립시기로 보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11.7%).

여자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바람직한 시기에 대해서는 성별($p < .01$), 경제수준별($p < .001$), 교육수준별($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청년들이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여자가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독립할 시기로서 만 25세~29세를 꼽은 반면, 여자청년들의 경우는 그 응답률 차이가 만25세~29세는 49.5%, 만30세~34세는 41.1%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여자청년들은 남자청년들보다 여자가 부모로부터 분가·독립하는 시기를 좀 더 늦게 보고 있었다.

경제수준별로는 앞서 유사한 형태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더 이른 나이를(만25세~29세) 여자들의 부모로부터의 분가·독립할 시기로 보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도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에 더 이른

나이를 부모로부터의 독립의 바람직한 시기로 보는 비율이 높았고, 이 항목에서도 4년제 대졸 및 대학원이상의 고학력 청년들의 경우 여자가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독립할 시기에 대해 만25세~29세와 만30세~34세의 연령구분에 대해 각각 유사한 수준인 45.3%, 43.1%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V-19

청년조사: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독립 할 시기

(단위: %)

바람직한 시기	구분		만19세~ 24세	만25세~ 29세	만30세~ 34세	만35세 이상	전체(N)	χ^2
남자가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독립할 시기	전 체		2.4	30.9	59.0	7.8	100(2000)	4.406
	성별	남	2.3	32.9	57.3	7.6	100(1065)	
		여	2.6	28.6	61.0	7.9	100(935)	
	경제 수준	하	4.1	32.6	57.1	6.2	100(417)	26.151***
		중	2.0	32.9	60.2	5.0	100(666)	
		상	2.0	28.6	59.0	10.5	100(917)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이하	5.2	29.2	59.4	6.3	100(367)	27.531**
		2~3년제 대학 졸업이하	1.4	36.7	55.2	6.8	100(444)	
		4년제 대학 재학/휴학	1.9	29.4	60.6	8.2	100(1052)	
		4년제 대졸 및 대학원	2.2	27.7	58.4	11.7	100(137)	
여자가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독립할 시기	전 체		3.6	53.4	38.3	4.9	100(2000)	12.341**
	성별	남	3.6	56.7	35.8	3.9	100(1065)	
		여	3.5	49.5	41.1	5.9	100(935)	
	경제 수준	하	5.3	61.9	28.8	4.1	100(417)	43.859***
		중	3.0	56.5	37.5	3.0	100(666)	
		상	3.2	47.2	43.1	6.5	100(917)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이하	7.1	54.5	34.3	4.1	100(367)	31.684***
		2~3년제 대학 졸업이하	2.7	58.3	36.0	2.9	100(444)	
		4년제 대학 재학/휴학	2.7	51.9	39.9	5.5	100(1052)	
		4년제 대졸 및 대학원	3.6	45.3	43.1	8.0	100(137)	

*p<.05, **p<.01, ***p<.001

세부변인별로 성인지 이행의 주요과업들에 대한 바람직한 시기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성인지 이행과업에 대한 연령구분이 청년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사에 응답한 청년들은 학교교육 종료, 취업, 결혼, 첫 출산, 독립의 모든 항목에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이른 나이에 이러한 과업을 마쳐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남녀 결혼연령과, 여성의 첫 출산시기에 대한 남녀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조사대상 남자청년들이 여자청년들에 비해 여성들의 결혼과 첫 출산,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분가에 대해 더 이른 연령대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에 따른 성인기 이행과업 시기에서도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경제수준과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거의 모든 항목의 성인기 이행과업을 수행하기에 바람직한 시기를 보다 이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역시 주요 성인기과업을 위한 연령대로 주로 만24세~29세를 응답하였지만,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이 낮은 청년들에 비해서는 더 늦은 시기(만30세~34세)에 성인기 이행 과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3) 성인기 과업 수행시기에 대한 부모세대의 인식

성인기 과업과 수행시기에 대해 부모세대를 대상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교육이나 취업, 부모로부터의 독립 및 분가시기에 대해 세대 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만19세~24세와 만25세~29세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 대부분의 성인기 과업을 만 30세 이전에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① 부모세대 조사: 학교교육을 끝내야 할 시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세대에게 ‘남자가 학교교육을 끝내야 할 시기’를 조사한 결과 만 25세~29세라는 응답이 80%가 넘게 압도적인 응답을 보인 반면, 여자의 학교교육 종료 시기 대해서는 67%가 동일한 연령대를 응답하여 남자들의 학교교육 종료 시기를 더 늦게까지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자의 학교교육 종료 시기를 제외하고는 부모세대의 성별이나 경제수준,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자의 학교교육 종료 시기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부모세대 성인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일 때 학교교육 종료 시기를 더 늦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교중퇴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모세대와 비교한 결과 만25세~29세에 대한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75.4% vs 83.8%), 만30세 이상을 학교교육 종료시기로 보는 응답률은 훨씬 높게 나타났다(8.9% vs 2.0%).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여자의 학교교육 종료 시기에 대해서도 부모세대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종료시기를 더 늦은 연령대(만25세~29세)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0 부모세대 조사: 학교 교육을 끝내야 할 시기

(단위: %)

바람직한 시기	구분		만19세~ 24세	만25세~ 29세	만30세 이상 ²⁷⁾	전체(N)	χ^2
남자가 학교 교육을 끝내야 할 시기	전 체		14.2	80.3	5.5	100(1000)	
	성별	남	14.7	80.5	4.8	100(498)	0.989
		여	13.7	80.1	6.2	100(502)	
	경제수 준	하	15.0	80.6	4.4	100(206)	2.718
		중	12.2	82.1	5.7	100(385)	
		상	15.6	78.5	5.9	100(409)	
	교육수 준	중졸/고교중퇴	14.1	83.8	2.0	100(99)	11.144*
		고졸/대학중퇴	13.5	82.0	4.5	100(621)	
		대졸 이상	15.7	75.4	8.9	100(280)	
여자가 학교 교육을 끝내야 할 시기	전 체		67.0	32.2	0.8	100(1000)	
	성별	남	64.5	34.7	0.8	100(498)	2.943
		여	69.5	29.7	0.8	100(502)	
	경제수 준	하	68.0	31.6	0.5	100(206)	5.585
		중	70.4	29.1	0.5	100(385)	
		상	63.3	35.5	1.2	100(409)	
	교육수 준	중졸/고교중퇴	73.7	26.3	0.0	100(99)	7.790
		고졸/대학중퇴	68.6	30.6	0.8	100(621)	
		대졸 이상	61.1	37.9	1.1	100(280)	

*p<.05, **p<.01, ***p<.001

② 부모세대 조사: 첫 취업을 해야 할 시기

부모세대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첫 취업 시기는 만 25세~29세로, 응답자 79.3%가 응답했다. <표 IV-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가 첫 취업을 해야 할 시기에 대해서는 성별, 경제수준, 교육수준 등 배경변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남자의 첫 취업 시기에 대해서는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른 연령구분인 만19세~24세에 대한 응답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부모세대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 첫 취업 시기에 대해 만 30세~34세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7) 부모세대 성인들의 조사에서는 모든 성인기 과업 수행시기에서 30세 이상의 응답이 매우 적어 30세 이상의 연령구분을 모두 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일부 셀의 경우 응답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해석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표 IV-21

부모세대 조사: 첫 취업을 해야 할 시기

(단위: %)

바람직한 시기	구분		만19세~ 24세	만25세~ 29세	만30세 이상	전체(N)	χ^2
남자가 첫 취업을 해야 할 시기	전 체		2.2	79.3	18.5	100(1000)	2.376
	성별	남	2.6	80.5	16.9	100(498)	
		여	1.8	78.1	20.1	100(502)	
	경제 수준	하	4.4	76.7	18.9	100(206)	6.639
		중	1.8	81.0	17.1	100(385)	
		상	1.5	79.0	19.6	100(409)	
	교육 수준	중졸/고교중퇴	2.0	83.8	14.1	100(99)	8.292
		고졸/대학중퇴	2.7	80.2	17.1	100(621)	
		대졸 이상	1.1	75.7	23.2	100(280)	
여자가 첫 취업을 해야 할 시기	전 체		36.6	58.7	4.7	100(1000)	0.434
	성별	남	35.9	59.6	4.4	100(498)	
		여	37.3	57.8	5.0	100(502)	
	경제 수준	하	33.5	60.7	5.8	100(206)	10.152*
		중	42.3	54.3	3.4	100(385)	
		상	32.8	61.9	5.4	100(409)	
	교육 수준	중졸/고교중퇴	41.4	56.6	2.0	100(99)	11.417*
		고졸/대학중퇴	39.3	55.9	4.8	100(621)	
		대졸 이상	28.9	65.7	5.4	100(280)	

*p<.05, **p<.01, ***p<.001

여자의 첫 취업시기의 경우에도 성별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제수준과 교육수준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수준별로 보면,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첫 취업 시기를 만25세~29세로 보는 응답률이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5). 경제수준이 중간이라고 응답한 부모세대의 경우에도 만25세~29세에 대한 응답이 54.3%로 타 연령구분에서 보다는 높았으나 만19세~24세에 대한 응답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42.3%). 교육수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p<.05) 조사대상 부모세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첫 취업연령 시기도 상대적으로 이르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중퇴이하의 응답자의 경우 만19세~24세를 41.4%가 응답하였고, 만25세~29세는 약 57%가 응답한 반면, 대졸이상인 경우 만19세~24세 연령에는 30%미만인데 비해 만25세~29세에 대해서는 2배 이상의 높은 응답률(65.7%)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③ 부모세대 조사: 결혼을 해야 할 시기

결혼시기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남자의 결혼시기에 대한 응답에서 ‘만19세~24세’에 대한 응답이 전혀 없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제수준이

중간인 경우에 남자의 결혼시기를 ‘만25세~29세’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중 32% > 상, 하 24%), 만 30세~34세를 남자의 결혼시기로 보는 응답률은 경제수준이 낮거나 높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중 67.3% < 하 75.2%, 상 73.8%).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중졸/고교중퇴인 응답자의 경우 만25세~29세에 대한 응답률이 40%여서, 다른 교육수준을 가진 응답자의 24~25%의 응답률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여자의 결혼시기에 대해서는 경제수준($p < .01$)과 교육수준($p < .05$)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70%내외의 조사대상자가 ‘만25세~29세’에 응답하였으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에 응답률이 더 높았다. 그 다음으로 응답률이 높은 ‘만30세~34세’의 연령구분에서는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여자의 결혼시기에 대한 교육수준별 차이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더 이른 연령대(만25세~29세)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연령대(만30세~34세)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22 부모세대 조사: 결혼해야 할 시기 (단위: %)

바람직한 시기	구분	만19세~24세	만25세~29세	만30세 이상	전체(N)	χ^2
남자가 결혼해야 할 시기	전 체	0.0	27.2	72.8	100(1000)	1.150
	성별					
	남	0.0	28.7	71.3	100(498)	
	여	0.0	25.7	74.3	100(502)	7.127*
	경제수준					
	하	0.0	24.3	75.7	100(206)	
	중	0.0	31.9	68.1	100(385)	11.208*
	상	0.0	24.2	75.8	100(409)	
	교육수준					
여자가 결혼해야 할 시기	중졸/고교중퇴	0.0	39.4	60.6	100(99)	12.592*
	고졸/대학중퇴	0.0	25.8	74.2	100(621)	
	대졸 이상	0.0	26.1	73.9	100(280)	
	전 체	5.0	71.3	23.7	100(1000)	3.657
	성별					
	남	5.6	73.1	21.3	100(498)	
	여	4.4	69.5	26.1	100(502)	14.698**
	경제수준					
	하	2.9	74.3	22.8	100(206)	
	중	7.8	71.9	20.3	100(385)	12.592*
	상	3.4	69.2	27.4	100(409)	
	교육수준					
	중졸/고교중퇴	9.1	72.7	18.2	100(99)	12.592*
	고졸/대학중퇴	4.5	73.8	21.7	100(621)	
	대졸 이상	4.6	65.4	30.0	100(280)	

* $p < .05$, ** $p < .01$, *** $p < .001$

④ 부모세대 조사: 첫 아이를 가져야 할 시기

남자가 첫아이를 가져야 할 시기에 대한 부모세대 조사결과, 앞서 결혼시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만19세~24세’에 대한 응답은 전혀 없었고, 80%이상의 응답자들은 ‘만 30세 이상’을 남자가 첫 아이를 가져야 할 시기로 보고 있었다. 특히 교육수준이 중간이거나 높을 경우 ‘만 30세 이상’에 대한 응답이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보다 10%이상 더 높게 나타났다.

‘여자가 첫 아이를 가져야 할 시기’에 대해서만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수준을 높게 인식한 부모세대의 경우 여자가 첫 아이를 갖는 시기를 ‘만25-29세’로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상 62.3%<하 68.4%, 중 70.4%), 반면 ‘만30세~34세’로 보는 응답률은 높게 나타났다(상 34.7%)하 31%, 중 25.2%). 교육수준별 차이를 보면, 대체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만25-29세’를 여자가 첫아이를 가져야 하는 시기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고, ‘만30세~34세’라고 보는 응답은 낮게 나타났다. 청년조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이 아이를 가져야 할 시기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만30세~34세)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표Ⅳ-23 부모세대 조사 : 첫 아이를 가져야 할 시기 (단위: %)

바람직한 시기	구분		만19세~24세	만25세~29세	만30세 이상	전체(N)	χ²
남자가 첫 아이를 가져야 할 시기	전 체		0.0	19.2	80.8	100(1000)	0.747
	성별	남	0.0	20.3	79.7	100(498)	
		여	0.0	18.1	81.9	100(502)	
	경제 수준	하	0.0	15.5	84.5	100(206)	5.131
		중	0.0	22.6	77.4	100(385)	
		상	0.0	17.8	82.2	100(409)	
	교육 수준	중졸/고교중퇴	0.0	29.3	70.7	100(99)	7.399*
		고졸/대학중퇴	0.0	17.7	82.3	100(621)	
		대졸 이상	0.0	18.9	81.1	100(280)	
여자가 첫 아이를 가져야 할 시기	전 체		2.6	66.7	30.7	100(1000)	7.584*
	성별	남	3.2	69.9	26.9	100(498)	
		여	2.0	63.5	34.5	100(502)	
	경제 수준	하	0.5	68.4	31.1	100(206)	18.254**
		중	4.4	70.4	25.2	100(385)	
		상	2.0	62.3	35.7	100(409)	
	교육 수준	중졸/고교중퇴	8.1	68.7	23.2	100(99)	19.446**
		고졸/대학중퇴	1.8	68.8	29.5	100(621)	
		대졸 이상	2.5	61.4	36.1	100(280)	

*p<.05, **p<.01, ***p<.001

⑤ 부모세대 조사: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독립할 시기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독립할 시기에 대한 부모세대 조사 결과는 <표 IV-24>와 같다. 남자의 분가 및 독립시기에 대해서 응답자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만25세~29세’에 대한 응답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만30세~34세’에 대한 응답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남자의 부모로부터의 분가·독립시기에 대해서는 배경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여자의 분가·독립시기에 대한 응답은 경제수준($p<.001$)과 교육수준별로($p<.001$)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24 부모세대 조사: 부모로부터 분가·독립해야 할 시기 (단위: %)

바람직한 시기	구분	만19세~ 24세	만25세~ 29세	만30세 이상	전체(N)	χ^2
남자가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독립할 시기	전 체	0.8	30.2	69.0	100(1000)	0.130
	성별					
	남	0.8	30.7	68.5	100(498)	
	여	0.8	29.7	69.5	100(502)	5.073
	경제 수준					
	하	1.5	27.7	70.9	100(206)	
	중	1.0	32.7	66.2	100(385)	5.289
	상	0.2	29.1	70.7	100(409)	
	교육 수준					
여자가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독립할 시기	중졸/고교중퇴	1.0	37.4	61.6	100(99)	24.178***
	고졸/대학중퇴	0.6	30.9	68.4	100(621)	
	대졸 이상	1.1	26.1	72.9	100(280)	
	전 체	3.6	60.6	35.8	100(1000)	1.995
	성별					
	남	4.2	61.6	34.1	100(498)	
	여	3.0	59.6	37.5	100(502)	23.295***
	경제 수준					
	하	2.9	60.2	36.9	100(206)	
	중	6.0	65.5	28.6	100(385)	24.178***
	상	1.7	56.2	42.1	100(409)	
	교육 수준					
	중졸/고교중퇴	9.1	59.6	31.3	100(99)	24.178***
	고졸/대학중퇴	2.1	64.6	33.3	100(621)	
	대졸 이상	5.0	52.1	42.9	100(280)	

* $p<.05$, ** $p<.01$, *** $p<.001$

여자의 분가 및 독립시기에 대해서는 경제수준이 높은 응답자일 경우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만25세~29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지만(상 56.2%<하 60.2%, 중 65.5%), ‘만30세~34세’에 대한 응답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상 38.6%<하 35.4%, 중 27.3%). 교육수준별 차이를 보면, 여자의 분가 및 독립시기로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만25-29세’에 대해 고졸이거나 대학중퇴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모세대의 응답이 가장 높았다. 대졸이상 학력의 응답자는 이 시기에 대해서 51.1%가 응답한 반면 ‘만30세 이상’을 분가 및 독립시기로 보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인기 주요과업의 바람직한 시기에 대한 부모세대의 인식을 세부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자의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중졸/고교중퇴),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 남자와 여자의 첫 취업연령 시기, 남자와 여자의 결혼시기, 여자의 부모로부터의 분가 및 독립시기를 상대적으로 좀 더 이르게 보고 있었다. 다시 말해 만 25세~29세라는 응답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반면,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만30세~34연령구분에서는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여자가 첫아이를 갖는 시기에 대해서도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이른 연령대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남자의 분가 및 독립에 대해서는 부모의 교육수준별 차이가 있었는데,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남자의 분가 및 독립시기를 좀 더 이르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부모세대 조사에서는 오히려 경제수준이 중간일 때, 그리고 교육수준도 중간집단인 고졸/대학중퇴인 경우, 이보다 학력이 높거나 낮은 성인과 비교하여 두드러지는 응답을 보여 청년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수준이나 학력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른 특정 경향성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 부모세대 조사를 통해 성인기 이행과업을 마쳐야 하는 바람직한 시기에 대한 연령구분이 청년들보다는 이른 30세 정도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5. 성인기 이행과 관련된 과업들

1) 성인기 이행과 교육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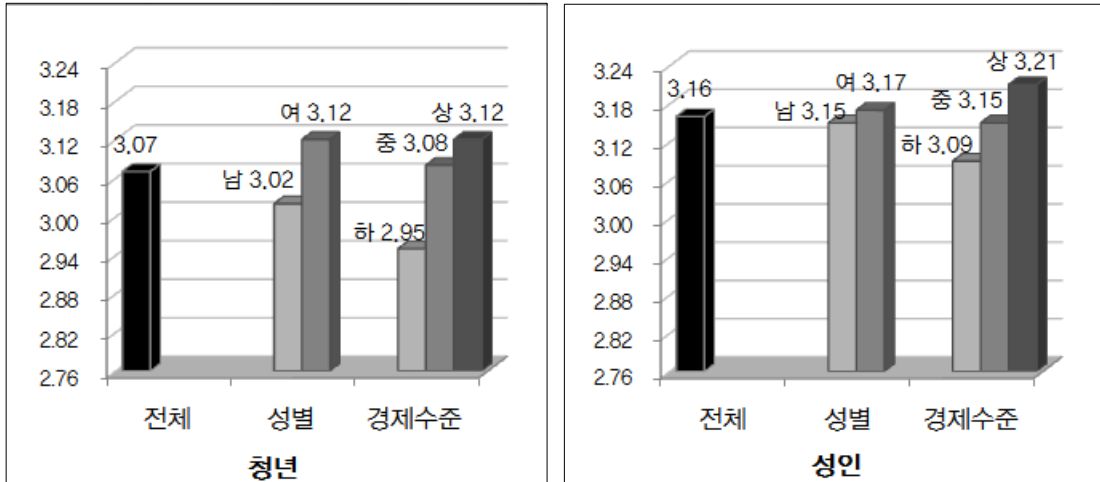
(1) 성인기 이행을 위한 교육기대수준

학교교육 종료 역시 성인기 이행에 있어 주요 과업이며, 특히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특성상, 우리사회의 청년들과 부모세대들은 성인기 이행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교육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① 우리사회에서 성인으로 인정받는데 있어서의 교육수준의 중요도

우리사회에서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림 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세대 성인들이 청년들에 비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5】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교육수준의 중요성 인식: 청년-부모세대 비교

성별과 경제수준별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표 IV-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 평균적으로 '다소 중요하다'(1=전혀 중요하지 않다, 2=별로 중요하지 않다, 3=다소 중요하다, 4=매우 중요하다) 이상의 응답을 보여, 우리사회에서 성인으로 인정받는데 있어 교육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표 IV-25 우리사회에서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교육수준 중요도 (청년-부모세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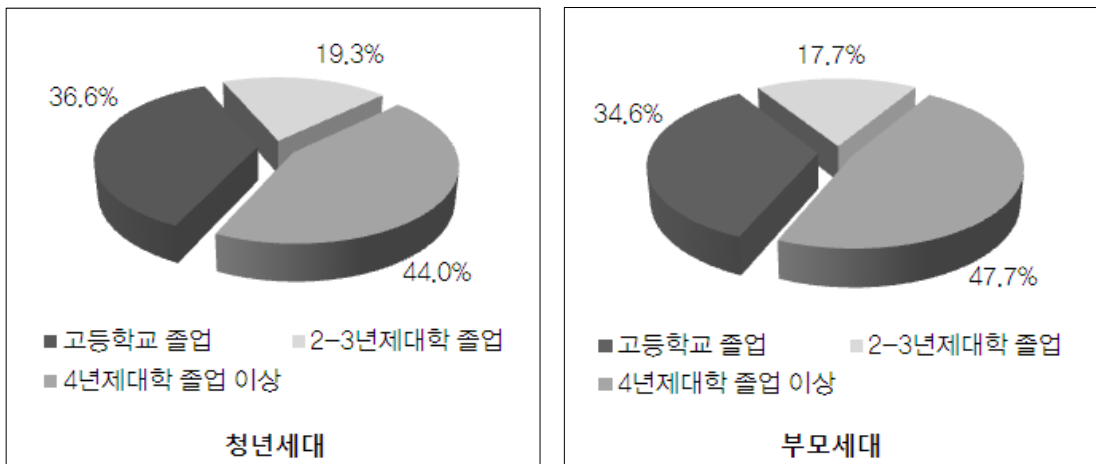
구분	청년세대						부모세대					
	전체	성별		경제수준			전체	성별		경제수준		
		남	여	하	중	상		남	여	하	중	상
Mean (SD)	3.07 (.702)	3.02 (.729)	3.12 (.667)	2.95 (.709)	3.08 (.695)	3.12 (.699)	3.16 (.683)	3.15 (.694)	3.17 (.674)	3.09 (.747)	3.15 (.692)	3.21 (.638)
t/F		-3.233**		8.188***				-0.248		2.364		
Scheffé				상 > 중 > 하						상 > 중 > 하		

*p<.05, **p<.01, ***p<.001

청년조사 결과 성별과 경제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자청년이 남자보다 ($p<.01$),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p<.001$) 우리사회에서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②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수준

우리사회에서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일정수준의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 한하여, 성인으로 인정받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수준을 청년세대와 부모세대에게 질문한 결과는 【그림 IV-6】과 같다.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 4년제 대학졸업을 각각 44.0%, 47.7%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각각 36.6%, 34.6%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에서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수준에 대해 ‘4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부모세대에서 더 높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그림 IV-6】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수준: 청년-부모세대 비교

청년조사결과에 대한 성별, 경제수준, 고등학교 재학 시 학업성적, 부모학력 등의 배경변인별 분석결과는 <표 IV-26>와 같다. 그중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수준에 대한 인식은 경제수준, 고교 재학 시 학업성적과 부모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모두 $p<.001$)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수준을 4년제 대학졸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을 최소한의 교육수준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고등학교 재학 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4년제 대학졸업’의 응답률이 높았고, 반대로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조사대상 청년의 부모학력수준에 따라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부모 모두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4년제 대학졸업이상’을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교육수준이라는 응답이 높았고, 부모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고등학교 졸업’을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수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표 IV-26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수준(청년-부모세대 비교) (단위: %)

구분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졸업	4년제 대학졸업이상 28)	전체(N)	χ^2	
청년 세대	전체		36.6	19.3	44.0	100(1654)	0.162	
	성별	남	36.4	19.7	43.9	100(852)		
		여	36.9	19.0	44.1	100(802)		
	경제 수준	하	47.5	22.7	29.8	100(326)	43.788***	
		중	36.4	20.9	42.6	100(549)		
		상	32.2	16.8	51.0	100(779)		
	학업 성적	하	48.1	24.9	27.1	100(181)	41.614***	
		중	37.7	20.5	41.8	100(904)		
		상	31.2	15.8	53.0	100(568)		
	부모 학력	부	중졸	45.3	28.0	26.7	100(75)	64.645***
			고졸	41.0	22.1	36.9	100(848)	
			대졸이상	29.4	15.1	55.5	100(710)	
		모	중졸	51.4	22.9	25.7	100(105)	37.408***
			고졸	36.1	21.2	42.8	100(1148)	
			대졸이상	32.2	12.9	55.0	100(373)	
부모 세대	전체		34.6	17.7	47.7	100(870)	0.961	
	성별	남	33.3	18.7	48.0	100(433)		
		여	35.9	16.7	47.4	100(437)		
	경제 수준	하	46.2	14.2	39.6	100(169)	28.360***	
		중	34.5	23.1	42.3	100(333)		
		상	29.3	14.4	56.3	100(368)		
	학력	중졸/고교중퇴	38.9	11.1	50.0	100(90)	37.797***	
		고졸/대학중퇴	37.7	21.8	40.5	100(536)		
		대졸 이상	26.2	11.1	62.7	100(244)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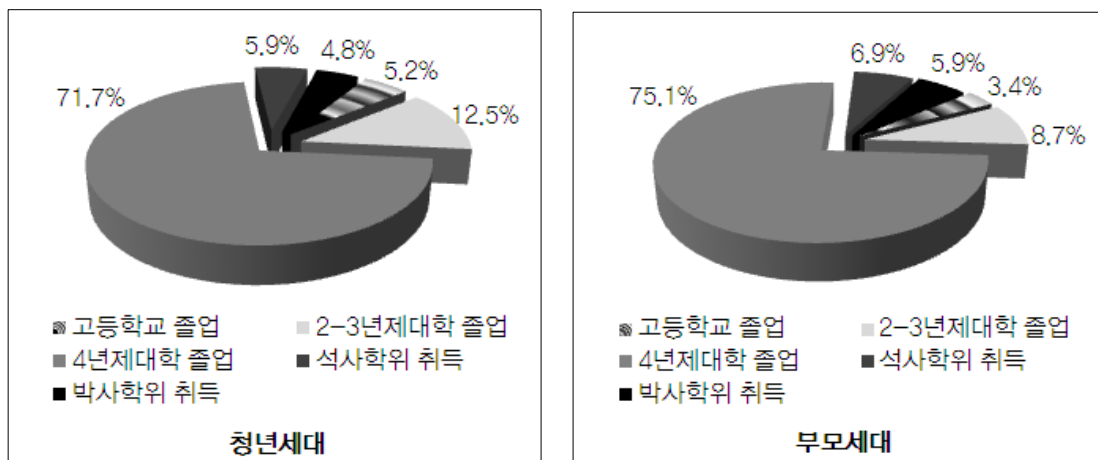
부모세대 조사결과도 성별을 제외한 경제수준과 학력수준에 따라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4년제 대학을 성인으로

28) ‘대학원졸업’의 응답률이 매우 낮아 ‘4년제 대학 이상’에 포함시킴.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교육수준이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경제수준과 학력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세대 조사에서 특히 흥미 있는 결과는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그리고 학력이 대졸이상일 때, ‘4년제 대학이상’을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수준으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55.4%, 62.7%로 나타나 과반이 넘는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이다.

③ 부모가 기대하는 교육수준

부모가 청년들에게 기대하는 교육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대상 청년들의 부모가 기대하는 교육수준을 질문하였다. 또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부모세대 성인조사 시 청년자녀들에게 희망하는 교육수준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IV-7】과 같다.



【그림 IV-7】 부모가 기대하는 청년자녀의 교육수준(청년-부모세대 비교)

전체적으로 청년조사와 부모세대 조사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기대하는 청년자녀의 교육수준으로서 ‘4년제 대학졸업’을 응답한 비율은 청년조사에서는 71.7%, 그리고 부모세대 조사에서는 75.1%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청년조사에서 높은 응답을 보인 교육수준은 ‘2-3년제 대학졸업’으로 12.5%였고, 부모세대에서도 동일 항목으로 8.7%가 나타나, 4년제 대학에 대한 응답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부모세대가 청년자녀에게 기대하는 교육수준에 대해 세부변인별로 조사한 결과는 <표 IV-27>와 같이 나타났는데, 청년조사에서는 경제수준($p<.001$)과 부모학력($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부모세대 조사에서는 본인의 학력수준($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청년조사결과를 보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기대하는 교육수준으로 '4년제 대학졸업'을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부모학력이 중졸일 경우에는 '4년제 대학졸업'에 대해서는 각각 53.5%, 54.5% 수준인데 반해, 대졸이상일 경우에는 77.3%와 74.4%로 응답률에 있어 차이가 컸다. 특히 부모학력이 대졸이상일 경우 자녀의 교육기대 수준으로 석사학위 취득이상을 보고 있는 비율도 꽤 높은 수준이었는데, 부모 각각 16.8%, 20.6%가 자녀의 교육수준을 석사학위취득이나 박사학위취득까지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7 부모가 기대하는 청년자녀의 교육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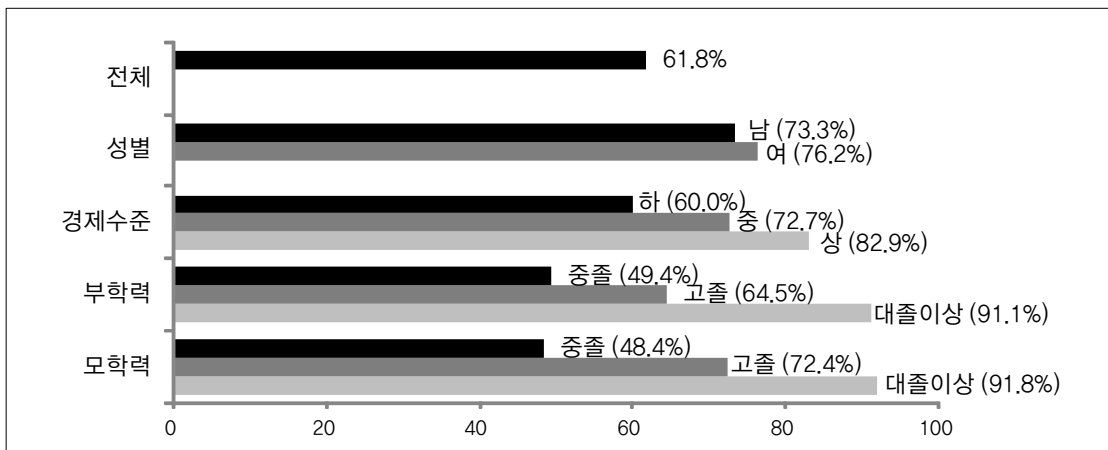
구분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졸업	4년제 대학졸업	석사학위 취득	박사학위 취득	전체(N)	χ^2	
청년	전체		5.2	12.5	71.7	5.9	4.8	100(2000)	5.360	
	성별	남	5.4	11.7	73.2	5.0	4.6	100(1065)		
		여	4.8	13.4	69.9	6.8	5.0	100(935)		
	경제 수준	하	8.9	17.5	66.2	4.6	2.9	100(417)	54.100***	
		중	4.5	14.6	72.5	4.8	3.6	100(666)		
		상	3.9	8.7	73.6	7.2	6.5	100(917)		
	부 모 학 력	부	중졸	13.1	30.3	53.5	2.0	1.0	100(99)	199.463***
			고졸	7.2	17.5	69.2	3.8	2.4	100(1020)	
		모	대졸이상	1.5	4.4	77.3	8.7	8.1	100(850)	
			중졸	13.4	29.1	54.5	1.5	1.5	100(134)	
			고졸	5.3	13.6	72.9	4.8	3.4	100(1365)	
			대졸이상	1.1	3.9	74.4	10.3	10.3	100(465)	
부모 세대	전체		3.4	8.7	75.1	6.9	5.9	100(1000)	5.076	
	성별	남	4.0	9.0	76.3	5.6	5.0	100(498)		
		여	2.8	8.4	73.9	8.2	6.8	100(502)		
	경제 수준	하	2.4	8.7	80.6	3.9	4.4	100(206)	10.948	
		중	3.9	8.8	74.8	5.7	6.8	100(385)		
		상	3.4	8.6	72.6	9.5	5.9	100(409)		
	학력	중졸/고교중퇴	2.0	15.2	77.8	1.0	4.0	100(99)	38.399***	
		고졸/대학중퇴	4.8	9.5	74.7	6.1	4.8	100(621)		
		대졸 이상	0.7	4.6	75.0	10.7	8.9	100(280)		

*p<.05, **p<.01, ***p<.001

부모세대 조사에서도 학력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p < .001$), 조사대상 부모세대 성인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청년 자녀의 교육기대수준으로서 '4년제 대학졸업'과 그 이상의 교육수준에 대해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취득) 높은 응답률을 보여, 대졸이상 응답자의 95%정도가 그들 자녀의 교육수준으로 '4년제 대학 졸업', '석사학위 취득', '박사학위 취득'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청년본인이 기대하는 교육수준

조사대상 청년이 본인에게 기대하는 교육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림 IV-8】 과 <표 IV-28>에 서 보는 바와 같이 4년제 대학졸업에 대한 응답이 61.8%로 가장 높았는데, 앞서 부모들의 기대수준보다는 10%이상 낮은 수준인 것을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2-3년제 대학졸업이 15.8%였고, 고등학교졸업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취득에 대해서는 각각 10%미만의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IV-8】 청년 본인이 기대하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교육수준에 대한 배경변인별 비교

청년본인이 기대하는 교육수준에 대해 세부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p < .05$), 경제수준($p < .001$) 및 부모학력별($p < .00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차이를 보면, 남자청년보다 여자청년들의 교육기대수준이 더 높았는데 4년제 대학졸업이상의 응답률을 볼 때 남자청년은 73.2%인데 반해, 여자청년들은 76.2%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에 대한 응답은 남자청년이 11.4%였지만, 여자청년들의 응답률은 7.5%정도였다. 경제수준별로 교육기대수준이 크게 차이가 났는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4년제 대학이상을 기대교육수준으로 하는 응답이 높았으며, 경제수준이 낮은 청년의

경우 50%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가 4년제 대학졸업을 기대교육수준으로 응답한 데 비해, 경제수준이 높은 청년의 경우 66.4%의 응답률을 보였다.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서도 청년들이 스스로 기대하는 교육수준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부모의 교육수준이 모두 대졸이상인 경우 청년자신의 교육기대수준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가 70%가 넘는 것이 비해,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청년 자신의 교육기대수준은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부모의 학력이 중졸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24~25%, 그리고 2~3년제 대학졸업의 응답도 대략 26%로 나타나, 부모의 학력수준이 낮은 경우에 청년자녀 스스로의 교육기대수준도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28 청년 본인이 기대하는 교육수준 (단위: %)

구분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졸업	4년제 대학졸업	석사학위 취득	박사학위 취득	전체(N)	χ^2
전체		9.6	15.8	61.8	7.5	5.5	100(2000)	
성별	남	11.4	15.3	60.3	6.9	6.1	100(1065)	11.517*
	여	7.5	16.3	63.5	8.0	4.7	100(935)	
경제수준	하	20.4	19.7	49.4	7.0	3.6	100(417)	118.064***
	중	8.7	18.6	63.2	5.0	4.5	100(666)	
	상	5.2	11.9	66.4	9.5	7.0	100(917)	
부모 학력	부	중졸	24.2	26.3	41.4	4.0	100(99)	239.593***
		고졸	13.7	21.8	56.3	5.4	100(1020)	
		대졸이상	2.1	6.8	72.0	10.4	100(850)	
	모	중졸	25.4	26.1	45.5	0.7	100(134)	151.551***
		고졸	9.7	17.9	61.0	6.8	100(1365)	
		대졸이상	2.8	5.4	71.4	11.4	100(465)	

*p<.05, **p<.01, ***p<.001

(2) 교육수준 및 학업관련

① 현재 교육수준

현재 만 19세에서 24세인 조사대상자 청년들의 교육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세부변인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29>와 같다. 먼저 응답자들 중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4년제 대학을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었고, 2~3년제 대학재학 및 졸업상태인 응답자는 22.2%, 중졸이거나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자는 18.4%였고,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그 이상의 대학원 교육까지 받은 응답자는 6.9%였다. 현재 교육수준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를 조사한 결과 성별, 학업수준과 경제수준, 그리고 부모학력과 직업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01$)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자청년이 남자청년보다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인 비율이 더 높았고, 고등학교 시절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역시 현재의 교육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수준별로 차이를 보여 4년제 대학재학 및 그 이상의 교육수준의 청년들의 경우 가족의 경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고졸 및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29 청년 조사대상의 교육수준

(단위: %)

구분			학교진학					χ^2
			고등학교 졸업이하	2~3년제대학 졸업이하	4년제대학 재학/휴학	4년제 대졸/대학원	전체(N)	
전체			18.4	22.2	52.6	6.9	100(2000)	
성별	남		22.4	20.8	54.5	2.3	100(1065)	94.426***
	여		13.7	23.7	50.5	12.1	100(935)	
학업 성적	하		51.0	23.7	23.7	1.6	100(245)	312.802***
	중		17.8	26.8	49.5	5.9	100(1080)	
	상		7.1	14.4	68.2	10.3	100(673)	
경제 수준	하		34.8	22.3	38.8	4.1	100(417)	127.010***
	중		17.6	24.9	51.8	5.7	100(666)	
	상		11.5	20.2	59.4	8.9	100(917)	
부모 학력	부	중졸	35.4	29.3	31.3	4.0	100(99)	202.599***
		고졸	25.3	26.8	42.7	5.2	100(1020)	
		대졸이상	7.4	15.8	67.4	9.4	100(850)	
	모	중졸	38.8	29.9	28.4	3.0	100(134)	153.765***
		고졸	19.2	25.1	48.8	6.9	100(1365)	
		대졸이상	8.0	11.0	72.9	8.2	100(465)	
부모 직업	부	무직	34.5	10.3	48.3	6.9	100(29)	116.063***
		전문/경영/관리직	10.4	12.9	70.2	6.4	100(326)	
		사무/기술/판매서비스	17.5	23.6	51.6	7.3	100(1477)	
		농축산어업/노무	38.5	31.1	26.7	3.7	100(161)	
	모	가사	16.4	19.8	55.3	8.4	100(1189)	64.030***
		전문/경영/관리직	13.3	18.3	65.0	3.3	100(60)	
		사무/기술/판매서비스	19.3	25.2	50.6	4.8	100(642)	
		농축산어업/노무	37.5	32.7	26.0	3.8	100(104)	

* $p < .05$, ** $p < .01$, *** $p < .001$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서도 조사대상 청년의 현재 교육수준에 차이가 있었는데,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일 경우, 청년들의 교육수준도 '4년제 대학 재학/휴학 중'이거나 그 이상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대졸이상일 경우 청년의 '4년제 대학 재학/휴학 중'이라는 응답은 67.4%였고, 어머니가 대졸이상인 경우에는 약 73%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의 학력이 중졸일 때, 청년들도 고졸 및 그 이하의 학력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모직업별로 청년조사대상의 교육수준 차이를 보면, 아버지가 전문/경영/관리직에 종사할 경우 청년의 '4년제 대학 재학/휴학 중' 응답이 70.2%로 높게 나타났고, 아버지가 사무/기술/판매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약 52%였다. 반면에 아버지가 무직이거나 농·축산업/어업/노무직인 경우에 청년의 교육수준은 고졸이거나 그 이하인 비율이 각각 34.5%,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전문/경영/관리직에 종사중인 어머니를 둔 청년의 경우 '4년제 대학 재학/휴학 중'이라는 응답이 6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어머니가 가사일에만 종사할 경우에는 55.3%, 사무/기술/판매서비스 종사자일 경우에는 50.6%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축산업/어업/노무직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 청년자녀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거나 그 이하였다.

② 청년들의 고등학교 재학 시 학업성적

고등학교 재학 시 학업성적은 청년들이 원하는 대학에의 진학여부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성인기 이행에 있어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청년들의 고등학교 시절 학업성적을 조사한 결과 중간이라는 응답이 54.1%,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33.7%('매우 높은 편' 응답 포함), 낮은 편('매우 낮은 편' 응답 포함)이라는 응답은 12.3%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업성적에 대한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지역규모별 차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청년보다 여자청년이, 그리고 대도시인 경우, 또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에 학업성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모두 학력수준이 높거나 부모의 직업이 전문/경영/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학업성적이 더 높았다. 특히 부모의 직업이 무직인 경우보다 농·축산업/어업/노무직일 경우 학업성적이 매우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표 IV-30 고등학교 시절 학업성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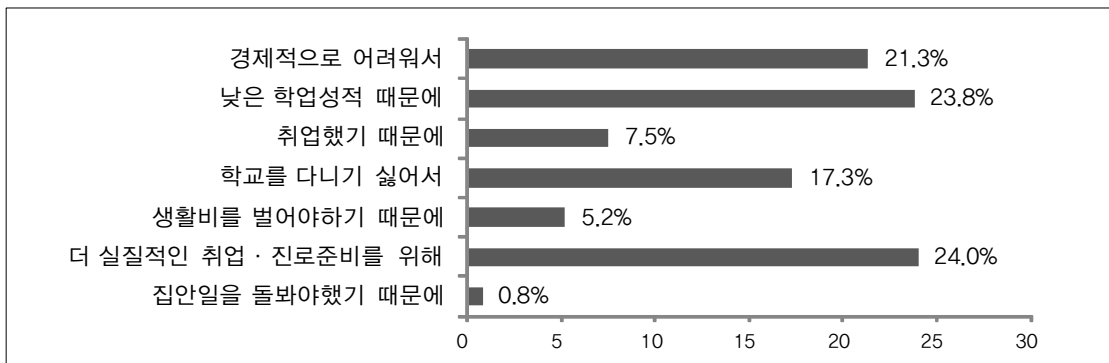
구분		학업성적				
		매우높은편	높은 편	중간	낮은 편	매우낮은편
전 체(N)		3.0(60)	30.7(613)	54.1(1080)	9.9(197)	2.4(48)
성별	남	2.5	27.6	54.8	11.7	3.4
	여	3.5	34.2	53.2	7.8	1.3
	χ^2	25.320***				
도시 규모	대도시	3.5	31.5	53.8	9.0	2.1
	중·소도시	2.0	28.8	54.9	11.3	2.9
	읍·면	3.9	32.8	52.5	8.9	1.9
	χ^2	9.873				
경제 수준	하	2.4	16.4	49.6	25.8	5.8
	중	2.3	23.9	64.7	7.5	1.7
	상	3.8	42.1	48.3	4.4	1.4
	χ^2	265.063***				
부학력 수준	중졸	6.1	14.3	48.0	23.5	8.2
	고졸	1.9	23.6	60.4	12.1	2.2
	대졸·대졸이상	4.1	41.5	46.9	5.5	1.9
	χ^2	139.686***				
모학력 수준	중졸	1.5	17.4	47.0	25.8	8.3
	고졸	2.3	27.8	58.5	9.4	1.9
	대졸·대졸이상	5.4	43.4	42.4	6.7	2.2
	χ^2	125.346***				
부직업	무직	10.7	3.6	60.7	21.4	3.6
	전문/경영/관리직	6.1	45.1	42.3	5.2	1.2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직	2.0	29.9	56.8	9.3	2.0
	농·축산업/어업/노무직	4.4	14.4	51.3	21.3	8.8
	χ^2	138.011***				
모직업	무직	2.7	32.5	54.0	9.3	1.6
	전문/경영/관리직	6.7	30.0	51.7	6.7	2.5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직	3.1	29.3	56.1	9.0	2.5
	농·축산업/어업/노무직	3.9	20.4	44.7	22.3	8.7
	χ^2	51.173***				

*p<.05, **p<.01, ***p<.001

(3) 학업중단/휴학 및 미진학

① 학업중단 및 미진학, 대학중퇴 이유

앞의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상급학교, 특히 대학교 진학여부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성인기 이행과정양상에서 영향을 미치며, 대학졸업여부도 이후 취업과 성인기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고등학교 미진학 및 중단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조사했는데, 해당 사례는 전체에서 7개밖에 없었으며, 해당 응답자들은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경제적 어려움, 또는 퇴학처분, 취업진로준비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표 IV-31〉). 현재 대학진학률이 80%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졸업자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며, 그나마도 대학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취업에 있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조사대상 청년들 중 대학진학을 하지 않은 479명에 대해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IV-9】와 같다.



【그림 IV-9】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더 실질적인 취업과 진로를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응답이 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와 같은 대졸자의 실업문제와 관련하여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적성에 맞지 않는 대학진학보다는 아예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례도 포함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재수생도 상당수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낮은 학업성적’은 23.8%로 나타났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라는 응답도 21.3%로 나타났다. 이 외에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라는 응답도 17.3%였고, ‘취업했기 때문에’(7.5%)와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이유’가 (5.2%)로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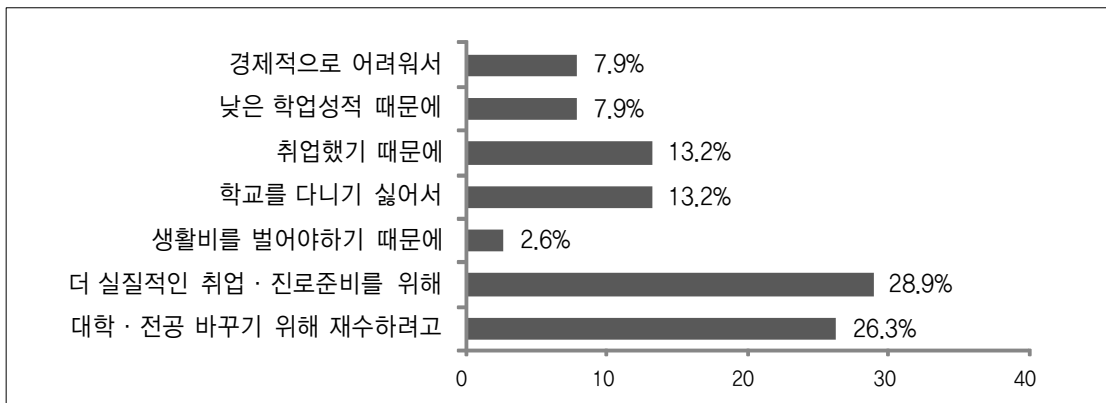
표 IV-31

학업중단 및 상급학교 미 진학, 대학중퇴 이유

(단위: %(빈도))

구 분	고등학교 미 진학 및 중단이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	대학중퇴이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14.3(1)	21.3(102)	7.9(3)
낮은 학업성적 때문에	14.3(1)	23.8(114)	7.9(3)
취업했기 때문에	0.0(0)	7.5(36)	13.2(5)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28.6(2)	17.3(83)	13.2(5)
학교에서 퇴학처분 받음	14.3(1)	-	-
생활비를 벌어야하기 때문에	-	5.2(25)	2.6(1)
더 실질적인 취업·진로준비를 위해	14.3(1)	24.0(115)	28.9(11)
학교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14.3(1)	-	-
집안일(가사일, 가족돌보기 등)을 돌봐야 해서	0.0(0)	0.8(4)	0.0(0)
대학이나 전공을 바꾸기 위해 재수를 하려고	-	-	26.3(10)
총계	100(7)	100(479)	100(38)

본 조사대상 청년 중 총 38명이 대학을 중퇴하였는데, 【그림 IV-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이유로는 ‘더 실질적인 취업·진로준비를 위해’(28.9%), ‘대학이나 전공을 바꾸기 위해 재수를 하려고’(26.3%), ‘취업했기 때문에’(13.2%),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13.2%), ‘경제적으로 어려워서’(13.2%), ‘낮은 학업성적 때문에’(7.9%), ‘생활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0】 대학 중퇴 이유

② 대학재학중 학업중단(휴학)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혹은 대학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 청년들에게 학업중단(휴학)경험을 질문한 결과, <표 IV-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의 25.7%(419명)의 청년들이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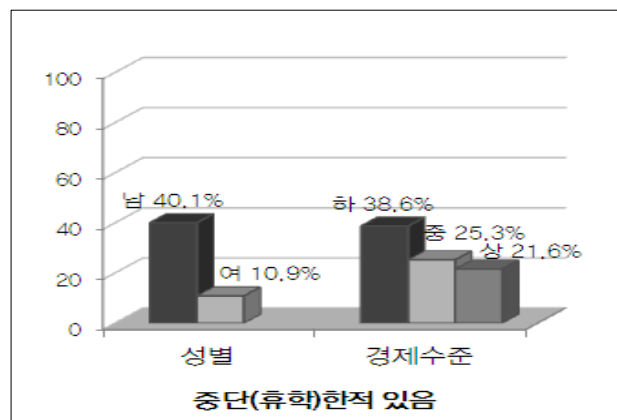
표 IV-32 학업중단(휴학포함)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전체(N)	성별		경제수준		
		남	여	하	중	상
중단(휴학)한적 있음	25.7(419)	40.1	10.9	38.6	25.3	21.6
중단(휴학)한적 없음	74.3(1214)	59.9	89.1	61.4	74.7	78.4
χ^2		182.063***		31.106***		

*p<.05, **p<.01, ***p<.001

학업중단(휴학)경험에 대한 변인별 차이를 보면, 성별과 경제수준별로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IV-11】에서와 같이 여자청년보다는 남자청년의 학업중단(휴학) 경험이 3배 이상 높은 40% 수준이었는데 이러한 큰 성별차이는 남자청년의 군대복무를 위한 학업중단이나 휴학과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경제수준별로는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학업중단(휴학)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경제수준이 낮은 청년의 경우 38.6%가 학업중단(휴학)경험이 있는 반면,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21.6%만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1】 학업중단(휴학포함) 경험 여부

앞서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년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것인지, 아니면 휴학을 한 것인지에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V-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도에 그만둔 인원은 6.7%(28명)로 대부분이 일시적 휴학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변인별로 보면 역시 남자청년이 휴학한 비율이 훨씬 높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복무로 인한 이유로 볼 수 있으며, 만19세~21세의 청년의 경우 일시적 휴학보다는 아예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비율도 높았다.

표 IV-33 학업중단과 휴학 구분

(단위: %)

구분	전체(N)	성별		연령		경제수준		
		남	여	만19-21세	만22-24세	하	중	상
중도에 그만둔	6.7(28)	3.9	17.0	13.8	4.2	6.7	10.1	4.0
일시적 휴학	93.3(391)	96.1	83.0	86.2	95.8	93.3	89.9	96.0
χ^2		19.183***		11.839***		4.580		

*p<.05, **p<.01, ***p<.001

대학재학 중 휴학횟수와 휴학기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 IV-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학횟수는 전체 응답자 중 휴학한 적이 있는 391명의 청년중 약 90%가 1번의 휴학을 경험했고, 2번이상은 9.7%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이 낮은 청년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휴학횟수가 더 많았다.

표 IV-34 대학재학 중 휴학횟수 및 기간

(단위: %)

구분		전체(N)	성별		연령		경제수준		
			남	여	만19-21세	만22-24세	하	중	상
휴학 횟수	1번	89.8(351)	89.9	89.0	96.8	87.5	84.7	90.4	92.3
	2번	9.7(38)	9.7	9.6	3.2	11.8	14.3	8.8	7.7
	3번이상	0.5(2)	0.3	1.4	0.0	0.7	1.0	0.8	0.0
휴학 기간	1년 미만	16.4(64)	8.8	49.3	33.0	11.1	13.4	21.6	14.3
	1년-2년 미만	38.6(151)	36.5	47.9	37.2	39.1	48.5	30.4	38.7
	2년-3년 미만	44.2(173)	53.8	2.7	28.7	49.2	36.1	48.0	46.4
	3년 이상	0.8(3)	0.9	0.0	1.1	0.7	2.1	0.0	0.6

대학재학 중 휴학기간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은 16.4%에 불과하였으며, 1년~2년 미만이라는 응답은 38.6%, 2년~3년 미만이라는 응답은 44.2%로 장기휴학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청년들의 장기간 휴학이 많았는데 이는 역시 군복무를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으며 이는 연령대별 비교에서 만 22세~24세 청년들의 장기휴학비율이 높은 것과 같은 이유로 볼 수 있다.

③ 대학재학 중 휴학 사유

〈표 IV-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재학 중 첫 번째 휴학의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입대가 약 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등록금이 없어서(8.4%), 편입학(재수) 준비(5.6%), 취업준비(4.9%), 어학연수/해외여행(3.6%) 순이었다. 두 번째 휴학사유로는 어학연수/해외여행, 취업준비, 등록금이 없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5 대학재학 중 휴학의 주된 이유 (단위: %(빈도))

구분	첫 번째 휴학 사유	두 번째 휴학 사유
등록금이 없어서	8.4(33)	17.5(7)
어학연수/해외여행	3.6(14)	20.0(8)
편입학(또는 재수) 준비	5.6(22)	7.5(3)
취업준비(자격증, 고시준비)	4.9(19)	20.0(8)
생활비 마련	2.8(11)	12.5(5)
군입대	69.6(272)	12.5(5)
대학원 준비(유학 포함)	0.5(2)	0.0(0)
인턴십(현장 경험)	1.0(4)	2.5(1)
건강상의 이유로	2.3(9)	0.0(0)
기타	1.5(5)	7.5(3)
총계	100(391)	100(40)

첫 번째 휴학사유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조사한 결과, 성별차이의 경우 남자청년들의 군입대에 따른 차이로 보이며, 연령별 차이도 역시 군입대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남자청년이 군입대로 인한 휴학이 가장 많다면, 여자청년의 경우 어학연수나 대학원 준비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이 가장 많았고 (36.8%),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휴학도 약 30% 정도로 나타났다. 경제수준별 차이를 보면,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휴학사유가 군 입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수준이

중간이거나 높은 경우에는 어학연수, 편입학이나 대학원준비로 인한 휴학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36 휴학사유(첫 번째)에 대한 배경변인별 비교 (단위: %)

구분	전체(N)	성별		연령		경제수준		
		남	여	만19-21세	만22-24세	하	중	상
경제적 어려움 (등록금이나 생활비 마련)	11.4(44)	7.5	29.4	21.5	8.2	24.7	8.9	5.5
군입대	70.5(272)	85.5	0.0	45.2	78.5	61.9	70.2	75.8
취업준비, 인턴	6.0(23)	1.9	25.0	7.5	5.5	5.2	8.1	4.8
어학연수, 편입학, 대학원 준비	9.8(38)	4.1	36.8	20.4	6.5	4.1	11.3	12.1
건강문제	2.3(9)	0.9	8.8	5.4	1.4	4.1	1.6	1.8

2) 성인기 이행과 경제적 자립

(1) 경제적 자립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있어 주목해야 할 중요한 과업 중 하나가 부모(보호자)로부터의 경제적 자립이다. 본 조사에서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여부와 실제 학비와 생활비 등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학교육과 결혼 및 주택구입에 있어서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① 경제적 자립 여부

경제적 자립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한달 간 수입이 있었는지를 먼저 질문하였고, 수입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 한하여 지난 한달 간 수입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다. 지난 한달 간 수입이 있었던 청년들은 총 756명으로 총 37.8%에 달하는 것을 나타났다. 이들에게 한달 간 번 수입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IV-37>와 같다. 청년들의 응답 중 월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20.6%였고, 51만원~100만원이라고 응답한 청년은 30.7%, 101만원~150만원이라는 응답은 32.5%로 84%에 달하는 534명의 청년들의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소득범위는 101만원~150만원이었다.

표 IV-37 경제적 자립 여부

(단위: %(빈도))

지나 한달 간 수입여부		한달간 번 수입				
수입 없음	수입 있음	1~50만원	51~100만원	101~150만원	151~200만원	201만원 이상
62.2(1244)	37.8(756)	20.6(156)	30.7(232)	32.5(246)	13.2(100)	2.9(22)

② 생활비와 학비 조달방법

청년들이 생활비와 학비를 어떻게 조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올해 사용한 생활비(식비, 주거비, 의복비, 공공요금 등)의 출처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순위별 재원조달 방법은 <표 IV-38>와 같이 나타났다. 생활비 재원의 1순위는 부모로, 조사대상의 약 80%가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 포함). 그 다음인 2순위는 스스로 번 수입(494명)이고, 3순위의 생활비 재원은 형제/자매(97명)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교육(대학교, 학원 등 포함)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등록금, 기숙사비, 학원 비 등)의 재원의 경우, 1순위는 역시 부모로(1,489명) 전체 청년조사 대상 중 74.5%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스스로 번 수입(270)으로, 2순위 응답 중 30.8%를 차지했다. 2순위 응답의 경우 대출과 장학금도 각각 165명(18.8%), 182명(20.7%)을 차지해 그 수가 적지 않았다.

표 IV-38 생활비 및 교육비용 재원

구분	순위	재원 출처	빈도	비율	전체(N)
생활비	1순위	부모	1593	79.7	100%(2000)
	2순위	내가 번 수입	494	48.3	100%(1023)
	3순위	형제/자매	97	22.2	100%(248)
교육관련 비용	1순위	부모	1489	74.5	100%(2000)
	2순위	내가 번 수입	270	30.8	100%(878)
	3순위	내가 번 수입	73	23.0	100%(317)

③ 경제적 지원 수혜 여부

지역주민센터(동사무소)나 지역사회복지관, 또 사회봉사단체로부터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은 경험 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조사대상 청년의

부모가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청년들은 중산층 가정과 다르게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받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경제적 지원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8%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면 읍·면에 거주하는 청년일 경우 경제적인 수혜를 받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p < .001$).

표 IV-39 경제적 지원서비스 수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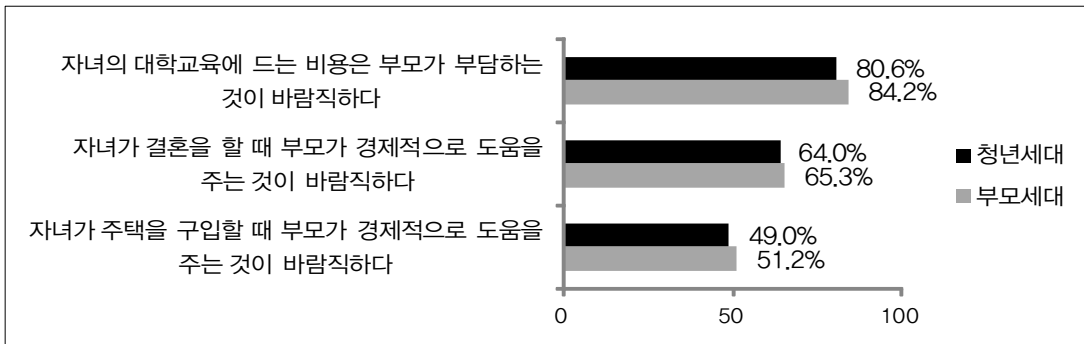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N)	지역규모			경제수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하	중	상
수혜받은적 있다	4.8(95)	3.6	4.1	10.8	13.9	3.2	1.7
수혜받은적 없다	91.1(1821)	92.6	91.6	83.4	79.4	91.9	95.7
잘 모르겠다	4.2(84)	3.7	4.3	5.8	6.7	5.0	2.5
χ^2		27.301***			116.598***		

* $p < .05$, ** $p < .01$, *** $p < .001$

(2) 성인기 이행에 있어 경제적 자립에 대한 인식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대학교육, 결혼, 부모로부터의 분가를 의미하는 주택구입 등에 있어서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청년세대와 부모세대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 '동의하다' 와 '매우 동의 한다' 의 응답 합친 결과 제시

【그림 IV-12】 경제적 자립에 대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인식차이

그 결과는 【그림 I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년세대와 부모세대간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대학교육 비용, 결혼지원 및 주택구입 등에 있어서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 청년들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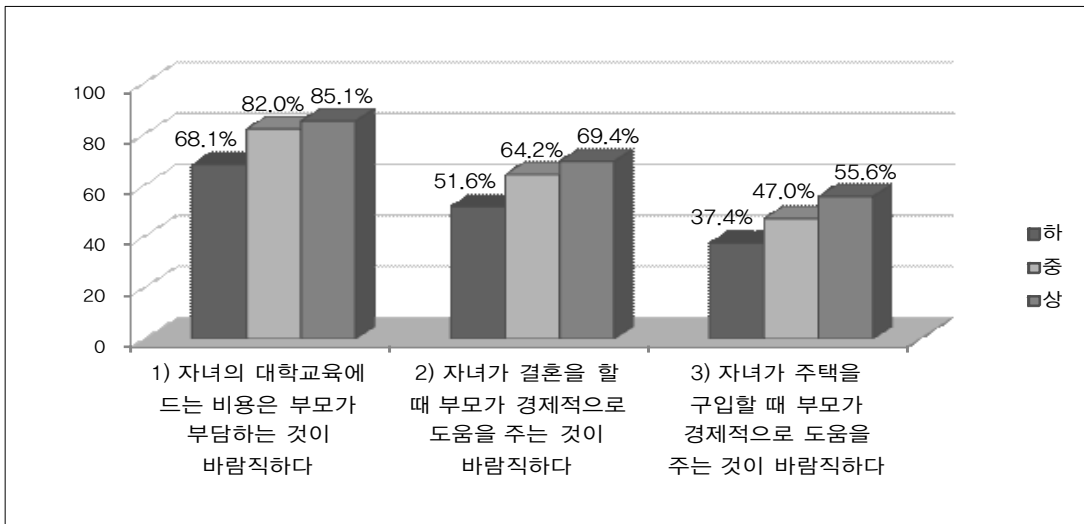
부모세대 성인들이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대학교육 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청년세대의 81%, 부모세대의 84.2%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을 보였다(〈표 IV-40〉). 결혼 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청년의 64%, 부모세대 성인들의 65.3%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고, 자녀의 주택구입시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청년과 부모 모두 50%내외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V-40 경제적 자립에 대한 청년-부모세대 인식차이 비교 (단위: %)

구분	청년세대	부모세대
자녀의 대학교육에 드는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0.6	84.2
자녀가 결혼을 할 때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64.0	65.3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49.0	51.2

※ '동의하다' 와 '매우 동의한다' 응답률을 합친 것

대학교육, 결혼, 주택구입 등 주요 성인기 이행 과업수행시의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바람직하게 여기는지를 성별, 연령, 경제수준별로 살펴본 결과, 경제수준별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각 지원항목에 대한 경제수준별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그림 IV-13】 과 같다.



※ '동의하다' 와 '매우 동의한다' 의 응답 합침.

【그림 IV-13】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경제수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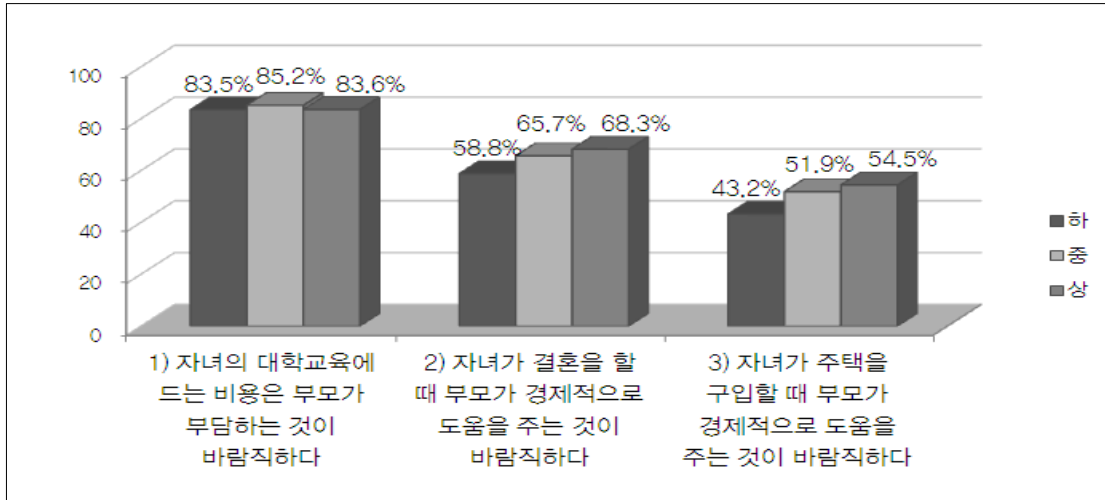
【그림 IV-13】 과 <표 IV-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대학교육, 결혼, 주택비용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도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수준이 높은 청년일수록 자신들의 성인기 삶을 준비하고 시작하는데 있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더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수준이 낮은 청년일 경우 현재 우리사회에서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성인기 이행 과정상의 주요 과업들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바람직함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동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이러한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가정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면서 경제적 자립에 대한 의식이 상대적으로 더 성숙한 결과일 수 있다.

표 IV-41 청년세대 조사: 경제적 자립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경제수준		
			남	여	만19-21세	만22-24세	하	중	상
자녀의 대학교육비용은 부모부담이 바람직하다	M (SD)	2.87 (.543)	2.88 (.557)	2.86 (.527)	2.88 (.553)	2.86 (.531)	2.71 (0.628)	2.88 (.541)	2.94 (.485)
	t/F (Scheffé)		0.537		1.067		26.523*** (상>중>하)		
자녀결혼 시 부모의 경제적 도움은 바람직하다	M (SD)	2.69 (.656)	2.68 (.668)	2.70 (.642)	2.68 (.659)	2.70 (.652)	2.52 (.672)	2.68 (.630)	2.78 (.651)
	t/F (Scheffé)		-0.812		-0.380		22.758*** (상>중>하)		
자녀 주택구입 시 부모의 경제적 도움은 바람직하다	M (SD)	2.49 (.670)	2.51 (.668)	2.46 (.672)	2.47 (.664)	2.50 (.676)	2.33 (.697)	2.45 (.636)	2.58 (.667)
	t/F (Scheffé)		1.437		-0.916		22.479*** (상>중>하)		

*p<.05, **p<.01, ***p<.001

부모세대 성인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특히 경제수준별로 자녀의 대학교육 비용과 결혼 및 주택구입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응답을 보면 【그림 IV-1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세 가지 항목 중 예외적으로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한 비용 지원의 경우에만 경제수준에 따른 인식차이가 크지 않았고, 이를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는 경제수준이 '상'에 속하는 부모세대의 응답이 경제수준이 '하'에 속하는 부모세대에 비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응답률이 10%정도 높게 나타났다.



※ '동의하다' 와 '매우 동의 한다' 의 응답 합침.

【그림 IV-14】 경제적 자립에 대한 부모세대의 인식-경제수준별 비교

〈표 IV-42〉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성별과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청년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결혼준비와 주택구입시 경제적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세대 성인은 자녀결혼 시 그리고 주택구입시 부모의 경제적 도움은 바람직하다는 응답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2 부모세대 조사: 경제적 자립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경제수준		
			남	여	만49-51세	만52-54세	하	중	상
자녀의 대학교육비용은 부모부담이 바람직하다	M (SD)	2.91 (.527)	2.92 (.527)	2.90 (.528)	2.91 (.534)	2.91 (.518)	2.86 (.542)	2.92 (.501)	2.93 (.543)
	t/F (Scheffé)		0.519		-0.065		1.170 (상>중>하)		
자녀결혼 시 부모의 경제적 도움은 바람직하다	M (SD)	2.68 (.605)	2.68 (.615)	2.69 (.596)	2.66 (.607)	2.71 (.604)	2.56 (.595)	2.67 (.593)	2.76 (.612)
	t/F (Scheffé)		-0.170		-1.261		7.352** (상>중>하)		
자녀 주택구입 시 부모의 경제적 도움은 바람직하다	M (SD)	2.48 (.633)	2.52 (.619)	2.45 (.644)	2.46 (.635)	2.51 (.629)	2.37 (.601)	2.49 (.621)	2.54 (.653)
	t/F (Scheffé)		1.849		-1.312		4.806** (상>중>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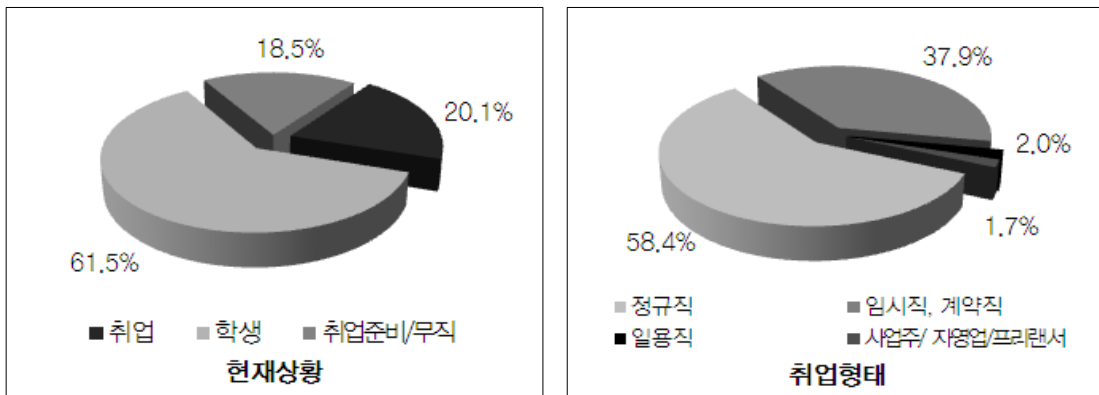
*p<.05, **p<.01, ***p<.001

이러한 부모세대와 청년세대 조사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향후 성인기 사회경제적 위치와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등교육, 결혼 및 주택구입과 같은 경제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요 과업수행과정에서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청년들이 성인기를 준비하는데 있어 경제수준별 출발점이 다르며, 이는 곧 성인기 이행과정과 이후 삶의 모습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3) 청년들의 취업 및 아르바이트 경험

① 청년들의 현재 상황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만 19세~24세인 청년들의 현재 진로상황을 살펴본 결과, 【그림 IV-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상태인 청년은 약 10%였고, 학생은 61.5%, 취업준비/무직인 상태는 18.5%로 나타났다. 취업한 청년들 중 58.4%가 정규직이라고 응답했으며, 임시직이거나 계약직인 경우는 38% 정도였다.



【그림 IV-15】 청년들의 현재상황과 현재 취업형태

청년들의 현재 진로상황에 대해 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과 경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남자청년과 여자청년 모두 학생(휴학생포함) 비율이 가장 크지만, 취업에 대해서는 남자청년보다 여자청년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p < .01$). 경제수준별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수준이 낮은 청년들의 경우 현재 취업 중이거나 취업준비 혹은 무직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이 낮은 청년의 경우 학생의 비율은 5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 반대로 경제수준이 높은 청년의 경우 학생비율은 67%여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 IV-43 청년들의 현재 상황

(단위: %)

구분	전체 (N)	성별		경제수준		
		남	여	하	중	상
취업	20.1(401)	17.9	22.5	23.7	19.2	19.0
학생(휴학생 포함)	61.5(1229)	64.4	58.1	49.4	61.4	67.0
취업준비/무직(전업주부 포함)	18.5(370)	17.7	19.5	26.9	19.4	14.1
χ^2		9.225*		43.729***		

*p<.05, **p<.01, ***p<.001

현재 취업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취업상태에 대한 배경별 차이를 본 결과는 <표 IV-44>와 같다. 정규직의 비율은 여자청년이 남자청년보다 높았으며, 반면 임시직이나 계약직의 비율은 남자청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수준별로 보면,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정규직 비율보다는 임시직이나 계약직 비율이 더 높았다.

표 IV-44 청년들의 현재 취업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N)	성별		경제수준		
		남	여	하	중	상
정규직	58.4(234)	49.7	66.2	46.5	58.6	64.9
임시직, 계약직	37.9(152)	43.5	32.9	53.5	35.2	31.0
일용직	2.0(8)	3.1	1.0	0.0	5.5	0.6
사업주/ 자영업/프리랜서	1.7(7)	3.7	0.0	0.0	0.8	3.4

(4)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 경험

① 아르바이트 경험

청년들의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을 조사한 결과 약 61%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별과 경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청년보다는 여자청년이, 그리고 경제수준별로는 경제수준이 낮거나 중간인 경우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5 학교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

구분	전체(N)	성별		경제수준		
		남	여	하	중	상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60.7(1214)	58.0	63.7	62.6	63.7	57.7
아르바이트 경험 없음	39.3(786)	42.0	36.3	37.4	36.3	42.3
χ^2		6.817**		6.564*		

*p<.05, **p<.01, ***p<.001

② 학교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

학교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표 IV-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돈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57.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서(15.2%),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11.8%), 학비를 벌기 위해서(9.3%)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p<.001),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21.8%, 10.3%로 나타나, 응답자의 32.1%가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학교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이 중간이거나 높은 경우 ‘용돈이 부족해서’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는데, 경제수준이 중간인 청년들의 63%, 경제수준이 높은 청년들의 55.3%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이유로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경제수준이 낮은 청년들의 9.6%가 응답한 반면, 경제수준이 중간인 청년들은 13.2%가,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은 청년은 19.5%가 응답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6 학교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한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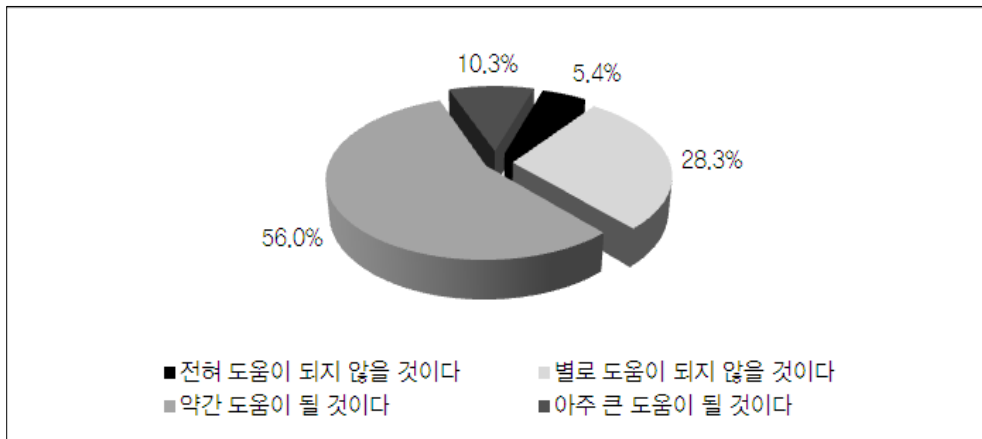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용돈이 부족해서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서	호기심 혹은 주위의 권위로	전체(N)	χ^2
전체	11.8	9.3	57.5	15.2	6.2	100(1,213)	46.454***
경제수준	하	21.8	10.3	52.9	9.6	100(261)	
	중	9.0	8.7	63.2	13.2	100(424)	
	상	9.1	9.3	55.3	19.5	100(528)	

*p<.05, **p<.01, ***p<.001

③ 아르바이트와 미래의 직업과의 관계

학교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미래의 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은 【그림 IV-1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응답은 10.3%,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응답은 56%로 나타나, 응답자의 66% 정도가 아르바이트가 미래의 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IV-16】 아르바이트 경험이 미래의 직업에 도움 될지 여부

이 질문에 대해 배경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남자보다는 여자청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미래의 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을 더 많이 하였으나 그 차이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경제수준별로는 특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47 아르바이트 경험이 미래의 직업에 도움될지 여부

구분	전체	성별		경제수준		
		남	여	하	중	상
Mean(SD)	2.71(.720)	2.71 (.751)	2.72 (.687)	2.76 (.758)	2.69 (.715)	2.71 (.704)
t		-0.186		0.844		

*p<.05, **p<.01, ***p<.001

④ 취업준비내용

취업준비내용에 대한 청년들의 경험을 살펴보면(〈표 IV-48〉), 가장 응답이 많았던 취업준비내용은 외국어능력시험을 포함한 자격증 취득(651명)이었고, 다음으로 직업적성·흥미검사(506명)와 직업 탐색 및 체험프로그램(373명)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직업훈련이나 입사면접훈련을 받은 청년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IV-48 경험했던 취업준비내용 (중복응답)

구분	경험빈도수(중복응답)
직업적성·흥미검사	506
직업탐색 및 체험 프로그램	373
직업훈련	135
자격증취득 (외국어능력시험 포함)	651
입사면접훈련	122
해당사항 없음	937
총계	2724

⑤ 구직·취업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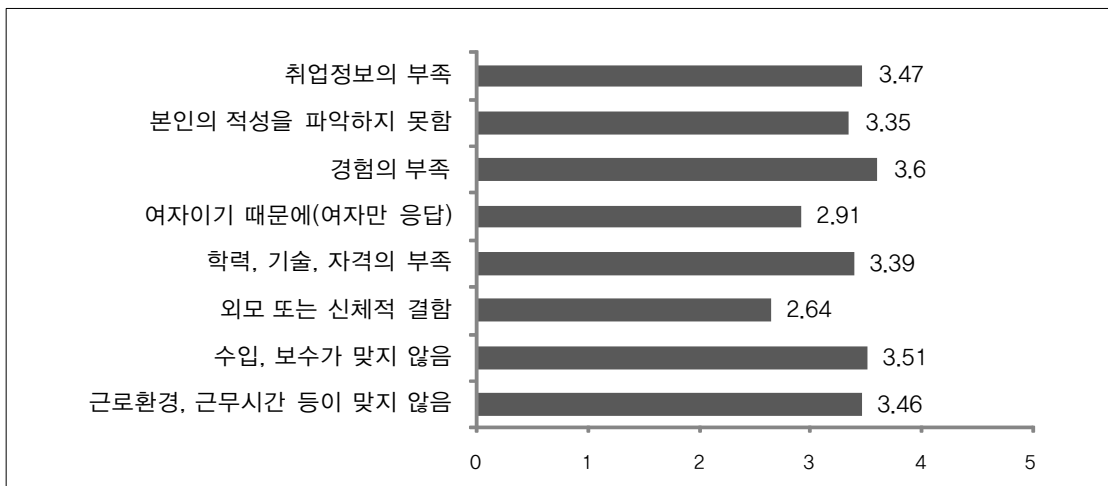
청년들이 구직이나 취업을 경험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의 32.6%가 구직이나 취업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V-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p<.01$)과 경제수준별($p<.001$)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청년보다 여자청년이,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에 구직이나 취업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49 구직·취업경험 (단위: %)

구분	전체(N)	성별		경제수준		
		남	여	하	중	상
구직이나 취업경험 있음	32.6(652)	29.3	36.4	39.6	33.5	28.8
구직이나 취업경험 없음	67.4(1348)	70.7	63.6	60.4	66.5	71.2
χ^2		11.320**		15.512***		

* $p<.05$, ** $p<.01$, *** $p<.001$

구직이나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응답자에 한해 구직 시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림 IV-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직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중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것은 경험부족(M=3.60)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M=3.51), 취업정보가 부족하여(M=3.47), 근로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M=3.46),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해서(M=3.39),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3.35), 여자가기 때문에(2.91),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M=2.64)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IV-17】 구직 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이러한 구직 시의 어려움에 대해 성별, 연령, 가정의 경제수준 등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제한적이었다.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하여’ 항목은 가정경제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p < .001$),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학력과 기술, 자격이 부족하다는 응답에 대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구직 시 어려움을 겪는다는 항목은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p < .05$), 남자청년보다 여자청년이 이런 이유로 구직 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 항목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는데($p < .01$), 연령이 높은 집단의 청년들의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V-50 구직 시 겪는 어려움

구분		전체	성별		연령		경제수준		
			남	여	만19~ 21세	만22~ 24세	하	중	상
취업정보가 부족하여	M (SD)	3.47 (.868)	3.48 (.875)	3.46 (.863)	3.42 (1.000)	3.49 (.818)	3.55 (.837)	3.46 (.924)	3.43 (.838)
	t/F (Scheffé)		0.413		-0.735		0.942 (하>중>상)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M (SD)	3.35 (.881)	3.38 (.917)	3.33 (.847)	3.24 (.957)	3.39 (.851)	3.37 (.905)	3.36 (.894)	3.34 (.857)
	t/F (Scheffé)		0.664		-1.886		0.087 (하>중>상)		
경험이 부족해서	M (SD)	3.60 (.881)	3.60 (.883)	3.59 (.879)	3.54 (.921)	3.62 (.866)	3.60 (.817)	3.62 (.887)	3.58 (.916)
	t/F (Scheffé)		0.165		-1.041		0.146 (중>하>상)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만 응답)	M (SD)	2.91 (.984)	-	2.91 (.984)	2.88 (1.019)	2.92 (.975)	2.82 (.958)	2.99 (.995)	2.89 (.991)
	t/F (Scheffé)		-		-0.247		0.718 (중>상>하)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하여	M (SD)	3.39 (.915)	3.46 (.938)	3.33 (.892)	3.39 (.961)	3.39 (.900)	3.62 (.886)	3.41 (.930)	3.23 (.891)
	t/F (Scheffé)		1.758		0.004		9.699*** (하>중>상)		
외모 또는 신체적 결 함으로 인해	M (SD)	2.64 (1.077)	2.55 (1.090)	2.72 (1.059)	2.66 (1.162)	2.63 (1.046)	2.58 (1.088)	2.57 (1.087)	2.73 (1.058)
	t/F (Scheffé)		-2.049*		0.317		1.529 (상>하>중)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	M (SD)	3.51 (.875)	3.49 (.904)	3.54 (.849)	3.36 (.943)	3.57 (.845)	3.63 (.892)	3.47 (.914)	3.48 (.827)
	t/F (Scheffé)		-0.701		-2.678**		2.024 (하>상>중)		
근로환경이나 근무시 간 등이 맞지 않아서	M (SD)	3.46 (.846)	3.47 (.874)	3.46 (.821)	3.36 (.871)	3.50 (.835)	3.57 (.892)	3.42 (.860)	3.44 (.802)
	t/F (Scheffé)		0.093		-1.916		1.746 (하>상>중)		

*p<.05, **p<.01, ***p<.001

3) 성인기 이행과 부모의 개입, 개인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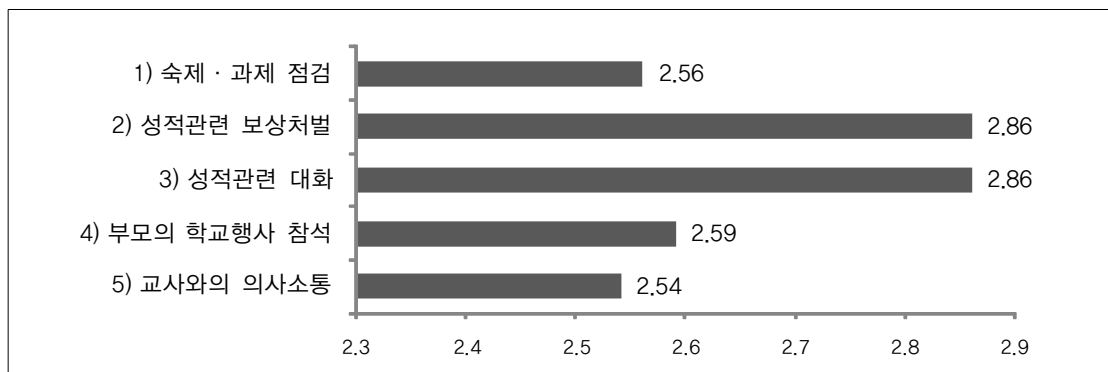
(1) 자녀의 교육·진로에 대한 부모관여와 생활점검

부모가 자녀의 청소년시절(중·고등학교 재학 중) 교육과 진로, 그리고 생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는지는 자녀들의 성인기 이행 양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년시절

어떻게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하며, 또 교육적으로 준비되는지는 성인이 이행과 이후 성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며, 이때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관여하며 의사소통 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청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회고하여 이들의 부모들이 어떻게 그들의 교육과 진로를 준비시키며 생활을 점검하고 개입했는지를 조사하였다.

① 부모의 교육적 관여 정도

먼저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그림 IV-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시절 성적에 대한 관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관련 보상 및 처벌이나 ($M=2.86$) 성적관련 대화에 ($M=2.86$)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고, 부모의 학교행사참석($M=2.59$)이나 숙제 및 과제점검($M=2.56$), 교사와의 의사소통($M=2.54$)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그림 IV-18】 부모의 교육적 관여 정도

부모의 교육적 관여에 대해 성별, 학업성적, 교육수준,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51>와 같다.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은 각 부모의 교육적 관여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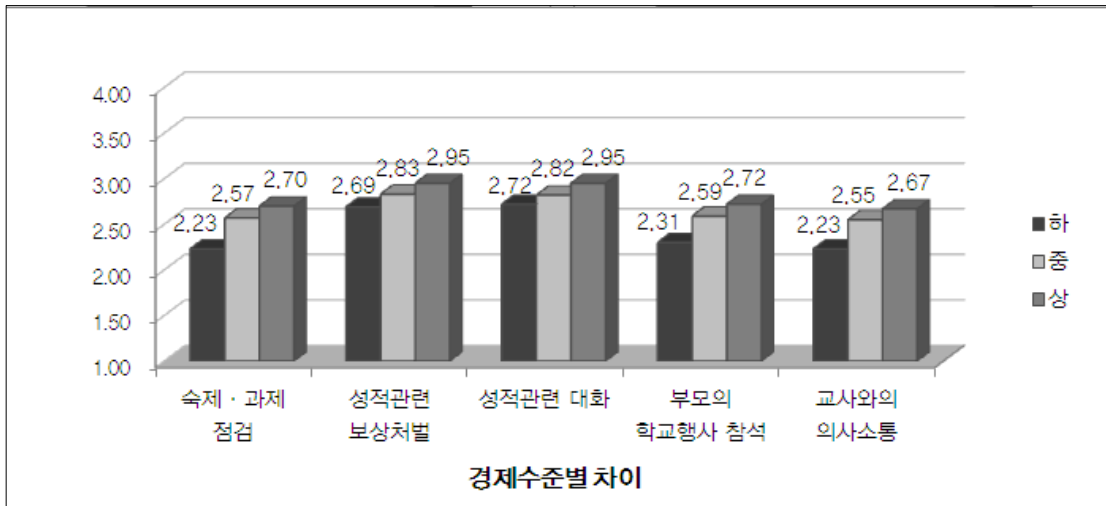
부모의 교육적 관여항목 중 유일하게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성적관련 대화로서 남자보다 여자응답자에게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p<.01$). 학업성적별로 보면, 숙제 및 과제점검, 성적관련 보상과 처벌 및 대화, 부모의 학교행사 참석과 교사와의 의사소통 등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관련한 모든 항목에서 조사응답자 청년들의 고등학교 시절의 학업성적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p<.001$),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적 관여수준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IV-51 부모의 교육적 관여정도 (성별, 학업성적, 교육수준,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

구분		숙제·과제 점검	성적관련 보상처벌	성적관련대화	부모의 학교행사참석	교사와의 의사소통
전 체		2.56(.715)	2.86(.718)	2.86(.655)	2.59(.722)	2.54(.696)
성별	남	2.55(.713)	2.83(.723)	2.82(.668)	2.56(.712)	2.51(.687)
	여	2.56(.717)	2.88(.713)	2.90(.639)	2.62(.732)	2.56(.705)
	t	-0.389	-1.542	-2.602**	-1.661	-1.730
학업성적	하	2.24(.666)	2.57(.719)	2.58(.718)	2.23(.664)	2.28(.656)
	중	2.57(.704)	2.84(.696)	2.84(.631)	2.57(.713)	2.52(.675)
	상	2.65(.716)	2.99(.720)	2.99(.634)	2.74(.707)	2.66(.711)
	F (Scheffé)	31.986*** (상>중>하)	33.041*** (상>중>하)	38.241*** (상>중>하)	47.880*** (상>중>하)	29.624*** (상>중>하)
교육수준	㉠ 고등학교 졸업이하	2.40(.681)	2.61(.676)	2.65(.676)	2.36(.687)	2.35(.644)
	㉡ 2~3년제대 졸업이하	2.50(.680)	2.79(.720)	2.77(.656)	2.50(.693)	2.47(.690)
	㉢ 4년제대 재학/휴학	2.62(.738)	2.95(.715)	2.96(.636)	2.68(.729)	2.61(.702)
	㉣ 4년제대졸/대학원	2.72(.641)	3.06(.650)	2.95(.573)	2.78(.672)	2.66(.689)
	F (Scheffé)	11.822*** (d>c>b>a)	25.903*** (d>c>b>a)	24.908*** (c>d>b>a)	24.784*** (d>c>b>a)	15.337*** (d>c>b>a)
경제수준	하	2.23(.730)	2.69(.725)	2.72(.701)	2.31(.722)	2.23(.670)
	중	2.57(.691)	2.83(.701)	2.82(.655)	2.59(.697)	2.55(.671)
	상	2.70(.677)	2.95(.713)	2.95(.619)	2.72(.705)	2.67(.681)
	F (Scheffé)	65.426*** (상>중>하)	19.282*** (상>중>하)	20.734*** (상>중>하)	48.009*** (상>중>하)	62.188*** (상>중>하)

*p<.05, **p<.01, ***p<.001

또한 조사대상 청년의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에 따라 모든 부모의 교육적 관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p<.001),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적 관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9】는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의 교육적 관여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IV-19】 경제수준별 부모의 교육적 관여 정도

조사대상 청년들의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부모의 학력과 직업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본 결과, <표 IV-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로 부모의 학력과 직업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나타냈다.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의 모든 교육적 관여활동은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p<.001$), 특히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일 때 자녀와의 성적관련 대화는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여주었다.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부모의 교육적 관여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p<.001$),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경영/관리직일 경우 성적관련보상 및 처벌, 성적관련 대화, 부모의 학교행사참석 및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반대로 아버지의 직업이 무직이거나 농·축산업/어업/노무직인 경우에는 타 직업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의 교육적 관여를 보여주었다. 어머니 직업에 따른 교육적 관여에 대한 차이는 숙제·과제 점검의 경우 어머니의 직업인 가사인 경우에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 그 다음은 전문/경영/관리직, 사무/기술/판매서비스, 농·축산업/어업/노무 순으로 나타났다($p<.001$).

성적관련 대화나 학교교사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전문/경영/관리직인 어머니의 교육적 관여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사무/기술/판매서비스직, 전업주부 순이었다. 통계적 유의도와 상관없이 어머니가 농·축산업/어업/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부모의 교육적 관여의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표 IV-52 부모의 교육적 관여 정도 (부모의 학력 및 직업에 따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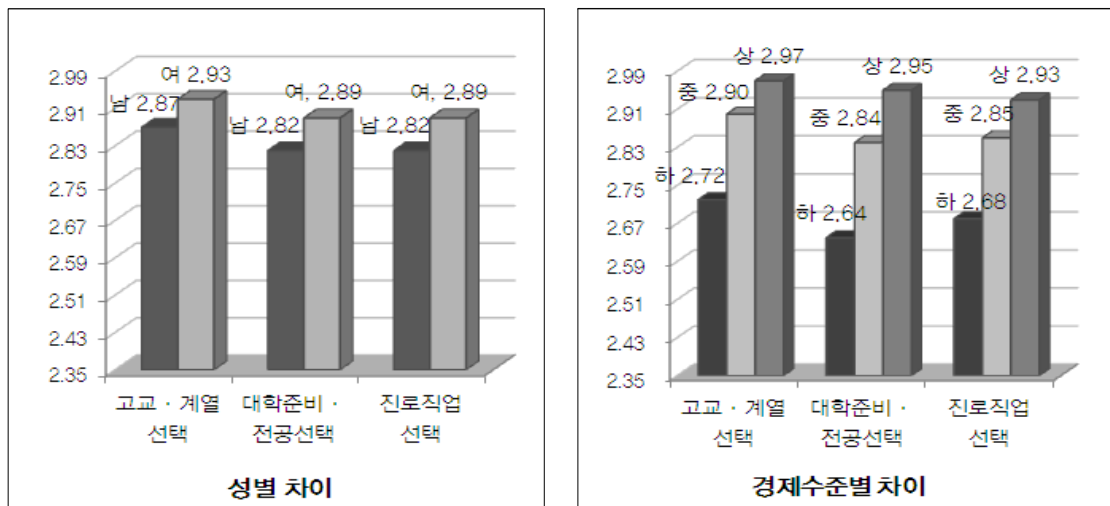
구분			숙제 · 과제 점검	성적관련 보상처벌	성적관련대화	부모의 학교행사참석	교사와의 의사소통
부 모 학 력	부	㉠ 중졸	2.15(.705)	2.58(.809)	2.65(.812)	2.22(.763)	2.19(.765)
		㉡ 고졸	2.50(.694)	2.82(.708)	2.78(.658)	2.51(.715)	2.48(.681)
		㉢ 대졸이상	2.69(.709)	2.95(.705)	2.99(.602)	2.73(.697)	2.66(.682)
		F (Scheffé)	34.601*** (c>b>a)	16.302*** (c>b>a)	29.351*** (c>b>a)	37.496*** (c>b>a)	30.281*** (c>b>a)
	모	㉠ 중졸	2.13(.691)	2.59(.758)	2.58(.739)	2.22(.687)	2.22(.711)
		㉡ 고졸	2.58(.687)	2.87(.711)	2.84(.643)	2.57(.702)	2.51(.673)
		㉢ 대졸이상	2.65(.741)	2.94(.694)	3.03(.605)	2.75(.744)	2.72(.710)
		F (Scheffé)	28.721*** (c>b>a)	12.524*** (c>b>a)	28.741*** (c>b>a)	30.700*** (c>b>a)	31.664*** (c>b>a)
부 모 직 업	부	㉠무직	2.24(.830)	2.79(.902)	2.86(.743)	2.31(.806)	2.28(.702)
		㉡ 전문/경영/관리직	2.56(.781)	2.91(.769)	2.96(.655)	2.70(.769)	2.67(.791)
		㉢ 사무/기술/판매서비스	2.59(.687)	2.87(.697)	2.85(.636)	2.58(.702)	2.52(.665)
		㉣ 농축산업/어업/노무	2.27(.733)	2.68(.755)	2.70(.773)	2.47(.750)	2.40(.702)
		F (Scheffé)	11.883*** (c>b>d>a)	4.141** (b>c>a>d)	5.597** (b>a>c>d)	5.801** (b>c>d>a)	7.866*** (b>c>d>a)
	모	㉠ 가사	2.63(.677)	2.87(.711)	2.85(.632)	2.59(.695)	2.55(.666)
		㉡ 전문/경영/관리직	2.58(.743)	2.73(.778)	2.97(.637)	2.80(.798)	2.77(.890)
		㉢ 사무/기술/판매서비스	2.48(.762)	2.87(.719)	2.90(.670)	2.57(.761)	2.51(.731)
		㉣ 농축산업/어업/노무	2.27(.686)	2.70(.749)	2.72(.806)	2.51(.724)	2.46(.652)
		F (Scheffé)	12.143*** (a>b>c>d)	2.435 (a>c>b>d)	2.843* (b>c>a>d)	2.276 (b>a>c>d)	3.125* (b>a>c>d)

*p<.05, **p<.01, ***p<.001

② 진로 및 진학에 있어서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

조사대상 청년들의 진로 및 진학에 있어서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등학교 선택(일반계, 전문계, 특수목적고 등)이나 계열(이과/문과)선택에 대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가 가장 높았고(M=2.90), 대학준비 및 전공 선택, 진로 및 직업선택에서는 유사한 수준의 의사소통 정도를 보였다(M=2.85).

〈표 IV-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세 가지 항목 모두에서 성별, 학업성적, 교육수준, 경제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 변인들 중 【그림 IV-20】은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해서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가 성별과 경제수준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제수준별 차이를 보면 각 분야에서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꽤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경제수준이 낮은 가정일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20】 진로·진학준비에서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성별, 경제수준별 비교)

먼저 〈표 IV-53〉에서 보듯이 성별로는 남자청년보다 여자청년의 경우 ‘고교·계열선택’, ‘대학준비·전공 선택’, ‘진로·직업 선택’의 세 가지 모든 항목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p < .05$), 학업성적이 높을수록($p < .001$), 그리고 경제수준($p < .001$)이 높을수록 진로와 진학준비에 대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p < .001$)에 따라서도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대학준비·전공 선택’의 경우에서만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의 평균값이 4년제 대졸이나 대학원수준의 청년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V-53 진로·진학에 있어서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 (성별, 학업성적, 교육·경제수준별 차이)

구분		고교·계열선택	대학준비·전공 선택	진로·직업 선택
전 체		2.90(.615)	2.85(.723)	2.85(.665)
성별	남	2.87(.625)	2.82(.733)	2.82(.670)
	여	2.93(.601)	2.89(.711)	2.89(.656)
	t	-2.031*	-2.198*	-2.451*
학업성적	하	2.62(.723)	2.50(.755)	2.60(.738)
	중	2.89(.584)	2.85(.693)	2.84(.639)
	상	3.00(.589)	2.98(.717)	2.96(.649)
	F (Scheffé)	35.607*** (상>중>하)	41.167*** (상>중>하)	28.838*** (상>중>하)
교육수준	㉠ 고등학교 졸업이하	2.68(.672)	2.49(.716)	2.58(.672)
	㉡ 2~3년제대 졸업이하	2.85(.599)	2.82(.682)	2.81(.637)
	㉢ 4년제대 재학/휴학	2.98(.588)	2.98(.704)	2.95(.649)
	㉣ 4년제대졸/대학원	2.99(.556)	2.96(.680)	2.95(.645)
	F (Scheffé)	23.559*** (d>c>b>a)	46.191*** (c>d>b>a)	30.312*** (d>c>b>a)
경제수준	하	2.72(.673)	2.64(.734)	2.68(.729)
	중	2.90(.587)	2.84(.704)	2.85(.652)
	상	2.97(.590)	2.95(.712)	2.93(.628)
	F (Scheffé)	25.873*** (상>중>하)	27.774*** (상>중>하)	20.572*** (상>중>하)

*p<.05, **p<.01, ***p<.001

부모의 학력과 직업에 따른 자녀의 진로 및 진학에 있어서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는 <표 IV-54>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학력별로 살펴보면, ‘고교·계열선택’, ‘대학준비·전공 선택’, ‘진로·직업 선택’의 세 가지 모든 항목에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p<.001).

부모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면, 아버지 직업의 경우 앞서 부모의 교육적 관여 정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문/경영/관리직에 종사하는 아버지의 경우 조사대상 청년의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 정도를 보여주었는데 반해, 무직이거나 농·축산업/어업/노무직인 경우에는 그 의사소통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1). 어머니의 직업별 차이를 보면, 아버지 직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문/경영/관리직에 종사할 경우 조사대상 청년의 진로 및 진학에 대한 의사소통 정도가

가장 높았고, 농·축산업/어업/노무직인 경우에는 그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 역시 앞서 언급한 교육적 관여에 대한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V-54 진로·진학에 있어서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 (부모의 학력 및 직업별 차이)

구분			고교·계열선택	대학준비·전공 선택	진로·직업 선택
부모 학력	부	㉠ 중졸	2.80(.808)	2.63(.864)	2.71(.836)
		㉡ 고졸	2.81(.598)	2.77(.711)	2.78(.658)
		㉢ 대졸이상	3.02(.582)	2.99(.683)	2.96(.622)
		F (Scheffé)	27.655*** (c>b>a)	29.284*** (c>b>a)	20.354*** (c>b>a)
	모	㉠ 중졸	2.63(.781)	2.59(.825)	2.59(.787)
		㉡ 고졸	2.89(.577)	2.82(.703)	2.82(.641)
		㉢ 대졸이상	3.00(.626)	3.05(.695)	3.02(.646)
		F (Scheffé)	19.985*** (c>b>a)	28.774*** (c>b>a)	26.938*** (c>b>a)
부모 직업	부	㉠ 무직	2.66(.857)	3.00(.845)	2.90(.860)
		㉡ 전문/경영/관리직	3.04(.653)	3.01(.702)	2.97(.694)
		㉢ 사무/기술/판매서비스	2.88(.578)	2.83(.706)	2.83(.643)
		㉣ 농·축산업/어업/노무	2.79(.745)	2.70(.837)	2.75(.733)
		F (Scheffé)	9.583*** (b>c>d>a)	8.843*** (b>a>c>d)	4.910** (b>a>c>d)
	모	㉠ 가사	2.90(.570)	2.83(.710)	2.82(.630)
		㉡ 전문/경영/관리직	3.00(.823)	3.10(.838)	3.00(.803)
		㉢ 사무/기술/판매서비스	2.91(.639)	2.91(.714)	2.90(.695)
		㉣ 농·축산업/어업/노무	2.70(.774)	2.67(.806)	2.75(.747)
		F (Scheffé)	4.195** (b>c>a>d)	6.183*** (b>c>a>d)	3.959** (b>c>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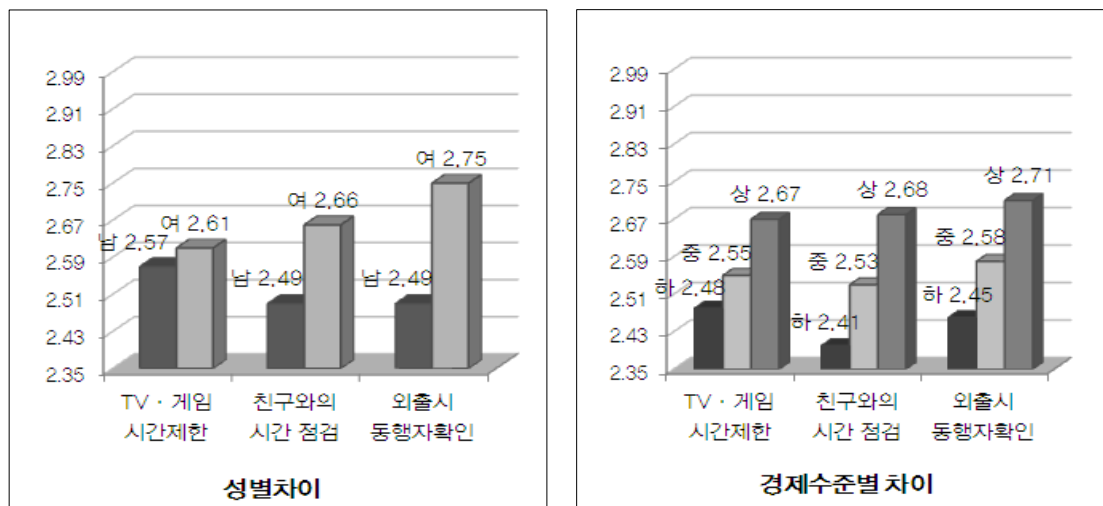
*p<.05, **p<.01, ***p<.001

③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점검·개입

조사대상 청년들의 중·고등학교 학생시절 여가, 친구, 외출 등에 대한 부모의 점검 및 개입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IV-21】 과 〈표 IV-55〉와 같다.

조사대상 청년들은 본인의 생활에 대한 부모의 점검 및 개입수준에 대해, 외출 시 동행자를 확인하는

데에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M=2.61$), 그 다음으로 TV·게임시간 제한($M=2.59$), 친구와의 시간 점검($M=2.57$) 순으로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성별, 학업성적, 경제수준별로 청년들의 생활에 대한 부모들의 개입수준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그림 VI-21】은 특히 성별과 경제수준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IV-21】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점검·개입(성별, 경제수준별 비교)

성별차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TV·게임 시간제한’, ‘친구와의 시간점검’, ‘외출 시 동행자 확인’ 등 모든 항목에서 여자청년이 남자청년보다 부모의 점검이나 개입수준이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친구와의 시간점검과 외출 시 동행자 확인으로 두 항목에서 모두 여자청년의 경우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 성별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업성적별로 보면,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모두 항목에서 부모의 점검 및 관여가 높게 나타났고 ($p<.001$),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도 학업성적별 차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청년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들의 중·고등학교 시절 생활에 부모의 점검 및 개입수준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별 차이를 보면 모든 항목에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점검 및 개입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친구와의 시간 점검’ 항목에서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 부모의 점검이나 개입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큰 차이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55 자녀의 생활에 대한 부모의 점검·개입(성별, 학업성적, 교육 및 경제수준별 차이)

구분		TV·게임 시간제한	친구와의 시간점검	외출 시 동행자확인
전 체		2.59(.750)	2.57(.777)	2.61(.757)
성별	남	2.57(.769)	2.49(.768)	2.49(.765)
	여	2.61(.728)	2.66(.778)	2.75(.725)
	t	-1.029	-4.994***	-7.612***
학업 성적	하	2.33(.773)	2.30(.740)	2.31(.752)
	중	2.59(.731)	2.59(.769)	2.62(.752)
	상	2.68(.752)	2.63(.785)	2.71(.739)
	F (Scheffé)	20.732*** (상>중>하)	17.642*** (상>중>하)	26.432*** (상>중>하)
교육 수준	㉠ 고등학교 졸업이하	2.43(.743)	2.44(.766)	2.44(.751)
	㉡ 2~3년제대 졸업이하	2.54(.737)	2.59(.744)	2.64(.733)
	㉢ 4년제대 재학/휴학	2.64(.752)	2.59(.796)	2.64(.769)
	㉣ 4년제대졸/대학원	2.74(.728)	2.68(.737)	2.75(.684)
	F (Scheffé)	9.698*** (d>c>b>a)	4.533** (d>c=b>a)	8.886*** (d>c>b>a)
경제 수준	하	2.48(.791)	2.41(.757)	2.45(.771)
	중	2.55(.755)	2.53(.770)	2.58(.777)
	상	2.67(.719)	2.68(.777)	2.71(.721)
	F (Scheffé)	10.660*** (상>중>하)	19.380*** (상>중>하)	16.904*** (상>중>하)

*p<.05, **p<.01, ***p<.001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시절 생활에 대한 부모의 점검 및 개입수준을 부모학력 및 직업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표 IV-56>과 같다. 세 가지 항목에서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생활에 대한 점검 및 개입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의 경우 자녀의 ‘TV·게임 시간제한’에 더 높은 평균값을 보인 반면, 학력이 가장 낮은 부모의 경우에는 외출 시 동행자 확인에 대한 점검 및 개입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부모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면, 자녀의 생활과 관련된 세 가지 항목에서 ‘외출 시 동반자 확인’만 제외하고 아버지 직업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앞서 제시한 부모의 교육적 개입과 자녀의 진로·진학 선택에 있어서의 의사소통 정도와는 달리 사무/기술/판매서비스 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전문/경영/관리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보다 ‘TV·게임 시간제한’과 ‘친구와의 시간점검’에 있어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무직이었거나 농·축산업/어업/노무직에 종사할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의 생활점검 및 개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청년의 어머니의 경우에도 생활점검 및 개입항목에 대해서는 직업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어머니가 가사에만 종사하는 경우에는 'TV·게임 시간제한'에 더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p<.01$), '친구와의 시간점검'은 전문/경영/관리직에 종사하는 어머니의 경우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p<.01$). 그러나 <표 IV-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의 생활점검 및 개입의 모든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어머니가 농·축산업/어업/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장 낮은 개입 및 점검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56 자녀의 생활에 대한 부모의 점검·개입 (부모의 학력 및 직업별 차이)

구분		TV · 게임 시간제한	친구와의 시간점검	외출 시 동행자확인	
부모 학력	부	㉠ 중졸	2.15(.747)	2.29(.848)	2.49(.813)
		㉡ 고졸	2.55(.746)	2.55(.760)	2.60(.766)
		㉢ 대졸이상	2.70(.728)	2.65(.770)	2.65(.728)
		F (Scheffé)	27.721*** (c>b>a)	11.188*** (c>b>a)	2.105 (c>b>a)
	모	㉠ 중졸	2.31(.696)	2.40(.727)	2.44(.731)
		㉡ 고졸	2.59(.744)	2.57(.763)	2.62(.757)
		㉢ 대졸이상	2.68(.749)	2.65(.804)	2.65(.739)
		F (Scheffé)	12.878*** (c>b>a)	5.553** (c>b>a)	4.299* (c>b>a)
부모 직업	부	㉠ 무직	2.48(.829)	2.55(.783)	2.48(.829)
		㉡ 전문/경영/관리직	2.56(.773)	2.57(.877)	2.61(.872)
		㉢ 사무/기술/판매서비스	2.61(.733)	2.59(.747)	2.62(..720)
		㉣ 농축산업/어업/노무	2.40(.824)	2.36(.810)	2.50(.815)
		F (Scheffé)	4.177** (c>b>a>d)	4.343** (c>b>a>d)	1.523 (c>b>d>a)
	모	㉠ 가사	2.62(.725)	2.57(.754)	2.60(.727)
		㉡ 전문/경영/관리직	2.45(.832)	2.65(.899)	2.68(.948)
		㉢ 사무/기술/판매서비스	2.58(.774)	2.60(.790)	2.66(.773)
		㉣ 농축산업/어업/노무	2.36(.799)	2.31(.848)	2.46(.847)
		F (Scheffé)	4.678** (a>c>b>d)	4.575** (b>c>a>d)	2.359 (b>c>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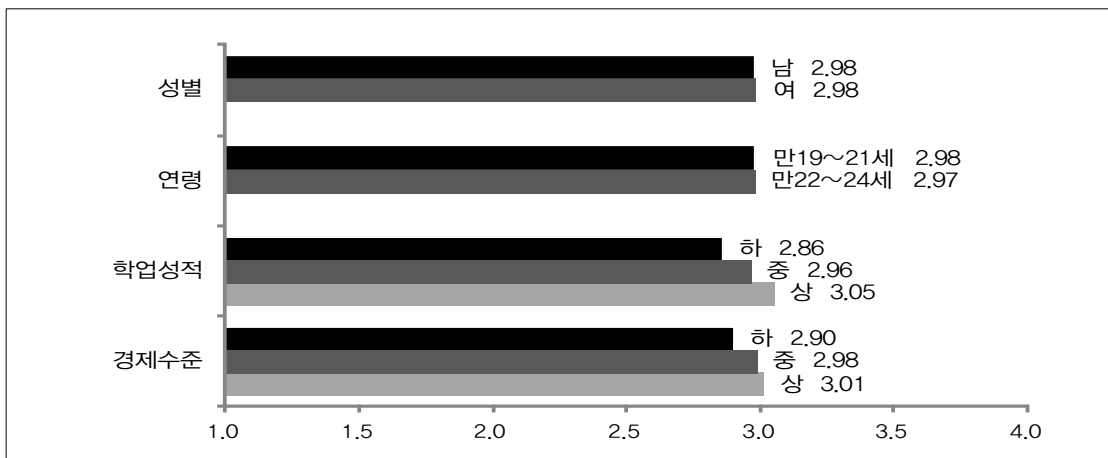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 성인기 이행시기 청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감 수준

현재 성인기 이행기에 있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 청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감을 조사하였는데 이를 다시 성별과 학업성적, 경제수준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청년들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에 대한 청년들의 항목별 응답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M=3.13),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M=3.09),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M=3.08),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M=2.94), ‘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M=2.93) 순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 대체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평균값이 낮은 경우에 더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부정적인 내용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크게 부정적이지 않은 항목인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M=2.98),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지 않다’(M=2.41)는 응답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보다 더 부정적인 내용인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M=2.03),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1.98),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1.95)에서는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 자아존중감의 각 항목을 더한 값의 평균치 기준

【그림 IV-22】 세부변인별 자아존중감 정도

이 자아존중감의 각 항목을 더한 값에 대한 (일부 항목은 역코딩 후)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그림 IV-22】와 같이 나타났다. 특히 성별, 연령, 학업성적, 경제수준별로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제시해 주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학업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다른 배경변인에 비해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배경변인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IV-57>에 나타나 있듯이 대부분의 항목에서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학업성적과 경제수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57 청년조사대상의 자아존중감

구분		전체	성별		학업성적			경제수준		
			남	여	하	중	상	하	중	상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M (SD)	3.08 (.518)	3.08 (.513)	3.09 (.523)	2.99 (.532)	3.08 (.509)	3.12 (.522)	3.01 (.537)	3.08 (.497)	3.12 (.521)
	t/F (Scheffé)		-0.386		6.234** (상>중>하)			5.624** (상>중>하)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M (SD)	2.94 (.635)	2.94 (.655)	2.95 (.612)	2.79 (.685)	2.90 (.633)	3.07 (.597)	2.81 (.623)	2.91 (.651)	3.03 (.616)
	t/F (Scheffé)		-0.167		23.251*** (상>중>하)			19.041*** (상>중>하)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M (SD)	3.13 (.580)	3.11 (.588)	3.15 (.571)	2.96 (.582)	3.11 (.571)	3.20 (.581)	3.06 (.573)	3.11 (.604)	3.17 (.563)
	t/F (Scheffé)		-1.673		16.092*** (상>중>하)			6.143** (상>중>하)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M (SD)	3.09 (.584)	3.10 (.587)	3.07 (.580)	2.93 (.611)	3.06 (.586)	3.18 (.554)	2.97 (.577)	3.09 (.573)	3.13 (.588)
	t/F (Scheffé)		1.183		17.466*** (상>중>하)			10.720*** (상>중>하)		
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M (SD)	2.93 (.543)	2.92 (.558)	2.93 (.525)	2.76 (.608)	2.92 (.545)	3.00 (.499)	2.78 (.566)	2.94 (.526)	2.98 (.532)
	t/F (Scheffé)		-0.506		17.473*** (상>중>하)			20.182*** (상>중>하)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M (SD)	2.03 (.760)	2.02 (.776)	2.05 (.741)	2.15 (.793)	2.05 (.750)	1.97 (.758)	2.13 (.741)	2.01 (.706)	2.00 (.802)
	t/F (Scheffé)		-0.688		5.573** (하>중>상)			4.675** (하>중>상)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M (SD)	1.98 (.784)	1.99 (.799)	1.98 (.767)	2.09 (.784)	1.98 (.777)	1.95 (.795)	2.07 (.756)	1.97 (.743)	1.95 (.823)
	t/F (Scheffé)		0.235		2.896 (하>중>상)			3.498* (하>중>상)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M (SD)	1.95 (.720)	1.95 (.738)	1.94 (.699)	2.12 (.745)	1.98 (.711)	1.84 (.710)	2.03 (.723)	1.92 (.690)	1.93 (.737)
	t/F (Scheffé)		0.244		15.528*** (하>중>상)			3.451* (하>상>중)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지 않다	M (SD)	2.41 (.693)	2.38 (.720)	2.43 (.660)	2.53 (.693)	2.44 (.685)	2.30 (.695)	2.43 (.680)	2.36 (.713)	2.43 (.684)
	t/F (Scheffé)		-1.556		12.766*** (하>중>상)			1.815 (하>상>중)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M (SD)	2.98 (.614)	2.96 (.631)	3.00 (.593)	3.01 (.607)	2.98 (.615)	2.96 (.614)	3.02 (.600)	2.97 (.618)	2.96 (.616)
	t/F (Scheffé)		-1.577		0.533 (하>중>상)			1.567 (하>중>상)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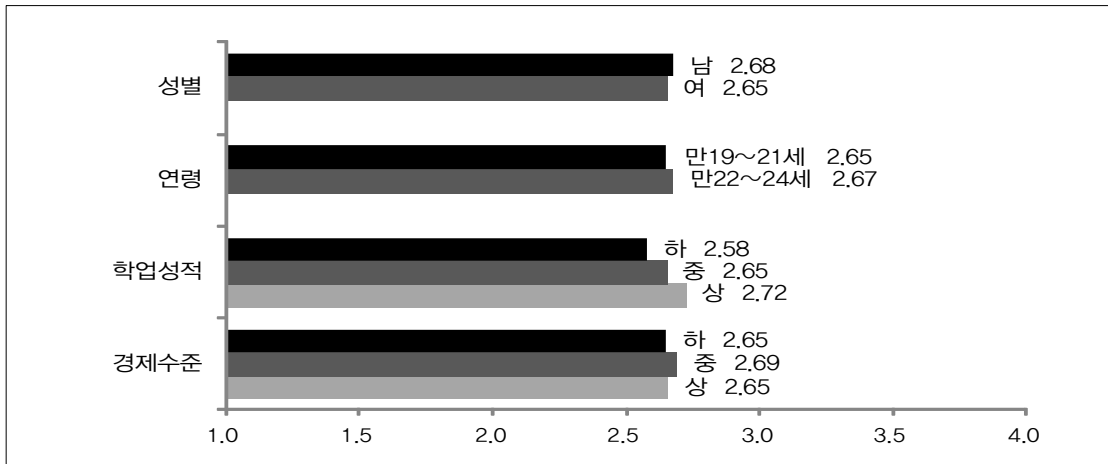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와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항목을 제외한 모든 자아존중감 항목에서 고교시절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⁹⁾. 반대로 부정적인 내용의 자아존중감 항목의 경우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에 더 높은 값인 것을 볼 때,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에 따라 자아존중감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청년들의 자아통제감

청년들의 자아통제감 정도를 조사한 결과와 성별, 연령,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IV-23】과 〈표 IV-58〉과 같다. 자아통제감을 구성하고 있는 각 항목별로 보면, 그 중 긍정적인 내용인 ‘미래에 나에게 일어날 일은 대부분 나에게 달려있다’(M=3.08)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여, 조사대상 청년들은 현재 문제와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보다는 미래의 일에 대한 자아통제감을 더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통제감의 각 항목의 값을 더한 값에 대한 (일부 항목은 역코딩 후)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그림 IV-23】와 같이 나타났는데, 특히 고등학교 재학시절 학업성적에 따른 자아통제감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항목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들을 살펴보면 〈표 IV-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항목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인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나는 내가 마음먹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항목들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학업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업성적이 높았던 청년들이 더 높은 자아통제감 정도를 보였다.

29) 부정적인 내용인 경우 낮은 평균값은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음.



※ 자아통제감의 각 항목을 더한 값의 평균치 기준

【그림 IV-23】 세부변인별 자아통제감 정도

‘미래에 나에게 일어날 일은 대부분 나에게 달려있다’는 항목은 경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 항목에서는 오히려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에 더 높은 자아통제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문제 중에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에 대해서는 성별($p < .01$)과 학업성적별($p < .05$)로 차이를 보였다. 남자보다는 여자청년들이 그리고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더 평균값이 높았는데, 이는 결국 낮은 자아통제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때때로 내가 내 인생에서 휘둘리고 있다고 느낀다’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내가 거의 통제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항목도 고등학교 재학시절 학업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자아통제감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무력감을 자주 느낀다’는 항목은 성별($p < .01$), 학업성적($p < .001$), 경제수준($p < .05$)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보다는 여자청년이 그리고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에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의 대부분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경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이 경우도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부정적인 항목에 대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 실제로는 낮은 자아통제감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IV-58 청년조사대상의 자아통제감

구분		전체	성별		고교시절 학업성적			경제수준		
			남	여	하	중	상	하	중	상
나는 내가 마음먹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M (SD)	2.78 (.645)	2.79 (.653)	2.78 (.637)	2.67 (.672)	2.78 (.652)	2.84 (.620)	2.73 (.685)	2.79 (.640)	2.80 (.630)
	t/F (Scheffé)		0.558		6.035** (상>중>하)			1.642 (상>중>하)		
미래에 나에게 일어날 일은 대부분 나에게 달려있다	M (SD)	3.08 (.623)	3.07 (.644)	3.09 (.599)	3.02 (.607)	3.07 (.635)	3.11 (.610)	3.13 (.630)	3.09 (.611)	3.05 (.629)
	t/F (Scheffé)		-0.542		2.229 (상>중>하)			2.538 (하>중>상)		
내 문제 중에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M (SD)	2.68 (.703)	2.63 (.725)	2.72 (.675)	2.78 (.679)	2.68 (.703)	2.62 (.709)	2.74 (.675)	2.65 (.720)	2.66 (.702)
	t/F (Scheffé)		-2.814**		4.476* (하>중>상)			2.529 (하>상>중)		
때때로 내가 내 인생에서 휘둘리고 있다고 느낀다	M (SD)	2.50 (.754)	2.50 (.777)	2.51 (.728)	2.60 (.662)	2.53 (.742)	2.43 (.799)	2.54 (.727)	2.48 (.748)	2.51 (.771)
	t/F (Scheffé)		-0.463		5.337** (하>중>상)			0.885 (하>상>중)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내가 거의 통제할 수 없다	M (SD)	2.24 (.748)	2.24 (.767)	2.24 (.726)	2.33 (.696)	2.26 (.739)	2.18 (.778)	2.23 (.669)	2.23 (.752)	2.26 (.779)
	t/F (Scheffé)		0.104		4.154* (하>중>상)			0.451 (상>하>중)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무력감을 자주 느낀다	M (SD)	2.47 (.704)	2.43 (.702)	2.52 (.704)	2.58 (.688)	2.50 (.698)	2.38 (.712)	2.55 (.699)	2.46 (.686)	2.44 (.718)
	t/F (Scheffé)		-2.865**		9.455*** (하>중>상)			4.016* 하>중>상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의 대부분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M (SD)	2.34 (.743)	2.32 (.741)	2.35 (.746)	2.37 (.727)	2.35 (.735)	2.31 (.762)	2.26 (.753)	2.27 (.736)	2.42 (.737)
	t/F (Scheffé)		-0.987		0.732 (하>중>상)			10.505*** (상>중>하)		

*p<.05, **p<.01, ***p<.001

4) 청년들의 결혼, 자녀출산, 분가의향

(1) 이성교제 경험과 결혼 및 출산 의향

청년들의 이성교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 현재는 아니지만 이성교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약 46%로 가장 많았고, 35%의 응답자는 현재 이성교제 중이며, 나머지 19%의 청년들은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24】).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현재 이성교제 중이라는 응답은 여자청년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또 이성교제 경험이 없다는 응답도 여자청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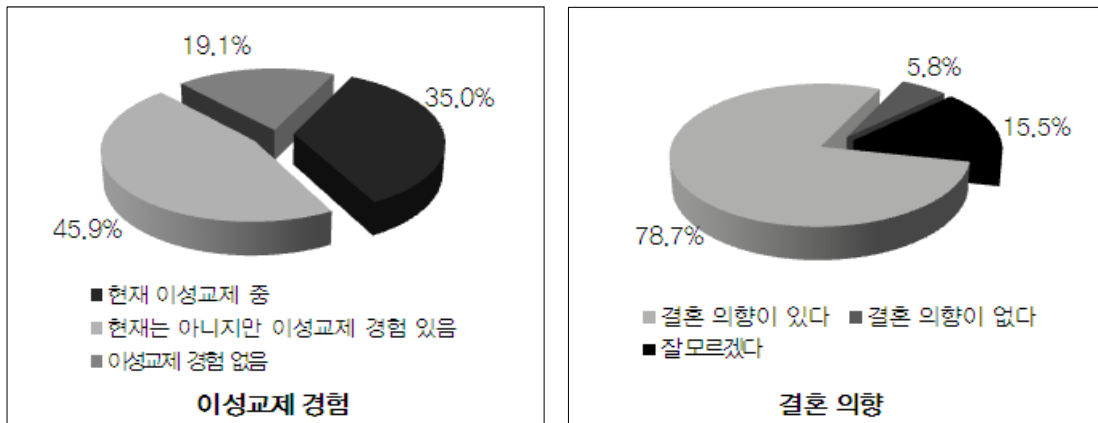
표 IV-59 청년들의 이성교제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N)	성별		연령	
		남	여	만19~21세	만22~24세
현재 이성교제 중	35.0(696)	31.9	38.6	30.2	40.4
현재는 아니지만 이성교제 경험 있음	45.9(913)	50.0	41.3	44.1	48.0
이성교제 경험 없음	19.1(379)	18.2	20.1	25.8	11.5
χ^2		15.410***		69.502***	

*p<.05, **p<.01, ***p<.001

연령별 차이를 보면, 연령층이 높은 만22세~24세의 청년들이 현재 이성교제중이거나 이성교제 경험이 있다는데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대체로 현재 이성교제중이라는 응답은 여자청년에게서, 그리고 연령이 만22~24세인 청년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이성교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여자청년에게서, 그리고 만19~21세의 연령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V-24】 청년들의 이성교제 경험과 결혼 의향

청년들에게 향후 결혼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다수인 78.7%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5.8%는 결혼의향이 없으며, 15%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경제수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 결혼 의향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고, 결혼의향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에서는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V-60 청년들의 결혼 의향 (단위: %)

구분	전체 (N)	성별		경제수준		
		남	여	하	중	상
결혼 의향이 있다	78.7(1565)	79.6	77.7	74.9	78.2	80.9
결혼 의향이 없다	5.8(115)	4.8	6.9	7.2	7.0	4.3
잘 모르겠다	15.5(308)	15.6	15.4	17.9	14.8	14.9
χ^2		4.011		10.014*		

*p<.05, **p<.01, ***p<.001

향후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에 한하여 희망결혼연령을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만 29.5세라는 응답이 나왔으며,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청년의 경우 희망결혼연령 평균이 만 30.1세, 여자청년들은 만 28.9세로 나타났다.

표 IV-61 청년들의 희망 결혼연령 (단위: %)

구분	전체 (M/SD)	성별		경제수준		
		남	여	하	중	상
희망결혼연령	만 29.5세 (1.928)	만 30.1세 (1.919)	만 28.9세 (1.723)	만 29.4세 (1.834)	만 29.6세 (1.950)	만 29.6세 (1.952)
t/F (Scheffé)		13.088***		0.962 (중 > 상 > 하)		

*p<.05, **p<.01, ***p<.001

(2) 부모로부터의 분가·독립

조사대상 청년들의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IV-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89%에 달하는 청년들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지역규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p<.001), 대도시의 경우에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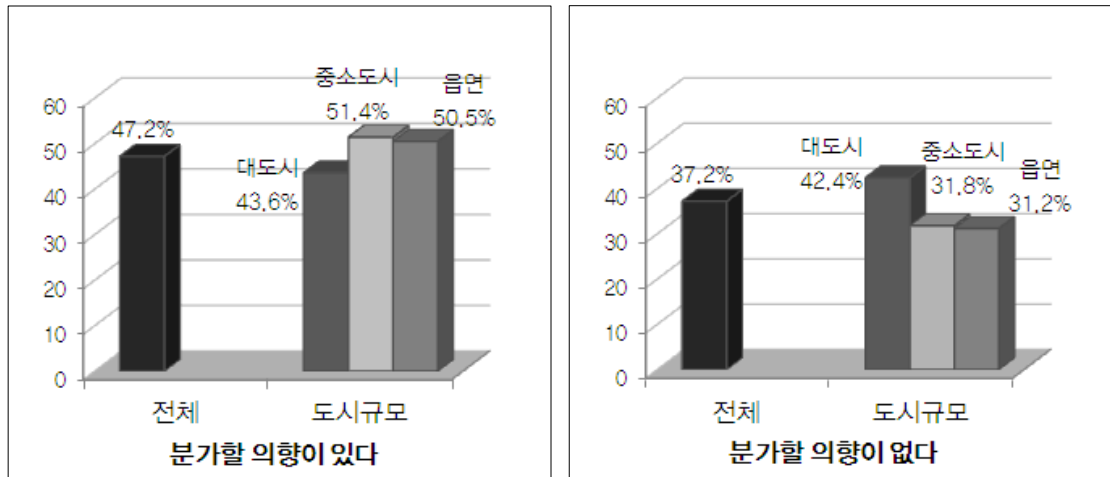
표 IV-62 부모와의 거주 여부 및 분가의향

(단위 : %)

구분		전체(N)	성별		지역규모			경제수준		
			남	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하	중	상
부모님과의 거주 여부	같이 살고 있다	88.9(1722)	89.5	88.4	92.0	86.5	84.2	89.6	88.5	89.0
	같이 살지 않는다	11.1(214)	10.5	11.6	8.0	13.5	15.8	10.4	11.5	11.0
	χ^2		0.592		19.645***			0.296		
분가의향	분가할 의향이 있다	47.2(813)	49.1	45.0	43.6	51.4	50.5	51.8	46.8	45.4
	분가할 의향이 없다	37.2(641)	36.0	38.6	42.4	31.8	31.2	32.3	36.1	40.3
	잘모르겠다	15.6(268)	14.9	16.3	14.0	16.8	18.3	15.9	17.2	14.2
	χ^2		2.816		21.548***			8.598		

*p<.05, **p<.01, ***p<.001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가까운 미래에 분가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림 IV-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가할 의향이 있다’ 응답은 47.2%로 나타났고, ‘분가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이보다 10% 정도 낮게 나타났다(나머지 15.6%는 ‘잘 모르겠다’ 선택). 성별과 경제수준 및 지역규모별로 살펴본 결과,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만 유의하게 나타나, 중·소도시나 읍·면에서 부모님과 거주하는 청년들의 경우 분가하고자 하는 의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5】청년들의 분가 의향

또한 부모님으로부터의 분가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시기(연령)를 질문한 결과, 분가를 희망하는 평균연령은 만 29.6세로 나타났으며, 성별, 지역규모, 경제수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조사대상 전체가 대체로 만 29세와 30세 사이에서 분가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도시에 거주하거나 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청년들의 희망분가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30세 정도였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IV-63 부모로 부터의 희망분가연령 (단위: %)

구분	전체 (M/SD)	성별		지역규모			경제수준		
		남	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하	중	상
희망분가연령	만29.6세 (10.504)	만29.7세 (9.141)	만29.5세 (12.022)	만30.4세 (11.941)	만28.5세 (7.488)	만29.7세 (12.081)	만30.2세 (13.737)	만28.6세 (6.681)	만29.9 (10.847)
t/F (Scheffé)		0.268		2.942 대도시>읍·면>중·소도시			1.668 하>상>중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형태에 대해 질문한 결과(<표 IV-64>), 월세가 42.2%, 전세가 21.1%, 기숙사 20.6%, 본인소유 집 7.4%, 하숙 5.4%, 고시원 3.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64 현재 거주 형태 (단위: %)

구분	전체(N)	성별		지역규모			경제수준		
		남	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하	중	상
월세	42.2(86)	46.1	38.2	49.3	33.7	47.5	55.0	40.6	37.9
전세	21.1(43)	17.6	24.5	28.0	16.9	17.5	32.5	18.8	17.9
본인소유 집	7.4(15)	5.9	8.8	6.7	9.0	5.0	0.0	14.5	5.3
하숙	5.4(11)	6.9	3.9	1.3	7.9	7.5	0.0	4.3	8.4
기숙사	20.6(42)	20.6	20.6	10.7	29.2	20.0	7.5	18.8	27.4
고시원	3.4(7)	2.9	3.9	4.0	3.4	2.5	5.0	2.9	3.2
χ^2		3.445		16.680			23.230*		

*p<.05, **p<.01, ***p<.001

세부변인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월세는 남자청년들에게서, 그리고 대도시에서,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에 비율이 높았고, 전세는 여자청년들이, 대도시에서 거주할 경우,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리고 기숙사는 거주여부에 대해 남녀차이가 전혀 없었고, 중·소도시인 경우,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기숙사에 거주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본인 소유집이라는 응답은 여자청년들에게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중간수준의 경제수준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이 나타났다.

6. 발현성인기와 성인의 기준 요인분석

본 연구의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현성인기와 성인의 기준에 관한 설문 도구의 타당성 검증 절차가 한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설문문항을 그대로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 내용이 기존의 여러 학문 영역에서 제기되었던 성인의 기준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둘째, 비록 우리 사회에서 생소한 기준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한국 청년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셋째, 한국 청년들이 현재 자신이 처한 시기와 성인의 조건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국의 청년들의 인식 양상과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판단 하에 본 연구에서는 발현성인기의 특징과 성인의 기준에 대한 설문도구를 원 개발자들이 구축한 그대로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발현성인기 특성에 관한 설문문항과 성인의 기준에 관한 설문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목적은 Arnett의 설문도구가 한국 사회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발현성인기의 특징이 나타나는 양상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한 문화에서 신뢰롭고 타당하다고 확인된 측정도구라 할지라도 다른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발현성인기에 관한 설문조사가 실시되기 전 요인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Atak 외, 2008).³⁰⁾ 이러한 시도는 발현성인기와 성인기 이행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본 작업을 통하여 외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발현성인기와 성인기 이행에 대한 연구가 한국에서도 본격화되고, 국제적인 논의에 한국의 사례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0) 성인의 기준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러한 작업이 요구된다. Atak 외(2008)는 터키 청년들을 대상으로, Arias 외(2007)는 멕시코와 스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발현성인기 설문문항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Nelson(2009)은 루마니아 청년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성인의 기준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 발현성인기 특성 문항³¹⁾ 요인 분석

(1) 요인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의 적합성 검정: Kaiser-Meyer-Olkin(KMO) and Bartlett's test of sphericity(구형성 검정)³²⁾

KMO 값과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발현성인기 특성에 대한 본 설문조사 데이터는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5 KMO & Bartlett 구형성 검정: 성인의 기준-청년대상

KMO		Bartlett 구형성 검정
.861	Approx X^2	12994.371
	df	465
	p	.000

(2) 요인추출 및 요인명명

주성분법을 적용하여 요인추출을 한 결과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이 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구조 회전에 직각회전방법인 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적재값 .40을 기준을 적용한 결과 총 6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표 IV-66 설명된 총분산: 발현성인기 특성

성분	초기 고유값(eigen values)			추출			회전		
	전체	% 분산	% 누적	전체	% 분산	% 누적	전체	% 분산	% 누적
1	5.453	17.591	17.591	5.453	17.591	17.591	3.810	12.290	12.290
2	2.626	8.472	26.063	2.626	8.472	26.063	2.875	9.276	21.565
3	2.207	7.120	33.183	2.207	7.120	33.183	2.062	6.651	28.217
4	1.603	5.172	38.355	1.603	5.172	38.355	1.943	6.268	34.485
5	1.306	4.214	42.569	1.306	4.214	42.569	1.833	5.914	40.399
6	1.101	3.551	46.120	1.101	3.551	46.120	1.734	5.593	45.992
7	1.010	3.257	49.377	1.010	3.257	49.377	1.049	3.385	49.377

31) 발현성인기 설문도구는 Reifman, Arnett, Colwell(2007)이 함께 개발하였다. Arnett(2004)은 발현성인기의 특징이 인간발달의 보편적인 단계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32) KMO 값은 표본적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0.50이상이면 표본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Bartlett 검정은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아야 한다.

Arnett은 발현성인기의 특성을 정체성 탐색(identity exploration), 실험/가능성(experimentation/possibilities), 불안정성(negativity/ instability),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self-focused), 불명확한 정체감(feeling “in-between”) 등 크게 5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제시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Reifman 외(2007)가 구축한 설문도구는 이에 타인중심(other-focused)라는 요인이 추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요인분석 결과, 총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의 명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자신에 대한 집중, 둘째, 불안정성, 셋째, 자유와 가능성, 넷째, 독립, 다섯째, 타인에 대한 책임, 여섯째, 불명확한(어중간한) 정체감이다. ‘불안정성’과 ‘불명확한(어중간한) 정체감’에 해당하는 문항은 원 설문지의 항목과 동일하였다. 원 설문지에서 ‘자신에 대한 집중’에 속했던 항목인 ‘낙관적이다’는 ‘타인에 대한 책임’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정체성 탐색에 속했던 ‘부모로부터의 독립하는 시기이다’,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시기이다’ 2문항과 ‘자기자신에 대한 집중’에 속했던 ‘자립하는 시기이다’는 ‘독립’의 요인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서구에서는 정체성 탐색의 일부로 정의되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은 흥미로운 발견이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을 통해 ‘자신에 대한 집중’으로 명명된 요인에는 원 설문지에서 ‘정체성 탐색’,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에 포함되었던 다수의 항목과 ‘실험’에 속했던 일부 항목이 포함되었다. 발현성인기 특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IV-67>와 같다.

요인	설문 항목	요인 적재값
1 자신에 대한 집중	Q3-7) 나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기이다	.434
	Q4-2)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시기이다	.457
	Q4-6)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이다	.478
	Q5-1)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시기이다	.467
	Q5-2)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기이다	.579
	Q5-4)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시기이다	.587
	Q5-5)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다	.692
	Q5-6) 삶의 의미를 찾는 시기이다	.654
	Q5-7)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결정하는 시기이다	.658
	Q5-8)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이다	.566
2 불안정성	Q3-3) 혼란스러운 시기이다	.635
	Q3-6) 제약을 많이 느끼는 시기이다	.475
	Q3-8)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이다	.678
	Q3-9) 불안정한 시기이다	.688
	Q4-1) 압력을 많이 받는 시기이다	.555
	Q4-7) 예측이 어려운 시기이다	.465
	Q4-10) 걱정이 많은 시기이다	.557
3. 자유와 가능성	Q3-1) 많은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다	.588
	Q3-2) 탐색을 하는 시기이다	.595
	Q3-4) 실험의 시기이다	.588
	Q3-5) 자유를 누리는 시기이다	.608
4 독립	Q4-5) 독립하는 시기이다	.766
	Q4-9) 자립해야 하는 시기이다	.711
	Q5-3)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시기이다	.700
5 타인에 대한 책임	Q3-10) 낙관적인 시기이다	.404
	Q4-3) 정착하는 시기이다	.655
	Q4-4) 타인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기이다	.558
	Q4-8) 다른 사람에게 헌신해야 하는 시기이다	.701
6 어중간한 정체감	Q5-9) 어떤 때는 성인인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성인이 아닌 것 같은 시기이다	.714
	Q5-10) 점차 성인이 되어 가는 시기이다	.585
	Q5-11) 성인이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은 시기이다	.742

2) 성인의 기준

(1) 청년세대

- ① 요인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의 적합성 검정: Kaiser-Meyer-Olkin(KMO) and Bartlett's test of sphericity(구형성 검정)

KMO 값과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성인의 기준(청년대상)에 대한 본 설문조사 데이터는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8 KMO & Bartlett 구형성 검정: 성인의 기준-청년대상

KMO		Bartlett 구형성 검정
.0.901	Approx X^2 df p	31,385.144 820 .000

② 요인추출 및 요인명명

주성분법을 적용하여 요인추출을 한 결과 고유값(eigen value)이 1.2 이상인 요인은 7개 추출되었고, 이는 전체 변량의 51.465%를 설명하였다<표>. 요인구조 회전에 직각회전방법인 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 .50 이상인 문항을 추출한 결과 6개 요인, 28 문항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추출된 요인 명명과 선정된 최종문항은 <표 IV-70>와 같다.

표 IV-69 설명된 총분산: 성인의 기준-청년세대

성분	초기 고유값(eigen values)			추출 제곱합 적재값			회전 제곱합 적재값		
	전체	% 분산	% 누적	전체	% 분산	% 누적	전체	% 분산	% 누적
1	9.618	23.458	23.458	9.618	23.458	23.458	4.590	11.195	11.195
2	3.683	8.983	32.442	3.683	8.983	32.442	3.791	9.247	20.442
3	2.104	5.131	37.573	2.104	5.131	37.573	3.620	8.828	29.270
4	1.691	4.124	41.697	1.691	4.124	41.697	2.622	6.394	35.664
5	1.471	3.588	45.285	1.471	3.588	45.285	2.526	6.161	41.825
6	1.296	3.162	48.447	1.296	3.162	48.447	2.339	5.704	47.529
7	1.237	3.018	51.465	1.237	3.018	51.465	1.614	3.936	51.465

요인	설문 항목(청년세대)	요인 적재값
1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 능력	Q8-1) 남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	.727
	Q8-2) 여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	.639
	Q8-3) 남자의 경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	.642
	Q8-4) 여자의 경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	.669
	Q8-5) 여자의 경우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	.711
	Q8-6) 남자의 경우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	.702
	Q8-10) 남자의 경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	.568
	Q8-11) 여자의 경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	.584
2 규범준수	Q6-8) 과음을 하지 않는 것	.535
	Q6-9) 불법적인 약물(마약) 하지 않는 것	.658
	Q7-1) 안전하게 운전하고 과속하지 않는 것	.707
	Q7-2)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579
	Q7-3) 임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임을 하는 것	.532
	Q9-5)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	.655
3 허용 행동	Q9-6) 공공기물을 파손하거나 좀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	.600
	Q9-2)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	.539
	Q9-3) 성경험이 있는 것	.555
	Q9-11) 음주가 허용되는 것	.792
	Q9-12) 흡연이 허용되는 것	.803
4 역할 이행	Q6-4) 결혼하는 것	.741
	Q6-5) 최소한 한명의 자녀를 두는 것	.759
	Q6-7) 주택구입	.672
5 독립 및 타인에 대한 배려	Q7-8) 부모나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	.526
	Q9-1)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503
	Q9-8)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	.672
	Q9-9) 자기중심적인 면이 줄어들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커지는 것	.652
	Q9-10)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	.507
6 연령 이행	Q7-5) 만18세가 되는 것	.695
	Q7-6) 만21세가 되는 것	.703
7	해당 항목 없음(본 연구에서 설정한 요인부하량 기준인 .50을 충족하는 문항이 없음)	
요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	Q6-1) 부모나 타인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Q6-2) 부모(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 Q6-3) 학교교육을 마치는 것 Q6-6) 장기적으로 하게 될 일을 시작하는 것 Q8-8) 여자의 경우 신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 Q8-9) 남자의 경우 신체적으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 Q7-4)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원망하지 않는 것 Q7-7) 애인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 Q8-7) 키가 다 자란 것 Q9-4) 전일제로 일자리를 갖는 것 Q9-7) 성인으로서 부모와 동등한 관계를 갖는 것 Q9-10)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 Q9-13) 남자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마치는 것	

(2) 부모세대

- ① 요인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의 적합성 검정: Kaiser-Meyer-Olkin(KMO) and Bartlett's test of sphericity(구형성 검정)

KMO 값과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성인의 기준(부모세대 대상)에 대한 본 설문조사 데이터는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1 KMO& Bartlett 구형성 검정: 성인의 기준-부모세대 대상

KMO		Bartlett 구형성 검정
0.898	Approx X^2	15,669.326
	df	820
	p	.000

② 요인추출 및 요인명명

주성분법을 적용하여 요인추출을 한 결과 고유값(eigen value)이 1.2 이상인 요인은 8개 추출되었고, 이는 전체 변량의 54.178%를 설명하였다. 요인구조 회전에 직각회전방법인 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50 미만인 문항은 배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31 문항이 최종문항으로 선정되었다. 청년세대 요인분석에서 선정된 28 문항에 비해 3 문항이 많은 결과이다. 추출된 요인과 선정된 최종문항은 <표 IV-73>과 같다.

표 IV-72 설명된 총분산: 성인의 기준-부모세대

성분	초기 고유값			추출			회전		
	전체	% 분산	% 누적	전체	% 분산	% 누적	전체	% 분산	% 누적
1	9.724	23.716	23.716	9.724	23.716	23.716	4.099	9.998	9.998
2	3.657	8.921	32.636	3.657	8.921	32.636	3.573	8.714	18.712
3	2.154	5.255	37.891	2.154	5.255	37.891	3.246	7.917	26.629
4	1.508	3.679	41.570	1.508	3.679	41.570	3.053	7.445	34.074
5	1.415	3.451	45.021	1.415	3.451	45.021	2.294	5.595	39.669
6	1.278	3.117	48.138	1.278	3.117	48.138	1.994	4.864	44.533
7	1.262	3.077	51.215	1.262	3.077	51.215	1.992	4.858	49.391
8	1.215	2.963	54.178	1.215	2.963	54.178	1.962	4.786	54.178

표 IV-73

성인의 기준 요인분석: 부모세대 인식

요인	설문 항목(부모세대)	요인 적재값
1 규범준수	Q1-8) 과음을 하지 않는 것	.577
	Q1-9) 불법적인 약물(마약) 하지 않는 것	.697
	Q2-1) 안전하게 운전하고 과속하지 않는 것	.662
	Q2-2)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591
	Q2-3) 임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임을 하는 것	.528
	Q4-5)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	.632
	Q4-6) 공공기물을 파손하거나 좀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	.675
2 허용 행동	Q4-2)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	.632
	Q4-3) 성경험이 있는 것	.583
	Q4-11) 음주가 허용되는 것	.818
	Q4-12) 흡연이 허용되는 것	.820
3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 능력	Q3-3) 남자의 경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	.687
	Q3-4) 여자의 경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	.724
	Q3-5) 여자의 경우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	.712
	Q3-6) 남자의 경우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	.662
4 역할 이행	Q1-3) 학교교육을 마치는 것	.514
	Q1-4) 결혼하는 것	.718
	Q1-5) 최소한 한명의 자녀를 두는 것	.709
	Q1-6) 장기적으로 하게 될 일을 시작하는 것	.554
	Q1-7) 주택구입	.643
5 상호의존	Q4-8)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	.664
	Q4-9) 자기중심적인 면이 줄어들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커지는 것	.549
6 독립	Q1-1) 부모나 타인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686
	Q3-1) 남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	.583
	Q4-1)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539
7 자녀생산 및 가족보호 능력	Q3-8) 여자의 경우 신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	.546
	Q3-9) 남자의 경우 신체적으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	.586
	Q3-10) 남자의 경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	.612
	Q3-11) 여자의 경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	.588
	Q2-5) 만18세가 되는 것	.794
8. 연령 이행	Q2-6) 만21세가 되는 것	.799
요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	Q1-2) 부모(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	
	Q2-4)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염매이지 않는 것	
	Q2-7) 애인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	
	Q2-8) 부모나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	
	Q3-2) 여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	
	Q3-7) 키가 다 자란 것	
	Q4-4) 전일제로 일자리를 갖는 것	
	Q4-7) 성인으로서 부모와 동등한 관계를 갖는 것	
	Q4-10)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	
	Q4-13) 남자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마치는 것	

성인의 기준에 대한 설문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청년세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6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부모세대에 대해서는 8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청년세대 데이터 요인분석 결과에 비해 부모세대에서 추가적으로 추출된 요인은 타인과의 성숙한 관계를 의미하는 ‘상호의존(interdependence)’과 ‘자녀 생산과 보호’ 요인이다. ‘규범준수’, ‘허용되는 행동’, ‘연령이행’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은 청년조사와 부모세대조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청년세대 데이터와 부모세대 데이터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학교 교육을 마치는 것’, ‘장기적으로 하게 될 일을 시작하는 것’ 문항은 부모세대 데이터 요인분석에서는 역할 이행(4)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나 청년세대에서는 어느 요인으로도 분류되지 않았다. ‘부모나 타인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은 부모세대 데이터에서는 ‘독립(6)’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나 청년세대 데이터에서는 어느 요인으로도 분류되지 않았다. 청년세대에서 ‘가족부양 및 자녀 양육능력’ 요인으로 분류되었던 ‘여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 항목은 부모세대에서는 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부모세대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 가족 부양 책임에 대해 상이한 시각을 가졌으나 청년세대에서는 이에 대한 성별 간 기대가 유사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결과이다.

청년세대에서는 ‘신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 항목은 특정 요인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부모세대에서는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 항목과 함께 ‘자녀생산 및 가족보호 능력’으로 분류되었다. 부모세대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과 ‘자기중심적인 면이 줄어들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커지는 것’ 항목이 ‘상호의존(interdependence)’ 요인으로 분류되는데 비해 청년세대에서는 독립에 해당하는 항목과 더불어 ‘독립 및 타인에 대한 배려’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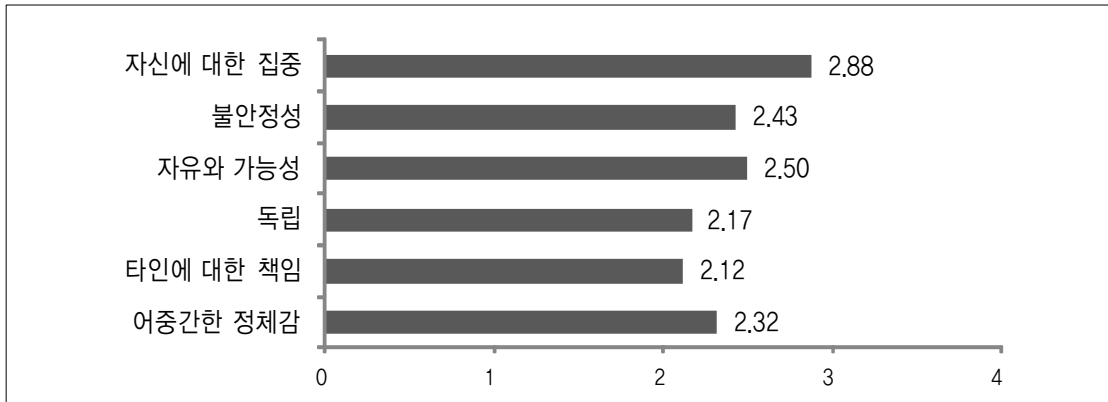
3) 요인분석 결과에 따른 배경변인별 분석

앞의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발현성인기와 성인의 조건(청년세대와 부모세대 성인)에 대한 요인별로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앞에서 발현성인기와 성인의 조건에 대해 세부문항별로 검토하여 기술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도출된 요인에 대한 배경변인별 분석은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발현성인기의 특징과 성인의 조건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1) ‘발현성인기’ 요인에 대한 배경변인별 분석

【그림 IV-26】은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6개요인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조사결과 ‘자신에 대한 집중’(M=2.88)의 시기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자유와 가능성’(M=2.50), ‘불안

정성'(2.43), '어중간한 정체감'(M=2.32), '독립'(M=2.17), '타인에 대한 책임'(M=2.12) 순으로 자신의 현재 시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6】 발현성인기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요인별 평균값 기준)

〈표 IV-7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경변인에 따라 각 요인의 평균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요인인 '자신에 대한 집중'의 경우, 특히 지역규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p < .001$), 대도시의 청년들일수록 현재의 시기를 자신에 대해 집중하는 시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 높은 값을 보인 요인인 '자유와 가능성'의 경우도 지역규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p < .001$), 지역규모가 큰 도시의 청년들일수록 자신의 현재시기를 자유와 가능성의 시기로 보는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성' 요인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대도시의 청년일수록,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에 자신의 현재 시기에 대해 더 불안정하게 느끼고 있었다. '어중간한 정체감'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 그리고 지역규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청년보다는 여자청년이($p < .01$), 그리고 만19세~21세인 경우에($p < .01$), 또 중·소도시의 청년들인 경우($p < .05$) 스스로의 현재 시기에 대해 어중간한 정체감을 느끼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4 발현성인기의 6개 요인에 대한 배경변인별 분석결과

요인		전체	성별		연령		지역규모			경제수준		
			남	여	만19~21세	만22~24세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하	중	상
자신에 대한 집중	M (SD)	2.88 (.339)	2.87 (.348)	2.89 (.329)	2.88 (.344)	2.89 (.335)	2.91 (.324)	2.87 (.339)	2.81 (.386)	2.87 (.333)	2.89 (.341)	2.88 (.341)
	t/F (Scheffé)		-1.036		-0.448		7.927*** (대도시>중·소도시>읍·면)			0.448 (중>상>하)		
불안정성	M (SD)	2.43 (.383)	2.42 (.394)	2.44 (.371)	2.42 (.375)	2.45 (.391)	2.44 (.364)	2.43 (.387)	2.41 (.438)	2.46 (.404)	2.43 (.397)	2.42 (.362)
	t/F (Scheffé)		1.107		-1.600		0.878 (대도시>중·소도시>읍·면)			2.162 (하>중>상)		
자유와 가능성	M (SD)	2.50 (.366)	2.50 (.373)	2.49 (.357)	2.54 (.361)	2.46 (.367)	2.53 (.355)	2.48 (.362)	2.46 (.411)	2.48 (.351)	2.50 (.368)	2.51 (.371)
	t/F (Scheffé)		0.673		4.628		5.266** (대도시>중·소도시>읍·면)			1.010 (상>중>하)		
독립	M (SD)	2.17 (.441)	2.15 (.449)	2.19 (.431)	2.10 (.450)	2.25 (.417)	2.17 (.436)	2.17 (.437)	2.18 (.471)	2.19 (.441)	2.17 (.442)	2.16 (.441)
	t/F (Scheffé)		-2.064*		-8.101***		0.113 (읍·면>중·소도시>대도시)			0.706 (하>중>상)		
타인에 대한 책임	M (SD)	2.12 (.387)	2.13 (.390)	2.11 (.384)	2.10 (.386)	2.14 (.388)	2.11 (.383)	2.13 (.391)	2.14 (.393)	2.06 (.388)	2.14 (.383)	2.13 (.388)
	t/F (Scheffé)		1.355		-2.051		1.148 (읍·면>중·소도시>대도시)			6.535** (중>상>하)		
어중간한 정체감	M (SD)	2.32 (.386)	2.29 (.391)	2.34 (.378)	2.34 (.375)	2.29 (.396)	2.29 (.387)	2.34 (.386)	2.32 (.377)	2.31 (.385)	2.33 (.376)	2.31 (.393)
	t/F (Scheffé)		-2.747**		3.347**		4.104* (중·소도시>읍·면>대도시)			0.909 (중>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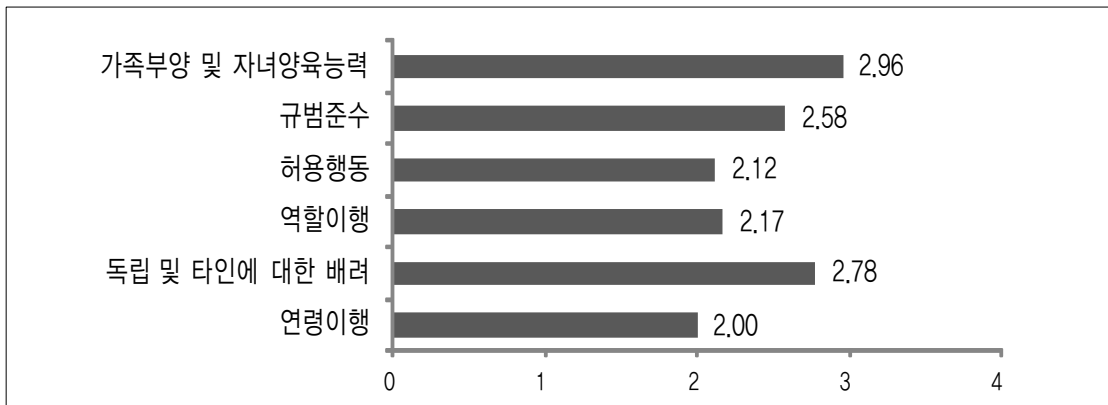
*p<.05, **p<.01, ***p<.001

‘독립’ 요인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청년보다 여자청년들이 ($p<.05$), 그리고 만22세~24세인 청년들이($p<.001$) 현재의 시기를 ‘독립’을 하는 시기로 인식하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타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경제수준별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p<.01$) 경제수준이 중간이거나 높은 경우 ‘타인에 대한 책임’ 요인에 대한 평균값이 더 높았다.

(2) ‘성인의 기준’ 요인에 대한 배경변인별 분석

① ‘성인의 기준’ 요인에 대한 배경변인별 분석 : 청년세대 조사

앞 절의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6개의 요인들의 평균값을 비교하면, 【그림 IV-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년들은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 능력’(M=2.96)을 성인의 기준으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독립 및 타인에 대한 배려’(M=2.78), ‘규범준수’(M=2.58), ‘역할이행’(M=2.17), ‘허용행동’(M=2.12), ‘연령이행’(M=2.0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7】 청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인의 기준’ 요인(평균값 비교)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성, 연령, 지역규모, 경제수준 등 배경변인별 차이를 보면 <표 IV-75>와 같다. 먼저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 능력’의 경우 연령($p < .01$)과 지역규모별($p < .001$)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이 만22세~24이고, 대도시의 청년들일수록 성인의 기준으로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의 중요도를 보인 ‘독립 및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련해서는 성별($p < .05$)과 지역규모별($p < .001$)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여자청년이 남자청년에 비해, 그리고 대도시 거주 청년들이 다른 지역 청년들보다 ‘독립 및 타인에 대한 배려’를 성인의 기준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번째로 중요하게 나타난 ‘규범준수’는 연령구분($p < .05$), 지역규모($p < .001$), 경제수준($p < .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만 22세~24세이고, 대도시거주, 경제수준이 높은 청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범준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역할이행’과 ‘허용행동’, 그리고 ‘연령이행’에 대해서는 지역규모와 경제수준별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응답자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규모가 대도시일 경우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 경우 성인의 기준으로서 역할이행, 허용행동, 연령이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대도시에 거주하고, 경제수준이 높은 청년일수록(일부 요인 제외)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6가지 요인들을 ‘성인의 기준’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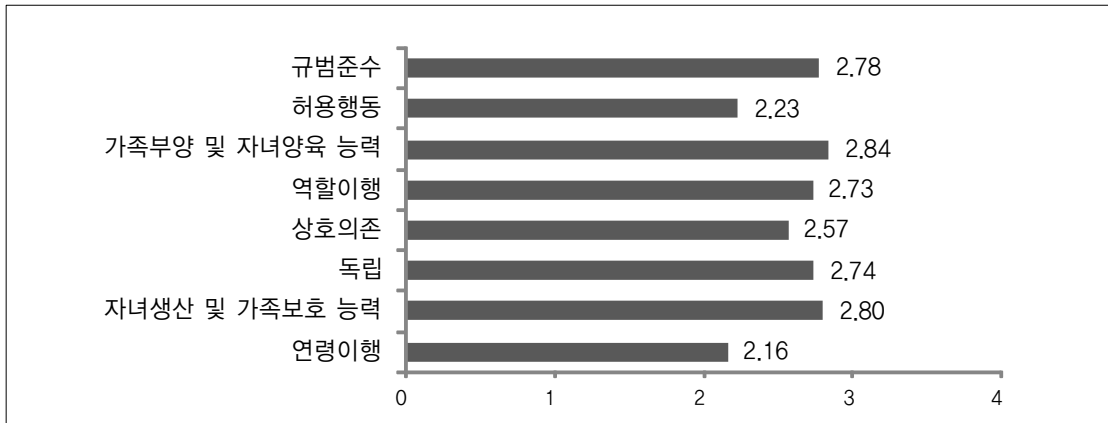
표 IV-75 청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인의 기준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지역규모			경제수준		
			남	여	만19~21세	만22~24세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하	중	상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능력	M (SD)	2.96 (.399)	2.95 (.414)	2.98 (.381)	2.93 (.409)	2.99 (.386)	3.01 (.374)	2.92 (.395)	2.90 (.477)	2.94 (.395)	2.95 (.403)	2.98 (.397)
	t/F (Scheffé)		-1.923		-3.211**		12.532*** (대도시>중·소도시>읍·면)			1.515 (상>중>하)		
규범준수	M (SD)	2.58 (.467)	2.57 (.487)	2.60 (.442)	2.56 (.481)	2.61 (.449)	2.61 (.471)	2.59 (.445)	2.44 (.488)	2.49 (.512)	2.58 (.455)	2.63 (.447)
	t/F (Scheffé)		-1.564		-2.397*		13.969*** (대도시>중·소도시>읍·면)			12.789*** (상>중>하)		
허용행동	M (SD)	2.12 (.517)	2.13 (.527)	2.11 (.505)	2.11 (.518)	2.13 (.516)	2.14 (.510)	2.13 (.529)	2.01 (.496)	2.00 (.491)	2.08 (.488)	2.20 (.535)
	t/F (Scheffé)		0.703		-1.118		6.380** (대도시>중·소도시>읍·면)			25.830*** (상>중>하)		
역할이행	M (SD)	2.17 (.543)	2.19 (.543)	2.15 (.544)	2.16 (.549)	2.18 (.537)	2.21 (.529)	2.17 (.556)	2.00 (.531)	2.07 (.538)	2.16 (.525)	2.22 (.553)
	t/F (Scheffé)		1.525		-0.983		15.831*** (대도시>중·소도시>읍·면)			12.045*** (상>중>하)		
독립 및 타인에 대한 배려	M (SD)	2.78 (.340)	2.76 (.349)	2.80 (.329)	2.78 (.346)	2.78 (.334)	2.81 (.309)	2.75 (.351)	2.75 (.407)	2.78 (.365)	2.77 (.328)	2.78 (.337)
	t/F (Scheffé)		-2.210*		0.459		7.181** (대도시>중·소도시>읍·면)			0.217 (상>하>중)		
연령이행	M (SD)	2.00 (.524)	2.00 (.526)	2.01 (.523)	2.00 (.518)	2.01 (.531)	2.05 (.513)	1.95 (.538)	1.95 (.509)	1.93 (.580)	2.01 (.516)	2.03 (.500)
	t/F (Scheffé)		-0.598		-0.553		9.509*** (대도시>중·소도시>읍·면)			5.184** (상>중>하)		

*p<.05, **p<.01, ***p<.001

② ‘성인의 기준’ 요인에 대한 배경변인별 분석 : 부모세대 조사

조사대상인 부모세대 성인들은 ‘성인의 기준’으로서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능력’(M=2.84) 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인의 기준은 ‘자녀생산 및 가족보호 능력’(M=2.80)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독립’(M=2.74), ‘역할이행’(M=2.73), ‘상호의존’(M=2.57), ‘허용행동’(M=2.23), ‘연령이행’(M=2.1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8】 성인이 인식하는 성인의 기준 중요 요인 (평균값 비교)

부모세대 성인조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인의 기준으로 나타난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 능력’과 ‘자녀생산 및 가족보호 능력’의 경우는 세부배경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모든 변인의 구분에 있어서 유사한 수준의 중요도가 나타났다. 이는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 능력’과 ‘자녀생산 및 가족보호 능력’ 두 요인이 부모세대에서는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성인의 기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인의 기준으로 세 번째로 높은 중요도를 보인 ‘규범준수’는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수준이 높은 성인일수록 ‘규범준수’를 중요한 성인의 기준으로 보고 있었다.

‘독립’의 경우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p < .01$)를 보였는데, 거주하는 지역규모가 클수록 ‘독립’을 성인의 기준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이행’의 경우에는 지역규모와 경제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대도시에 거주하고, 경제수준이 높은 부모세대일 경우 ‘역할이행’을 성인의 기준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의존’의 경우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p < .05$), 마찬가지로 경제수준이 높은 부모세대일 경우 ‘상호의존’을 성인의 기준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허용행동’ 역시 경제수준이 높은 성인이 이를 성인의

기준으로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IV-76 부모세대 성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인의 기준

요인		전체	성별		지역규모			경제수준		
			남	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하	중	상
규범준수	M (SD)	2.78 (.446)	2.76 (.452)	2.80 (.440)	2.78 (.455)	2.79 (.410)	2.75 (.495)	2.72 (.480)	2.75 (.486)	2.84 (.378)
	t/F (Scheffé)		-1.329		0.324 (중·소도시 > 대도시 > 읍·면)			6.236** (상 > 중 > 하)		
허용행동	M (SD)	2.23 (.518)	2.21 (.526)	2.24 (.510)	2.23 (.498)	2.25 (.524)	2.16 (.557)	2.07 (.524)	2.17 (.528)	2.36 (.472)
	t/F (Scheffé)		-0.841		2.026 (중·소도시 > 대도시 > 읍·면)			27.049*** (상 > 중 > 하)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 능력	M (SD)	2.84 (.383)	2.83 (.391)	2.85 (.376)	2.85 (.363)	2.82 (.402)	2.86 (.399)	2.83 (.416)	2.83 (.391)	2.86 (.358)
	t/F (Scheffé)		-0.640		0.685 (읍·면 > 대도시 > 중·소도시)			0.393 (상 > 중 > 하)		
역할이행	M (SD)	2.73 (.439)	2.72 (.440)	2.73 (.438)	2.76 (.417)	2.68 (.452)	2.75 (.465)	2.67 (.443)	2.68 (.469)	2.80 (.394)
	t/F (Scheffé)		-0.447		3.296* (대도시 > 읍·면 > 중·소도시)			10.508*** (상 > 중 > 하)		
상호의존	M (SD)	2.57 (.387)	2.56 (.404)	2.58 (.370)	2.58 (.382)	2.56 (.395)	2.56 (.387)	2.52 (.402)	2.56 (.399)	2.61 (.365)
	t/F (Scheffé)		-0.487		0.658 (대도시 > 읍·면 > 중·소도시)			3.731* (상 > 중 > 하)		
독립	M (SD)	2.74 (.351)	2.74 (.356)	2.75 (.348)	2.78 (.337)	2.69 (.361)	2.76 (.362)	2.75 (.354)	2.74 (.360)	2.74 (.343)
	t/F (Scheffé)		-0.312		6.200** (대도시 > 읍·면 > 중·소도시)			0.122 (하 > 상 > 중)		
자녀생산 및 가족보호 능력	M (SD)	2.80 (.413)	2.79 (.422)	2.80 (.404)	2.82 (.394)	2.76 (.423)	2.83 (.441)	2.77 (.433)	2.78 (.426)	2.83 (.389)
	t/F (Scheffé)		-0.420		2.526 (읍·면 > 대도시 > 중·소도시)			2.297 (상 > 중 > 하)		
연령이행	M (SD)	2.16 (.515)	2.15 (.524)	2.17 (.506)	2.17 (.510)	2.11 (.521)	2.26 (.502)	2.06 (.509)	2.16 (.534)	2.22 (.493)
	t/F (Scheffé)		-0.619		5.242** (읍·면 > 대도시 > 중·소도시)			6.361** (상 > 중 > 하)		

* $p < .05$, ** $p < .01$, *** $p < .001$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인 ‘연령이행’은 지역규모($p < .01$)와 경제수준($p < .01$)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지역규모가 작은 읍·면의 성인이,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은 성인일 경우 ‘연령이행’을 성인의 기준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대도시에 거주하고(‘연령이행’은 제외), 경제수준이 높은 성인들이 각각의 ‘성인의 기준’ 요인들에 대해 더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3. 성인기 이행 관련 향후 연구과제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절에서는 성인기 이행에 대한 인식조사와 2개의 세부과제인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와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성인기 이행에 대한 인식 조사

본 연구에서는 발현성인기의 특징이 한국청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성인기 이행에 대한 인식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만19세~24세의 청년 2,000명과 만49세~54세인 부모세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성별, 지역규모별, 연령별로 치우치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할당표집되었다.

(1) 현재 자신의 시기에 대한 인식: 발현성인기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청년들은 현재 자신의 시기에 대해 많은 가능성이 있거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기,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시기 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에 비해 자신들의 현재 시기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헌신해야 하는 시기라거나, 정착하는 시기 또는 낙관적인 시기라는 인식은 낮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라 현재 시기를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경제수준이 높을 경우 현재의 시기에 대해 자유를 누리는 시기라거나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고, 경제수준이 낮은 청년들의 경우 불안정한 시기 또는 걱정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성인의 기준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에 대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인식조사결과, 두 집단 모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성인 모두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고, 잘 부양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성인의 기준으로 중요시 하였고, 이에 대한 중요도는 청년보다 부모세대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가족과 관련된 항목은 아니지만, 감정조절과 타인의 영향 없이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도 성인의 기준으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중요도를 보였다.

이에 비해, 성경험과 신체적 성장, 연애편관 관계 관련이나 흡연이나 음주허용, 혹은 운전면허증 취득 등은 성인의 기준으로 중요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부호자)로부터 분가하는 것도 성인의 기준으로서 중요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출산에 대해서는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부모세대의 인식과는 달리 청년들에게 있어 자녀를 두는 것은 성인의 기준으로 중요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동일한 조사도구를 사용한 중국과 루마니아와의 조사결과와도 비교함으로써 한국청년들의 성인의 기준을 다시 검토하였는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결과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는 성인의 기준으로서 가족형성 및 가족부양, 자녀양육의 능력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개인의 절제된 행동(과음절제나 피임 등)과 감정조절,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물리적 독립 등에 대해서는 성인의 기준으로서 중요도를 낮게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인으로 인식하는 상황과 성인기 과업 수행 시기

청년들은 직장에 있을 때 자신을 성인으로 느끼는 정도가 가장 높았고, 자녀와 있을 때와 지역사회일원으로 참여할 때 성인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 여부는 자신을 성인으로 여기는 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 성인기 과업 수행에 대한 연령규범을 살펴보기 위해 학교교육 종료, 취업, 결혼, 첫아이 출산, 부모로부터의 독립 등에 적합한 시기가 언제라고 인식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각 과업별, 그리고 성별에 따른 한국사회의 확고한 연령규범을 확인할 수 있다. 남자의 학교교육 종료시기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 만 25세~29세를 가장 바람직하다고 봤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더 이른 연령인 만19세~24세에 대한 응답이 많아, 성별에 따라 바람직한 학교교육 종료시기를 다르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 취업 시기에 대해서는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 성별에 관계없이 만25세~29

세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결혼과 첫 아이를 가져야 할 시기에 대해서는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 남자의 결혼과 첫 아이를 갖는 시기를 대체로 만30~34세로 보고 있는데 비해, 여자의 결혼과 첫아이를 갖는 시기에 대해서는 만25세~29세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독립할 시기에 대해서는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모두 남자의 분가 및 독립 시기는 만30~34세로, 여자의 분가 및 독립시기는 만25~29세로 보는 응답이 많았다.

한국사회에서는 학교교육 종료, 취업, 결혼, 첫 출산, 분가의 모든 항목에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이른 나이에 이러한 과업을 마쳐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결과는 여자청년보다 남자청년들이 여성들의 결혼과 첫 출산에 대해 더 이른 연령대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여자청년들은 여자들의 결혼과 출산,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분가·독립에 대해 남자청년이나 부모세대 성인보다 더 늦은 연령대를 바람직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이다.

경제수준에 따라서도 성인기 이행관련 연령규범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경제적 수준이 높은 청년들보다 낮은 청년들이 성인기 과업 이행 연령대를 좀 더 낮게 보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의 청년들의 경우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해야할 필요가 없고,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으며,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준비하는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규범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세대 성인들은 성인기 이행 과업을 마쳐야 하는 바람직한 시기를 대략 만30세까지로 보는데 비해, 청년들은 만35세까지로 보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성인기 과업 수행에 대한 연령규범이 변화하고 있으며, 기대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성인기 이행과 관련된 과업들

① 성인기 이행과 교육

한국사회에서는 성인기 이행과 교육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부모세대 성인들이 청년들에 비해, 여자청년들이 남자청년들에 비해,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사회에서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4년제 대학’을 마치는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기대하는 교육수준도 높게 나타났는데, 조사대상 청년들의 62%가 본인이 예상하는 교육수준을 4년제 대학졸업이라고 응답하였고 부모들이 자녀에게 갖고 있는 기대 수준은 이보다 10% 이상 높았다. 그러나 자녀의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도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학력수준과 직업지위가 낮은 경우에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수준도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상급학교 미진학과 학업중단, 대학 휴학 등에 관한 경험과 이유를 조사한 결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② 경제적 자립

조사대상 청년들 중 약 38%는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있었는데, 그 중 과반수의 월소득은 100만원 미만이었으며, 75~80%의 청년들이 부모님께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비용, 결혼지원 및 주택구입 등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청년이나 성인 모두 이를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부모세대 성인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성인기 이행 시 부모의 경제적 도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성인기 이행시의 경제적 부담을 부모가 담당해야 한다면, 저소득층 청년들의 경우 성인기로의 이행이 순조롭기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이후의 삶의 모습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경제수준이 낮은 청년들일수록 현재 취업중이거나 취업준비 혹은 무직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교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용돈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경제수준이 낮은 청년은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는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아르바이트가 가지는 목적과 의미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구직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험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학력과 기술, 자격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여자청년의 경우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③ 부모의 개입과 개인의 특성

청소년기 시절 교육, 진로, 생활에 대한 부모의 개입정도를 조사한 결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이 전문/경영/관리직일 경우 부모의 교육적 개입수준은 더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진로 및 진학에 대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와 생활점검 및 개입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청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감을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 재학시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자아존중감 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며, 남자청년이 여자청년보다,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통제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발현성인기와 성인기 기준 설문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Arnett의 설문도구가 한국 사회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한국에서 발현성인기와 성인기 이행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 위해 발현성인기 특성에 관한 설문문항과 성인의 기준에 관한 설문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발현성인기 설문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6개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첫째, 자신에 대한 집중, 둘째, 불안정성, 셋째, 자유와 가능성, 넷째, 독립, 다섯째, 타인에 대한 책임, 여섯째, 불명확한(어중간한) 정체감이다. ‘불안정성’과 ‘불명확한(어중간한) 정체감’에 해당하는 문항은 원 설문지의 항목과 동일하였다.

성인의 기준에 대한 설문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청년세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6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부모세대에 대해서는 8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두 집단 간에 공통으로 도출된 요인은 첫째,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 능력, 둘째, 규범준수, 셋째, 허용행동, 넷째, 연령이행이다. ‘가족부양 및 자녀양육 능력’에 포함된 문항은 두 집단 간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규범준수, ‘허용되는 행동’, ‘연령이행’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은 청년조사와 부모세대조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6) 발현성인기와 성인의 기준의 요인별 영향 변인

앞서 요인분석결과에서 도출된 발현성인기의 요인들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도시의 청년들일수록 현재의 시기를 자신에 대해 집중하는 시기이거나 자유와 가능성의 시기로 보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라서도 현재의 시기에 대한 인식이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수준이 낮은 가정의 청년들이 자신의 현재 시기에 대해 더 불안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기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6개의 요인들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도시에 거주하고 경제수준이 높은 청년일수록(일부 요인 제외) 이러한 요인들을 ‘성인의 기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세대 성인의 경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규범준수와 상호의존, 허용행동을 성인의 기준으로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거주하는 지역규모가 클수록 독립을 성인의 기준으로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는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의 세부과제로 수행되었다.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양상을 고찰하고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체 연구 목적 하에서 본 세부과제는 성인기 이행 양상에 나타난 남녀 간 차이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의 젠더차이를 살펴보았다. 모두 39명의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20대 총 33명과 부모세대 6명으로 구성되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변환되면서 실업이 증가하고 극도로 유연화된 노동 시장은 취업 과정에서 남녀 모두 겪게 되는 현실이며, 기존의 성별 분업화된 노동시장의 구조는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조화된다. 실질적으로 특정한 직업에 특정한 성이 선호되는 전통적인 성별 분업 체계는 노동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유연해지는 현재 해체되거나 새롭게 구조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에 영향을 미치며, 여성들은 감정노동과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직업군과 문화 산업에서 선호되면서 성별 분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에서 여성들의 노동은 그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으며, 노동 유연화가 극대화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성이 사회생활을 오래 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했고, 그와 함께 결혼, 출산, 육아와 관련해서 여성은 오래 일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여전히 녹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열정을 갖고 도전하기 보다는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신의 취업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으며, 취업 이후에도 일을 오래 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많지 않았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스펙쌓기’와 같은 사회적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본인이 노력하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즉, 여성은 결혼과 출산 육아를 커리어 단절의 문제로 느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협상력을 가질 것인지에 집중하고 있었다.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특징적 개념

① 성인기 접어들

‘성인’으로 인식함에 있어서 법적 규정은 청소년과 성인을 경계짓는 일차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연구대상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인정체계를 활용하여 성인됨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었다.

② 부모의 영향

파트타임 노동을 하며 임시적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지 않는 연구 대상자들은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성인 인식에 있어서 장애요인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의존, 주거 독립 미수행과 같은 물적 조건의 불완전한 상태는 정서적인 불안을 형성하고 이러한 감정 상태는 자신을 성인으로 인식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대의 정서적 불안은 주로 ‘우울’, ‘상대적 박탈감’, ‘패배감’, ‘무기력’ 등으로 채워진다.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성인됨을 묻는 것’ 자체에 대해 강한 회의를 표현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인기로의 이행이 수월하지 못함’을 개인의 신념과 의지로 연결짓기 보다 신자유주의 체계 내의 청년세대의 열악한 사회적 위치를 상기시키며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성인으로서 역할 수행의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며 ‘성인됨’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다.

④ 사회적 영향

청년들은 가족이나 지인과 같은 연결망의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제도적 영향도 받고 있었다. 일반적으로는 취업에 있어서 나이를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성역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취업시장에서 원하는 스펙쌓기를 해야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맞춰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 밖의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남성의 경우 군대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 유형분석

① 성인으로서의 이행시도형

성인으로서의 이행시도형의 특징은 휴학과 진로의 변경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이 본인의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은 제한된 범위에서 받아들이며,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

② 혼란적 이행형

성인이 되어 나이 먹어가는 것에 대한 의식과 무의식의 교차, 인정과 부정을 반복하는 것이 혼란적 이행형이 가지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졸업과 취업준비와 진학과 결혼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고 뒤엉켜서 본인에게 성인이 되는 과정은 ‘다른 길을 걷다가 돌아오는’ 혼란스러운 과정으로 인식된다. 결혼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도 본인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강요에 따르고, 또 취업을 원하면서도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한 시험 준비를 하는 복잡한 성인으로서의 이행을 경험하게 된다.

③ 이행지체형

성인으로서의 이행지체형은 자신이 성장해오면서 겪어왔던 과정의 방향성과 목표성을 상실하고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같은 시행착오의 과정에서도 혼란형과 이행지체형이 느끼는 무기력의 정도는 차이가 있으며, 이행지체형은 지속적인 무기력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인으로서의 이행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인다.

(3) 성인기 이행전략의 젠더 차이

① 취업전략 : 성차별적 노동시장과 성별 전략

여성은 남성을 더 선호하는 취업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고, 능력뿐만 아니라 외모나 나이와 같은 능력 외의 요소들까지도 갖춰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나이에 있어서도 남성면접자들에게 나이 들어감이 취업에서 큰 스트레스 요인이 아니었던 반면 여성면접자들은 나이가 취업에서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가 여성이 취업을 하는데 여전히 장벽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취업에 있어서 외모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고 외모 관리에 대한 의욕을 드러내기도 했다.

② 독립 전략 : 부모의 통제 욕망과 성별 전략 차이

주거 독립에 있어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들의 주거독립은 크게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딸의 주거독립은 반대하고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들보다는 딸이 위험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것을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위험상황에 대한 염려 외에도 딸과 아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인식 차이 때문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③ 결혼 전략의 성별 차이 : 가사노동 공동화와 결혼 지연

남성은 대체적으로 취업 이후 결혼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결혼이 본인의 인생에서 뭔가 변화를 가져온다는 생각보다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조건 정도로 여기며 결혼 이후의 가사 분담에 대해 전적으로 아내가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본인의 역할보다는 여성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양육과 가사부담으로 인해 임금노동에 참여하는 데에 어려움을 갖는데, 가족노동의 불평등한 분담에서 기인한 임금노동 중단은 여성의 커리어, 수입,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상에서의 위치 모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남성은 가족으로 인해 힘을 얻는(empowered)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은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소진되는 경향을 보였다.

3)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세부과제)

(1) 가정환경과 성인기 이행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의 가족적 맥락, 특히 부모의 제한된 자원은 그들로 하여금 부모의 갈등 및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도록 한다. 이러한 가족적 맥락에 놓여 있는 청년들은 이른 시기부터 성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가정 내에서도 성인 수준의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일정한 의무를 지닌다. 물론 가정에서의 성인 역할 기대는 개인적 맥락(예를 들어 딸이거나 첫째자녀인 경우)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부모의 갈등 및 성인기 경험은 부모-자녀 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며, 부모가 생애 전반에 걸쳐 제공한 경험 및 부모와의 관계는 청년들의 결혼관과 가족관 형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하지만, 부모-자녀 관계와 결혼관 및 가족관 형성은 개인에 따라 다양한 패턴을 보인다. 즉, 부모와 소원한 관계를 맺어온 청년일지라도 성인기에 진입하면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결혼관과 가족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부모를 부정적 혹은 긍정적 모델로 삼아 바람직한 결혼관과 가족관 형성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한편 이러한 모든 성인기 이행 및 가족 관계 형성 과정에 있어서 가족 외적인 맥락은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관이나 종교 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이나 지원으로 형성된 사회적 관계를 통해, 바람직한 성인관을 형성하기도 하고 친인척의 지원이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준비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과정과 성인기 이행

취약계층의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방치와 무관심한 태도는 매우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무관심은 취약계층에서 상당 정도 불가피함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녀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싶지만 열악한 경제적 여건, 가족관계의 파탄, 부모의 건강악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상실, 부모의 저학력, 저임금 장시간노동 등 자녀의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질 만큼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 대상자들 중 몇몇은 부모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거나 소위 ‘일탈행위’를 일삼는 청년들도 있었다. 이들은 부모보다는 또래집단과 어울리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학교공부는 거의 포기하고 일찌감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도 하였다. 대상자들 중 상당수의 청년들은 정규적인 교과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학교 밖에서 또래들과의 친분관계나 사회경험(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성인기 이행에 필요한 자원들을 축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별다른 인성교육조차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부모들 중에는 자녀에게 학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못했지만 대신에 특별히 ‘인성’ 교육을 강조한 부모들이 있었다. 즉 학업에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삶과 생활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청년 대상자들 중에서도 어릴 때부터 자신의 부모가 공부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인성적인 측면은 매우 강하게 강조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빈곤청년들은 청소년시절부터 아르바이트 시장에 반강제적으로 내몰리게 되며, 이로써 학업보다는 생계 그 자체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한다. 학업보다는 아르바이트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학교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만만치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이들의 성인기 이행에서 정규 교육과정이 미치는 영향력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업대신에 일을 통해서 청년들은 이른 시기부터 성인기 이행을 준비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때론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도움을 줘야한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은 중산층 이상의 많은 청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빈곤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성인이 되어 겪는 노동의 고통, 즐거움이나 보람을 매우 이른 시기부터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청년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교육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취약위기계층의 청년들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조사대상자들은 학교보다는 자신이 직접 겪는 사회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모색하고 자아정체성을 형성해 나갔다. 학교로부터 방치됨에 따라 이들은 스스로 삶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육기관이 해야 하는 역할이 새롭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에게 대학은 이중적 의미를 띠고 있다. 자신의 삶에 대학이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교육이 사회생활에 여전히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자의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대상자들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들은 대학교육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즉, 성인기 이행에 대학의 역할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은 고등학교의 연장선이거나 등록금만 쏟아붓는 곳으로 인식될 뿐이었다. 특히 전문대학에 다니는 청년들이 이러한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따라서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에게 대학이 이들의 성인기 이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약하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이들은 대학보다는 다른 사회경험을 통해서 성인기 이행을 거치고 있었는데, 포래집단과의 소통이나 아르바이트 등 대학 밖에서 더욱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노동경험과 성인기 이행

취약위기계층의 청년들은 중산층 청년들과는 상이한 경험을 통해 성인기로 이행한다. 그 중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 노동경험이다.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이른 시기에 진입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요인이며, 연령에 따라 일의 종류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저임금, 연령차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교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게 되면서 이들의 성인기로의 이행은 ‘평탄한’(순조로운) 것이기 보다는 ‘울퉁불퉁한’(굴곡적인) 것이 된다. 이들의 노동경험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오늘날 통상 성인기에 이르러 경험하게 되는 생계형 노동을 이른 나이부터 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노동과 학업을 둘 다 조절해야 하는 이중적 구속과 역할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러한 이중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주어지는 유예기, 준비기는 단축되고, 현재는 그야말로 곧장 미래를 준비하는 시·공간이다.

그리고 이들 청년들은 취업준비 시간과 경제적 자원의 부재, 구체적인 정보의 결핍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취약하고 빈약하다. 더구나 이들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이력의 흔적이 남지 않는 임시직 노동을 택하게 된다. 이러한 ‘유령노동’은 저연령과 저학력, 저임금 노동으로 인하여 차별받고 있는 상태를 더욱 강화시킨다. 나아가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하여 오랜 시간 임시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일부 청년의 경우에는 박탈감과 더불어 자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존중감마저 상실하게 된다.

이렇듯 제한적인 사회자본과 기회 그리고 불안정한 노동 조건 등으로 인하여 이들의 삶은 불안한 홀로서기 일 수 밖에 없으며, 이들의 성인기로의 이행은 여전히 불안하다. 따라서 정책적인 관점에서 이를 바라본다면, 이들의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의 불안함과 울퉁불퉁함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자리의 질에 대한 문제, 성인기 이행의 개인사적 맥락에 대한 고려와 맞춤형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4) 자아정체성과 사회인식

취약위גיע층 청년들의 ‘성인됨’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단순히 정의될 수 없는 복잡성을 띠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같이 자신이 ‘아직 성인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이들의 생활세계를 보면 어느 성인 못지않은 경제적 책무와 사회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구술자 대부분은 성인됨의 요건으로 ‘책임감’, ‘배려’, ‘의무감’, ‘이해심’, ‘인내심’, ‘고민’, ‘포용력’ 등과 같은 용어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청년들은 스스로를 이 용어들에 비취볼 때 자신은 아직 ‘성인’이 아니라고 의식하고 있다. 하지만 삶의 구체적인 경험을 들여다보면 이들은 이미 일정정도 성인의 역할에 준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 정신적 독립은 물론 경제적 독립에 대한 열망을 일찌감치 추구하고 부모의 빈곤한 경제적 상황에 대해 나름대로 넓게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의식하려는 태도들도 많이 엿보인다.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폭력과 불화 등은 가족관계에서 이들 청소년들이 애정과 유대감을 형성하기 힘들게 만드는 조건들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가 일어나는 학교에서는 학업성적 혹은 학업에 대한 태도로 인하여 이들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며, 개별성 또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유일한 창구였던 또래집단에서의 인정은 이후 성인기로 이행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상당부분이며, 국가적 관계에서 평등한 권리는 노동의 과정에서 거부되며, 이는 임금체불이나 차별 등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부정적 자기정체성 혹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 미래를 결정하고 진로를 고민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들은 사회인식에서 뿐 만 아니라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경험한다. 불투명한 미래와 부족한 정보 그리고 경제적 배경 등에 의해 성인기 이행의 일부분은 먼저 경험하고, 또 다른 부분은 나중에 경험하는 등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부족한 사회적 지원 등으로 말미암아, 항상 수급자 자격의 언저리에서 맴돌거나 탈 수급의 과정을 겪는다고 해도 비슷한 생활수준을 영위하게 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이들 취약위계층 청년들은 학교, 집, 그리고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차별을 경험한다. 이러한 차별의 경험은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낳게 되기도 하지만, 개별적인 수준에서는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즉, 개인적 맥락에 따라 차별이 아닌 것으로 혹은 죽을 만큼 창피한 경험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와 같은 차별경험 속에서 이들은 성인으로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을 원했는데, 기회의 보장과 경제적인 지원 등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여건을 원했다.

따라서 이들 취약위계층 청년들이 청년기를 거쳐서 성인기로 안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지원은 이들의 생애의 과정에 맞춰서 지원해야 하며 실제 이들의 삶에서 필요한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들이나 사회적인 존중의 방식들, 그리고 차별해소와 배제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식들이 지지되고 지원될 필요가 있다.

2. 정책제언

본 절에서는 한국의 청년들이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성인기 이행의 양상은 어느 한 시점에서 한꺼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 이행에 이르기까지 이전의 삶의 경험이 어떤 방식으로 축적되어 왔으며, 성인기 이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청년들을 둘러싼 사회적 상황과 제도적 여건이 어떠한지 등 복합적인 요인과 장기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성인기 이행의 지원과 관련된 정책의 범위는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조금 과장하자면 모든 정책은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돕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성인기 이행과 직접적으로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영역만 해도 교육정책, 노동정책, 주택정책, 이동정책, 청소년정책, 가족정책 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성인기 이행 지원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본 절에서는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한국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지원 관련 요구에 근거하여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의 총괄보고서이다. 따라서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도출된 결과에 근거한 정책제언과 더불어 2개의 세부과제 보고서에서 이루어진 정책제언 중 중요도가 높은 내용들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1) 건강한 성인기 이행 지원을 위한 사회문화 구축

청년들이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역량을 개발하고, 필요한 제도적인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제도화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문화를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나눔의 사회 문화 창출과 가족친화적 가치교육 강화를 제안한다.

(1) 나눔의 사회 문화 창출을 위한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

자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와 희생이라는 측면에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여겨져 왔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여러 번에 걸쳐 높이 평가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처한 자녀에게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힘든 시기를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든 비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안전망(safety net)으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너무 당연시 할 경우,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현재 청년세대가 당면하고 있는 성인기 이행의 어려움을 청년 개인 혹은 개별 가족 단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잘못 규정하게 될 위험이 있다(Swartz, 2008).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자녀의 경쟁력과 성인기 이행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성인기 이행 양상과 그에 대한 태도나 인식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은 외국의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가족의 상황, 특히 경제적 여건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의 양과 질은 큰 차이가 있으며, 안타깝게도 그 격차는 점차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격차가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대학교육, 결혼, 주택구입에 대해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당연한 결과일 수 있겠으나, 이러한 인식은 청년세대보다 부모세대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높은 계층일수록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의 세부과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구조적 문제와는 별개로 지나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자녀들의 의존적 태도를 낳게 되고 이는 자립과 진로결정을 늦추는 부작용을 갖고 오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행위는 가족의 유지와 확대 재생산이라는 목표에 의해 규제되고, 이는 사회 규범으로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과거의 도덕적 형태의 가족주의는 물질적, 경쟁적, 이기적, 과시적 성격을 띤 가족주의로 그 성격이 변모해 왔다(손승영, 2006). 자녀의 사회적 성공과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위해 부모(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가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것을 크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성인기 이행도 가족 내 자원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암묵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가족의 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성인기 이행에서 곤란을 겪는 청년들과,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성장함으로써 성년의 나이가 되어서도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청년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이러한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의 양면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부모의 뒷받침으로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하는 청년들도 적지 않지만, 이의 결핍과 과잉으로 인한 두가지 모습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신이 속한 가족 내 구성원들의 안녕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족이기주의적 문화와 부모가 축적한 경제적 자원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토에 대한 문제제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나눔의 사회 문화 창출을 제안한다. 이는 매우 추상적이며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자원의 결핍으로 비정상적인 성인기 이행을 경험하는 청년들을 줄이고, 과잉적인 부모의 보호와 지원으로 인해 또 다른 차원에서 정상적인 성인기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는데 모두 필요하다. 먼저 사회 전체적으로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을 가치롭게 여기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어릴 때부터 실천하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자신을 도움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닌 남을 도울 수 있는 존재로서 경험을 하게 되면 건강한 자기정체성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성인으로서 자립심과 책임감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나눔의 문화를 사회 전체에 확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수히 많다. 그 중 기부와 자원봉사의 활성화는 나눔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의미 있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00년을 기점으로 개인기부의 규모가 법인기부의 규모를 사상 처음 추월하게 되었고 최근까지 그 추세가 유지되고 있어 개인기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손원익, 이순태, 박세경, 2011). 그러나 아직 국내총생산(GDP) 대비 개인 기부금 비율은 우리나라가 0.54%에 그쳐 미국(1.6%)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매일경제신문, 2011년 1월 13일자). 기부를 실천하는 사례에 대한 소개와 학교 교육이나 청소년체험활동의 한 분야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기부를 접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나눔과 부의 사회 환원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자원봉사의 확산을 위해서는 언론을 통한 홍보와 관련 행사의 확대가 필요하며, 어린 시기부터 학교교육과 체험활동을 통해 자원봉사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2)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교육 강화

지나친 가족중심주의는 사회통합과 상생을 이루어나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것의 가치를 평가절하해서도 안된다. 비혼, 결혼지연의 증가와 출산의 회피는 출산률 저하를 초래했고, 이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유지, 확대하는데 큰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한 내에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의 안정적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선의 출산과 효율적인 노동력 공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성인기 이행방식이 지나치게 개인화되고 예측이 어려울 경우 계획이 필요한 정책 측면에서는 곤란에 부딪히게 된다. 대부분의 사회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바람직한 성인기 이행모델을 제시하고 그에 부합할 경우 다양한 방식의 보상을 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안선영 외, 2010). 비혼과 결혼 지연으로 인한 출산률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적 가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추병완(2010)은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초등 도덕과에서의 가족친화적 가치교육 방향을 제시하면서, 저출산 현상을 대응하기 위한 가치교육의 내용으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양성평등의식, 생명존중의식 등을 들었다. 이러한 교육 내용은 초등교육과정에만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상급학교의 교육과 청소년체험활동에서 다루는 데에도 적합하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일터문화, 양성불평등, 결혼과 가정생활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메시지에만 노출될 경우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전반에 걸쳐 생명과 가정을 가치롭게 여기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친화적 가치교육을 통해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역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2) 청소년기 사회 참여 활성화 및 진로지도 강화

(1) 청소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봉사, 선거참여 등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때 청년들이 자신을 성인으로 느끼는 정도가 ‘자녀와 함께 있을 때’ 다음인 3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이에 대한 숙고를 통해 학습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참여가 없이는 학습이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Bopp, 1994, 최창욱·김승경, 2010에서 재인용). 발달심리학자인 Hart(1997)도 참여하는 기술을 개발할 기회나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경험이 없이 갑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학교교육 기간이 길어지면서 청년들이 자신을 아직 배우고 준비해야 하는 상태로 인식 하는 기간이 연장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학교에 있을 때’ 성인으로 느끼는 정도가 가장 낮다는 결과는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준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는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나 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움직임이지만 그 정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된다(최창욱·김승경, 2010). 현재 한국에는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이 청소년참여기구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적, 범부처적 특성을 갖는 참여기구이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참여기구의 특성을 띠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관련 수련시설의 정책 및 프로그램 참여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 2007년 146개소에서 2009년 174개로 증대되었고,

청소년운영위원회는 2007년 250개소에서 2009년 263개소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청소년참여 기구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질적 측면은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왔다(최창욱·김승경, 2010).

본 연구의 세부과제(장미혜 외, 20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청년들은 성인이 된다는 것을 책임과 밀접히 연관시켜 생각하고 있지만 책임의 범위가 자기 자신이나 가족에 대한 책임에 한정되어 있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를 향해 갖는 책임에 대한 의식은 약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초·중·고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학교 내의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중앙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나 중앙정부의 정책과 행정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유능감을 경험하도록 도와야 한다.

(2) 진로교육의 강화 및 범위 확대

우리 사회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오래되었으나 이를 학교나 청소년활동에서 다루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진로교육의 주요 내용도 상위학교 진학이나 전공결정, 희망직업 등을 생각하고 체험해보는 데 그 범위가 한정되어 왔다. 이로 인해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성인기 과업 수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희망하며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할 지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 또한 결혼이나 출산은 안정적 취업과 경제적 여건이 확보될 때에야 가능하다는 생각이 당연시되고 있어 취업을 한 후에야 그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게 됨으로써 그 시기가 늦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의 세부과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자청년들은 대체적으로 취업 이후 결혼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기고 결혼을 인생에 중대한 변화라기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조건으로 여기는데 비해 여자청년들은 일과 가정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여자청년들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었다.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해 당연히 여기는 남성들의 생각이나 일과의 양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결혼이나 출산을 회피하려는 여자청년의 태도 모두 결혼과 출산이라는 중요한 성인기 역할을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그 과업을 수행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청소년기에서부터 인생에서 수행할 다양한 역할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어떤 준비가 필요하며 예상되는 장벽과 갈등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화해 볼 기회를 갖도록 도와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의

범위를 상급 학교나 전공 선택 또는 직업 탐색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장기적인 인생의 경로에서 수행해야 할 다양한 성인의 역할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 취약위기청년 지원 정책

(1) 취약위기계층 가정 지원 정책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의 가족 관계 및 가정환경은 이들의 빠른 성인기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미래의 가족관과 결혼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교육 및 경제적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은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기 경험을 하게 되며, 이는 청년들의 심리적 스트레스 및 부작용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취약위기계층의 가정환경과 관련된 본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정책의 확장이 필요하다. 취약위기계층의 가족 관계 및 가정환경을 다루는 정책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이러한 정책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반면 대부분의 취약위기계층 가족을 단위로 한 정책들은 “한부모 가족”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2007년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여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황은숙, 2008). 예를 들어, 서울시는 한부모 지원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생계비 및 교육비 지원 외에도 자녀 양육, 가족 갈등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본 조사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많은 수의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이 자라온 환경이 한부모 가족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다양한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지만,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의 가족적 맥락이 반드시 한부모 가족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본 조사에 참여한 가족들 중 양쪽 부모 모두와 동거 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었으며, 한부모 가족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한부모 가족 정책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자녀 가족이 아닌 부-자녀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으로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의 성공적 성인기 이행을 돕기 위해서는 현재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도록 만들어진 가족관련 정책들을 확장하여 보다 다양한 취약위기계층을 돌볼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하겠다.

둘째,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가족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가족적 맥락보다는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전 생애적 가족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정책적 도움 역시 문제가 표면화 된 후 특정시기에 집중되어서는 그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본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어린 시절부터 사회복지관이나 교회 등으로부터 바람직한 성인의 모델을 제시받거나 교육 및 친교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한 경우, 보다 적절한 시기에 준비된 성인기 이행을 경험하며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의 바람직한 성인기 이행을 위해 보다 체계적으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시행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성인기 이행을 경험하는 청년 당사자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생애적 지원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전생애적 접근을 위하여 각종 사회, 교육 및 종교 기관과의 긴밀한 연대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호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한 기관에 모든 정책적 요구가 집중되는 부담을 줄이고 서로 경쟁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취약위기계층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 취약위기계층의 성공적인 성인으로의 진입을 돕는 정책의 내용에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제공받지 못한 건강한 성인의 모델을 제시해주는 것, 결혼을 하고 가족을 형성함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 나가도록 돕는 것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현재 여러 지역사회복지관 등을 통한 지원은 일부 경제적인 지원과 공부방 운영 등의 교육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 대상도 20세 미만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실제로 본 조사에 참여한 청년들 중 사회복지관 혜택을 받은 경우라도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기 이행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연장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가 요구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대에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외에도 위에서 잠시 언급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부모는 가정에서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에게 이상적인 결혼 및 가정 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가깝고 적합한 존재이다. 따라서 적절한 부모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부모들이 자녀의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취약위기계층 청소년 가정의 부모들이 ‘부모교육’에 참여할 경우 수급자격 유지 등에 있어서 가산점을 주거나 혹은 일정한 수준의 현물로 참석수당을 제시한다면

참여효과는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원 정책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홍보해야 한다. 본 연구의 세부과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소 도시나 지방에 거주하는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의 경우 경제적 지원외의 어떠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정책도 접한 경험이 없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찾아 볼 수 있는 경로조차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도시 지역 외에 거주하는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은 자신들이 속한 상황에서 오는 어려움 외에도 외부 지원 부족이라는 이중적인 제약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적 고충은 이들의 가정 문제나 성인기 진입과정을 더욱 어렵게 하므로 대도시 외 지역에서는 정책 시행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취약위기계층 교육지원 정책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은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배제되거나 방치되어 왔다. 학교로부터 특별히 보호되거나 관심을 받지 못하며, 학교 밖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공부 대신 일을 찾아서 십대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 차원에서도 이들에게 접근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 있고,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낼 정도의 여력도 없어 보였다.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 학교가 그 역할을 부분적으로나마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첫째, 전문계 고등학교의 진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세부과제의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취약계층의 청년들 중 전문계 고등학교를 다닌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이 취업문제나 진학문제에 있어서 담당교사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취업이나 진학문제를 ‘전적으로’ 맡겨버림으로써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취업이나 진학을 유도할 수 있는 교사나 전문상담사가 필요하다.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이 지닌 개별 특성을 잘 파악하고 이를 유도하여 직업훈련과 연계시켜주고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관리자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의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은 대체적으로 가정불화나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이들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을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는 물론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이 다른

또래집단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친구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할수록 인격적인 수양이나 올바른 자아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전문대 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 취약위기 청년 연구 조사대상자들 중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대부분 전문대를 다니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대학에 대한 불신이 높고 장래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 시 배운 전공과 연속성을 갖지 못하거나 대학공부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 학업성적이 좋지 않았고 공부에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에 진학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생들의 필요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전문대학 교육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원의 확대와 지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학자금대출을 받아 대학을 다니거나 많은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부여하는 ‘미래드림 장학금’과 차상위계층에게 주는 ‘희망드림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장학금 제도는 신청자에 한해서 일정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면 등록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학생에게 지원해준다. 이전에 비해 이 제도는 빈곤계층 청년들이 등록금에 구애받지 않고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가능성을 훨씬 높여 주었다. 하지만 본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취약위기계층 청년들은 대체적으로 대학생활에도 적응을 잘하지 못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경험이 대학생활까지 이어지면서 학업성적을 유지하는데 무척 힘들어 했고, 특별전형 형태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수업을 제대로 이해하는데도 버거워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청년들은 수업을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 성적이 좋게 유지되지 않으면 장학금은 자동적으로 끊기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적결과만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수여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대학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정책

현재 청소년 노동의 열악한 조건은 최저임금제에도 못 미치는 시급에서부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폭언과 부당대우까지 매우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노동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당장의 생계나 용돈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청소년 노동 전담업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지방노동청에서 청소년들의 부당노동행위 신고까지 담당하고 있지만 고용지원센터 등에 청소년 노동 전담업무 부서를 마련하여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나아가 이들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알선까지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를 제안한다.

둘째, 일상적인 노동현장의 지도점검과 청소년 근로 보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임금체불과 성희롱 등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의 지도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드러내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상담관련 정보를 홍보하고, 이미 작성되어 있는 ‘청소년 알바 10계명’의 경우 광범위하게 제도와 내용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현실화 및 선정 단위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이 불가피하게 노동현장에 내몰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가구가 아니라 개인단위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추정소득부과지침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실제로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대상자로 추정 받는 상황, 혹은 성인기로 이행하기 전 충분히 유예기를 거치고, 준비기간을 거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현장으로 내몰리면서 이중의 역할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을 막을 필요가 있다.

4) 성별화된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성인기 이행과정을 겪고 있는 20대 여자청년들과의 심층 인터뷰 결과는 현재 한국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여자청년들에게 있어서 결혼과 출산은 성인기 이행 시기와 방식을 선택하는데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20대 청년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 이후에 결혼하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남성은 결혼을 성인이 되는 하나의 통과의례 정도의 의미를 부과하는데 비해, 여성은 결혼을 주요한 생애사건으로서 의미를 부여하는 뚜렷한 의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직도 한국사회에 있어서 가족생활 유지에 필요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과 연계되어 있다. 이로 인해 20대 여성들은 결혼 후 가족생활 유지의 책임에 따른 부담감을 회피하기 위해 결혼을 최대한 미루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여성의 결혼 지연이나 비혼 전략은 단순히 개인적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이라는 국가·사회적 문제와 맞물려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1)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의 제도화

자녀양육을 비롯한 돌봄 노동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인식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20대 남자청년들에게서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들에게 결혼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며,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조건 정도로 여겨진다. 이에 비해 결혼에는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이 수반됨을 인식하는 여자청년들은 결혼을 회피 또는 지연시키거나, 돌봄노동을 전담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한 여자청년의 성인기 이행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성별 역할 분업 관행을 개선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남성의 가족 내 돌봄노동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남녀의 동등한 육아참여와 가족시간 공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홍승아 외, 2008). 육아휴직 활용에 있어서의 남성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자녀양육은 여성과 남성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예컨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남성할당제도는 남성들의 휴가사용을 증가시킨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차용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춰 육아휴직기간 중 일정기간을 남성이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2) 성 평등한 가족관련 태도 형성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성인기 이행에 대한 성별 차이를 고찰한 세부과제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대 청년들이 갖고 있는 결혼과 가족생활과 관련한 태도는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중등학교단계에서부터 성 평등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에 담겨있는 교육내용을 보면(정해숙 외, 2010), 아직까지도 도덕과나 사회과 등 거의 모든 교과에서 자녀양육의 책임자는 어머니인 여성으로

그러지고 있다. 이처럼 초·중등교육과정에서조차 여성의 책임영역으로 공고히 남아있는 자녀양육과 관련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실과(기술·가정), 사회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이 남녀 공동의 책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내용을 강화해야 한다.

참여자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결과 남성면접자 중에는 대학에서 여성학 강좌를 접함으로써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시각에 거리를 두며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참여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대학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학 교육과 기타 인문학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여성학 교육은 산술적인 의미의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서 나아가 자신의 삶 전반에 걸친 성찰의 과정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5) 성인기 이행 중 부모에 대한 경제적 예측 탈피 지원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의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기꺼이 감수하는 경향이 있고 부모의 지원 능력 여부에 따라 자녀의 성인기 이행의 시기에 많은 차이를 보여 계급 재생산의 주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예측은 성인자녀로 하여금 자녀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정서적 의존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고 한편으로는 부모의 지원으로 인해 성인기 이행으로의 의욕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전 즉, 학업과 구직 과정에 있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1) 교육비 부담 완화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을 휴학한 경험이 있는 학생 중 11.4%가 등록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휴학을 했다고 응답하였다. 군입대를 위해 휴학한 비율이 70.5%인 것을 감안할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휴학의 비율은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높은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저소득층 학생들은 학비를 벌기위해 일과 학업을 병행함으로써 학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휴학을 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이로 인해 학점관리와 취업준비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우선 근본적으로 학생 등록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대학재정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연간 물가상승률을 월등히 상회하는 등록금 인상율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과도한 교육비 지출 부담을 지우게 할 뿐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학업을 지연하면서 등록금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에 몰두하게 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더라도

학비 마련을 위한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자연스럽게 성인기로의 이행을 지체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학생들이 학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등록금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던 국가장학금(연간 450만원)의 지급대상을 소득분위 3분위까지의 학생으로 확대하여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 속하지 못하더라도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 기존 장학금 수혜 현황, 급격한 생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당국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대학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그 노력을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갈수록 치솟는 대학의 교육비는 성인기에 접어든 청년들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그 결과 졸업 후에도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은 성인기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 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의존까지 결과하게 되므로 성인기 이행은 더욱 요원해진다. 등록금이 동결 및 인하되도록 유도하여 성인기 이행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교육비 부담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2)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기회 확대 및 비과세소득화

국가근로장학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등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한 국가보조 장학금으로 교내외에서 일한 대가로 월에 한 번씩 지급되는 장학금을 말한다. 교내는 시급 6,000원, 교외는 시급 8,000원으로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때문에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 하는 저소득 계층 학생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그러나 2009년 9월 국세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근로장학금은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소득에 해당된다는 판단서를 제시하였다. 이로 인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장학금도 근로소득”이라며 근로장학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가계소득에 합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매월 받는 국가근로장학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자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장학금을 가계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정책의 추진과 함께 근로장학금 형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적정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및 현실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하는 대학생이 많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거나,³³⁾ 최저임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1년 9월 한 취업포털에서 전국 대학생 1,793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7.2%는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라고 답하였으며, 새 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대학생의 절반 이상(55.2%)이 ‘등록금을 벌기 위해’ 등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 2011. 9. 21).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병행하면서 또는 휴학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최저 임금 준수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한편 최저임금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32% 수준에 불과하며, 시급 4,320원으로는 한 끼 식사조차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계약직, 비정규직,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학생 과외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수준에 머물거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인기 이행과정에 있는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는 것은 요원한 과제일 수 밖에 없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생활비는 물론 교육비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게 되고 이것은 고스란히 부모가 해결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재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6) 청년주거 정책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한국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분가 시기는 남자는 만 30-34세, 여자는 만 25-29세로 나타났다. 실제 분가 희망 연령을 조사한 결과 평균 29.4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의 어려운 청년노동시장 상황과 특히 대학교와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의 높은 주거비를 고려할 때 이 연령대에 독립적인 주거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주거는 생활의 기반이며, 복지의 기초이다. 주거생활의 안정은 건전한 시민사회와 민주국가 건설에 핵심적인 요소이다(김옥연·문영기, 2009). 한국의 주택정책은 혈연가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혼청년들이나 기혼가구라도 자녀가 없을 경우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매우 제한적이다. 주택시장에서 청년세대의 체계적인 배제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과도 연관을 가지며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어렵게 하는

33)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말부터 5월 6일까지 강릉 등 동해안 지역 120곳과 춘천 32곳 등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의심 사업장으로 신고됐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강원도내 대학생의 55.9%가 부당 노동 현실에 직면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강원일보, 2011. 8. 20).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란우, 2010). 청년세대가 소외되고 있는 주택 정책의 일례로, 한국의 주요 주택 공급달성 지표로서 활용했던 주택보급률 개념에는 1인가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서민주택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주택공급제도, 국민주택기금 수요자 대출, 국민임대주택공급 등은 연령이나 자녀여부에 따라 차등을 부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기조를 가족친화적이며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으나, 경제적 능력과 안정적 주거확보가 결혼과 출산에 중요한 선결조건으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에서 1인가구나 무자녀가구에게 불리한 주거 정책은 오히려 결혼과 출산의 지연이나 포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민우(2011)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고시원과 같은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자신들의 삶과 거리가 먼 일로 여기며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³⁴⁾

청년층이 배제되고 있는 현 주택공급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김옥연·문영기(2009)가 제기한 일정규모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과 국민주택기금 대출 지원대상에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포함시키는 방안은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청년임대아파트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 1986년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 종합계획’에 따라 83개 지역에 8,352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한 사례가 있다. 이 중 820세대는 근로여성 임대아파트로 여성노동자들에게 공급되었다. 당시 수출 증대와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국 각 공업단지 내에 청년층을 위한 주거시설을 공급한 것이다. 청년층의 주거문제는 단순히 주거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성장 동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 청년노동시장의 악화로 인해 청년층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주거불안정이 결혼과 출산의 연기나 기피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 대한 주거대책은 사회유지와 발전을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조명되어야 하며(이대원, 2010), 사회적 시민권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김란우, 2010).

7) 청년고용 정책

청년고용의 약화는 사회 전반의 안정성과 성장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치며, 청년들의 성인이 이행이 순조롭지 못한 데에 있어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대 청년이나 부모세대에 대한 인터뷰에서 경제적 독립은 청년의 성별에 관계없이 성인이 이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 불안이 장기화되고 청년 실업이 보편화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성인이 이행을

34) 현실에서 빚박받는 사람은 현실에 매몰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없다. 미래에 대한 현실주의적인 전망은 실제로 현재에 직면할 수단을 가진 자들에게만 가능한 것이다(부르디외, 2002, 정민우 2011에서 재인용).

지연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단기적인 실업대책에서 벗어나 대학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고용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등 공공부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서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요구된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고속런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이동성이 증대함에 따라 기업은 내부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모순된 상황에 놓이게 되고, 개별기업차원에서 더 이상 인력개발을 담당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신규채용보다 경력자 채용을 우선시하는 최근의 기업의 채용정책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다. 청년 실업문제는 미래의 인적자원들이 노동시장에 대한 적응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분야의 실업보다 더욱 심각하고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산학협력형 일자리를 구축하고 교육-고용연계를 통한 대학의 취업 및 창업지원 강화, 그리고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의 청년 대졸 창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교육-고용 연계를 통한 산학협력형 일자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노동시장간 괴리에 따른 제도적인 장애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특성화 학과 선정·운영, 현장실습 학점제 실시 등 산학협력에 필요한 요인들을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의 취업역량 인증제를 도입하여 대학의 취업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에 창업 관련 과정 신설, 직능단체의 창업 관련 교육기회 제공 등 대학 정규 교육 중 창업 관련 교육 강화는 물론 체계적 창업 준비를 위한 창업 인턴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대학의 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취업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그 방안의 하나로 민간 리쿠르팅 업체가 대학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위탁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산업계 퇴직 경력자를 일정 소양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대학 취업지원센터에 배치해 현장감 높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실적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인과 구직의 불일치(mismatch)가 구조적으로 재생산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청년 대졸 미취업자 고용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청년 대졸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1년간 공공부문 인턴채용 비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청년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해 청년 다수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8) 취업에 대한 대학교육의 책무성 강화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부모세대의 96.4%가 자녀가 2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고 응답하였고 청년의 90.4%가 2년제 대학 이상 교육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의 학력과잉 현상이 개인이나 사회에 막대한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대졸자의 취업실패로 증발하는 등록금 총액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연간 7조원에 달한다. 대학교육이 꼭 취업을 위한 것만은 아니며 다른 통로를 통해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대학진학이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동아일보, 2011년 6월 7일자).

이병희 외(2010)는 본 연구의 1차년도 세부과제를 통해 취업유지율과 취업의 질에 대한 정보를 사회보험DB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직장건강보험DB를 토대로 취업률을 산출하여 대학순위를 발표하여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취업률 산정 방식을 통해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졸업생을 취업자에 포함시키거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취업률을 과장하는 것을 방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물론 건강보험DB 연계를 통한 취업률 산정에도 맹점은 있다. 종교관련 학과나 예술계통 학과는 특성상 건강보험DB 활용 방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과부에서는 향후에는 1인창업자나 프리랜서 취업자들에 대한 정보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국세청DB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학에서 졸업생들의 취업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대학의 취업률을 산정하는 방식을 더욱 공정하고 정확하게 다듬어 나가는 노력과 더불어 대학의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나가야 한다.

3. 성인기 이행 관련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의 세부과제에서는 취약계층 청년들 중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인기 이행이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취약위גיע층의 특성별, 예를 들어 양육시설 퇴소 청년, 복역 중인 청년 및 출소 청년, 장애청년 등 집단분류를 세분화하여 각각의 집단이 필요로 하는 성인지 이행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Osgood, Foster, Flanagan & Ruth, 2005). 이러한 취약위גיע층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은 대부분 만 19세 또는 20세까지 제공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성인지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위גיע층의 성인지 이행관련 지원서비스 제공 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소위 ‘정상적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취약위기 청년은 성인지 이행에 있어 더 높은 강도의 지원과 부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취약위גיע층 청년들의 성인지 이행에 대한 요구를 특성별로 파악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참고 문헌]

- 김란우(2010). 자가거주율 분석을 통한 주거안정성 변화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1권 제1호, pp.43-59.
- 김옥연 · 문영기(2009). 1인가구 주거실태 분석: 서울시 1인가구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제7권 제2호, pp.37-53.
- 김정석(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제29권 제1호, pp.57-70.
- 김혜영 · 선보영 · 김상돈(2010).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동아일보 2011. 6. 7일자 기사: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취업못한 대졸자들이 낸 피같은 등록금, 7조원 매년 날리는 셈.
- 손승영(2006). 한국의 가족주의와 사회적 과시. 담론 201, 제9권 제2호, pp.245-274.
- 손원익 · 이순태 · 박세경(2010).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 안선영 · Cuervo, H. and Wyn, J.(2010).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야마다 마사히로(2010).(장화경 역). 우리가 알던 가족의 종말: 오늘날 일본가족의 재구조화. 서울: 그린비.
- 유홍준 · 현성민(2010). 경제적 지원이 미혼 남녀의 결혼 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제33권 제1호, pp.75-101.
- 은기수(1995).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한국인구학, 제18권 제1호, pp.89-117.
- 이대원(2010). 청년층 주거문제 현황과 대책. 서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이병희 · 장수명 · 채창균 · 최영섭(2004).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 · 장지연 · 윤자영 · 성재민 · 안선영(2010).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

- 구 1: 우리나라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실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희진 · 김지연 · 이경상(2009).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장경섭(2009).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서울: 창비.
- 정민우(2011). 자기만의 방: 고시원으로 보는 청년 세대와 주거의 사회학. 서울: 이매진.
- 정운경 · 최지현(2010). 부모의 부부관계의 질과 자녀세대의 부부적응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
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여성, 제15권 제3호, pp.331-353.
- 정해숙 · 구정화 · 최윤정(2010). 교과서의 성차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조선일보 2010. 12. 14일자 기사: 취업의욕마저 잃은 ‘니트족’ 한국 30만명, 일본 44만명.
-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0).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분석.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인재 · 김지경 · 임희진 · 강현철(2011). 2010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서울: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창욱 · 김승경(2010).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참여확대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추병완(2010).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서 가족친화적 가치교육 방안. 한국초등도덕교육학
회, 제34권, pp.225-251.
- 피에르 부르디외(2002). (최종철 역). 자본주의의 아비투스. 서울: 동문선.
- 한경혜(1990). 산업화와 결혼 연령 변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가족전략의 관점에서. 한국사
회학, 제24권 겨울호, pp.103-120.
- 한경혜(1993). 사회적 시간과 한국 남성의 결혼연령의 역사적 변화: 생애과정 관점과 구술생
활사 방법의 연계. 한국사회학, 제27권 겨울호, pp.295-317.
- 홍승아 외(2008).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및 한국의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
책연구원.
- 황은숙(2008). 한부모 가정 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부모가정연구, 제3권,
pp.1-24.
- Arias D. F. & Hernández, A. M.(2007). Emerging adulthood in Mexican and Spanish
youth: Theories and realitie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22 No.
5, pp. 476-503.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Vol. 55 No. 5, pp.

- 469–480.
- Arnett, J. J. (2001). Conceptions of the transition to adulthood: Perspectives from adolescence through midlif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Vol. 8 No. 2, pp. 133–143.
- Arnett, J. J. (200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Arnett, J. J. (2011). Emerging adulthood(s): The cultural psychology of a new life stage. In L. A. Jensen(Ed.), *Bridging cultural and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syntheses in theory, research and policy*(pp. 255–27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Atak, H. & Çok, F.(2008). The Turkish version of Inventory of the Dimensions of Emerging Adult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and Social Sciences*, Vol. 3 No. 7, pp. 451–457.
- Bannders, A. N.(1998). *Leavers, planners, and dwellers. The decision to leave the parental hom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ageningen Agricultural University.
- Billari F. C. & Liefbroer, A. C. (2007).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The impact of age norms on leaving home. *Demography*, Vol. 44 No. 1, pp. 181–198.
- Center for Human Resource Research (2006). *NLSY79 Child & Young Adults User's Guide 2006*. Columbus, OH: The Ohio State University.
- Cheah, C. S. L., Trinder, K . M. & Gokavi, T. N. (2010). Urban/rural and gender difference among Canadian emerging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Vol. 34 No. 4, pp. 339–344.
- Daly, K. J. (2007). *Qualitative Methods for Family Studies and Human Development*. Thousand Oaks, CA: Sage.
- Goldscheider, F. K. & Da Vanzo, J.(1989). Pathways to independent living in early adulthood: Marriage, semi-autonomy, and premarital residential independence. *Demography*, Vol. 26 No. 4, pp. 597–614.
- Goldscheider, F. & Goldscheider, C.(1999). *The changing transition to adulthood:*

- Leaving and returning home*. Thousand Oaks, CA: Sage.
- Hart, R. A. (1997).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are*. New York: UNICEF.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Newbury Park, CA: Sage.
- Jensen, L. A.(2011). The cultural–developmental theory of moral psychology: A new synthesis. In L. A. Jensen(Ed.), *Bridging cultural and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syntheses in theory, research and policy*(pp. 3–2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ins, E. & Beyers, W. (2010). Failure to launch, failure to achieve Criteria for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25 No. 5, pp. 743–777.
- Nelson, L. J. (2009). An examination of emerging adulthood in Romanian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Vol. 33 No. 5, pp. 402–411.
- Nelson, L. J., Badger, S. & Wu, B.(2004). The influence of culture in emerging adulthood: Perspectives of Chinese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Vol. 28 No. 1, pp. 26–36.
- Osgood, D. W., Foster, E. M., Flanagan, C., & Ruth, G. R. (Eds.), (2005). *On your own without a net: The transition to adulthood for vulnerable popula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eifman, A., Arnett, J.J., & Colwell, M.J. (2007). Emerging adulthood: Theory, assessment, and application. *Journal of Youth Development*, Vol. 2 No. 1. <http://courses.ttu.edu/hdfs3317-reifman/IDEA.htm> (검색일 2011년 1월 30일).
- Settersten, R. A., Jr.(1998). A time to leave home and a time never to return? Age constraints around the living arrangement of young adults. *Social Forces*, Vol. 76 No. 4, pp. 1373–1400.
- Settersten, R. A., Jr.(2005). Social policy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Toward stronger institutions and individual capacities. In R. A. Settersten Jr., F.

- F. Furstenberg & R. G. Rumbaut (Eds.), *On the frontier of adulthood: Theory, research, and public policy*(pp. 534–560).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anahan, M. J., Porfeli, E. J., Mortimer, J. T. & Erickson, L. D.(2005). Social policy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n R. A. Settersten Jr., F. F. Furstenberg & R. G. Rumbaut (Eds.), *On the frontier of adulthood: Theory, research, and public policy*(pp.225–255).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mith, T. W. (2004). Coming of age in twenty-first century America: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importance and timing of transitions to adulthood. *Ageing International, Vol. 29 No. 2*, pp. 136–148.
- Swartz, T. T. (2008). Family capital and the invisible transfer of privilege: International support and social class in early adulthood. In J. T. Mortimer (Ed.), *Social class and transitions to adulthood.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pp. 11–24).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Tanner, J. L. & Arnett, J. J. (2009). The emergence of 'emerging adulthood': The new life stage betwee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In A. Furlong(Ed.), *Handbook of youth and young adulthood: New perspectives and agendas*(pp. 38–45). London: Routledge.

부 록

1. 청년세대용 설문지
2. 부모세대용 설문지

부 록

1. 청년 설문지



 ID

청년의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인식 연구 [청년세대용]

본 설문지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개인이나 단체의 비밀사항은 보호되며, 개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통계법(제3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원에서는 청년의 성인기로의 이행과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청년들의 인식과,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이행을 위한 준비도와 필요한 지원에 대한 욕구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설문문항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여러분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무기명(이름을 밝히지 않고)으로 처리되어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도 연구자외에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성의 있는 의견은 여러분을 위한 유익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실사진행기관
(조사 문의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국제전자센터 24층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연구담당] 사회여론조사본부 1팀 장호원 대리
 [실사총괄] 실사팀 김은진 차장 ☎ 02)3488-2784 /Fax:02-586-8315

SQ1. 응답자 주소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SQ2. 거주 시도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SQ3. 도시 규모	① 대도시(7대도시) ② 중·소도시(동) ③ 읍·면 지역		
SQ4. 응답자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SQ5. 응답자 연령	실례지만, _____님의 올해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만 _____ 세		
SQ6. 군 복무 여부 (남자만 응답)	실례지만, _____님은 군대에 다녀오셨나요? ① 예 ② 아니오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 - () - ()
면접 일시		면접원 성명	
검증 결과		검증원	

사회심리적 요인

Q1. 다음은 귀하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경우에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7) 나에게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지 않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Q2. 다음은 귀하가 자신을 둘러싼 일들과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경우에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나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내 문제 중에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①	②	③	④
2) 때때로 내가 내 인생에서 휘돌리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내가 거의 통제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가 마음먹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무력감을 자주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미래에 나에게 일어날 일은 대부분 나에게 달려있다	①	②	③	④
7)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의 대부분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현재 시기에 대한 인식

Q3. 귀하는 자신의 현재 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경우에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서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많은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2) 탐색을 하는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3) 혼란스러운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4) 실험의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5) 자유를 누리는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6) 제약을 많이 느끼는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7) 나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8)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9) 불안정한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10) 낙관적인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Q4. 귀하는 자신의 현재 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경우에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서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압력을 많이 받는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2)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3) 정착하는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4) 타인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5) 독립하는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6)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7) 예측이 어려운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8) 다른 사람에게 헌신해야 하는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9) 자립해야 하는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10) 걱정이 많은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Q5. 귀하는 자신의 현재 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경우에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서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2)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3)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4)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5)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6) 삶의 의미를 찾는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7)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결정하는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8)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9) 어떨 때는 성인인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성인이 아닌 것 같은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10) 점차 성인이 되어 가는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11) 성인이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은 시기이다	①	②	③	④

성인의 기준

Q6.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성인으로 인정 받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소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부모나 타인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①	②	③	④
2) 부모(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3) 학교교육을 마치는 것	①	②	③	④
4) 결혼하는 것	①	②	③	④
5) 최소한 한명의 자녀를 두는 것	①	②	③	④
6) 장기적으로 하게 될 일을 시작하는 것	①	②	③	④
7) 주택 구입	①	②	③	④
8) 과음을 하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9) 불법적인 약물(마약)하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Q7.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성인으로 인정 받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소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안전하게 운전하고 과속하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2)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3) 임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임을 하는 것	①	②	③	④
4)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얽매이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5) 만 18세가 되는 것	①	②	③	④
6) 만 21세가 되는 것	①	②	③	④
7) 애인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8) 부모나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	①	②	③	④

Q8.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문항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성인으로 인정 받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소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남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2) 여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3) 남자의 경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4) 여자의 경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5) 여자의 경우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6) 남자의 경우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7) 키가 다 자란 것	①	②	③	④
8) 여자의 경우 신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9) 남자의 경우 신체적으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10) 남자의 경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11) 여자의 경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Q9.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문항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성인으로 인정 받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소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①	②	③	④
2)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3) 성 경험이 있는 것	①	②	③	④
4) 전일제로 일자리를 갖는 것	①	②	③	④
5)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6) 공공기물을 파손하거나 줌도독질을 하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7) 성인으로서 부모와 동등한 관계를 갖는 것	①	②	③	④
8)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	①	②	③	④
9) 자기중심적인 면이 줄어들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커지는 것	①	②	③	④
10)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11) 음주가 허용되는 것	①	②	③	④
12) 흡연이 허용되는 것	①	②	③	④
13) 남자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마치는 것	①	②	③	④

Q10. 상황에 따라 자신을 성인이라고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 자신이 성인이라고 느끼십니까? 귀하의 경우에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아래 상황 중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에 √표해 주세요)

성인이라고 느끼는 정도	해당사항 없음	전혀 성인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약간 성인이라고 느낀다	분명히 성인이라고 느낀다
1) 학교에 있을 때	①	①	②	③
2) 직장에 있을 때	①	①	②	③
3)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때 (예: 사회봉사활동, 선거참여, 종교활동 등)	①	①	②	③
4) 운동을 할 때	①	①	②	③
5) 여가활동을 할 때 (예: 박물관, 콘서트, 스포츠 관람 등)	①	①	②	③
6) 친구와 있을 때	①	①	②	③
7) 가사 일을 할 때	①	①	②	③
8) 자녀와 있을 때	①	①	②	③
9) 부모님과 같이 있을 때	①	①	②	③
10) 애인과 같이 있을 때	①	①	②	③
11) 평소에 대부분	①	①	②	③

Q11.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Q12. 문항으로 가세요 |
|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  Q12. 문항으로 가세요 |
| ③ 다소 중요하다 |  Q11-1. 문항으로 가세요 |
| ④ 매우 중요하다 |  Q11-1. 문항으로 가세요 |

Q11-1. **(Q11의 ③, ④번 응답자만)** 우리 사회에서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② 2-3년제 대학 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졸업

Q12. 귀하의 부모님은 귀하가 어느 정도까지 교육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② 2-3년제 대학 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석사학위 취득
⑤ 박사학위 취득

Q13. 귀하는 교육을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② 2·3년제 대학 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석사학위 취득
⑤ 박사학위 취득

부모(보호자)관계

Q14. 귀하가 중·고등학교 재학 중에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귀하의 부모님이나 보호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귀하의 학교 숙제나 과제를 점검하거나 도와주었습니까?	①	②	③	④
2) 귀하의 성적이 오르거나 떨어질 때 칭찬을 하시거나 야단을 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3) 귀하의 성적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까?	①	②	③	④
4) 귀하의 학교행사에 참석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5) 귀하의 학교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과 의사소통을 자주 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Q15. 귀하가 중·고등학교 재학 중에 아래의 사항에 대해 부모님(또는 보호자)과 얼마나 자주 의사소통을 하셨습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귀하의 부모님이나 보호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고등학교 선택(일반계, 전문계, 특수목적고 등)이나 계열(이과/문과) 선택	①	②	③	④
2) 대학입학시험 준비 및 대학 전공 선택	①	②	③	④
3) 진로 및 직업선택	①	②	③	④

Q16. 귀하가 중·고등학교 재학 중에 귀하의 생활에 대한 부모님(또는 보호자) 개입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부모님(또는 보호자)에 해당되는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귀하의 부모님이나 보호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TV시청이나 게임시간 제한	①	②	③	④
2)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 점검	①	②	③	④
3) 외출 시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확인	①	②	③	④

성인기 과업 수행시기

Q17. 다음은 현재 청년들의 바람직한 성인기 과업 이행시기를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의 성인기 과업 이행시기에 성별을 고려하여 √표해 주십시오.

바람직한 시기	만 19세~24세	만 25세~29세	만 30세~34세	만 35세~40세	만 40세~50세
1) 남자가 학교 교육을 끝내야 할 시기	①	②	③	④	⑤
2) 여자가 학교 교육을 끝내야 할 시기	①	②	③	④	⑤
3) 남자가 첫 취업을 해야 할 시기	①	②	③	④	⑤
4) 여자가 첫 취업을 해야 할 시기	①	②	③	④	⑤
5) 남자가 결혼해야 할 시기	①	②	③	④	⑤
6) 여자가 결혼해야 할 시기	①	②	③	④	⑤
7) 남자가 첫 아이를 가져야 할 시기	①	②	③	④	⑤
8) 여자가 첫 아이를 가져야 할 시기	①	②	③	④	⑤
9) 남자가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독립할 시기	①	②	③	④	⑤
10) 여자가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독립할 시기	①	②	③	④	⑤

경제적 자립

Q18. 귀하는 지난 한달간 수입이 있었습니까?

- ① 예  **Q18-1 문항으로 가세요**
 ② 아니오  **Q19. 문항으로 가세요**

Q18-1. 지난 한 달간 귀하가 일해서 번 수입은 얼마입니까? ()만원

(※도움말: 지난 한 달간 귀하가 번 수입이 100만원일 경우 괄호 안에 100 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Q19. 아래의 상세 설명을 읽고 귀하의 생활비와 학비를 조달한 방법을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보기에서 골라 주십시오.

생활비와 교육비 조달 방법	재원 조달 방법	보기
1) 올해(2011년) 귀하가 사용한 생활비 (식비, 주거비, 의복비, 공공요금 등)를 어떻게 조달하였습니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 ※ 교육에 필요한 부가적인 비용(등록금, 책값 등)은 제외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① 내가 번 수입 ② 부모 ③ 조부모 ④ 형제/자매 ⑤ 배우자 ⑥ 정부보조 ⑦ 대출 ⑧ 장학금 ⑨ 기타() ⑩ 해당사항 없음
2) 고등학교 를 졸업한 후 교육 (대학교, 학원 포함)에 필요한 비용(등록금, 기숙사비, 학원비 등)은 어떻게 조달하였습니까? ※ 고등학교를 아직 졸업하지 않았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더 이상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다니지 않은 경우에는 ⑩“해당사항 없음”선택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Q20. 다음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에 해당하는 항목에 √표 하십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한다
1) 자녀의 대학교육에 드는 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②	③	④
2) 자녀가 결혼을 할 때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②	③	④
3)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②	③	④

학교 관련

Q21.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① 중졸 이하(고등학교 중퇴 포함)
- ② 고등학교 재학/휴학중
- ③ 고등학교 졸업 (고졸 검정고시 포함)
- ④ 2년제~3년제 대학 재학/휴학중
- ⑤ 2년제~3년제 대학 졸업
- ⑥ 4년제 대학 재학/휴학중
- ⑦ 4년제 대학 졸업
- ⑧ 대학원 재학중
- ⑨ 대학원 졸업

☞ Q21-1. 문항으로 가세요

☞ Q27. 문항으로 가세요

☞ Q21-2. 문항으로 가세요

☞ Q22. 문항으로 가세요

Q21-1. **(Q21의 ①번 응답자만)**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학교를 그만두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모두 √표 하십시오 (복수응답)**

응답 후 Q27. 문항으로 가세요

- | | |
|---------------------------------|----------------------|
| 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 ② 낮은 학업성적 때문에 |
| ③ 취업했기 때문에 | ④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
| ⑤ 학교에서 퇴학처분 받음 | ⑥ 더 실질적인 취업·진로준비를 위해 |
| ⑦ 학교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 |
| ⑧ 집안일(가사일, 가족돌보기 등)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 |
| ⑨ 기타(_____) | |

Q21-2. **(Q21의 ③번 응답자만)** 귀하는 어떤 이유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습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모두 √표 하십시오 (복수응답)**

- | | |
|---------------------------------|----------------------|
| 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 ② 낮은 학업성적 때문에 |
| ③ 취업했기 때문에 | ④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
| ⑤ 생활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 ⑥ 더 실질적인 취업·진로준비를 위해 |
| ⑦ 집안일(가사일, 가족돌보기 등)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 |
| ⑧ 기타(_____) | |

Q22. 귀하는 대학에 다닐 때 중도에 그만두거나, 일시적으로 휴학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①-1 중도에 그만둠 Q23. 문항으로 가세요
	①-2 휴학 Q24. 문항으로 가세요
② 아니오	Q27. 문항으로 가세요

Q23. **(Q22의 ①-1번 응답자만)** 귀하는 어떤 이유로 대학을 중도에 그만두었습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모두 √표 하십시오 (복수응답)** **응답 후 Q27. 문항으로 가세요**

- | | |
|---------------------------------|------------------------|
| 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 ② 낮은 학업성적 때문에 |
| ③ 취업했기 때문에 | ④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
| ⑤ 생활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 ⑥ 더 실질적인 취업 및 진로준비를 위해 |
| ⑦ 집안일(가사일, 가족돌보기 등)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 |
| ⑧ 대학이나 전공을 바꾸기 위해 재수를 하려고 | |
| ⑨ 기타(_____) | |

Q24. **(Q22의 ①-2번 응답자만)** 귀하는 대학을 다닐 때 총 몇 번 휴학을 하셨습니까?

- ① 1번 ② 2번 ③ 3번 이상

Q25. **(Q22의 ①-2번 응답자만)** 귀하의 총 휴학기간은 얼마입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2년 미만 ③ 2년-3년 미만 ④ 3년 이상

Q26. **(Q22의 ①-2번 응답자만)** 귀하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 휴학을 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기입해 주십시오.** 휴학을 한번만 했을 경우 (1) “첫 번째 휴학 사유” 란에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대학 휴학 사유	보 기
(1) 첫 번째 휴학 사유 ()	① 등록금이 없어서 ② 어학연수/해외 여행
(2) 두 번째 휴학 사유 ()	③ 편입학(또는 재수) 준비 ④ 취업준비(자격증, 고시준비)
(3) 세 번째 휴학 사유 ()	⑤ 생활비 마련 ⑥ 군입대
	⑦ 대학원 준비(유학 포함) ⑧ 인턴십(현장 경험)
	⑨ 건강상의 이유로 ⑩ 기타 _____

아르바이트와 취업준비 경험

Q27. 귀하는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Q27-1. 문항으로 가세요**
 ② 없다  **Q28. 문항으로 가세요**

Q27-1. **(Q27의 ①번 응답자만)**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② 학비를 벌기 위해서
 ③ 용돈이 부족해서 ④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
 ⑤ 호기심에 ⑥ 주위의 권유로
 ⑦ 기타 ()

Q27-2. **(Q27의 ①번 응답자만)**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귀하의 지금 또는 미래의 직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③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④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Q28. 아래와 같은 취업을 위한 준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모두 √표해 주세요

- (3) 직업탐색 · 흥미검사 ② 직업탐색 및 체험 프로그램

③ 직업훈련 ④ 자격증취득 (외국어능력시험 포함)

⑤ 입사면접훈련 ⑥ 해당사항 없음

⑦ 기타 ()

Q29. 직업을 찾거나 취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르바이트는 제외)

- ① 있다  Q30. 문항으로 가세요
- ② 없다  BQ1. 문항으로 가세요

Q30. **(Q29의 ①번 응답자만)** 직업을 구하고자 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우에 가장 가까운 번호에 $\sqrt{}$ 표 하십시오. **(취업을 한 경우에는 첫 직장을 얻을 때 경험했던
바를 염두에 두고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 시 어려움을 경험한 이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취업정보가 부족하여	①	②	③	④	⑤
2)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①	②	③	④	⑤
3) 경험이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⑤
4)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만 응답)	①	②	③	④	⑤
5)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하여	①	②	③	④	⑤
6) 외모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①	②	③	④	⑤
7)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아서	①	②	③	④	⑤
8) 근로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①	②	③	④	⑤
9) 기타_____					

기타 질문

※ 다음은 설문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BQ1. 귀하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학교와 일을 병행하는 경우 학생으로 응답)

- ① 취업  BQ1-1. 문항으로
- ② 학생(휴학생 포함)  BQ2. 문항으로
- ③ 취업준비/무직(전업주부 포함)  BQ2. 문항으로

BQ1-1. 귀하의 현재 취업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정규직 ② 임시직, 계약직
③ 일용직 ④ 고용원을 둔 사업주
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프리랜서 ⑥ 무급가사종사자
⑦ 기타 ()

BQ2. 귀하는 결혼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BQ3. 문항으로**
- ② 아니오(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다)  **BQ2-1. 문항으로**

BQ2-1. (BQ2의 ②번 응답자만) 귀하는 이성교제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현재 이성교제 중
- ② 현재는 아니지만 이성교제를 한 경험이 있다
- ③ 이성교제를 한 경험이 없다

BQ2-2. (BQ2의 ②번 응답자만) 귀하는 결혼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응답 후 BQ5. 문항으로 가세요)

- ① 결혼을 할 의향이 있다 ➡ 희망 결혼 연령 (만_____세)
- ② 결혼을 할 의향이 없다
- ③ 잘 모르겠다

BQ3. (BQ2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는 슬하에 자녀가 있습니까?

- ① 자녀가 있다  **BQ4. 문항으로**
- ② 자녀가 없다  **BQ3-1. 문항으로**

BQ3-1. (BQ3의 ②번 응답자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하는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다 ➡ 희망 출산 연령 (만_____세)
- ② 자녀를 낳을 의향이 없다
- ③ 잘 모르겠다

BQ4. 귀하는 현재 부모님(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부모님도 포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예  **BQ4-1. 문항으로**
- ② 아니오  **BQ4-2. 문항으로**
- ③ 기타 (_____)

BQ4-1. (BQ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는 부모님(또는 보호자)으로부터 가까운 미래에 분가할 의향이 있습니까?(응답 후 BQ5. 문항으로 가세요)

- ① 분가할 의향이 있다 ➡ 희망 분가 연령 (만_____세)
- ② 분가할 의향이 없다
- ③ 잘 모르겠다

BQ4-2. (BQ4의 ②번 응답자만) 귀하의 현재 주거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십시오.

- | | | |
|-------------------|-------|----------|
| ① 월세 | ② 전세 | ③ 본인소유 집 |
| ④ 하숙 | ⑤ 기숙사 | ⑥ 고시원 |
| ⑦ 기타(자세히) (_____) | | |

BQ5. 귀하의 부모님께서서는 어디까지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각각의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십시오.

부	① 중졸(고등학교 중퇴)	② 고졸(대학교 중퇴)	③ 대졸(대학원 중퇴)
	④ 대학원졸	⑤ 잘 모름	
모	① 중졸(고등학교 중퇴)	② 고졸(대학교 중퇴)	③ 대졸(대학원 중퇴)
	④ 대학원졸	⑤ 잘 모름	

BQ6. 귀하의 부모님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만약 은퇴하셨다면 은퇴 시 상태를 응답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십시오.

부	① 무직	② 전문/경영/관리직	③ 일반사무/기술/판매서비스직
	④ 농·축산업/어업/노무직	⑤ 기타 (_____)	
모	① 가사(전업주부)	② 전문/경영/관리직	③ 일반사무/기술/판매 서비스직
	④ 농·축산업/어업/노무직	⑤ 기타 (_____)	

BQ7. 귀하의 고등학교 때 학업성적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 | | |
|-----------|-----------|-----------|
| ① 매우 높은 편 | ② 높은 편 | ③ 중간 |
| ④ 낮은 편 | ⑤ 매우 낮은 편 | ⑥ 해당사항 없음 |

BQ8. 귀하와 가족 중에는 지역주민센터(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외부 사회봉사단체 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서비스(등록금, 생활비, 급식비, 후원금, 결연 후원 등)를 제공받은 적이 있습니까?

- | | | |
|------|------|----------|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잘 모르겠다 |
|------|------|----------|

BQ9. 한국사회를 경제적으로 0에서 10까지로 나눈다면, 현재 귀하의 가정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낮다'면 0, 가장 '높다'면 10 등 0에서 10 사이의 숫자 중 해당번호에 √표 하십시오.

낮다(아래)	중간이다										(위)높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 부모 설문지



ID

--	--	--	--

청년의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인식 연구 [부모세대용]

본 설문지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개인이나 단체의 비밀사항은 보호되며, 개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통계법(제3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원에서는 청년의 성인기로의 이행과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성인세대들의 인식과,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이행을 위한 준비도와 필요한 지원에 대한 욕구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설문문항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여러분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무기명(이름을 밝히지 않고)으로 처리되어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도 연구자외에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성의 있는 의견은 여러분을 위한 유익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실사진행기관
(조사 문의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국제전자센터 24층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연구담당] 사회여론조사본부 1팀 장호원 대리
[실사총괄] 실사팀 김은진 차장 ☎ 02)3488-2784 /Fax:02-586-8315

SQ1. 응답자 주소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SQ2. 거주 시도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SQ3. 도시 규모	① 대도시(7대도시) ② 중·소도시(동) ③ 읍·면 지역		
SQ4. 응답자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SQ5. 응답자 연령	살려지만, _____님의 올해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만 _____ 세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 - () - ()
면접 일시		면접원 성명	
검증 결과		검증원	

성인의 기준

Q1.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성인으로 인정 받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소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부모나 타인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①	②	③	④
2) 부모(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3) 학교교육을 마치는 것	①	②	③	④
4) 결혼	①	②	③	④
5) 최소한 한명의 자녀를 두는 것	①	②	③	④
6) 장기적으로 갖게 될 일을 시작하는 것	①	②	③	④
7) 주택 구입	①	②	③	④
8) 과음하지 않기	①	②	③	④
9) 불법적인 약물(마약)하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Q2.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성인으로 인정 받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소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안전하게 운전하고 과속하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2)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3) 임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임을 하는 것	①	②	③	④
4)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얽매이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5) 만18세가 되는 것	①	②	③	④
6) 만21세가 되는 것	①	②	③	④
7) 애인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8) 부모나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 스스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	①	②	③	④

Q3.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문항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성인으로 인정 받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소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남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2) 여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3) 남자의 경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4) 여자의 경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5) 여자의 경우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6) 남자의 경우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7) 키가 다 자란 것	①	②	③	④
8) 여자의 경우 신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9) 남자의 경우 신체적으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10) 남자의 경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11) 여자의 경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Q4.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성인으로 인정 받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소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①	②	③	④
2)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3) 성 경험이 있는 것	①	②	③	④
4) 전일제로 일자리를 갖는 것	①	②	③	④
5)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6) 공공기물을 파손하거나 줌독독질을 하지 않는 것	①	②	③	④
7) 성인으로서 부모와 동등한 관계를 갖는 것	①	②	③	④
8)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	①	②	③	④
9) 자기중심적인 면이 줄어들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커지는 것	①	②	③	④
10)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	①	②	③	④
11) 음주가 허용되는 것	①	②	③	④
12) 흡연이 허용되는 것	①	②	③	④
13) 남자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마치는 것	①	②	③	④

Q5.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Q6. 문항으로 가세요
-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Q6. 문항으로 가세요
- ③ 다소 중요하다  Q5-1. 문항으로 가세요
- ④ 매우 중요하다  Q5-1. 문항으로 가세요

Q5-1. (Q5의 ③, ④번 응답자만) 우리 사회에서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 ② 2-3년제 대학 졸업
- ③ 4년제 대학 졸업
- ④ 대학원 졸업

Q6. 귀하가 귀하의 자녀에게 희망하는 교육수준은 무엇입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 ② 2-3년제 대학 졸업
- ③ 4년제 대학 졸업
- ④ 석사학위 취득
- ⑤ 박사학위 취득

성인기 과업 수행시기

Q7. 다음은 귀하의 과거 성인기 이행 과업(교육, 취업, 결혼, 출산, 분가) 시기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연령대의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귀하가 과거에...	해당 사항 없음	만 19세~24세	만 25세~29세	만 30세~34세	만 35세~40세	만 40세~50세
1) 학교 교육을 끝낸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첫 취업(정규직)을 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결혼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첫번째 결혼)	①	②	③	④	⑤	
4) 첫 아이를 갖게 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독립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Q8. 다음은 **현재 청년들의** 바람직한 성인기 과업 이행시기를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의 성인기 과업 이행시기에 성별을 고려하여 √표해 주십시오.

바람직한 시기	만 19세~ 24세	만 25세~ 29세	만 30세~ 34세	만 35세~ 40세	만 40세~ 50세
1) 남자가 학교 교육을 끝내야 할 시기	①	②	③	④	⑤
2) 여자가 학교 교육을 끝내야 할 시기	①	②	③	④	⑤
3) 남자가 첫 취업을 해야 할 시기	①	②	③	④	⑤
4) 여자가 첫 취업을 해야 할 시기	①	②	③	④	⑤
5) 남자가 결혼해야 할 시기	①	②	③	④	⑤
6) 여자가 결혼해야 할 시기	①	②	③	④	⑤
7) 남자가 첫 아이를 가져야 할 시기	①	②	③	④	⑤
8) 여자가 첫 아이를 가져야 할 시기	①	②	③	④	⑤
9) 남자가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독립할 시기	①	②	③	④	⑤
10) 여자가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독립할 시기	①	②	③	④	⑤

경제적 지원

Q9. 다음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에 해당하는 항목에 √표 하십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자녀의 대학교육에 드는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②	③	④
2) 자녀가 결혼을 할 때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②	③	④
3)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②	③	④

기타 질문

※ 다음은 설문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BQ1.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기혼이면서 배우자 있음(재혼도 포함)
- ② 별거
- ③ 이혼
- ④ 사별
- ⑤ 기타 ()

BQ2. 귀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 ① 있다  **BQ2-1. 문항으로 가세요**
- ② 없다(전업주부 포함)  **BQ3. 문항으로 가세요**

BQ2-1. (BQ2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전문/경영/관리직
- ② 일반사무/기술/판매 서비스직
- ③ 농·축산업/어업/노무직
- ④ 기타 ()

BQ2-2. (BQ2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의 취업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정규직
- ② 임시직, 계약직
- ③ 일용직
- ④ 고용원을 둔 사업주
- 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프리랜서
- ⑥ 무급가족종사자
- ⑦ 기타 ()

BQ3. 귀하는 어디까지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각각의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십시오

- ① 중졸(고등학교 중퇴)
- ② 고졸(대학교 중퇴)
- ③ 대졸(대학원 중퇴)
- ④ 대학원졸
- ⑤ 잘 모름

BQ4. 귀하는 지역주민센터(동사무소), 사회복지관 등에서 경제적 지원 서비스(등록금, 생활비, 급식비, 후원금, 결연 후원 등)를 제공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잘 모르겠다

BQ5. 한국사회를 경제적으로 0에서 10까지로 나눈다면, 현재 귀하의 가정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낮다'면 0, 가장 '높다'면 10 등 0에서 10 사이의 숫자 중 해당번호에 √표 하십시오.

낮다(아래)	중간이다										(위)높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Abstract

Transition from Youth to Adulthood II : Comprehensive Report

This study is 2-year project and in the first year, we examined the demographic changes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nd the social and economic factors that are related to its changing patterns. We found that over the last few decades,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in the density and complexity of transition to adulthood in South Korea. Economic and social factors that are causing these changes include the expansion of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a decline in the youth labor market, and the increase in the labor participation of women. Major shifts including weaker normative controls on behavior and greater individualization are also related to the new patterns of transition to adulthood. The purpose of this year's study is to examine how Korean youth perceive their current status, the criteria that they have for adulthood and age norms for transition markers such as completion of schooling, entrance into the labor force, formation of partnerships, the onset of childbearing and parenting, and movement from parental household. In addition, of primary interest in the study is the generation comparisons in the criteria of adulthood and the age norms for the adult roles mentioned above. Through this effort, we intend to identify the values and beliefs regarding transition to adulthood and its changing patterns in South Korea.

One of the main concepts of this study is Arnett's 'emerging adulthood.' Emerging adulthood refers to a time period between adolescence and adulthood. According to Arnett, emerging adulthood is a period that exists only in cultures that postpone the entry into adult roles and responsibilities until well past the late teens. We explored whether the characteristics of emerging adulthood are relevant to applied for Korean youth and compared its findings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In addition,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evance of the Arnett's battery for Korean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emerging adulthood and the criteria for adulthood.

Policy recommendations are articulated in various areas including education, employment, housing, family, and social welfare that would help facilitate the transition to adulthood of Korean youth.

Key words: transition to adulthood, criteria for adulthood, emerging adulthood, age norm for adulthood, disadvantaged youth's transition to adulthood, gender difference in transition to adulthood, policy recommendations for facilitating transition to adulthood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1-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 평가편람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Ⅰ / 이기봉·김현철·윤혜순·송민경
- 11-R03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맹영임·조혜영·김민·김영호
- 11-R04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유진·김영지·김진호·이용교·조아미
- 11-R04-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소년공부방 현황보고서/ 이유진·김영지
- 11-R05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Ⅰ / 성윤숙·김영한
- 11-R05-1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Ⅱ : 한부모·조손가정을 중심으로 / 성윤숙·김영한
- 11-R06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 김기현·김창환
- 11-R07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Ⅱ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1-R0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Ⅱ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황진구·이해연·유성렬·박은미
- 11-R09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김경준·오해섭
- 11-R09-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의 지역사회참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김경준·오해섭
- 11-R09-2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측정 / 김경준·오해섭·정익중
- 11-R09-3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오해섭
- 11-R09-4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 훈련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오해섭
- 11-R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사업보고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 11-R1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Ⅱ 기초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활동참여 실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서우석
- 11-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임희진·김현신
- 11-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김현신·강현철
- 11-R12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윤철경·이민희·박선영·박숙경·신인순

- 11-R12-1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 연구 / 박숙경·김소희·오세정
- 11-R1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최창욱·임영식·이인재·박균열·박병기
- 11-R13-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감수성 / 박균열·홍성훈·서규선·한혜민
- 11-R13-2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판단력 / 이인재·김남준·김항인·류숙희·윤영돈
- 11-R13-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동기화 / 박병기·변순용·김국현·손경원
- 11-R13-4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Ⅰ : 도덕적 품성화 / 이인재·김남준·김항인·류숙희·윤영돈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 총괄보고서 / 안선영·김희진·박현준 (자체번호 11-R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 장미혜·정해숙·마경희·김여진 (자체번호 11-R21-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3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 취약위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 은기수·박건·권영인·정수남 (자체번호 11-R21-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김미숙·김지은·박정연 (자체번호 11-R2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이호근·김영문·정혜주 (자체번호 11-R2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Ⅰ : 2011 민주시민 역량실태 조사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3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Ⅰ :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 김태준·이영민 (자체번호 11-R23-2)

수 시 과 제

- 11-R14 창업·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한국-핀란드 비교연구 / 안선영·김희진
- 11-R15 한·중·일·미 교교생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 / 이경상·임희진·김진숙
- 11-R16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권일남·최창욱

- 11-R17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 / 황옥경 · 김영지
- 11-R18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 이유진 · 조윤오
- 11-R19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 이기봉 · 권순용 · 박일혁
- 11-R20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방안 연구 / 김기현 · 맹영임

수 탁 과 제

- 11-R25 청소년정책평가분석센터 / 김기현 · 최창욱 · 김형주
- 11-R26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윤철경 · 오해섭
- 11-R27 청소년 동아리활동 인증방안 연구 / 맹영임 · 조남익 · 손의숙
- 11-R28 2011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 보고서 / 김영지 · 김경준 · 성윤숙 · 이창호
- 11-R29 2011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29-1 2011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시설별 개별 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30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김승경
- 11-R31 장애청소년 대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유명화
- 11-R32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 · 조혜영
- 11-R32-1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개발 연구 / 양계민 · 조혜영
- 11-R3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시범사업 운영매뉴얼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3-1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사례집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4 학교부적응(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 윤철경 · 최인재 · 김윤나
- 11-R35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매뉴얼 개발 / 안선영 · 최창욱
- 11-R36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 개발 / 이유진 · 김영한 · 김형모
- 11-R37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조혜영 · 양계민 · 김승경
- 11-R38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 이경상 · 김기현 · 김가람
- 11-R39 미래세대 가치관 분석 및 대응방안 / 임희진 · 백혜정
- 11-R40 '공정사회 실현' 교교생 논술대회 / 오해섭
- 11-R41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 · 임희진 · 장근영 · 김혜영 · 황옥경
- 11-R42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 최창욱 · 김영지
- 11-R43 2011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 / 박수익 · 장근영 · 김형주
- 11-R44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안 연구 / 김희진 · 이해연 · 황옥경 · 이용교
- 11-R45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운영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11-R45-1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 · 오해섭 · 모상현 · 천정웅 · 김지혜 · 김명화 · 오정아 · 박경현 · 방진희
- 11-R45-2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김세광 · 박선영 · 유가예
- 11-R45-3 멘토링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 · 김경준 · 오해섭 · 박정배 · 진은설

- 11-R46 성인·청소년 세대 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6-1 청소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7 소년보호시설 인권상황 관련 의식조사 / 이유진
- 11-R4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장기종단 효과성연구Ⅱ / 장근영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1-S01 Becoming an Adult in South Korea(3/7)
- 11-S02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방안 워크숍(3/18)
- 11-S03 동기이론의 최근 경향(4/6)
- 11-S04 통계조사에서 무응답 문제와 가중치 작성(4/14)
- 11-S05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4/22)
- 11-S06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의 의의와 방안 탐색(4/25)
- 11-S07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4/28)
- 11-S08 2010 고유과제 연구 성과 발표 자료집(5/13)
- 11-S09 Youth's Perception on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5/12)
- 11-S10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관련 논의의 초점들(5/19)
- 11-S11 아동·청소년 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교육종단연구 2010(5/25)
- 11-S12 아동·청소년 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시 복지패널조사(6/2)
- 11-S1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및 지표체계 정립(5/25)
- 11-S14 사회복지시설인증제 도입방향 및 경과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방안을 위한 시사점 모색(5/27)
- 11-S15 방과후 서비스 현황과 종단조사(5/25)
- 11-S16 다문화 종단 연구 패널 연구 방법론 I (6/15)
- 11-S17 해외 평가 동향(6/20)
- 11-S18 청소년공부방 현장실사위원 워크숍(6/20)
- 11-S19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워크숍 II (6/24)
- 11-S20 학교문화선도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6/24)
- 11-S21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 (6/29)
- 11-S22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I (7/11)
- 11-S2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콜로키움 자료집Ⅱ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방안(7/28)
- 11-S24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개과정과 현황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모색(8/9)
- 11-S25 2011년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2010 데이터분석 방법론 세미나 자료집(8/30)
- 11-S26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워크숍 자료집 : 시범사업 중간발표 및 워크숍(8/18, 19)

- 11-S27 청소년수련관 인증제 도입 방안(9/1)
- 11-S28 청소년문화의 집 인증제 도입 방안(9/2)
- 11-S29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 대안 관련 워크숍(9/19,20)
- 11-S30 국내외 청소년 도덕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현황과 사례(9/9)
- 11-S3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9/28,29)
- 11-S32 한중 관계의 미래: 한국과 중국 청년의 한중 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할 강화방안 한·중 국제 세미나(9/22)
- 11-S33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워크숍(9/30)
- 11-S3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10/12)
- 11-S35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10/17)
- 11-S36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11/1,2)
- 11-S37 청소년 활동개념 재정립에 관한 정책 세미나(10/26)
- 11-S38 2011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북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정책방향(10/27)
- 11-S39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4)
- 11-S4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11/4)
- 11-S4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콜로키움 자료집(11/2)
- 11-S42 미래세대 가치관 대응 방안(12/1)
- 11-S43 2011 한·중 청소년 정책 세미나
청소년 우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청소년 우선개발의 이념과 행동 (12/6)
- 11-S44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개발 성과보고회 및 '12년 시범사업 설명회(12/9)
- 11-S45 멘토링 운영 매뉴얼 및 교재 개발 연구 세미나(12/9)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6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2호(통권 제6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3호(통권 제6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4호(통권 제63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 · 길은배 · 김 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중 · 이명옥 · 이은경 · 최순종 · 김영지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 · 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 장근영 · 임영식 · 정경은 · 조아미 · 정재현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율 · 김지수 · 김영희

기타 발간물

- NYPI YOUTH REPORT 12호 : 창의적 체험 활동(2010년12월)
- NYPI YOUTH REPORT 13호 : 소년원 교육 효과성 개선 방안(8월)
- NYPI YOUTH REPORT 14호 : 청소년 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8월)
- NYPI YOUTH REPORT 15호 :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9월)
- NYPI YOUTH REPORT 16호 :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개선방안 (9월)
- NYPI YOUTH REPORT 17호 :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18호 : 방화후돌봄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10월)
- NYPI YOUTH REPORT 19호 :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0호 :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1호 :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실태 조사(11월)
- NYPI YOUTH REPORT 22호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발전방안(11월)
- NYPI YOUTH REPORT 23호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발달권, 참여권(11월)
- NYPI YOUTH REPORT 24호 : 청소년의 가족의식·가정생활 실태조사(11월)

연구보고 11-R2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 총괄보고서

인 쇄 2011년 12월 21일

발 행 2011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2001. 8. 24. 제13-726호

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02-2272-1767 대표 김방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대외협력·학술정보팀)

ISBN 978-89-7816-980-6

ISBN 978-89-7816-979-0(세트)

